www.cha.go.kr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2. 12

목 차

제1장 생생 문화재 사업

제1절 :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2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8

제2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제1절 : 성과모니터링 목적 및 필요성 14

제2절 : 성과모니터링 연구 내용 15

제3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지침 21

제4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기준안 28

제3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

제1절 : 총평 34

제2절 : 현장모니터링 결과 42

제3절 :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53

제4절 :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61

제5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우수사례 72

제4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우수사업)

제1절 서울 광진구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65

제2절 서울 도봉구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 – 도봉서원(道峯書院) 生生사업 73

제3절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81

제4절 부산 서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89

제5절 광주 광산구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97

제6절 대전 나는 성주다. 산성 톡, talk. 105

제7절 경기도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115

제8절 강원 원주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123

제9절 강원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133

제10절 충북 괴산군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 141

제11절 충북 영동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151

제12절 충북 청주시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161

제13절 충남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169

제14절 전북 김제시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179

제15절 전남 화순군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189

제16절 전남 진도군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197
제17절 경남 하동군 하동 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체험 하기 207

제5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시범사업)
제1절 서울 동작구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 사육신묘(死六臣墓)와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 219
제2절 대구 달서구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낙동서원을 중심으로) 229
제3절 대전 “야”신난다 택견과 놀고 나니 몸짱 되었네! 239
제4절 울산 동구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249
제5절 경기도 소풍, 열차 타고 유리시아 대륙으로 ! 259
제6절 경기 고양시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269
제7절 경기 군포시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281
제8절 강원 원주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291
제9절 충남 공주시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체험 303
제10절 전남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315
제11절 경북 경산시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327
제12절 경남 남해군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335
제13절 제주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 345

제6장 생생 문화재 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 및 개선 사항 358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위한 제안 384

제7장 부록
제1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목록 399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세부 프로그램 460
제3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및 수행단체 주소록 556

표 목 차

[표1]	생생 문화재 사업 로고, 리플렛	2
[표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	6
[표3]	성과모니터링 대상 목록	22
[표4]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일정	23
[표5]	현장모니터링 추진 경과	24
[표6]	현장모니터링 지표	27
[표7]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양식	31
[표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31
[표9]	관람객 만족도조사표	32
[표1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성과 집계	363
[표1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집계표	365
[표12]	지자체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369
[표1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예산 매칭 비율	371
[표14]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지원 현황	374
[표15]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유료 프로그램 참가비 규모	375
[표16]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총 투입 금액	377
[표17]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총 파급효과	378
[표18]	생생 문화재 사업 총 고용 파급효과	378
[표19]	생생 문화재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집계표	379

그 림 목 차

[그림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유형	2
[그림2]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건수 대비 선정 건수 추이	3
[그림3]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추이	3
[그림4]	2008~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역별 선정 건수	4
[그림5]	2008~2012년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 비율	5
[그림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별 건수	5
[그림7]	2009~2012년 프로그램 유형별 신청 비율	7
[그림8]	2009~2012년 프로그램 유형별 선정 비율	7
[그림9]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 현황	8
[그림1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9
[그림11]	성과모니터링 연구 핵심 과제	15
[그림12]	성과모니터링 연구 관점	15
[그림13]	성과모니터링 연구 절차와 방법	16
[그림14]	성과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18
[그림15]	성과모니터링 결과공유 워크숍	19
[그림16]	성과모니터링 평가 방법	34
[그림17]	성과모니터링 평균 점수	34
[그림18]	현장모니터링 평균 점수	38
[그림19]	현장모니터링 지표 구성	39
[그림20]	현장모니터링 지표별 평균 점수	40
[그림21]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평균 점수	44
[그림22]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지표	45
[그림23]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지표별 평균 점수	46
[그림24]	관람객 만족도조사 평균 점수	48
[그림25]	관람객 만족도조사 지표	49
[그림26]	관람객 만족도조사 지표별 평균 점수	50
[그림27]	관람객 만족도조사 세부 지표별 평균 점수	50
[그림28]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연령별	51
[그림29]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지역별	52
[그림30]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참가목적별	52
[그림31]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동행자별	53
[그림32]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홍보 관련	53

그 림 목 차

[그림33]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정보 통로 54
[그림34] 지자체 사업지원 우수사례 – 울산 동구, 강원 횡성군 55
[그림35]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우수사례 -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경기(남한산성) 56
[그림36] 주민 참여 우수사례 – 제주, 전남 나주, 충북 괴산 57
[그림37] 지역 인력 연계 및 양성 우수사례 – 강원 원주, 서울 동대문구 58
[그림38] 사업의 자생력 강화 및 추진체계 마련 – 광주 광산구, 대전(산성) 58
[그림39] 신규 발굴 우수 프로그램 – 전남 나주, 경기 고양 59
[그림40] 절기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우수사례 – 경기 군포, 강원 원주 60
[그림41]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경기(남한산성), 광주 광산구 60
[그림42]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61
[그림4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67
[그림44] 현장 이미지 - 서울 광진구 70
[그림4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71
[그림46]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71
[그림47] 현장 이미지 - 서울 광진구 72
[그림48]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75
[그림49] 현장 이미지 –서 울 도봉구 78
[그림50]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79
[그림51]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79
[그림52] 현장 이미지 – 서울 도봉구 80
[그림5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83
[그림54]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85
[그림5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86
[그림56]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86
[그림57]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87
[그림58]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88
[그림5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부산서구 91
[그림60] 현장 이미지 – 부산 서구 93
[그림61]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부산 서구 94
[그림62]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부산 서구 94
[그림63] 현장 이미지 – 부산 서구 95
[그림64]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99

그 림 목 차

[그림65]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101
[그림66]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102
[그림67]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102
[그림68]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103
[그림69]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104
[그림70]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107
[그림71]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110
[그림72]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111
[그림73]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111
[그림74]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112
[그림75]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113
[그림7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117
[그림77]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120
[그림78]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120
[그림79] 현장 이미지 – 경기(남한산성) 121
[그림80] 현장 이미지 – 경기(남한산성) 121
[그림81]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25
[그림82]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28
[그림83]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29
[그림84]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29
[그림85]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30
[그림86]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131
[그림87]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군 135
[그림88]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군 138
[그림89]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군 138
[그림90] 현장 이미지 – 강원 횡성군 139
[그림91] 현장 이미지 – 강원 횡성군 140
[그림9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군 143
[그림93]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군 146
[그림94]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군 147
[그림95]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군 147
[그림96]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군 148

그 림 목 차

[그림97]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군 149
[그림98]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군 150
[그림9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군 153
[그림100]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군 155
[그림101]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군 156
[그림102]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군 156
[그림103]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군 157
[그림104]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군 158
[그림105]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군 159
[그림10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시 163
[그림107]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시 165
[그림108]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시 166
[그림109]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시 166
[그림110]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시 167
[그림111]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시 168
[그림11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남 아산시 171
[그림113]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시 173
[그림114]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남 아산시 174
[그림115]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충남아산시 174
[그림116]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시 175
[그림117]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시 176
[그림118]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시 177
[그림11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북 김제시 181
[그림120]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북 김제시 184
[그림121]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전북김제시 184
[그림122]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시 185
[그림123]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시 186
[그림124]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시 187
[그림125]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시 188
[그림12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군 191
[그림127]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시 193
[그림128]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군 194

그 림 목 차

[그림129]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군 194
[그림130] 현장 이미지 – 전남 화순군 195
[그림131] 현장 이미지 – 전남 화순군 196
[그림13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군 199
[그림133]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군 201
[그림134]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군 202
[그림135]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군 202
[그림136]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군 203
[그림137]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군 204
[그림138]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군 205
[그림13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209
[그림140]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212
[그림141]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212
[그림142]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213
[그림143]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214
[그림144]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215
[그림145]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221
[그림146]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223
[그림147]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224
[그림148]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224
[그림149] 현장 이미지–서울 동작구 225
[그림150] 현장 이미지–서울 동작구 226
[그림151] 현장 이미지–서울 동작구 227
[그림152] 현장 이미지–서울 동작구 228
[그림15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231
[그림154]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234
[그림15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235
[그림156]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235
[그림157]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236
[그림158]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237
[그림15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241
[그림160]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243

그 림 목 차

[그림161]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244
[그림162]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244
[그림163]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245
[그림164]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246
[그림165]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247
[그림16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251
[그림167]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253
[그림168]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254
[그림16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254
[그림170]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255
[그림171]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256
[그림172]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257
[그림17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261
[그림174]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264
[그림17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265
[그림176]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265
[그림177]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266
[그림178]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267
[그림17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271
[그림180]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74
[그림181]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275
[그림182]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275
[그림183]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76
[그림184]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77
[그림185]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78
[그림186]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79
[그림187]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280
[그림188]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 군포시 283
[그림189]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285
[그림190]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 군포시 286
[그림191]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 군포시 286
[그림192]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287

그 림 목 차

[그림193]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288
[그림194]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289
[그림195]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290
[그림19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3
[그림197]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6
[그림198]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7
[그림199]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7
[그림200]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8
[그림201]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299
[그림202]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300
[그림203]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301
[그림204]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305
[그림205]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08
[그림206]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309
[그림207]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309
[그림208]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10
[그림209]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11
[그림210]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12
[그림211]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13
[그림212]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314
[그림21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나주시 317
[그림214]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0
[그림21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나주시 321
[그림216]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나주시 321
[그림217]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2
[그림218]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3
[그림219]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4
[그림220]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5
[그림221]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326
[그림22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329
[그림223] 현장 이미지 – 경북 경산시 332
[그림224]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333

그 림 목 차

[그림225]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333
[그림226] 현장 이미지 – 경북 경산시 334
[그림227]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337
[그림228]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339
[그림229]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340
[그림230]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340
[그림231]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341
[그림232]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342
[그림233]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343
[그림234]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344
[그림235]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제주 347
[그림236] 현장 이미지 – 제주 350
[그림237]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제주 351
[그림238]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제주 351
[그림239] 현장 이미지 – 제주 352
[그림240] 현장 이미지 – 제주 353
[그림241] 현장 이미지 – 제주 354
[그림242] 현장 이미지 – 제주 355
[그림24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 분석 체계 358
[그림244]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활용 범위의 확대 359
[그림245]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사업의 자생력, 추진역량 강화 359
[그림24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교류 프로그램의 등장 360
[그림247]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통합 홍보 지원 361
[그림248]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진행 362
[그림249]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지표 체계 364
[그림25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진행 횟수 367
[그림25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자 수 367
[그림25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 인력 수 368
[그림25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자원봉사자 및 주민 수 368
[그림254]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신청 건수 추이 369
[그림255] 지자체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370
[그림25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예산 매칭 비율 371

그 림 목 차

[그림257]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와 선정률 372
[그림258]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건수 및 신규 사업 수와 비율 372
[그림259] 유료 프로그램 비율 376
[그림26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유료 프로그램 참가 수익 그래프 376
[그림26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비의 인건비 비율 376
[그림262] 생생 문화재 사업 투입 금액 대비 총 파급효과 그래프 378
[그림263]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고용 파급효과 379
[그림264] 문화예술공연(전체)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0
[그림265] 문화예술공연(전체) 고용 파급효과 380
[그림266] 인쇄 및 복제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0
[그림267] 인쇄 및 복제업 고용 파급효과 380
[그림268] 도·소매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1
[그림269] 도·소매업 고용 파급효과 381
[그림270] 식음료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1
[그림271] 식음료업 고용 파급효과 381
[그림272] 숙박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2
[그림273] 숙박업 고용 파급효과 382
[그림274] 차량 임대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2
[그림275] 차량 임대업 고용 파급효과 382
[그림276] 문화예술공연(부분)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383
[그림277] 문화예술공연(부분) 고용 파급효과 383
[그림278] 생생 문화재 사업 발전 제안 384
[그림279]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단계의 학습 과정화 제안 385
[그림280]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체계 정비 제안 386
[그림281] 생생 문화재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예시 387
[그림282] 발굴 – 추천 – 선정 체계 구축 387
[그림283]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 역량 강화 제안 388
[그림284]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제안 389
[그림285]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389
[그림286] 타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 제안 390
[그림287]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홈페이지 지원 제안 391
[그림288]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홈페이지 운영 예시 392

그 림 목 차

[그림289]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홍보 지원 제안 393

[그림290] 생생 브랜드 강화 – 우수 프로그램 인증 예시 394

[그림291] 평가 시스템의 재정비 제안 397

제1장

생생 문화재 사업

제1절 :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 생생 문화재 사업

□ 생생 문화재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교육·관광 자원으로 적극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존역량'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문화재청의 사업임.

생생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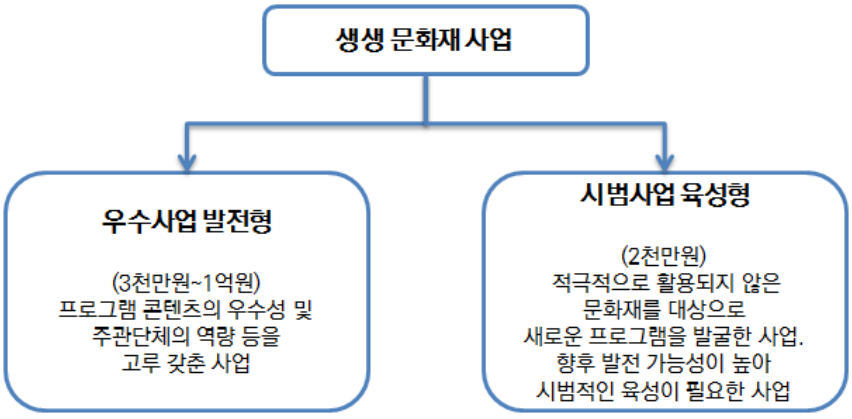
[표 1] 생생 문화재 사업 로고, 리플렛

2. 생생 문화재 사업의 목적

□ 지자체 및 각 지역의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함.

□ '문화유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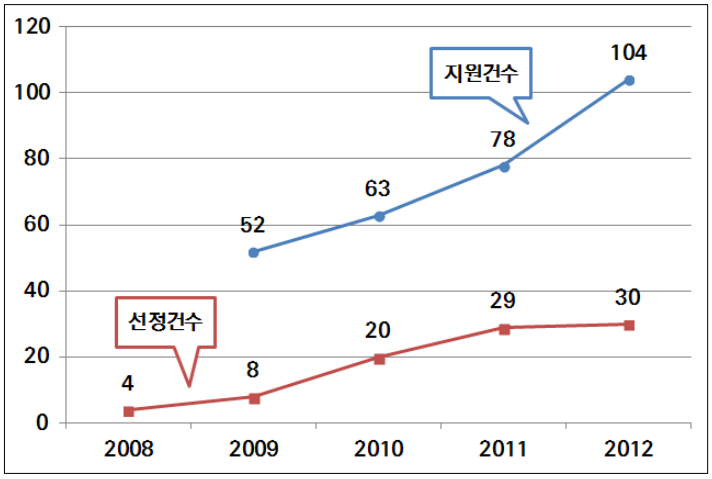
3. 사업의 추진 방향



[그림 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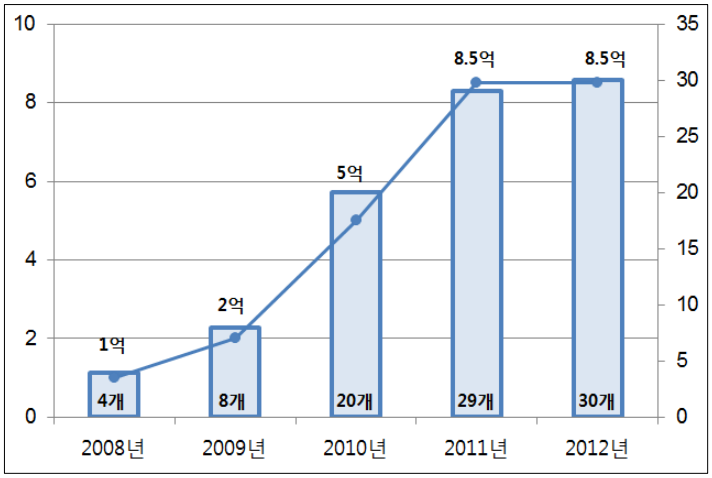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별 특화된 문화유산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함.
- 보다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시범사업 육성형, 우수사업 발전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특성별 지원을 차등화함.
- 홍보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함.
- 이를 위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 사업 홍보 지원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함.

4.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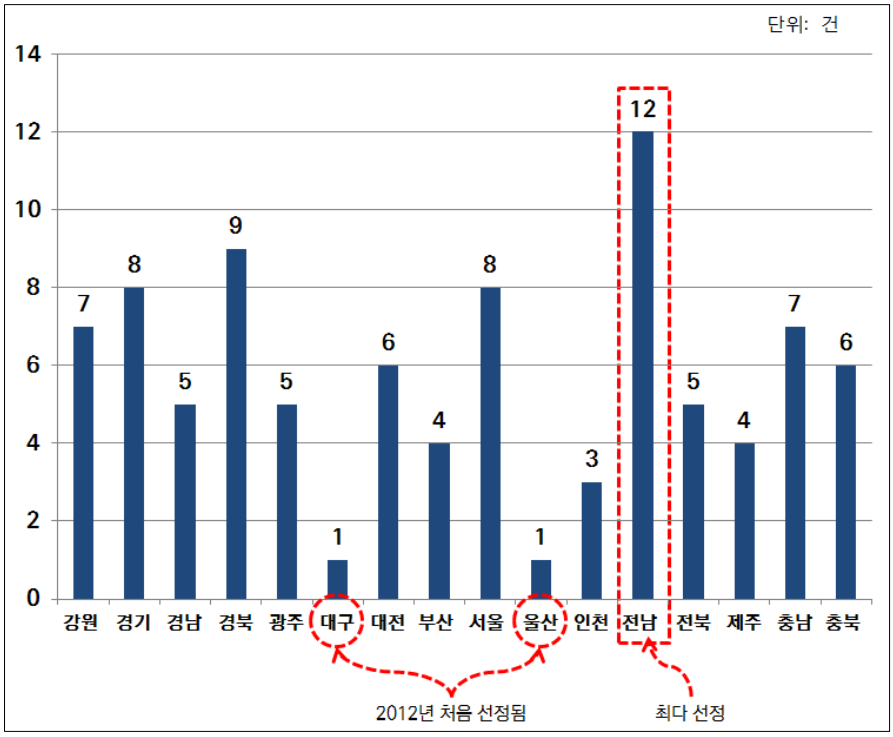
[그림 2]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건수 대비 선정 건수 추이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300여 건의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신청이 있었으며, 지난 5년간 총 91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음. 평균 28.4%의 선정률을 보임.



[그림 3]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추이

□ 생생 문화재 사업은 2008년에 4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9년 8개의 사업에 총 2억 원, 2010년 20개 사업에 총 5억 원, 2011년 29개 사업에 총 8.5억 원, 2012년 30개 사업에 총 8.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25억 원이 지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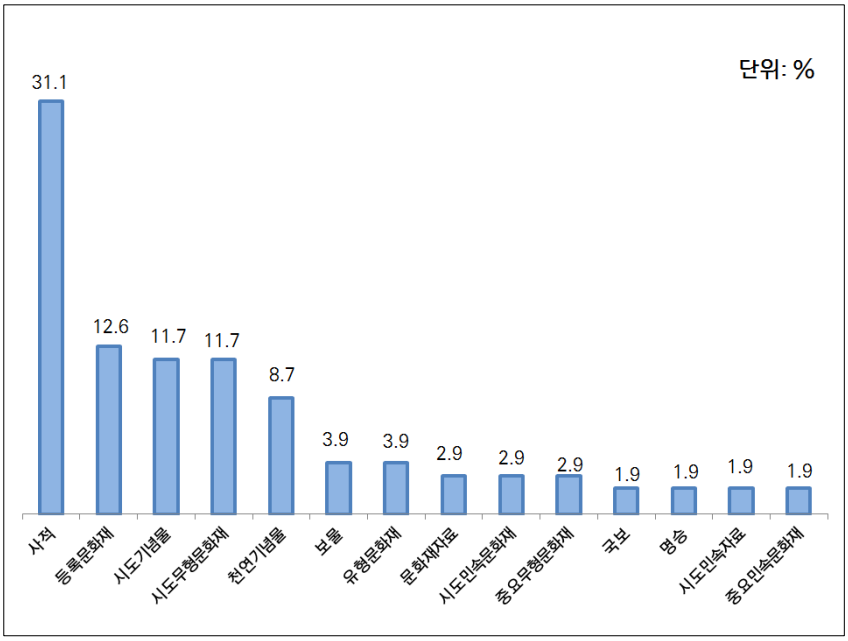
[그림 4] 2008년~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역별 선정 건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역별 선정 건수를 보면 전남이 총 12건으로 전체 91건 중 13%를 차지함. 16개의 전국 광역시·도가 모두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구와 울산 지역은 2012년에 처음 사업이 선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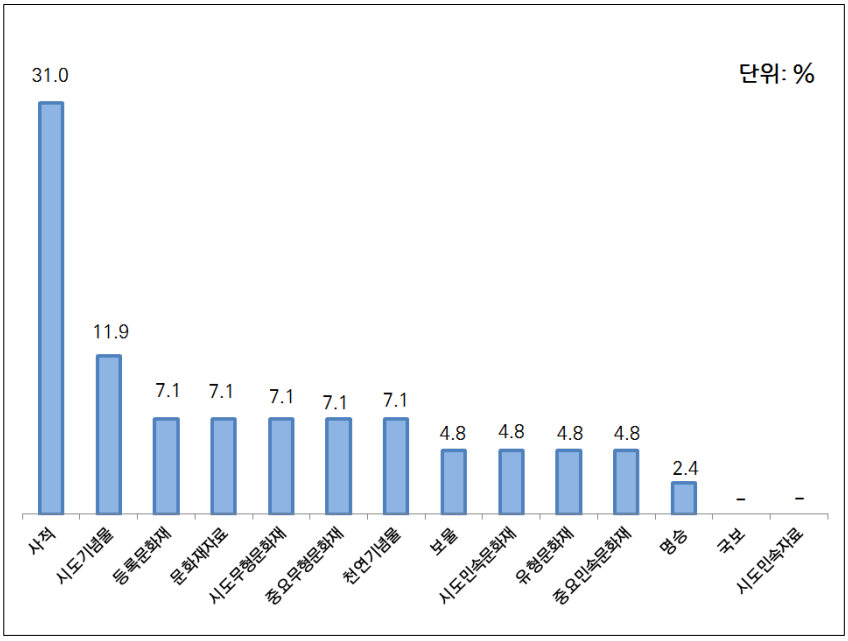
□ 2011년까지는 전남과 경북의 선정률이 높았으며, 2012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4건씩 선정되었음.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별 주요 대상 문화재를 보면, '사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등록문화재(12.6%), 시도기념물(11.7%), 시도무형문화재(11.7%), 천연기념물(8.7%) 순으로 나타남.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은 '사적'을 대상 문화재로 한 사업이 31.0%로 나타났으며, 시도기념물(11.9%),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각각 7.1%, 보물, 시도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각각 4.8%로 뒤를 이음. 2012년에는 국보와 시도민속자료를 활용한 사업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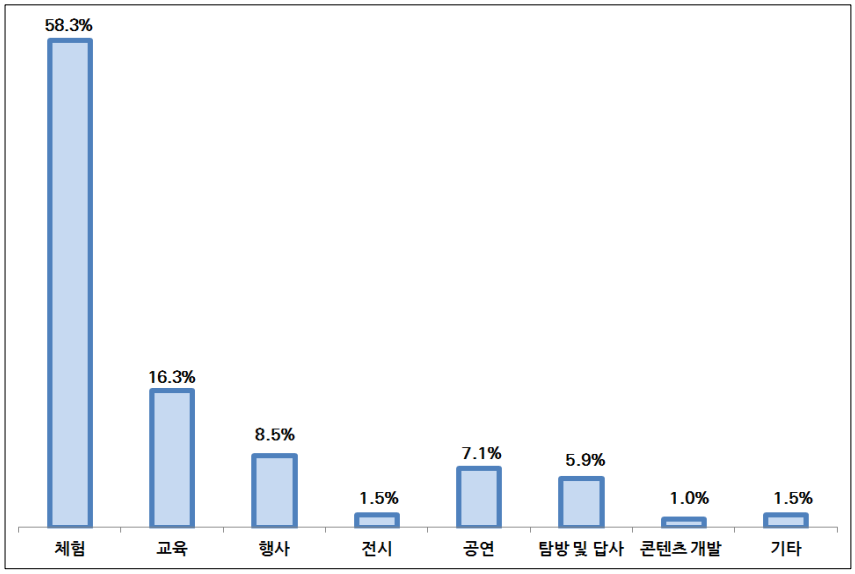
[그림 5] 2008~2012년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 비율



[그림 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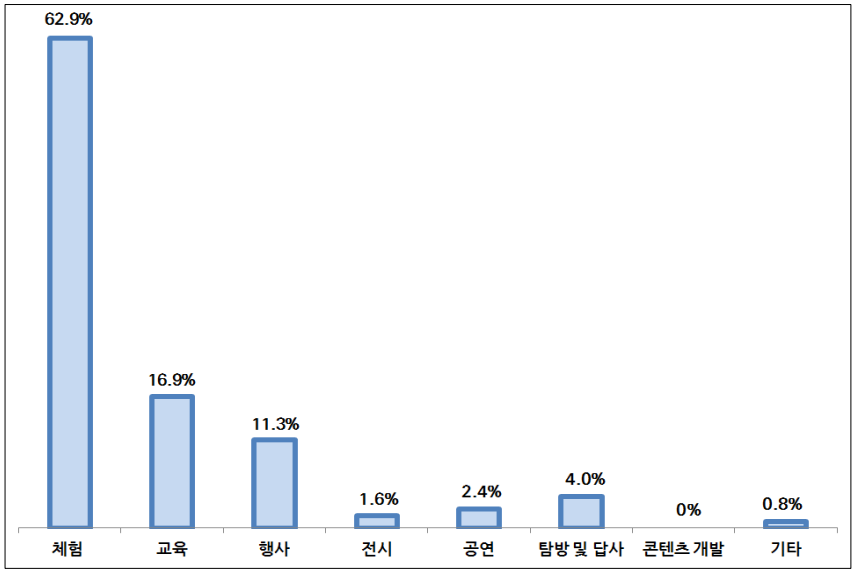
지자체	사업명	문화재종목
강원 원주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유형문화재
강원 원주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시도무형문화재
강원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시도무형문화재
경기 고양시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사적
경기 군포시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문화재자료, 시도기념물
경기도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사적
경기도	소풍, 열차 타고 유리시아 대륙으로 !	등록문화재
경남 남해군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명승
경남 하동군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체험 하기	천연기념물, 사적
경북 경산시	1600년 전'압독국'으로의 여행	사적
광주 광산구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시도기념물
대구 달서구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 (낙동서원을 중심으로)	보물
대전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 톡, talk.	사적, 시도기념물
대전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 나니 몸짱 되었네!	중요무형문화재
부산 서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등록문화재
서울 광진구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사적
서울 도봉구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 문화 – 도봉서원(道峰書院) 生生사업	시도기념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서울 동작구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	유형문화재
울산 동구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등록문화재
전남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전남 진도군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시도무형문화재
전남 화순군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시도기념물, 문화재자료
전북 김제시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사적, 시도민속문화재
제주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	중요무형문화재
충남 공주시	'1,500년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체험	사적
충남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시도민속문화재, 사적
충북 괴산군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	사적
충북 영동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천연기념물
충북 청주시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사적

[표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종목



[그림 7] 2009~2012년 프로그램 유형별 신청 비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프로그램 유형별 신청 비율을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유형이 16.3%, 행사 8.5%, 공연 7.1%, 탐방 및 답사 유형이 5.9%로 나타남.



[그림 8] 2009~2012년 프로그램 유형별 선정 비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프로그램 유형별 선정 비율을 보면 체험 유형이 62.9%, 교육 프로그램이 16.9%, 행사 1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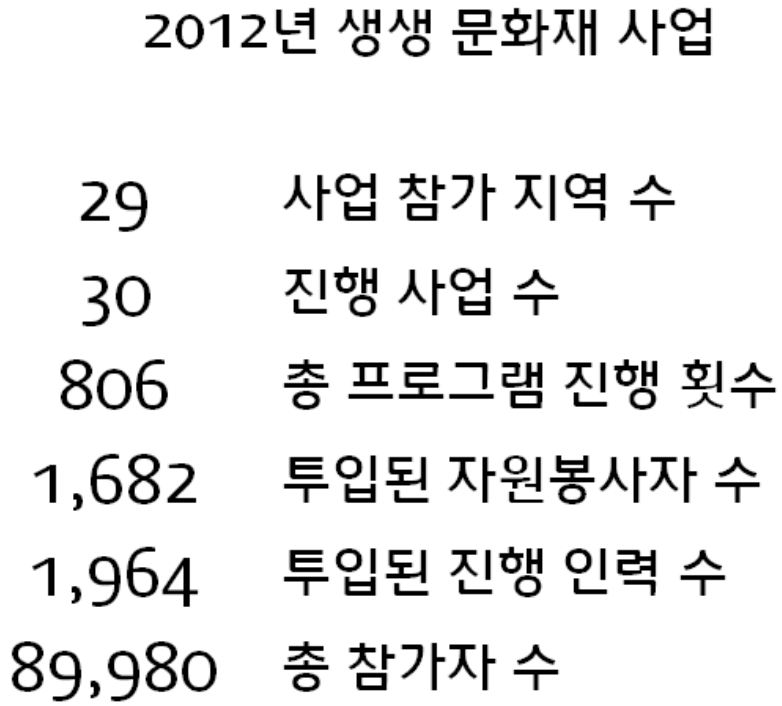
제2절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나. 사업 예산: 8.5억 원(자치단체 경상보조)
다. 사업 기간: 2012년 1월 ~ 12월
라. 지원 사항: 예산 지원 / 운영 지원

- 예산 지원: 사업 심사를 통해 시범사업 육성형과 우수사업 발전형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육성형은 2천만 원, 우수사업 발전형은 3천만 원~1억 원을 지원함.
- 운영 지원: 워크숍 개최,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자문, 홍보 지원(통합 홈페이지 운영, 홍보영상물과 리플렛 제작 등), 우수사업 공로자에 대한 문화재청장 표창 수여, 문화재청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등을 지원함.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현황



[그림 9]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 현황

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그림 1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4.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사업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광역시·도에서 소속 시·군·구 취합 제출함.

☐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 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하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함.

☐ 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함.

나. 신청 대상 사업

☐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 활용 사업

☐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선정 제외 사업

-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 위주의 축제 사업
- 문화재의 단순한 공개나 복원·정비 사업
- 문화재의 이미지와 원형 보존에 무정적인 우려가 있는 사업
-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타 국가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5. 사업 지원 유형

□ '우수사업 발전형'과 '시범사업 육성형'으로 이원화하여 차등 지원함.

가. 우수사업 발전형(3천만 원 ~ 1억 원)

□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을 지칭함.

□ 문화재 유형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3~4개 사업을 선정함.

- 유형문화재 분야(형체 기준, 국가 지정·시도 지정 포함)
- 무형문화재 분야
- 천연기념물 분야
- 융복합형 분야

□ 3천만 원~1억 원의 범위에서 사업 내용, 콘텐츠의 우수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함.

나. 시범사업 육성형(2천만 원)

□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사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인 육성이 필요한 사업을 지칭함.

□ 해당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적이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향후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가 갖춰진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6. 사업 운영의 틀

가. 사업 컨설팅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전 설명회, 우수 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연수 실시,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함.

□ 전문 모니터링 및 사업 컨설팅을 실시함.

- 문화재 활용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현장 자문을 실시함.
- '시범사업 육성형'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존 우수사업 사례 연수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함.

나. 사업 홍보 및 행정 지원체계 마련

□ ‘생생 문화재 사업’ 통합 홈페이지 개선(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교육부 창의·인성교육넷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등 다양한 사업 홍보 운영을 지원함.

□ 5개 내외의 우수사업 공로자에 대하여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여함.

제2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제1절 : 성과모니터링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 성과모니터링 연구 내용

제3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지침

제4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기준안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1절 성과모니터링 목적 및 필요성

1.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 문화유산 활용정책은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문화다양성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책임.

□ 지금까지 고궁의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 명소화, 문화재 관광 상품 개발, 지역문화축제 관광자원화,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사업 등이 진행되어 옴.

□ 2008년부터 시작된 생생 문화재 사업은 다양하고 감성적이며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층 진일보한 문화재 활용 정책으로서 2011년까지 61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2년 30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은 그동안 성과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원·자문하는 컨설팅을 실시해왔음. 특히, 올해로 5년째를 맞는 2012년에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지원체계의 질적 발전 등이 전략적으로 요구되었음.

□ 사업 운영 햇수를 더해감에 따라 창의적 방식으로 문화재를 활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 역사·생태 탐방형, 문화·역사 체험형, 체류 관광형, 공연·축제형, 전시·공모형, 인력 양성형 등이 기획되어 추진되었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공 사례화를 위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2. 성과모니터링 필요성 및 목적

□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성과모니터링 용역의 세부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문화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보존 및 지역의 관련 단체의 활용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의 현장 방문 모니터링과 컨설팅 수행
- 둘째, 예산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의 운영 관리 차원에서 30개 선정 사업의 객관적 평가
- 셋째, 정책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 기획 차원에서, 사업 운영의 개선 전략 및 우수사례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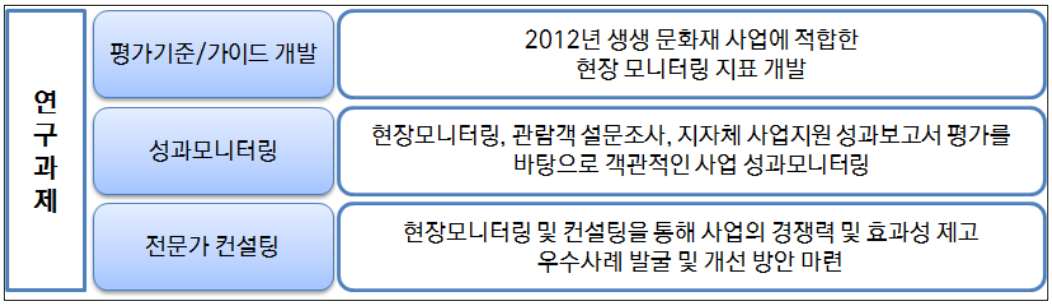
□ 이에 근거하여,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2012년도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둘째,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한 2012년도 추진 사업의 경쟁력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셋째, 1년간의 전반적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기획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제2절 성과모니터링 연구 내용

1. 연구 핵심 과제

□ 평가 연구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실행 지원의 성격 모두를 포괄하는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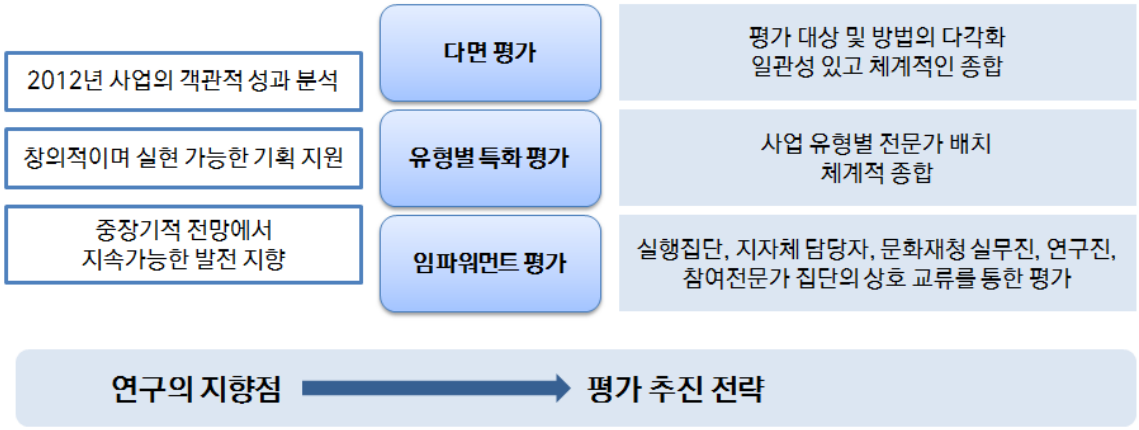


[그림 11] 성과모니터링 연구 핵심 과제

2. 연구 관점과 추진 전략

□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의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지향점에서 사업에 접근함.

- 첫째, 수립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올해 사업의 성과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함.
- 둘째, 수준을 갖춘 창의적 기획력과 감각이 있는 문화기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기획을 지원함.
- 셋째, 가시적 정책성과의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과 중장기적 전망에 따른 발전 전략을 제안함.



[그림 12] 성과모니터링 연구 관점

가. 다면평가

- 연구진과 평가 참여 전문가 뿐 아니라,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와 수행단체, 문화재청 담당 실무자 등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평가의 대상을 다각화함.
-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정량적 방식의 지표 평가와 정성적 관찰 평가, 관람객 대상의 설문조사,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 보고서의 서면 평가 등 평가 측정 방식을 다각화함.
- 다양한 방식으로 얻어진 평가 자료들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집계하여 종합 평가 결과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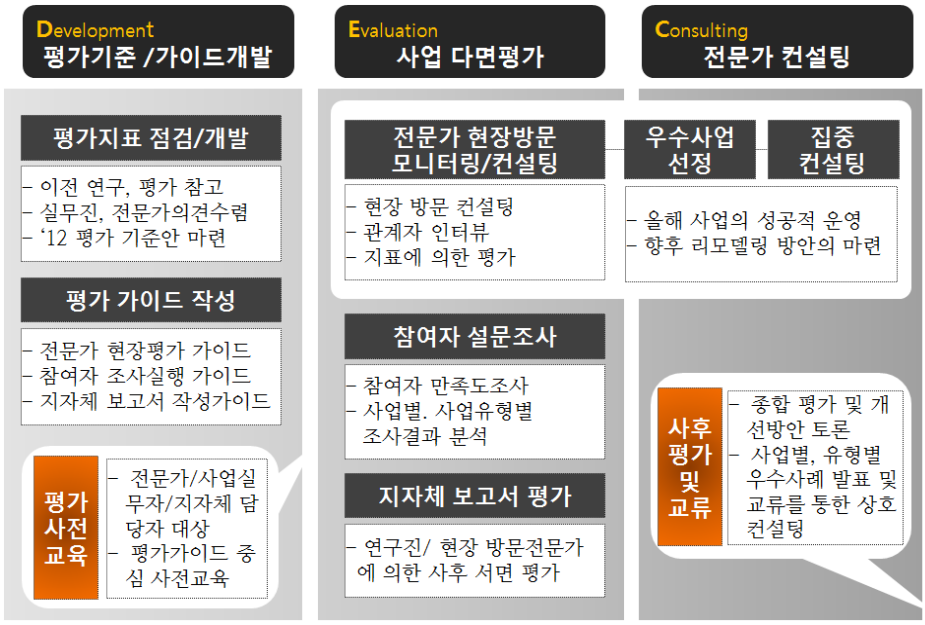
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평가

- 지자체와 수행단체, 문화재청 실무진, 연구진 및 참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평가계획과 절차,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가짐.
- 사업 수행단체가 사전에 정책 목표 및 사업 운영의 핵심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학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긍정적 영향과 평가의 내실화를 추구함.

다. 유형별 특화 평가

- 각 생생 문화재 사업은 역사 및 생태 탐방형, 문화·역사 체험형, 체류 관광형, 공연·축제형, 전시·공모형, 인력 양성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할 수 있음.
-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각 사업의 내용을 사전 분석하여 유형별로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실제 현장평가에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함.

3. 연구 절차와 방법



[그림 13] 성과모니터링 연구 절차와 방법

가. 평가 기준안 마련 및 가이드 개발

□ 사업의 정책 목적 적합성, 운영의 적절성, 결과의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함.

□ 기존 평가 지표 및 관련 자료의 분석, 문화재청 실무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한 2012년형 평가 지표를 개발함.

□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 사업 수행단체 및 지자체 대상의 평가 가이드를 제작, 사전 워크숍을 통하여 배포·교육함.

나. 사업 다면 평가

□ 본 사업은 예산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 사업으로서,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전문가의 현장 모니터링, 참여자 설문조사, 지자체의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적으로 평가함.

□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과정에서 병행 실시되는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은 현장 방문을 통한 관찰,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모두 실시함.

□ 사업 종료 단계에 취합된 지자체의 사업지원 성과보고서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평가함.

다. 전문가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은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행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 30개 사업 중 20개 사업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컨설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프로그램 분석, 개선방안 및 리모델링 방안 등을 현장에서 집중컨설팅 하여 제시함.

□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적 리모델링과 성공 사례화를 추진하고,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함.

□ 생생 문화재 사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함.

4. 종합 워크숍

□ 평가 시작 전과 사업 종료 후 사업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 진행하는 단체 워크숍은 임파워먼트 평가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참여형 컨설팅의 과정임.

가. 사전 워크숍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 일시: 2012년 6월 21일(목)

□ 장소: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 대상: 30개 사업 지자체, 사업 수행단체 / 문화재청 사업 담당자 / 모니터링 연구진

□ 목적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30개 지자체와 사업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사업 수행단체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진행내용

- 주관부처 인사말(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유범 과장)
- 성과모니터링 주관사 인사말 (기분좋은QX 안이영노 대표)
- 생생 사업을 통한 문화재 활용 전략 (컬처앤로드 이동범 대표)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안내 (기분좋은QX 황상훈 실장)



[그림 14] 성과모니터링 사전 워크숍

나. 결과 공유 워크숍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 공유 워크숍

□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 11월 30일(금)

□ 장소: 충남 보령 환상의 바다 리조트

□ 대상: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업 담당자

□ 목적 및 기대효과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내용을 문화재청과 2012년에 사업을 수행한 30개 지자체 및 수행단체가 서로 공유함.
- 지자체 및 수행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5분 내외로 진행 과정, 결과, 감상 등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수행단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수행단체들과 성과모니터링의 간단한 리뷰를 공유하여 사업에 이후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주요 진행내용

- 문화재청 인사말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유범 과장)
- 수행단체 성과발표 및 모니터링 내용 공유 (각 수행단체 사업 담당자)
- 수행단체 성과발표 관련 자문 (기분좋은QX 황상훈 실장, 이희진 연구위원)
- 분임 토의 :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 개선 방향, 사업의 장단점 등 토의 진행
- 분임토의 결과 및 소감 발표











[그림 15] 성과모니터링 결과 공유 워크숍



제3절 2012년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지침

1. 성과모니터링단의 수행 역할

□ 평가자
-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사람의 역할을 넘어서 생생 문화재 사업을 깊이 경험하고 평가하는 역할 수행
-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평가 의견과 아이디어를 토론할 수 있는 평가자의 역할
-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

□ 기록자
- 프로그램 진행 사진 촬영, 대상 문화재 관련 사진 촬영 등 사진 기록
- 사업 수행단체 담당자 인터뷰, 참가자 인터뷰 등 기록
- 전문가 모니터링의 의견 및 프로그램 참가하며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기록

□ 생생 문화재 사업 관계자
-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생생 문화재 사업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참가자
- 모니터링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프로그램에 참가자로서 향유자의 자세를 유지
-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고 즐기면서 일반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각을 유지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금품, 선물은 사양. 행사 참여 기념품 정도만 가능함.
- 참가자로서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니터링단임을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도록 할 것.
-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음식, 서비스, 교통, 숙박 등은 수행단체의 도움 없이 자체 해결하도록 함.

2. 성과모니터링 추진 현황

□ 모니터링 대상 : 총 30개 사업(우수사업 17개, 시범사업 13개)

□ 추진일정
- 현장모니터링 : 2012년 6월 4일 ~ 2012년 11월 24일
- 성과보고서 및 만족도 평가 : 2012년 11월 ~ 12월
- 평가 집계 및 종합평가 : 2012년 12월

□ 현장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모니터링 수행(사업별 1~2명, 1~2회)
- 전문가 평가 : 20개 사업을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사업별 1명)

□ 모니터링 대상 사업 목록

구분	광역	기초	사업명
우수	강원	원주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우수	강원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우수	경기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우수	경남	하동군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체험하기
우수	광주	광산구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우수	대전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우수	부산	서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우수	서울	도봉구	도심 속 살아 있는 유교문화 – 도봉서원 생생사업
우수	서울	광진구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우수	서울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 문화 오감체험!
우수	전남	화순군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우수	전남	진도군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우수	전북	김제시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우수	충남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우수	충북	괴산군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 싶은 그 곳 생생체험
우수	충북	청주시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우수	충북	영동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시범	강원	원주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시범	경기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시범	경기	군포시	역사 속 전통 농사와 종택의 만남
시범	경기	고양시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시범	경남	남해군	500년의 역사'원시어업 대나무 어사리'(죽방렴)
시범	경북	경산시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시범	대구	달서구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
시범	대전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 나니 몸짱되었네!
시범	서울	동작구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
시범	울산	동구	백년의 빛, 천 년의 소리를 찾아서!

시범	전남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시범	제주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
시범	충남	공주시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체험

[표 3] 성과모니터링 대상 목록

□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진행 내용

순번	구분	지자체	사업명	현장 모니터링일	전문가
1	우수	강원 원주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6.24 (일)	황상훈
2	우수	충남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6.29-3 (금-토)	황상훈
3	시범	전남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7.6-7 (금-토)	조희숙
4	시범	제주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	7.15 (일)	이희진
5	시범	경남 남해군	500년의 역사'원시어업 대나무 어사리'(죽방렴)	7.21-22 (토-일)	이희진
6	시범	경북 경산시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8.11 (토)	황평우
7	시범	울산 동구	백 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8.25-26 (토-일)	서정선
8	우수	서울 도봉구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 – 도봉서원 생생사업	9.8 (토)	윤현옥
9	우수	전남 화순군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9.22 (토)	한길우
10	우수	경기	행행중행복한 남한산성	10.3 (수)	윤성진
11	우수	전북 김제시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10.11 (목)	배윤수
12	시범	충남 공주시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체험	10.17 (수)	이희진
13	우수	부산 서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10.19 (금)	배윤수
14	시범	대전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 나니 몸짱되었네!	10.21 (일)	이희진
15	우수	대전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10.20-21 (토-일)	이희진
16	우수	충북 청주시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10.20 (토)	배윤수
17	우수	충북 영동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10.27 (토)	이희진
18	시범	경기 군포시	역사 속 전통 농사와 종택의 만남	10.28 (일)	배윤수
19	우수	전남 진도군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11.3-4 (토-일)	조정국
20	우수	서울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11.10 (토)	이희진

[표 4] 전문가 현장모니터링 일정

□ 현장모니터링 추진 경과

지자체명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모니터링 일자
서울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음악회	10.6(토) 11.10(토)
		영휘원 왕실예절 인문치유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알리는 길잡이 양성교육	
		답십리 생생극장	
서울 도봉구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 (도봉서원 생생사업)	도봉서원 선비문화 환경캠프 -선비문화의 현대적 힐링체험	9.8(토)
		도봉만인소, 도봉서원 인문학강좌	
		함께하는 춘추향제-해설이 있는 유교문화	
서울 광진구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아차산역사문화투어	9.26(수)
		아차산역사문화교실	
		뚜르 드 산성	
		발굴조사 체험교실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서울 동작구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	사육신의 다섯가지 소원	6.23(토)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부산 서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	6.4(월) 10.19(금)
		신나는 토요체험학습	
		생생 어린이 박물관	
		대안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병원 찾아가는 박물관	
		구덕골 문화예술제	
대구 달서구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	스토리텔링 전개 한마당 '임진왜란 속 장군님 되다!'	6.23(토)
		임진왜란의 승전의 축포를 울린다!	
		스토리텔링 전개 한마당 '임진왜란 속 장군이 되어 승전을 울리다!'	
광주 광산구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고품격 서원 '살롱 드 월봉'	7.27(금)
		월봉서원 철학스테이	
		조선팔도 선비문화교류 프로그램	
		월봉서원 전국 한시 경연대회	
		월봉서원 어린이 글짓기 대회	
		광산 역사문화 투어	

[표 5] 현장모니터링 추진 경과

지자체명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모니터링 일자
대전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나는 성주다. 산성탐험대	10.20~21 (토~일)
		1박 2일 산성가족캠프	
		뚜르 드 산성	
		산성 톡, talk	
대전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	온 가족과 다 함께 생생 문화재	10.21(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택견 생생문화재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캠프	
		현대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택견 생생교실	
울산 동구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등대문화체험(1박2일) 100년의 빛을 찾아서'	8.25~26 (토~일)
		문화어울림 한마당– "백 년의 빛과 천년 소리의 만남"	
경기	행행중행복한 남한산성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10.3(수)
		임금님, 납시오!	
		성곽을 지켜라!	
		행궁에서 만나는 가족 풍류여행	
		뚜르 드 산성!	
경기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증기기관차 교육 프로그램	11.24(토)
경기 고양시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북한산성 역사해설 및 1박2일 체험	9.8~9 (토~일)
경기 군포시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이야기	6.10(일) 10.28(일)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이야기	
		가을걷이 농악한마당	
강원 원주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기발랄 쌩쌩체험프로그램 (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	6.24(일)
		얼라이브(Alive)생생생금요공연	
강원 원주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9.19(수)
		한·중·일목판본국제학술대회	
강원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횡성회다지소리 축제	7.30 (월)
		회다지 생생 체험	
충북 청주시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연날리기 대회(예술연 및 창작연)	10.20 (토)
		정북동토성에서 신나는 생생 역사교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충북 영동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천년 은행나무 생명 스테이	10.27(토)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	
충북 괴산군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 싶은 그 곳 생생체험	화양서원 생생문화체험	10.13~14 (토~일)
		화양서원 선비학교	
		화양구곡 선비길 걷기	
		화양동 선비풍류축제	

지자체명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모니터링 일자
충남 아산시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문화재 활용 사례 강의	6.29~30 (금~토)
		오감만족 문화재 해설	
		문화재 활용 현장강의 및 체험	
		공모전 시상, 전시	
충남 공주시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10.17(수)
전북 김제시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벽골제 역사탐방	10.11(목)
		벽골제 장생거 수문모형 만들기	
		벽골제 축조설화 쌍룡! 애니메이션 관람	
		벽골제 축조설화 속 쌍룡 만들기	
		벽골제 쌍룡! 단야낭자를 구하라	
		벽골제제방연날리기	
		벽골제 생생체험	
전북 나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보름달과 함께하는 조선의 도시 야간답사와 쪽염색체험	7.6~7 (금~토)
전남 진도군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지는 해! 노을! 생생북놀이!	11.3~4 (토~일)
		토요민속여행 북놀이 생생체험	
		진도 북 페스티벌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 2일	
전남 화순군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지란지교 Talk Concert	9.22(토)
		호연지기!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크고 넓은 마음	
		지란지교의 향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콘테스트	
		문화트래킹: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지란지교 음악회	
경북 경산시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1600년 전 압독국을 찾아서	8.11(토)
		임당고분군과 함께하는 압독국으로서의 여행	
		학교로 찾아간 압독국 사람들	
경남 하동군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체험하기	우리가 만든 하동송림 Play (송림과 섬진강을 소재로 한 청소년 연극)	9.15(토)
		하동송림 가족 그림대회 (하동송림 묘목 분양)	
		읍성 역사탐방, 발굴체험	
		하동읍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동읍성 바로 알기 문화프로그램	

지자체명	사업명	세부프로그램명	모니터링 일자
경남 남해군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대나무어사리' (죽방렴)	남해 바랫길 걷기	7.21~22 (토~일)
		말과 공룡의 흔적을 찾아, II	
		어촌체험	
		바다이야기 1~4	
		남해에서의 1박2일 '홰바리체험'	
제주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 안에서 놀아보기'	7.15(일)
		제주전통문화강좌 '궤낭들랑 열두당번 연물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기행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	

제4절 2012년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기준안

1. 현장 모니터링 지표

가.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체크사항	아주좋음 (A)	좋음 (B)	보통 (C)	좋지않음 (D)	매우좋지 않음(E)
I.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1)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2) 문화재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가?					
II. 프로그램의 경쟁력					
1) 문화재 고유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 하였는가?					
2) 문화재 활용을 위해 사용된 방법이 적절한가?					
3)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는 어떠한가?					

나.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체크사항	아주좋음 (A)	좋음 (B)	보통 (C)	좋지않음 (D)	매우좋지 않음(E)
I. 추진체계					
1) 수행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2) 수행단체와 지역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가?					
3) 주민이 실행주체로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4) 수행단체와 지자체와의 관계는 잘 이루어졌는가?					

체크사항		아주좋음 (A)	좋음 (B)	보통 (C)	좋지않음 (D)	매우좋지 않음(E)
II.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 운영	1)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 되었는가?					
	2) 프로그램 사전준비가 잘 이루어졌는가?					
	3) 현장인력은 적절히 배치가 되었는가?					
	4)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5)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여건이 적합하였는가?					

홍보	1)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적절히 홍보하였는가?					
	2) 홍보 내용에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생생 문화재 사업의 홍보 요소를 잘 담았는가?					
편의성	1) 행사장 방문을 위한 안내가 잘 이루어졌는가?					
	2) 원활한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잘 이루어졌는가?					
	3) 행사장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졌는가?					
	4) 화장실, 주차장 등 행사장소 시설이용이 편리한가?					
기타	1)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다.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체크사항	아주좋음 (A)	좋음 (B)	보통 (C)	좋지않음 (D)	매우좋지 않음(E)
I. 지속발전 가능성					
1)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2) 계속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수행조직의 의지는 어떠한가?					
3) 향후 사업을 위해 지자체 재원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Ⅱ. 성과 및 효과					
1) 계획 대비 목표를 얼마나 달성 하였는가? (집객 등)					
2)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3)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표 6] 현장모니터링 지표

2.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 양식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 사업명

□ 지자체명

□ 주관단체명

□ 사업예산(단위: 천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단체 자부담
		광역	기초	

□ 사업기간

I.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2. 사업 주요 내용

II. 사업 지원 실적

□ 사업기획, 준비 단계

□ 사업운영 단계

• 예산집행 지원 실적

– 사업예산 집행계획(단위: 천원)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고보조금					

–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단위: 천원, %)

분기별	집행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 사업홍보 지원 실적
- 행정관리 지원 실적
  - 지자체 행사참관 실적
  - 기타 행사지원 실적
- 기타 지원 실적

III. 종합적 성과(기대효과)

[표 7]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양식

3.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지표

심사항목	판단기준	배점
1. 사업기획 및 준비 지원 여부	1) 생생사업 기획 참여 정도: 사업기획단계에서의 역할 및 지원 정도	10
	2) 사업 준비 지원 여부: 사업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 정도	5
2. 예산지원	1)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예산배부의 시기적 적정성 여부 및 계획대비 추진실적	20
3. 사업 홍보	1) 홍보지원 여부: 홍보 방안의 다양성 및 적극적인 지원 여부	30
4. 행정 지원	1) 행사 참관 여부: 행사참관 횟수에 따른 평가	10
	2) 기타 행사 지원 여부	5
5. 지속발전가능성	1) 지자체의 추진 의지: 추후 사업 의지 및 기타 사업 지원 의향	20
합계		100

[표 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4. 관람객 만족도 조사표

2012 '생생 문화재'사업 관람객 만족도조사표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40대 ④ 50~6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① 지역 주민 ② 타 지역 여행객 ③ 기타

4. '생생 문화재'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① 가족나들이 ② 자녀 교육 ③ 우연히 ④ 기타

5. 누구와 함께 행사에 오셨나요?
   ① 가족 ② 연인 ③ 단체 방문(학교, 기타 단체 등) ④ 개인 ⑤ 기타

6. 다음은 본 행사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또는 √ 표시를 해 주세요.

프로그램 관련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 이다 (3)	아니다 (2)	전혀 아니다 (1)
1. 프로그램 내용 및 완성도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완성도에 만족한다.					
② 행사를 통해 해당 문화재를 잘 알게 되었다.					
③ 행사를 통해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④ 재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⑤ 행사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⑥ 이번 참여를 통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2. 행사 편의성					
① 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② 행사장 내 정보제공, 안내시설체계가 잘 되어 있었다.					
③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④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였다.					
⑤ 행사장내 편의시설(화장실, 휴게공간)이 잘 되어 있었다.					
3. 홍보 관련					
① 사전홍보를 통해 행사의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② 행사안내 팸플릿이 잘 되어 있었다.					

7. 다음은 홍보매체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또는 √표시를 해 주세요
   1) 행사를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① TV ② 신문 ③ 인터넷 ④ 초청장 ⑤ 라디오 ⑥ 팸플릿 ⑦기타

   2) 인터넷을 선택한 경우,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① 포털 사이트 ② 지자체 홈페이지 ③ 인터넷 신문 ④ 여행·축제관련 사이트
   ⑤ 인터넷 배너 광고 ⑥ 전자 우편 ⑦기타

8. 개선 필요사항 등 기타 참관의견

[표 9] 관람객 만족도조사표

제3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

제1절 : 총평

제2절 : 현장모니터링 결과

제3절 :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제4절 :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제5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우수사례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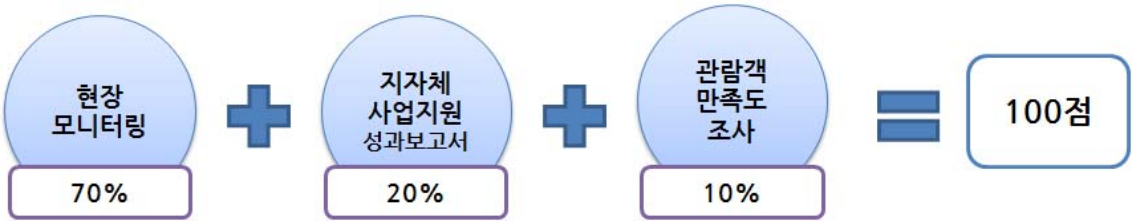
제1절 총평

1) 성과모니터링 결과 및 총평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은 총 30개 사업(29개 지자체, 29개 수행단체)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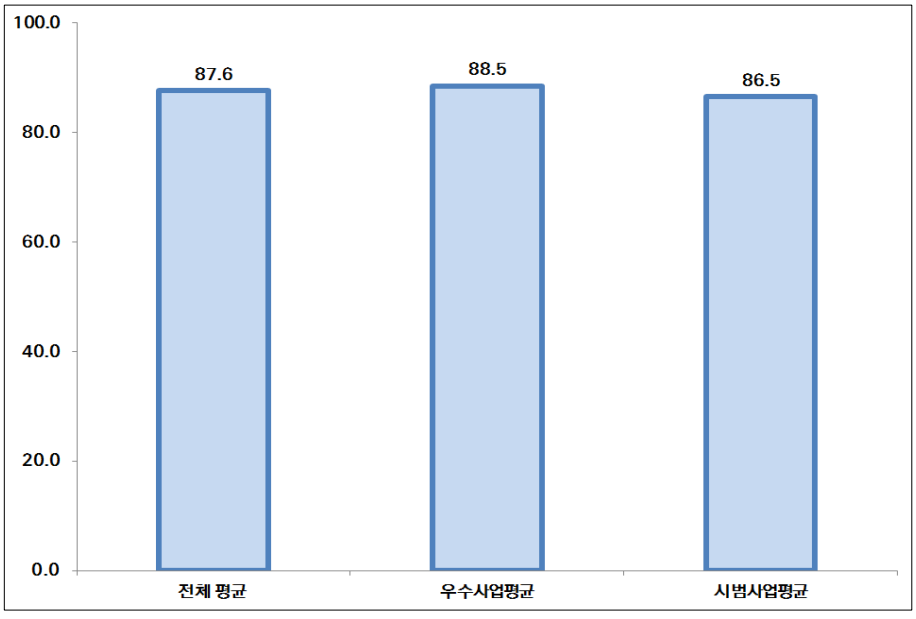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한 전국 30개 지자체의 사업지원 성과보고서와 사업 수행 시 진행한 관람객 만족도조사, 그리고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함.

□ 이 평가 결과는 현장모니터링 점수와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점수, 관람객 만족도 조사 점수를 각각 100점으로 환산하여 현장모니터링 70%,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20%, 관람객 만족도조사 1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도출하였음.



[그림 16] 성과모니터링 방법

□ 30개 사업의 평균 점수는 87.6점이며, 우수사업의 평균 점수는 88.5점, 시범사업의 평균 점수는 86.5점임.



[그림 17] 성과모니터링 평균 점수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총평

프로그램

□ 교류 프로그램의 시작

- 무형 문화재 교류 프로그램으로 경기 군포의 전통농업과 강원 원주 매지농악, 전남 진도의 북놀이를 활용한 생생 문화재 사업이 있음. '북놀이', 혹은 '농악'이라는 대상문화재가 가진 근본적인 속성인 '농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2012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함. '하이 파이브 생생'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문화재들이 직접 서로의 사업에서 공연 혹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각각의 사업들을 더욱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그와 동시에 참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재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형 문화재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과 경기 남한산성 사업단의 남한산성, 대전의 산성 팀이 함께 진행한 '뚜르 드 산성'프로그램이 있음. '산성'이라는 대상 문화재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으로 3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가객들이 서울과 경기, 대전의 산성 문화재를 답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함.

□ 3년 이상 지원 사업들의 안정화

- 부산 서구, 광주 광산구 등 3년 이상 동일한 대상 문화재로 지역에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온 사업들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 프로그램 진행, 일정, 홍보 방법, 운영 등이 자리를 잡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음.
- 또한, 5년 동안 지원 받은 광주 광산구 생생 문화재 사업의 경우는 문화재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후 방안을 고민하고 자생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실행하기 위하여 숙박 시설 건립, 문화재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새로운 문화재 활용 사업들의 발굴

- 2012년에 새롭게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의 수는 총 30개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3개 사업임.
- 이 중 새롭게 발굴되어 진행된 시범사업 중 총 4개의 사업이 전체 평가 결과 10 순위 안에 들었는데 이는 기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오던 생생 문화재 사업들과 비견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
- 탄탄한 조직과 해당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구성된 신규 문화재 활용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음.

□ **프로그램 과다 편성으로 어려워진 질적 관리**

- 대부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이 대체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진행 일정 또한, 매주 주말, 혹은 매주 일정한 날마다 진행하고 있음. 해당 문화재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겠으나,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수행 단체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또한, 문화재와 사업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해당 생생 문화재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여 상설 프로그램만 단순 반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해당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리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지원

□ **지자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의 미흡**

- 지자체와 문화재 활용 단체가 협력 체계를 이루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의 형태인 만큼, 수행단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잘 해야 한다면 지자체는 해당 문화재와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들에 문화재 관련 부서가 없거나, 학예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대해 무성의하거나, 예산이나 홍보 등의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기획 및 수행 역량

□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 문화재 활용 단체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깊으나 사업 기획력이 부족하다거나, 기획은 좋으나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체험, 답사 프로그램에 해당 문화재만 끼어 넣어 진행하는 등 단조롭고 내실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과의 관계 형성 필요 증대**

- 부산 서구의 경우 '찾아가는 병원·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안학교와 소아 희귀병을 치료하는 지역 병원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 지역의 다양한 교육, 사회 복지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사업의 영역을 넓힌 사례임.
- 전남 화순의 경우 사회적 기업인 수행단체가 지역의 다른 사회적 기업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준비한 경우임. 프로그램 중간의 식사를 광주 지역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시도임.
- 수행단체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가(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수행단체의 역량만으로 기획과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 학교, 관광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비용은 절감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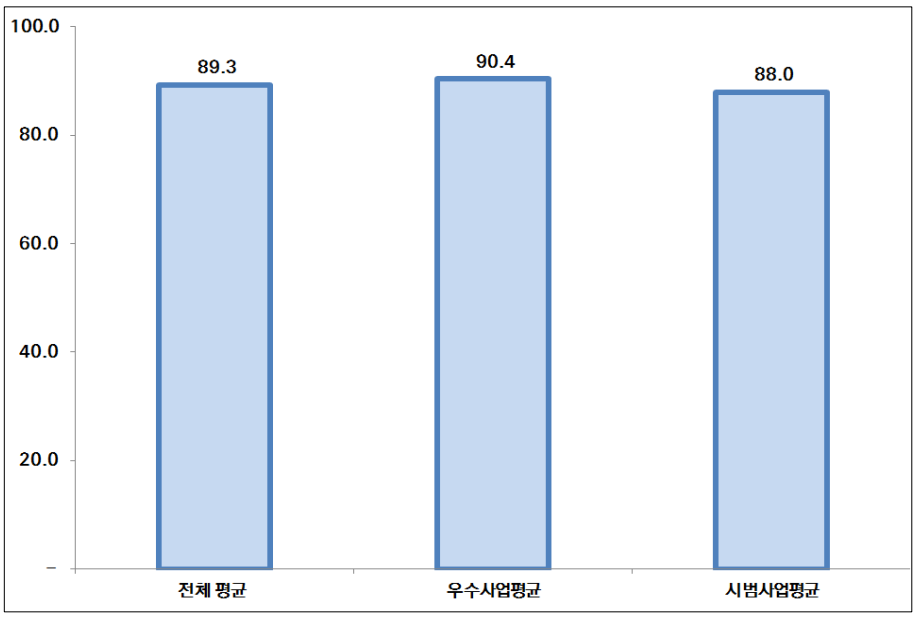
제2절 현장모니터링 결과

1) 현장모니터링 결과 및 총평

□ 2012년 6월 4일에 시작하여 2012년 11월 24일 마무리된 현장모니터링은 30개 사업 모두 진행되었으며 30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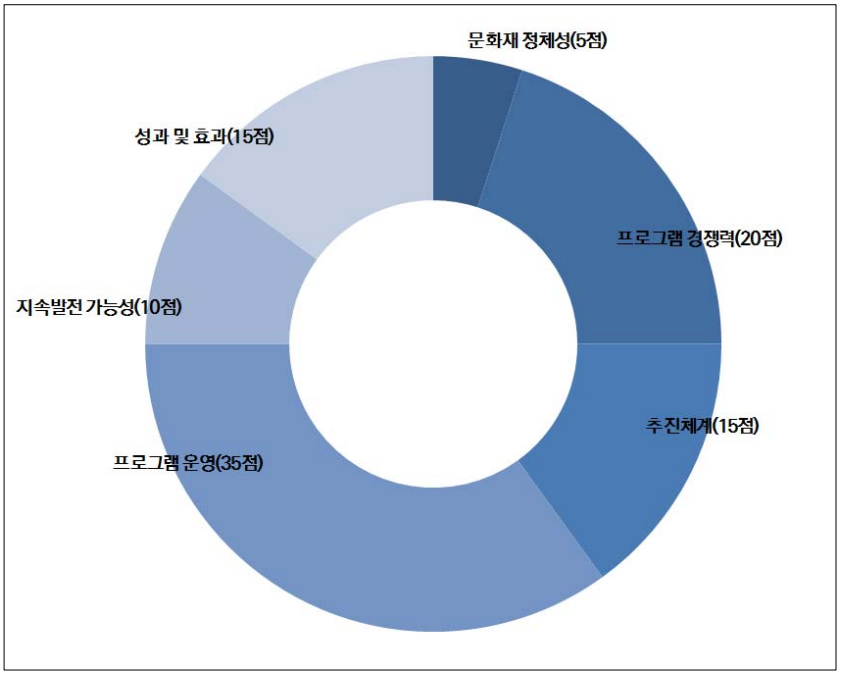
□ 현장모니터링 평가 결과는 현장모니터링 지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현장모니터링 지표는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시점에 2012년 사업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되었음.

□ 점수의 배점은 전문가모니터링단과 현장모니터링단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현장모니터링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일부 고려하였음.



[그림 18] 현장모니터링 평균 점수

□ 현장 모니터링 전체 평균은 89.3점이며, 우수사업의 평균 점수는 90.4점, 시범사업의 평균 점수는 88.0점임.



[그림 19] 현장모니터링 지표 구성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현장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25점),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50점),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25점)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임.

□ 프로그램 콘텐츠의 우수성 항목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이 가진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함.

- 문화재가 그 본질적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문화재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문화재 고유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차별화 하였는지, 문화재 활용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적절한지,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완성도는 어떠한지를 평가함.

□ 사업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은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평가함.

- 추진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수행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수행단체와 지역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주민이 실행주체로 참여하고 있는지, 수행단체와 지자체와의 관계는 잘 이루어져 있는 지임.
- 프로그램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운영과 홍보, 편의성으로 나누어짐.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프로그램 사전 준비는 잘 이루어졌는지, 현장인력은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여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함.
- 홍보의 평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적절히 홍보하였는지, 홍보 내용에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생생 문화재 사업의 홍보 요소를 잘 담았는지를 기준으로 함.
- 편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사장 방문을 위한 안내가 잘 이루어졌는지, 원활한 참여를 위해 프로

그램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행사장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졌는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행사장소 시설 이용이 편리했는지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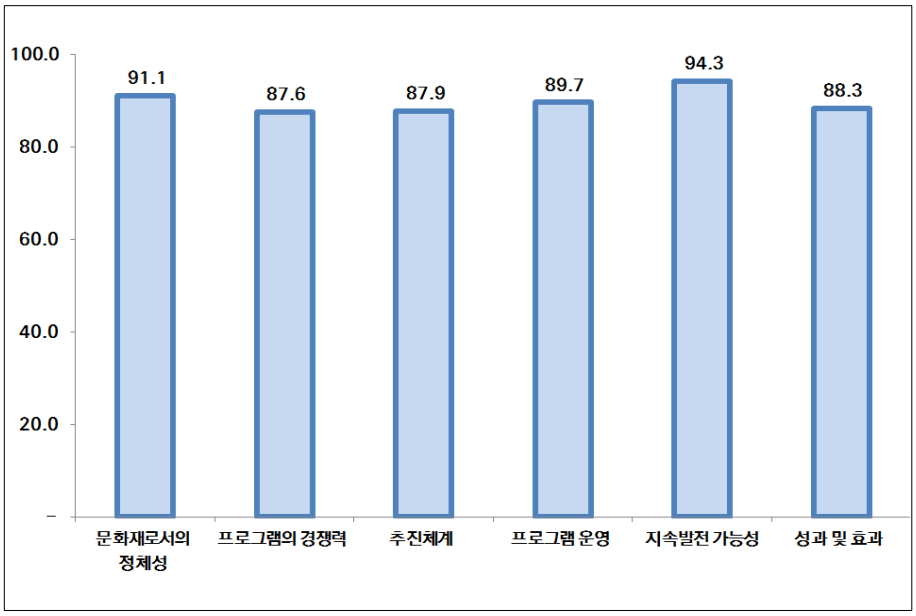
- 그 외기타 항목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는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성과 및 효과를 확인함.

-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계속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수행조직의 의지는 어떠한지, 향후 사업을 위해 지자체 재원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임.
- 성과 및 효과는 집객 등 계획 대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주요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은 91.1점, 프로그램의 경쟁력 부분 87.6점, 추진체계 87.9점, 프로그램 운영 89.7점, 지속발전 가능성 94.3점, 성과 및 효과 88.3점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경쟁력 지표가 8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2012년 진행된 프로그램들의 기획적 완성도, 브랜드화 가능성, 문화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활용 등의 부분에서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임.



[그림 20] 현장모니터링 지표별 평균 점수

□ 지속발전 가능성 지표의 점수가 9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2012년 진행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수행단체들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프로그래머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간다면 지속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였기 때문임. 또한,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발전들이 가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고 보였기에 높게 평가됨.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현장모니터링 총평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교육, 체험, 답사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들이었다고 평가됨.
- 강원 원주의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사업의 경우는 '원주 매지농악'이라는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단순한 공연과 체험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교육, 지역 주민들을 문화재 도우미로 육성, 지역 축제 개발, 그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 등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였음.
- 충남 아산의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사업의 경우 온양민속박물관의 다양한 민속자료들을 단순히 관람하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재를 활용한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성하였음.
- 강원 원주의 '목판화 삽화를 활용한 전통학교' 사업은, '목판화'체험을 1박 2일 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을 보여줌.
- 대전의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사업은 지역에서 산성 트래킹 코스로 관광 상품 개발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의 산성 소개 책자로 출판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집을 구성하는 등 콘텐츠가 우수하였음.
- 그러나 대상 문화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의 다른 큰 행사와 연계하여 애초의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혹은 미치지 못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특별한 기획이나 구성없이 단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문화재의 특성도, 또한 해당 사업의 브랜드화 가능성이나 새로운 가치를 보기 어려운 사업도 2~3개 정도 존재하였음.

사업 추진체계

- 이 항목은 현장모니터링 시에는 수행단체와의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 시 볼 수 있는 특징들, 이후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판단되었음.
- 수행단체들은 대체로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전문단체(전승보존회 등), 박물관 혹은 연구원 등의 전문기관, 지역의 민간단체(청소년 단체 등), 민간 조직 등의 분류를 보임.
- 문화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 활용 사업의 기획과 실행 부분에서 뚜렷한 약세를 보였으며, 연구 전문 기관의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구성과 진행에서 강세를 보임.
- 또한,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지자체에서 예산을 매칭해 주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와 사업 수행단체의 긴밀한 업무 협조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애초 사업 계획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당 시간 계획도 잘 지켜진 편임.
- 야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 기상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행단체의 역량을 엿볼 수가 있었음. 미리 우비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한다거나, 대체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해두는 등의 준비 여부가 프로그램의 질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좌우함. 또한, 일정 변경 시에는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현장에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사업들도 있었음. 기상 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사업 일정을 바꾸는 등 배려 없는 사업 운영의 사례도 있어 세심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인력은 충분하나 현장에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인력이 너무 없어서 1명, 혹은 2명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교육하여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행단체의 사업담당자가 사업과 참가자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조건임. 사업의 계획과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고, 참가자들의 연령, 학력 수준, 집단의 성격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한 수행단체일수록 프로그램 시간이 늦춰진다거나, 지루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임.
- 홍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약하였는데, 수행단체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 있다 해도 해당 홈페이지에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음. 주로 지역 신문에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있었으며, 지역의 단체들에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을 홍보하고 있었음. 홍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과 지자체, 문화재청의 지원이 요구됨.
- 대부분의 문화재가 도심에 위치하기보다는 변두리에 위치해 있거나 산 속에 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임. 참가자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많음.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수행단체에서, 혹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셔틀 버스를 도입하기도 함.
- 지역을 돌아다니며 답사하거나 트래킹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참가자들의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한다거나, 이동 중에 누락자가 생기는 등의 경우가 있었음. 전남 나주의 경우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조선의 도시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포졸 복장을 하고 안전요원으로 참가하여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우수한 참고 사례임.
-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지자체에서 잘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업 수행단체들 또한 문화재에 해를 입히는 활동은 하지 않았음. 다만 전남 화순의 정자들, 서울 동대문구 사업의 세종대왕 기념관 등 해당 문화재가 이미 워낙 낡아서 보수가 시급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음. 이 사업을 통해 해당 문화재들의 상태가 알려지고, 보존을 위한 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단체들과 지자체가 힘써야 할 것임.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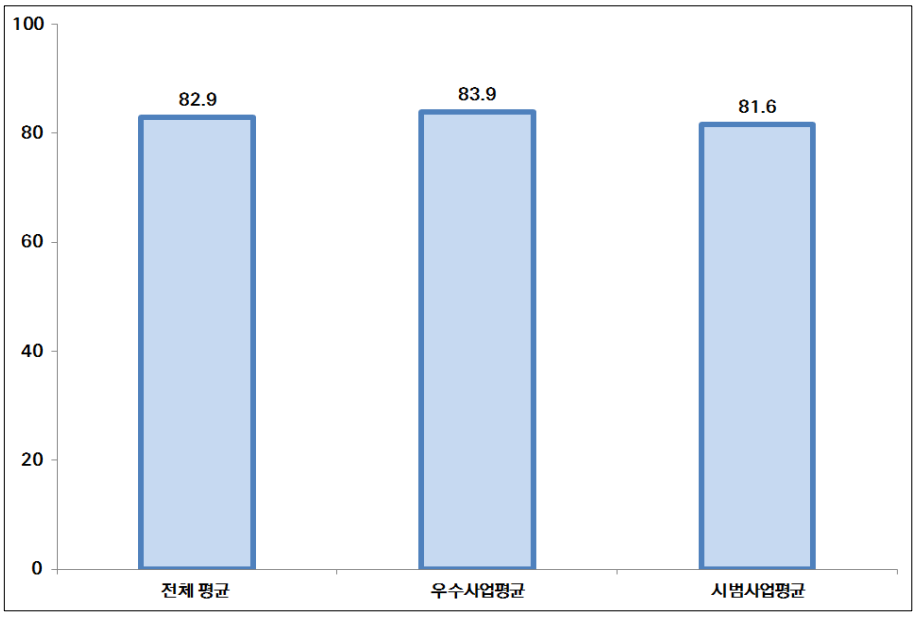
- 이미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풍부한 문화재와, 그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단체가 이를 적절하게 이야기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많음.
- 수행단체들은 적은 지원금이라도 꾸준한 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컸음.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주로 프로그램 참가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사업의 일정과 성격에 걸맞은 적절한 참가비의 책정과 그를 통한 사업에의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의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성과는 당일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본인이 참가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왜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수행단체의 사업 담당자가 이 사업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며,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를 쉽게 접근하고 알게 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을 시작 초기에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무슨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제3절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및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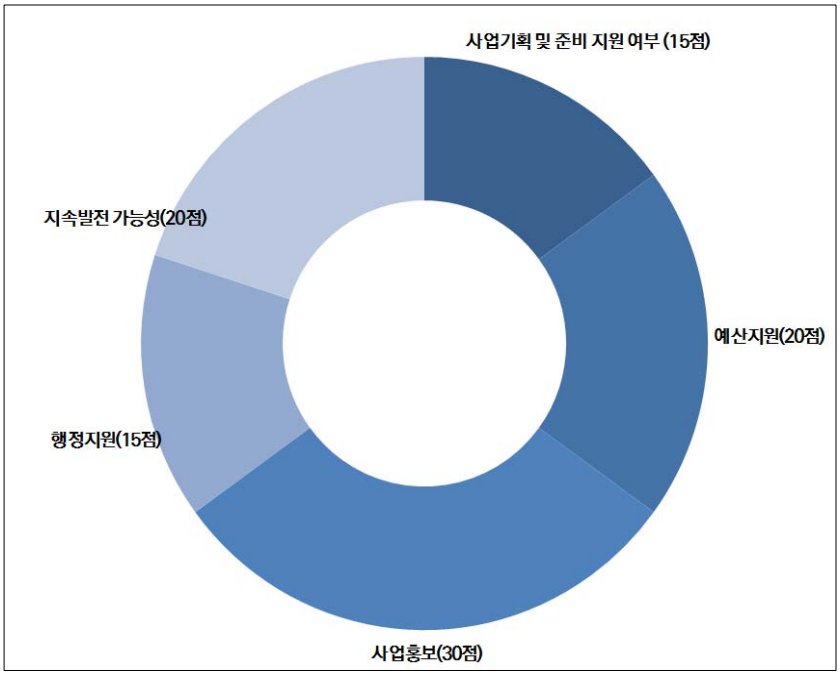
□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는 사업 관계기관 협의 여부, 사업 운영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사업 홍보지원 실적 등에 대해 지원 실적으로 지자체가 사업 종료 후 일괄 제출한 것을 취합하여 평가함.

□ 동일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양식에 각 지자체가 사업 지원 실적, 예산, 성과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 지표는 2011년 평가 기준을 준용함.



[그림 21]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평균 점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모니터링의 지표는 크게 사업지원 및 준비 지원 여부(15점), 예산지원(20점), 사업 홍보(30점), 행정 지원(15점), 지속발전 가능성(20점)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점 만점임.



[그림 22]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지표

□ 사업기획 및 준비 지원 여부 항목은 사업 기획의 참여 정도와 사업 준비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수행 단체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평가함.
-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는지를 평가함.

□ 예산지원 항목은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을 보고 판단함.

- 예산 배부가 시기적으로 적정했는지, 계획대비 추진한 실적은 어떠한 지 평가함.
-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비 교부가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사업 홍보 항목은 홍보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홍보 방안의 다양성 및 적극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함.
- 대부분의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 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홍보임에 주목할 때 지자체의 홍보 지원 역할은 매우 큼.

□ 행정지원 항목은 행사 참관 여부와 기타 행사 지원 여부를 보고 판단함.

- 지자체가 지원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을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생생 문화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행단체가 지원금으로 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현장 모니터링으로는 한 사업당 2회 이상의 참관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자주 방문하여 사업을 보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중요함.
- 그 외에도 기타 행사 지원 여부를 판단함. 수행단체가 문화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지역의 교육기관, 단체들과의 업무 연계 등의 행정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속발전 가능성 항목은 지자체의 추진 의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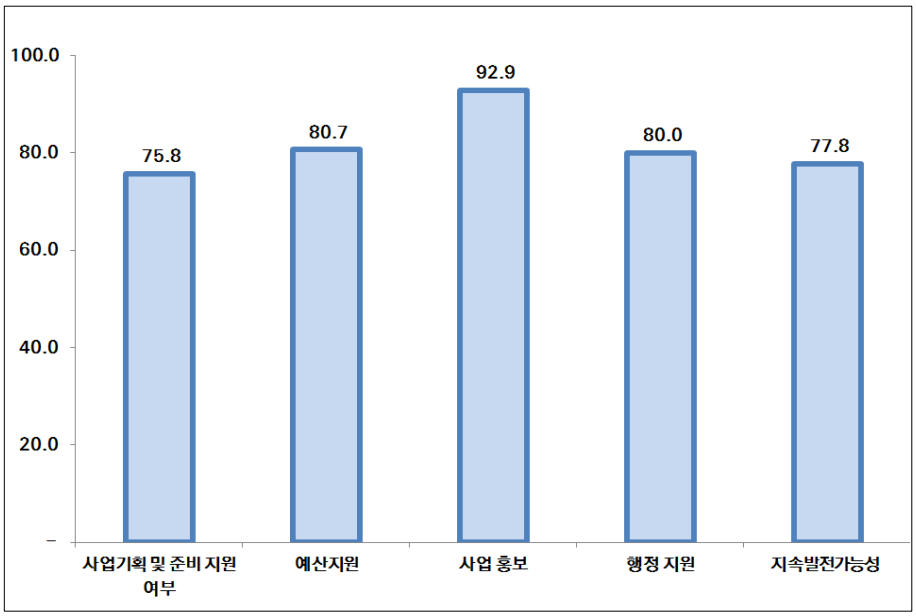
- 지자체가 이후에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함. 이는 지자체가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의지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부분임.

□ 주요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기획 및 준비 여부 75.8점, 예산지원 80.7점, 사업 홍보 92.9점, 행정지원 80.0점, 지속발전 가능성 77.8점으로 나타남.

□ 사업 홍보 부문이 9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지자체가 생생 문화재 사업의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소개 등 홍보 지원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기획 및 준비 지원, 예산지원, 행정지원, 지속발전 가능성 부문의 점수는 5개 지표의 평균 점수인 81.4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지자체의 사업지원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지자체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의 기획을 함께한다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그림 23]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총평

- 지자체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표와 취지, 수행성과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일부 지자체는 심사항목과 판단기준이 요구하는 정보를 미작성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생생 문화재 사업 현장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 사업기획 및 준비 지원 여부 항목에서는 지자체가 수행단체 및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킹하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예, 전남 나주, 울산 동구, 충남 공주 등)
- 예산지원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예산배부의 시기적 적정성과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 있음.
- 사업 홍보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 유관매체를 생생 문화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에 임하고 있음.
- 행정 지원 항목에서는 생생 문화재 사업 현장에 지자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연결하여 지원한 사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예, 전남 나주, 울산 동구, 강원 횡성, 서울 광진구, 경기 남한산성, 전북 김제 등)
- 지속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언급을 대부분 하고 있으나, 추후 사업의 의지와 사업 지원 의향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생생 문화재 사업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제4절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및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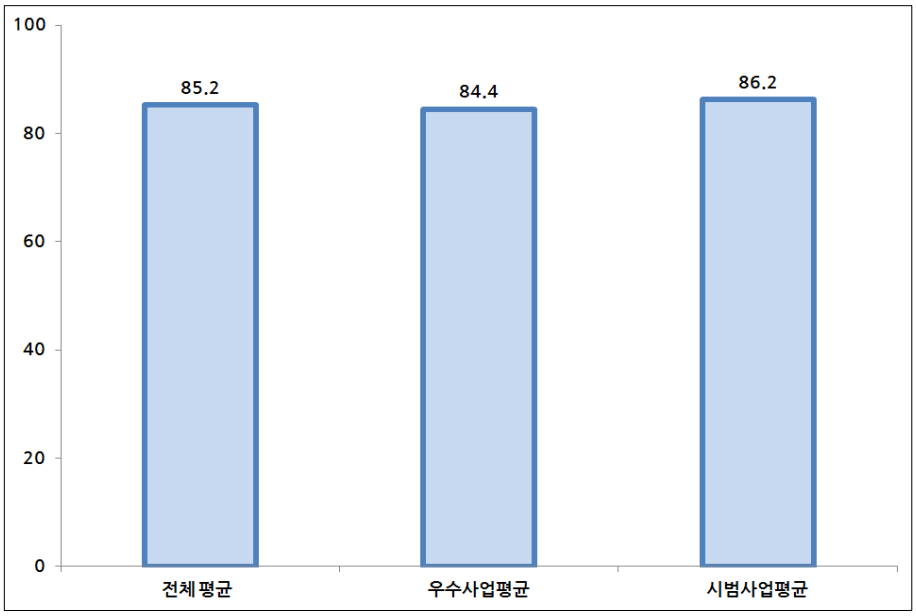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관람객 만족도조사는 방문객의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홍보 내용 등을 조사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 활용 및 보존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향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고하기 위함임.

□ 각 수행단체가 프로그램 진행 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유효 표본은 100명 이상으로 하였음. 만족도 관련 항목은 총 13개 항목이며, 성별, 연령, 거주지, 프로그램 참가 목적, 동반인, 인식 경로 등의 응답자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

□ 관람객 만족도조사는 수행 단체가 지정된 서식에 분석·기입하여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항목에 대해서 수행단체가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경우, 유사한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함.

□ 설문지 항목 중 관람객 만족도조사 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집계하였으며, 수행단체별 설문지 항목을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배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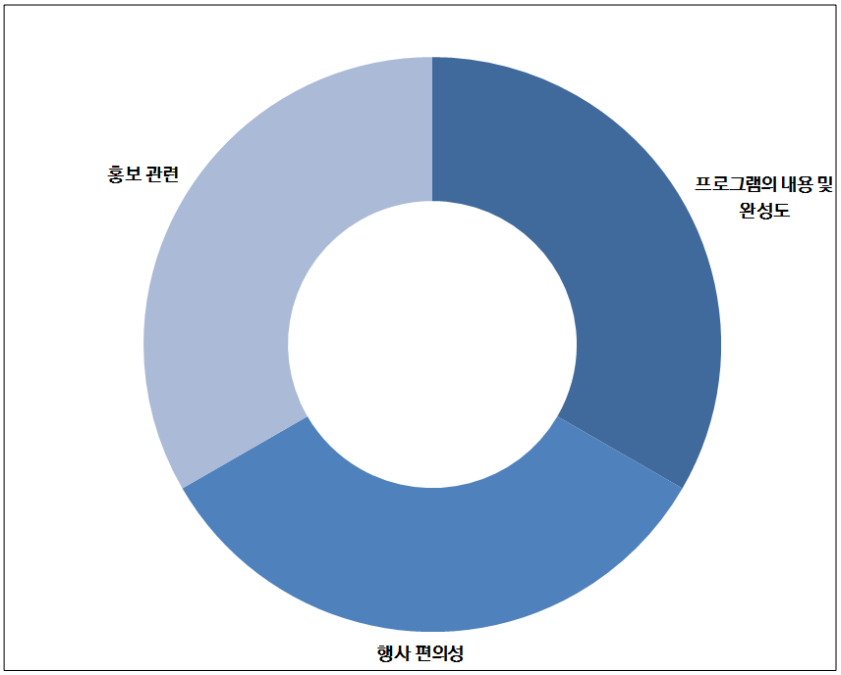
□ 관람객 만족도조사의 평가 항목은 크게 프로그램 내용 및 완성에 대한 만족도, 행사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홍보 관련 만족도로 나뉘어 조사됨.



[그림 24] 관람객 만족도조사 평균 점수

□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의 전체 평균 점수는 85.2점이며, 우수사업의 평균 점수는 84.4점, 시범 사업의 평균 점수는 86.2점임.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관람객 만족도조사의 평가 지표는 크게 프로그램의 내용 및 완성도(6항목), 행사 편의성(5항목), 홍보(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아니다(1점)의 5점 척도 응답하도록 한 뒤 100점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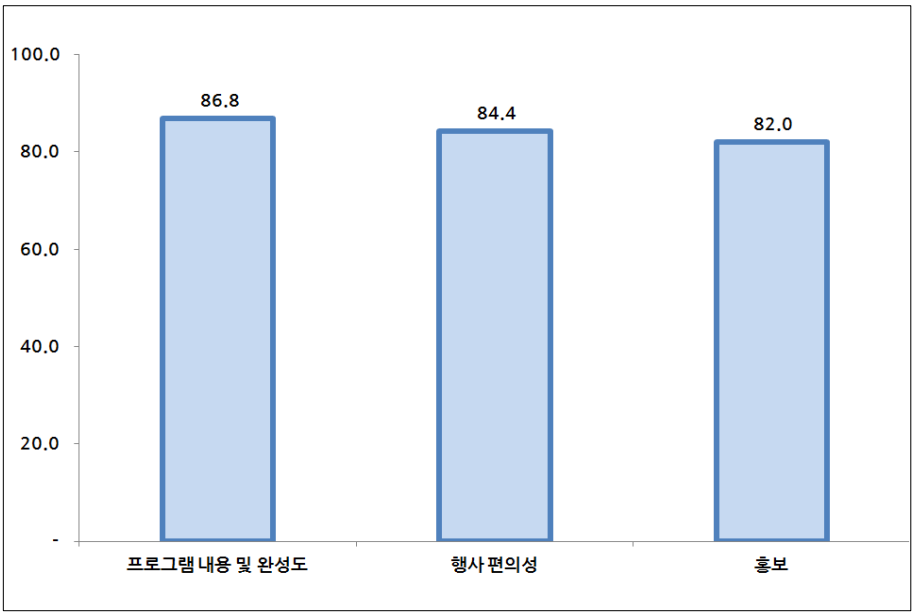


[그림 25] 관람객 만족도조사 지표

□ 프로그램 내용 및 완성도 항목은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 행사를 통해 해당 문화재를 잘 알게 되었는지
- 행사를 통해 문화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 재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은지
- 행사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었는지
- 이번 참여를 통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해 물어봄.

□ 행사 편의성 항목은
- 행사장까지 찾아오기가 편했는지
- 행사장 내 정보제공, 안내 시설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지
- 행사장 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는지
-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했는지
- 행사장 내 편의시설(화장실, 휴게공간)이 잘 되어 있었는지를 물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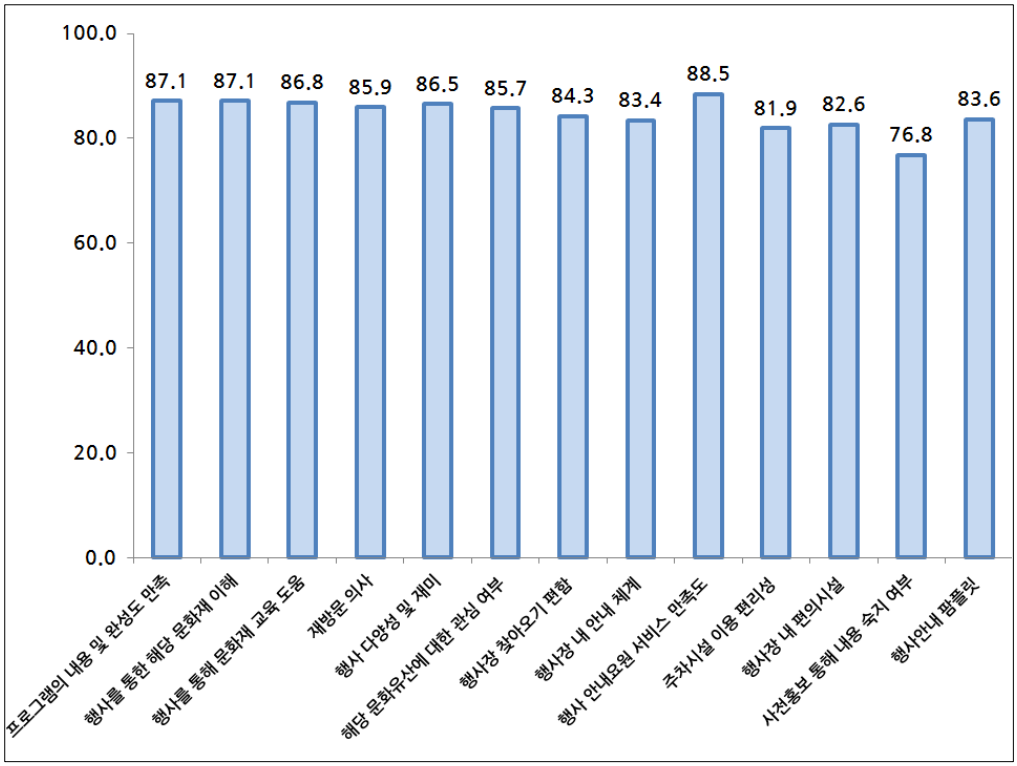
□ 홍보 항목은
- 사전 홍보를 통해 행사의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 행사 안내 팸플릿이 잘 되어 있었는지를 물어봄.



[그림 26] 관람객 만족도조사 지표별 평균 점수

□ 관람객 만족도조사 주요 항목별 만족도 점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완성도 86.8점, 행사 편의성 84.4점, 홍보 82.0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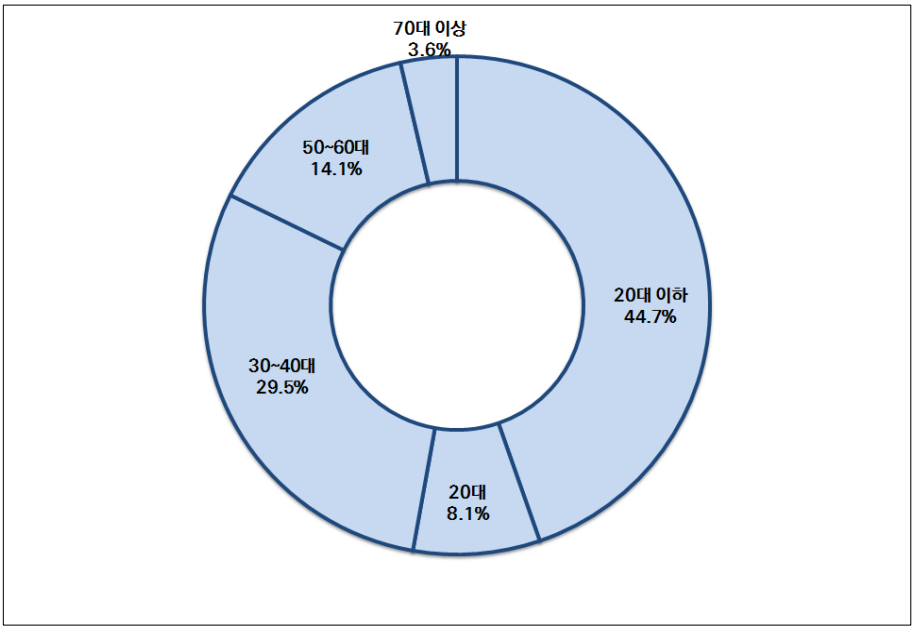
□ 관람객 만족도조사의 세부 지표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27]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세부 지표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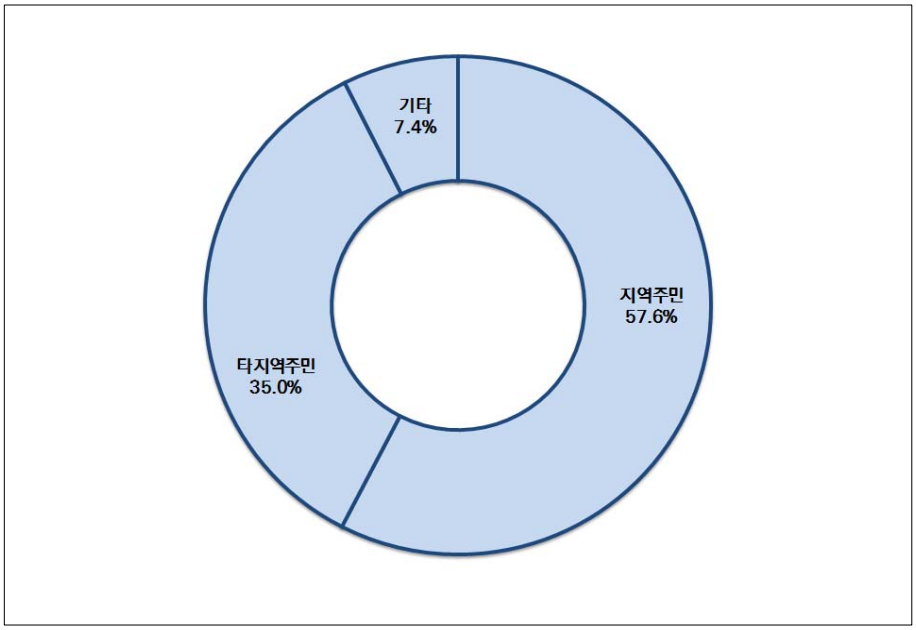
□ 대체로 비슷한 수치의 결과를 나타냈으나, 사전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했느냐에 대한 만족도가 7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행사 안내요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홍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만족도조사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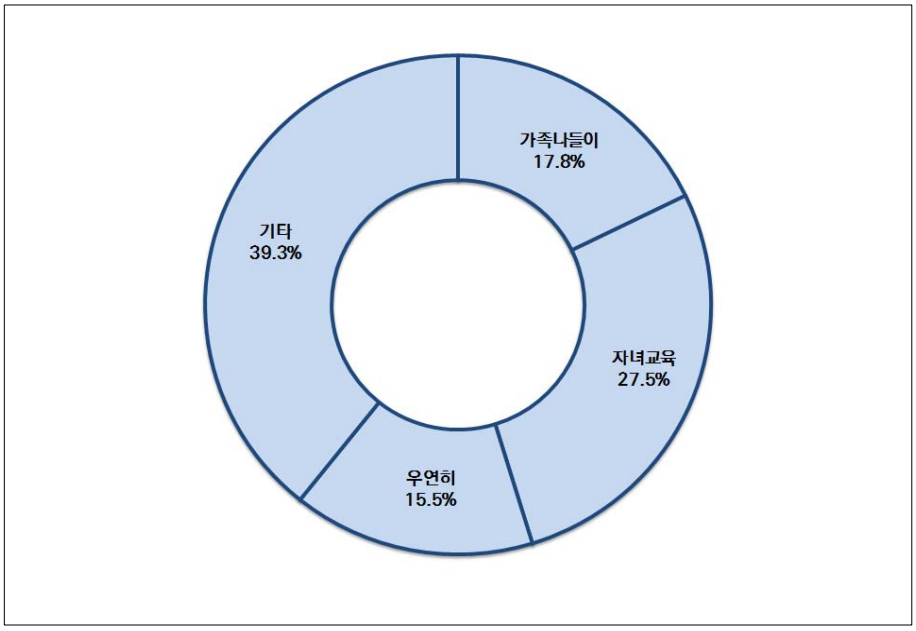
[그림 28]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연령별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관람객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40대가 2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주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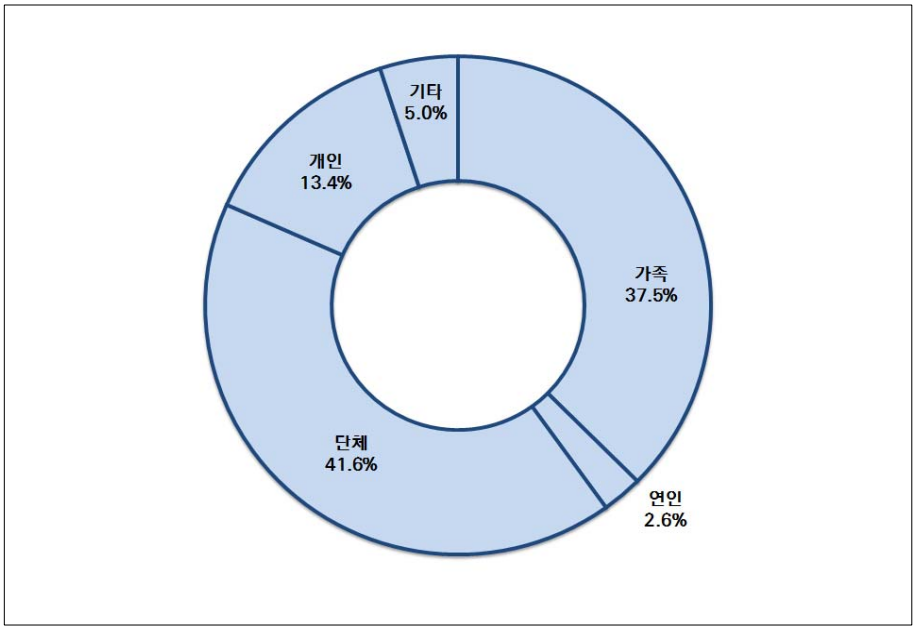
[그림 29]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지역별

□ 응답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이라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57.6%로 가장 많았으며, 타 지역에서 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나타남. 외국인 등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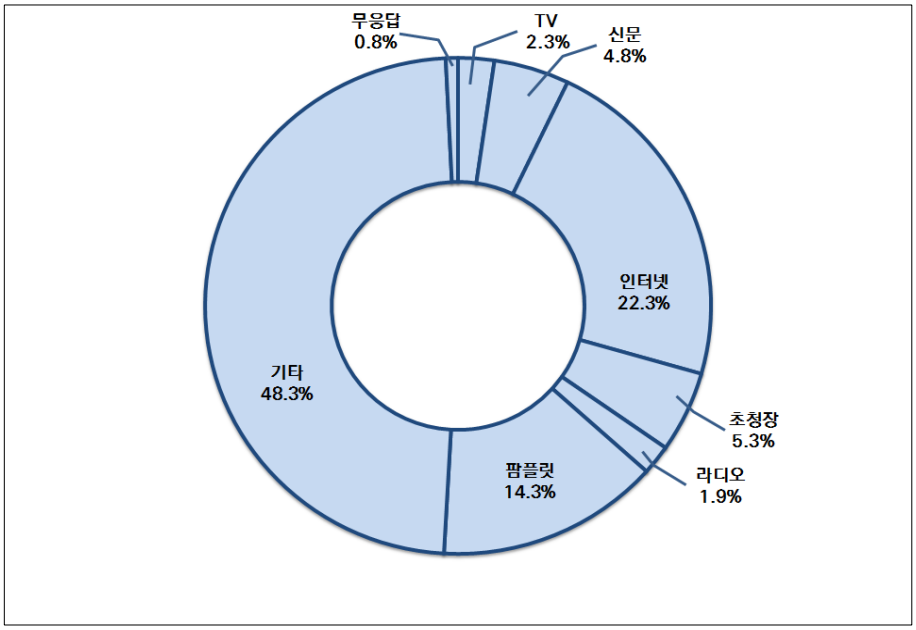
[그림 30]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참가 목적별

□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가한 목적에 대한 응답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는 응답이 27.5%로 교육적 성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나들이라는 응답이 17.8%, 우연히 지나가다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남. 단체 여행, 단체 방문 등이 포함된 기타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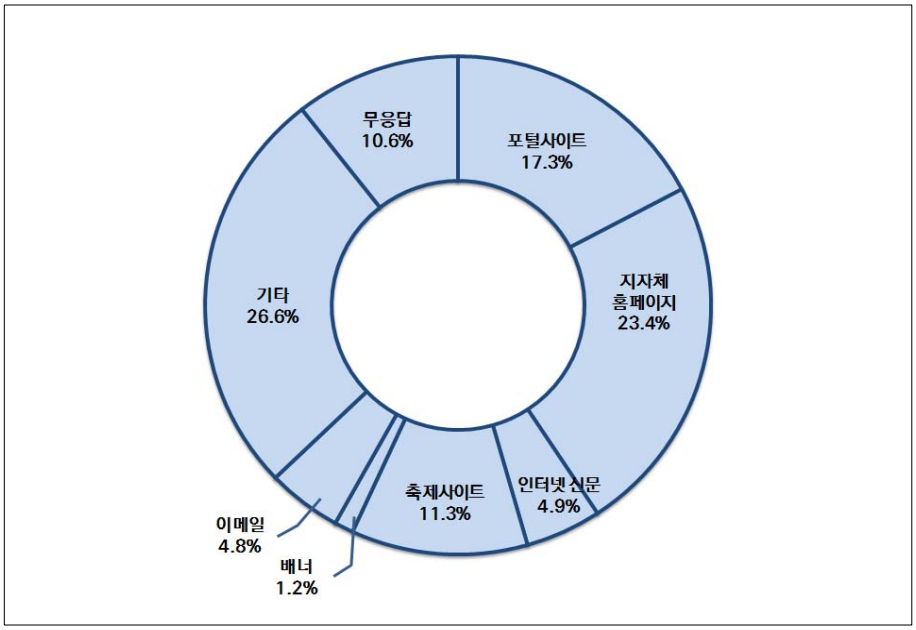
[그림 31]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동행자별

□ 프로그램에 함께 온 사람을 묻는 질문에 단체로 왔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족과 왔다는 응답이 37.5%, 혼자 왔다는 응답이 13.4%로 나타남.



[그림 32]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홍보 관련

□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2.3%, 팸플릿 등의 홍보 자료를 보고 왔다는 응답이 14.3%로 나타남. 학교나 관광단체, 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경우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33] 관람객 만족도조사 응답자 비율 - 정보 통로

□ 인터넷을 보고 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23.4%, 포털사이트에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7.3%, 축제 사이트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이 11.3%였음.

□ 해당 사업 수행 단체의 온라인 카페나, 각종 SNS 등의 출처들에 대해 응답한 기타가 26.6%로 나타남.

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만족도 조사 총평

□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완성도, 재미, 행사 진행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 우수함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사업에 대한 정보, 홍보물, 행사장을 찾아가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행사장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남.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체계,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사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제5절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우수사례

□ 생생 문화재 사업은 2012년, 사업이 시작한 지 5년차 되는 사업으로 꾸준히 새로운 지역의 문화재 활용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왔으며, 안정되어 특색을 드러내고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성과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우수사례들을 선정해 봄.

1) 지자체 사업지원 우수사례 - 울산 동구 / 강원 횡성군

□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사업 수행 단체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에 얼마만큼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사업 수행 단체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중 울산 동구의 경우는 지자체인 울산 동구청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음.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담당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하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문화재 접근이나, 다양한 행정적인 처리, 예산 집행, 홍보 등 많은 분야에서 다른 사업들이 지자체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강원 횡성의 경우, 사업 수행단체인 '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가 주로 노령의,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원 횡성군청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통 체계와 기획 등을 돕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함. 단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이후 사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생 문화재 사업과 연계된 국책사업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생 문화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중임.

□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의 경우 광진구청의 학예사와 수행단체인 한강문화재연구원이 매우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 광주 광산구청의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 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주체적인 사업 지원 계획 등이 지자체 성과지원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울산 동구 현장 이미지



▲강원 횡성군 현장 이미지

[그림 34] 지자체 사업지원 우수사례 - 울산 동구, 강원 횡성군

2) 교류 사업 우수사례 – 하이파이브 생생(강원 원주, 경기 군포, 전남 진도), 뚜르 드 산성 (서울 광진구, 경기 남한산성, 대전)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자발적으로 수행 단체 간의 교류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임.
- 매지농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강원 원주와 진도 북놀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남 진도, 그리고 이들 문화의 근간이기도 한 전통 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기 군포의 사업들은 '하이파이브 생생'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서로의 프로그램들을 방문하며 홍보, 공연 등을 진행하는 교류 사업을 진행함.
- 또한, 아차산성을 대상으로 사는 서울 광진구,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계족 산성 등 지역의 산성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이 '뚜르 드 산성'이라는 산성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박 2일 동안 서로의 산성을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 두 가지 교류 사업의 사례를 다양한 사업들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풍부해지고 우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지역의 생생 문화재 사업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음.

3)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우수사례 –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경기 남한산성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 재료들, 기념품 등을 제작한 사례들로 서울 동작구의 경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사 교육인 만큼,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사업 내용에 딱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부산 서구 또한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근대 전차 등의 사업 내용에 맞도록 참가자들이 모형을 조립해볼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진행 재료로 사용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도록 하였음.
- 경기 남한산성의 경우, '남한산성'을 캐릭터로 만들어 버튼 제작, 지도 제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기념품들을 제작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가방, 볼펜 등을 제작하여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한 우수사례들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도록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했다는 점과 더불어 결과물들의 질이 매우 우수하고, 참가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임. 이러한 콘텐츠들이 장기적으로 지역과 문화재를 대중화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발전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서울 동작구



▲ 부산 서구



▲ 경기(남한산성)

[그림 35]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우수사례 –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경기(남한산성)

4) 주민 참여 우수사례 - 제주, 전남 나주, 충북 괴산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중 하나는 생생 문화재 사업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었음. 이는 단순히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 문화유산 해설사, 프로그램 진행 인력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정도를 파악하려 했음.
-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경우는 주로 프로그램 중간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는 사례로 제주, 전남 나주의 사례가 있음.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어 생생 문화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충북 괴산이 그러한 사례임. 충북 괴산은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화사모')을 만들어 화양서원을 복원하고, 그 안에서의 선비 문화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올해 3년차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자발적으로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임.



▲ 제주



▲ 전남 나주



▲ 충북 괴산

[그림 36] 주민 참여 우수사례 - 제주, 전남 나주, 충북 괴산

5) 지역 인력 연계 및 양성 우수사례 - 강원 원주 문화재 쌩쌩 도우미, 서울 동대문구 지역문화해설사

- 지역과 단순한 협조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재 관련 인력으로 양성한 우수한 사례가 있음.
- 강원 원주의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문화재 쌩쌩 도우미(생생 문화재 사업을 쌩쌩하게 움직이며 도와주는 사람들)'로 양성하였음. 1박 2일씩 총 2회, 유형문화재에만 있는 문화재 도우미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유산 전반의 도우미로 확대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등이 가능하도록 축제 기획, 진행, 자원봉사 교육 커리큘럼 작성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인력을 양성했음.
-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아는 길잡이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재를 알리는 교육 활동을 진행함. 두 달간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강원 원주



▲서울 동대문구

[그림 37] 지역 인력 연계 및 양성 우수사례 - 강원 원주, 서울 동대문구

6) 사업의 자생력 강화 및 추진체계 마련 - 광주 광산구, 대전(산성)

- 생생 문화재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문화재청 지원이 없을 때에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있음.
- 광주 광산구의 경우 광산구청에서 서원 스테이를 위하여 마을 입구에 숙박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대상 문화재인 월봉서원의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보수 공사도 진행함.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지원하며 운영할 계획이 있음.
- 대전의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사업의 경우 해당 생생 문화재 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대전 지역과 '산성'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대전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유산울림'을 창립하는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광주 광산구



▲대전(산성)

[그림 38] 사업의 자생력 강화 및 추진체계 마련 - 광주 광산구, 대전(산성)

7) 신규 발굴 우수 프로그램 - 전남 나주, 경기 고양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신규 지원받은 생생 문화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구성과 기획, 진행 등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는데 전남 나주와 경기 고양의 사업임.

- 전남 나주의 경우 '조선의 도시'라는 주제로 조선 시대에 부흥했던 나주시의 읍성들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임. 평범한 프로그램이지만 야간에, 도룡포를 입고 설명을 들으며 나주 곳곳의 역사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경험은 특별하며, 천연 쪽염색 체험을 통해 나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뿐 아니라, 쉽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이 지닌 강점임.
- 경기 고양의 경우 '북한산성'을 대상으로 기획된 1박 2일 가족 대상 캠프 프로그램임. 보통의 캠프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방어'와 '수호'라는 해당 문화재의 특성에 주목하여 '국궁'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이는 단순히 특별한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고루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돋보임. 또한, 숲생태해설이 곁들어진 산길 탐방 등도 전문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설명으로 참가자들이 매우 만족하는 시간이었음.
- 이 두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알려내겠다는 콘셉트가 분명하여 시종일관 열정과 패기가 느껴졌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전남 나주



▲경기 고양

[그림 39] 신규 발굴 우수 프로그램 - 전남 나주, 경기 고양

8) 절기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우수 사례 - 경기 군포, 강원 원주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가량이며 대부분의 사업들은 동일한 2~3가지의 프로그램 틀을 가지고 매주 혹은 격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음.
- 24절기가 뚜렷한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 군포와 강원 원주는 절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연중 참신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참가자들이 1회성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즐기고 지킬 수 있도록 구성함.
- 경기 군포의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의 경우 청명, 곡우, 망종, 입추 등 각 절기에 맞추어 파종하기, 모내기, 전통술 담그기, 벼 베기 등의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강원 원주의 경우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축제'라 하여 단오 서낭제, 옥수수축제, 땅속김장축제, 달맞이축제 등 시기마다 농사력에 맞춘 민속형 축제를 기획함.



▲ 경기 군포



▲ 강원 원주

[그림 40] 절기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우수 사례 - 경기 군포, 강원 원주(매지농악)

9) 기타

□ 이 외에도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킨 강원 원주 매지농악 사례,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한 부산 서구의 사례 등이 눈여겨볼 만한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41]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경기(남한산성), 광주 광산구



[그림 44]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제4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 (우수사업)

제 1절 : 서울 광진구
제 2절 : 서울 도봉구
제 3절 : 서울 동대문구
제 4절 : 부산 서구
제 5절 : 광주 광산구
제 6절 : 대전 (산성)
제 7절 : 경기 (남한산성)
제 8절 : 강원 원주시 (매지농악)
제 9절 : 강원 횡성군
제10절 : 충북 괴산군
제11절 : 충북 영동군
제12절 : 충북 청주시
제13절 : 충남 아산시
제14절 : 전북 김제시
제15절 : 전남 화순군
제16절 : 전남 진도군
제17절 : 경남 하동군

[사업 개요 및 내용]
[현장모니터링 평가]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평가]
[사진]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우리 곁의 삼국시대

서울 광진구
한강문화재연구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아차산일대 보루군(사적 제455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1일~11월 30일(9개월)
다. 장소: 아차산유적지(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및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 보루군)
아차산생태공원 일원, 아차산향토자료실,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한강문화재연구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광진구청
나. 수행단체: (재)한강문화재연구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문화유산 투어 및 생생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아차산성 및 아차산일대 보루군 유적을 홍보 및 활용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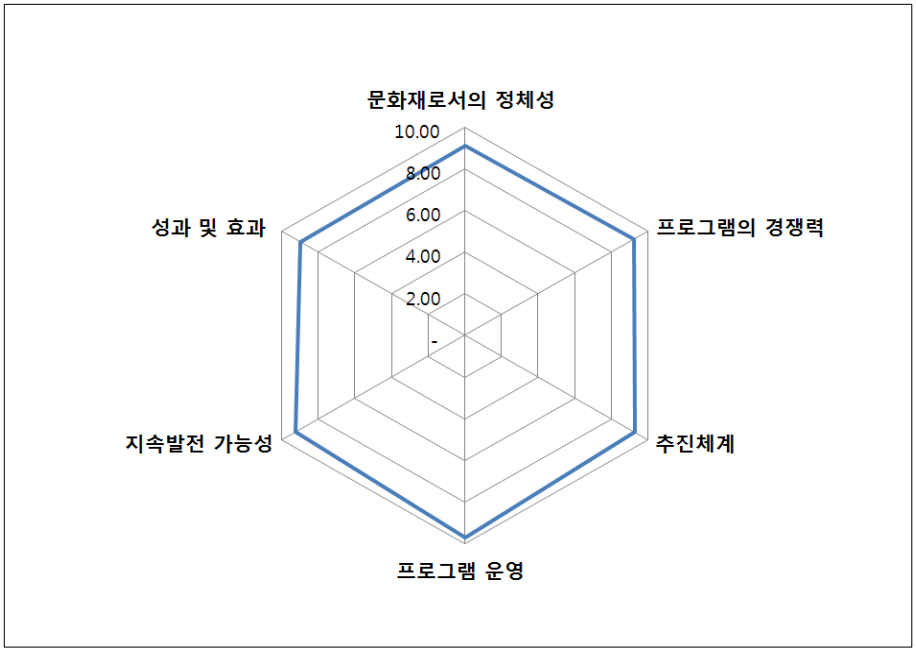
가. 아차산역사문화투어
나. 아차산역사문화교실
다. 세부사업명 : 뚜르 드 산성(Tour de Sanseong)
라. 발굴조사 체험교실 –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26일(수) – 발굴조사 체험교실 -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서울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4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광진구의 아차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돌을 이용해 지어진 산성임.

□ 1997년에 발굴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류와 철기류,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됨.

□ 누가 지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각축전을 벌였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한강문화재연구원은 이 일대의 선사~고대 유적인 아차산성과, 아차산일대의 보루군의 문화유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아차산 일대의 유적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답사해보는 아차산 역사문화 투어, 아차산 유적과 유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식 교육 프로그램인 아차산 역사문화 교실, 직접 발굴을 체험해볼 수 있는 발굴조사 체험교실, 그리고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이자 '산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남한산성과 대전의 산성프로그램과 연계한 '뚜르 드 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서울 주변에 남은 산성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였던 서울이 가진 역사적인 중요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현장모니터링으로 방문했던 프로그램인 '발굴조사 체험교실'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생태공원인 줄로만 알고 있던 아차산이 실은, 삼국시대부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고,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발굴' 등을 통해 찾아내고 있으며, 그 발굴이 어떠한 작업인지 체험해보고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활용하며 보존을 한다'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의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임.

□ 또한, 서울 시내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발굴 현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한강문화재연구원은 출범한 지 만 7년이 되는 탄탄한 문화재연구원으로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임. 교육 콘텐츠팀을 따로 두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교육책자 출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로 매장문화재 연구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원 소장 자료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양 강좌, 고고학 체험교실, 생생 문화재 사업-아차산 발굴체험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서울 광진구청은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재 팀을 따로 두어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아차산성 복원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사업 수행단체인 한강문화재연구원과 사업 지원 지자체인 서울 광진구청의 학예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며, 생생 문화재 사업의 추진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음.

□ 아차산성의 복원 정비사업 또한, 생생 문화재 사업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추진체계는 매우 탄탄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발굴조사 체험교실을 중심으로 서술함.

□ 교육 담당자 2인과, 담당 학예사, 팀장, 사진 촬영 기사, 자원 활동가들이 합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가 어린이들을 2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문화재 발굴 체험과 만들기 체험 등을 먼저 진행하고 다른 팀은 아차산성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문화재 발굴 체험,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도록 함.

□ 어린이들의 경우 담당 교사들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인력이나, 통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음.

□ 자원 활동가들 또한 주어진 역할을 잘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듯했으며,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어떠한 체험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능숙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음.

□ 문화재를 발굴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프로그램 진행 전에 설명해 주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함. 당일은 참가자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어서 흙 속의 유물을 삽으로

찾아내어 보고, 솔로 털어내는 체험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 2팀의 운영 시간의 길고 짧음이 달라서 한 팀이 오래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산길이 험한 부분이 있었으나, 문화재 관련 퀴즈를 내어 수행단체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선물로 주는 시간을 마련하여 지루한 틈을 줄였고, 산길의 경우는 진행자들이 안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아차산성 정비 관련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린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재빠르게 길을 정비해주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
-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게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해준다면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임.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살리기 위해 건립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 홍보관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홍보관에서 아차산과 고구려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관련된 리플렛을 제작하여 비치해 두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무엇인지, 한강문화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발굴체험은 어떤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발굴체험안내문'을 제작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워크북을 제작하여 발굴하는 방법·탁본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차산 생태공원이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발굴체험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산 중턱에 있어서 화장실 등의 이용이 쉽지는 않았음.
- 아차산성은 전문 발굴 조사원들이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장을 둘러볼 때에도 참가자들의 안전은 물론, 전문 발굴 조사원들이 직접 설명과 안내를 진행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사업 수행단체와 지자체의 협력 관계가 공고하고, 한강문화재연구원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팀을 따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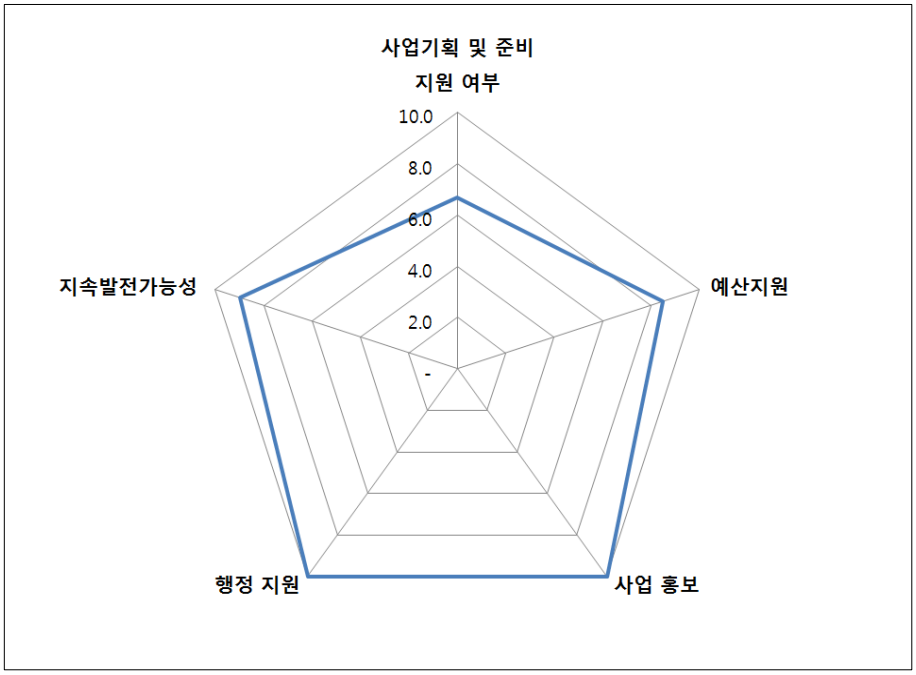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련봉 보루 발굴조사 진입로를 정비하고, 아차산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복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 사업이 얻은 중요한 성과임.
- 또한, 남한산성, 대전 산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적을 타 지역의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 것 또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킹 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은 우수 사례라고 판단됨.

- 현재 광진구에 있는 학교 등과 연계하여 문화재 관련 발굴 체험, 역사문화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 전지역의 학교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본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또한, 체험장 등이 야외에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고, 특히나 장마철에는 계획된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을 빚기 쉽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어린이들 뿐 아니라, 지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발굴 체험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의 관심으로까지 이어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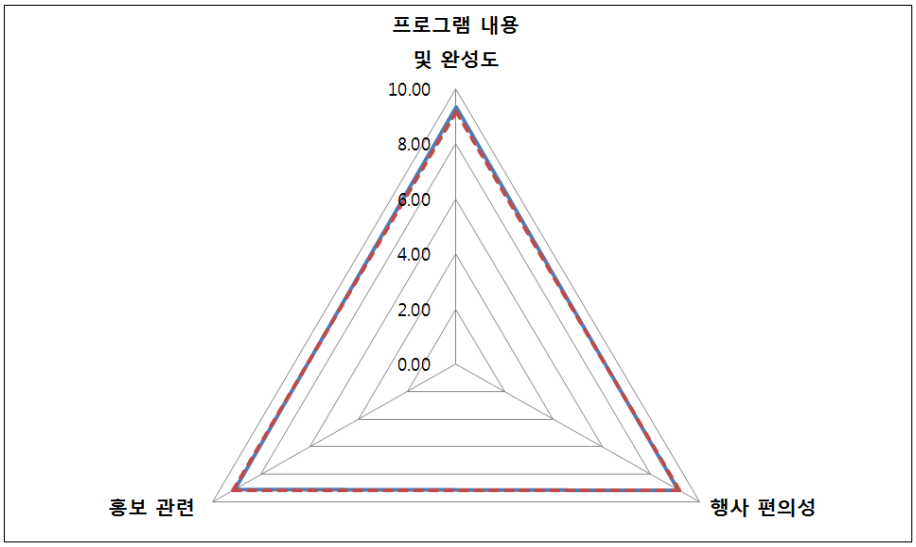
[그림 44] 현장 이미지 – 서울 광진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4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46]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광진구



[그림 47] 현장 이미지 – 서울 광진구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
-도봉서원 생생사업

서울 도봉구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도봉서원과 각석군(서울시기념문화재 제28호), 춘추향제(春秋享祭)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 12월(10개월)
다. 장소: 도봉서원과 각석군, 도봉문화원,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도봉구청
나. 수행단체: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서울지역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道峰書院)과 각석군(刻石群)은 특별한 문화유산임. 2011년 도봉서원 생생사업의 진행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참여형 선비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함.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도봉서원이 올바른 현대적 유교문화 활용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국 유교문화 관련 활용단체와의 연계로 상호 보완 및 공생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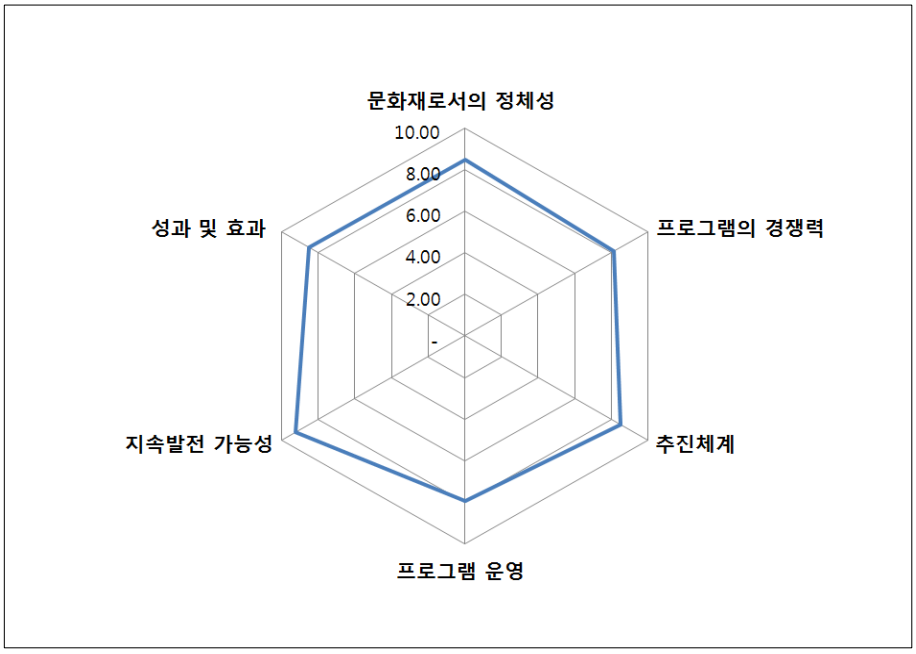
가. '도봉서원 선비문화 환경캠프'진행
나. 자연 속 도봉서원 강좌 '도봉만인소(道峯萬人疏)'진행
다. 도봉서원 환경 정비'철학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라. 기타사업 '유교문화 즐겨찾기'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8일 '도봉서원 선비문화 환경캠프'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도봉서원 생생사업] 서울 도봉구/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

현장모니터링



[그림 48]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과거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였을까’는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임. 도봉서원 선비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점을 잘 부각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함.
- 다만 현재 서원이 복원을 위한 공사 중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발굴 중인 유적이라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을 공개했더라면 더욱 좋은 수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함.
-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서원들에 비해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의 서원들과 교육체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편임.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하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매우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
- 추후 서원이 복원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서원의 역할과 체계, 교육내용과 당시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을 교육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들이 주로 잘 알려진 관광지에 위치하며, 잘 개발된 장소에서 해설을 들려주거나 읽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도봉서원의 선비문화캠프의 경우, 숨겨져 있던 유교와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함.

□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과거의 우리 교육제도인 서원과 서원의 학문,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흔적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임.

□ 교육 과정에서는 동영상, 이미지, 강의, 골든벨 퀴즈, 체험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적절하게 구성하였음.

□ 참고 교재는 선비를 캐릭터화하여 그린 수준 높은 일러스트를 가미하여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어려울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교재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선배의 덕목, 하루, 서재는 어린 학생들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여 흥미로움.

□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문화재해설사로 교육을 받고 직업으로써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함.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해설사와 해설방법론이 개발된다면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재고와 함께 강사 양성, 교육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당일 현장에서의 진행요원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업을 이끌고 학생들을 지도하였음. 전체를 리드하는 담당자 역시 수업의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적절한 지도와 개입, 도움을 주는 분위기로 매우 협력이 잘 이루어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참가자의 층이 유치원 어린이부터 중학생, 학부형까지 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고, 그 중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산만하고 집중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강사들은 수업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으며, 매우 준비가 잘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보였음.

□ 다양한 연령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어떤 연령에 눈높이를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음.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워도 고학년에게는 지루할 수 있고, 고학년에 중심을 두게 되면, 저학년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전체가 함께 듣는 강의형 수업보다는 분반, 팀별 수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함.

□ 또한, 문화재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다보니, 자칫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자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다 쉬운 언어로 바꾸어주거나, 이를 이해하는 친절한 과정(퍼즐 맞추기, 게임 등)을 거쳐서 단계를 밟아가기를 권하고 싶음.

- 각석군을 방문하는 수업은 바깥활동이어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이었음. 두 팀이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앞선 팀의 방문이 길어져 뒤따르는 팀은 매번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기다려야 했음. 기다리는 시간을 흥미롭게 보내면서도 등산객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장소에서 짧은 놀이 – 각석에 새기고 싶은 문구 지어보기, 탐정놀이로 추론하여 찾아보기, 이동을 위한 옛날 놀이 등 - 나 주변의 사물들과 문화재의 관계 - 주변의 배롱나무나 오래된 수종의 경우 각석이 새겨지던 시기에 심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시대의 선비들이 숲이나 나무, 산책에 관해 지은 시나 수필 등 –를 준비하여 보다 다면적으로 각석문화를 감상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공사 중인 서원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 보완 방법으로 보드판에 서원 건물들을 붙였지만 아쉬움이 남음. 공사터 옆에 비교적 넓은 마당이 있는 만큼 이 곳의 벤치와 나무, 돌이나 바위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서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상상하여 구성해보도록 하면서 각 건물배치를 이해해보는 방식을 권하고 싶음. '체험 캠프'가 일종의 '서원'활동이라는 점을 대입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팀별로 내가 만드는 서원 캠프 건축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룹 작업을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는 문화재를 바라보고 교육할 때에 고정된 유물로만 보는 한계가 존재함. 어린이에게는 지식정보로써 이러했다는 사실 혹은 역사를 전수하거나 교육하기보다는 그 때의 사람들도 현재처럼 먹고, 입고, 자고,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지를 상상 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해준다면 살아있는 생생한 문화재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과거가 박제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현재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문화해설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전문가인 문화예술교육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과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도봉서원 선비문화캠프는 매우 훌륭한 사례임. 또한 지역의 숨겨진 문화재를 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과거를 들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 소중한 작업임.
- 이번 선비문화 환경캠프는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숨겨진 자산을 발굴하고 지역정체성을 세우면서, 문화예술교육매개자를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콘텐츠로 보임. 추후 역사 문화적인 부분과의 연계, 조선시대의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발전시킨다면 교육으로뿐 아니라 지역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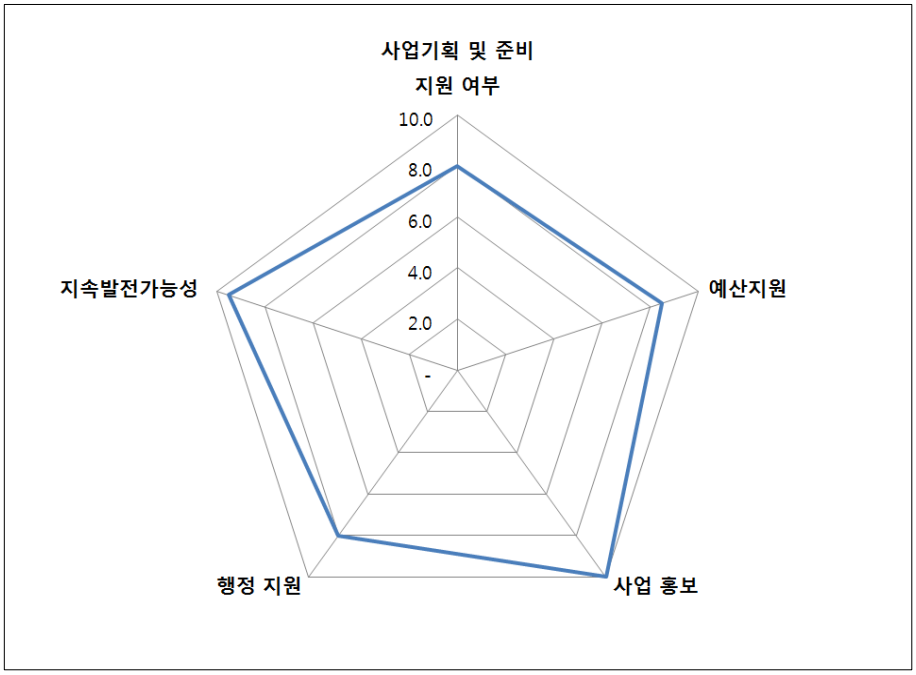
- 유교의 선비문화를 통해 과거의 교육과 교육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를 재조명하였음.
- 서원과 각석군을 연결하여 지난 시대의 삶의 문화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은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활용하고 현재화 할 것인가는 제시하는 사업으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쟁, 일제로 인한 과거로부터의 여러 차례의 단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와 문화재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음. 그러나 현재는 언제나 과거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고, 미래 또한 그러하기에 과거의 삶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어야 함.
- 그동안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문화재를 통해 과거의 삶을 복기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배워나가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풍부한 상상력과 교육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채롭게 발전시켜 나갈 시점임.
-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스토리'란 원전이고 자원임. 문화재는 이러한 문화적 자원의 보고임. 역사적 사건, 영웅 중심적 거대서사가 아닌 보통의 삶의 층위에서 있어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이야말로 무궁무진한 자원임.
- 조선시대의 선비(고3 학생)가 새벽 세 시에 일어나서 사당에 인사를 올리고(세수를 하고 학교에 가소) 11시에 잠자리에 들고(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와 같이 두 개의 삶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이 공통점과 차이에 문화와 역사, 삶의 의미들이 산재함. 이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과거를 지나간 사건으로써 지식정보로만 보기보다는 현재의 연결점으로 살아있던 것으로 바라보고 예술적인 상상력이 접목되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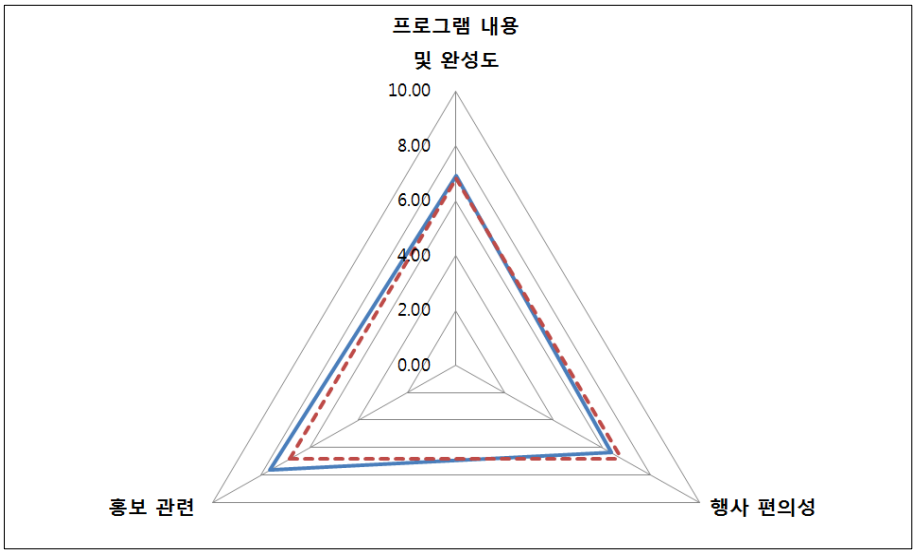
[그림 49] 현장 이미지 – 서울 도봉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50]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51]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도봉구





[그림 52] 현장 이미지 – 서울 도봉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
(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수표 (보물 제838호), 영휘원(사적 제361호), 선농단(사적 제436호), 선농단 향나무(천연기념물 제240호) 답십리 도당(비지정 문화재)
나. 사업기간: 2012년 1월~12월(12개월)
다. 장소: 동대문구 일대(세종대왕기념관, 영휘원, 선농단, 답십리 도당)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나. 수행단체: ㈜코리아헤리티지센터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동대문구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현대에 재조명될 수 있도록 하고 동대문구 문화유산 브랜드 형성에 기여한다.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대문구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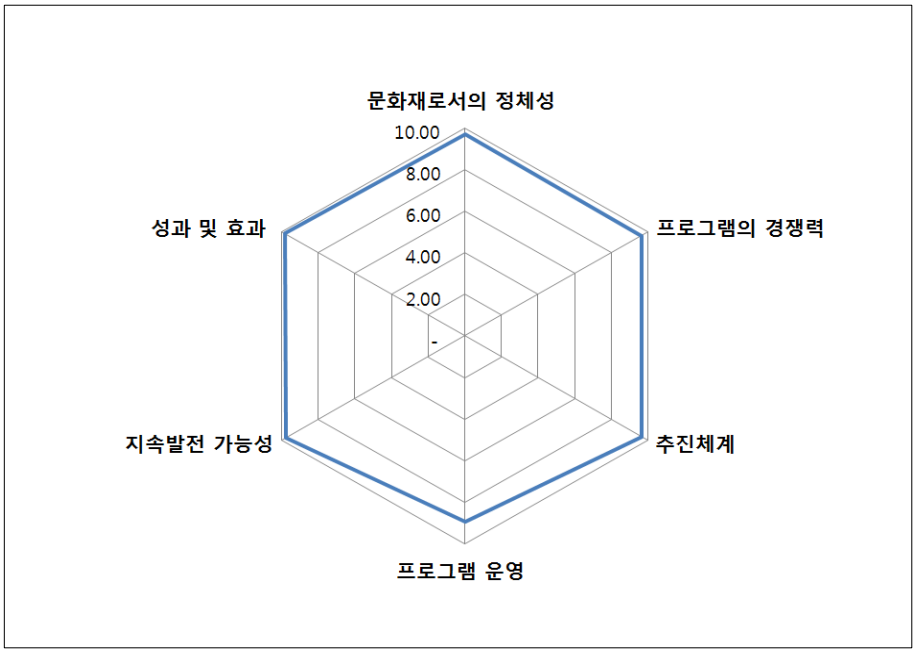
가. 선농단 야외박물관 체험 (향나무 음악회)
나. 영휘원 왕실예절 인문치유
다.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라.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알리는 길잡이' 양성교육
마. 답십리도당 생생극장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10월 6일(토) '영휘원 왕실예절 인문치유'
2012년 11월 10일(토)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현장모니터링



[그림 5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중심 소재인 '수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세종대왕릉에 있던 석물과 비각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
- 문화재는 아니지만, 앙부일구나 측우대, 물시계의 모형을 통해서도 세종의 애민정신과 과학에 대한 식견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모두가 알고 있는 조선(세종)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고, 실제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표와 영휘원을 다루고 있어 한번쯤은 참가할 만한 프로그램임.
- 도심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남. 좋은 자연환경(숲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박물관과 같은 실내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음.
- 서울 도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민속 박물관, 왕실박물관 이외에는 만나기 힘든 자연 속의 황실 역사 문화를 통해 배우는 애민 정신과 과학 기술을 주목해야 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수행단체인 코리아헤리티지센터는 문화유산 관련 전문 기관으로 문화유산 교육가(해설사) 양성 사업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어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자체 조직체계를 이미 잘 갖추고 있음.
- 현장모니터링 당일 진행에서 보듯 우수한 인력의 진행자(해설사)를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해내고 있어 인적 자원의 풍부함은 훌륭하다고 생각함.
- 해당 지자체인 동대문구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각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들과의 네트워크고 잘 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출입구와 첫 모임 장소인 기념관 앞에 아무런 안내가 없어 먼저 온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안내가 되지 못하였음.
-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해박한 지식과 설명 능력이 매우 돋보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하면서도 내용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진행함. 강사의 경험과 대상에 대한 이해에 따른 준비가 돋보임.
- 11월은 야외 체험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추운 날씨라고 생각됨.
- 당일 배포한 안내 책자가 직접 출력한 것이어서 참가자(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고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인쇄물의 수준이 아니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도심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숲 속에 있기에 도시민들에게 매력을 갖는 장소에서 진행함.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 '한류열풍 - 외국인들의 우리말과 한글 배우기 붐'을 잘 활용한다면 연간 상설 역사문화유산 체험 학습이나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도 충분함.
- 수행단체인 코리아헤리티지센터의 안정화되어 있는 수행 체계와 전문성은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속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음.
- 문화재가 많지 않아 수학여행 프로그램까지로의 확대는 어렵겠지만 서울시내 초중고생들의 학교 차원에서의 단체 현장 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배울 것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음.
- 작은 돌기둥 하나에도 과학성과 애민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음.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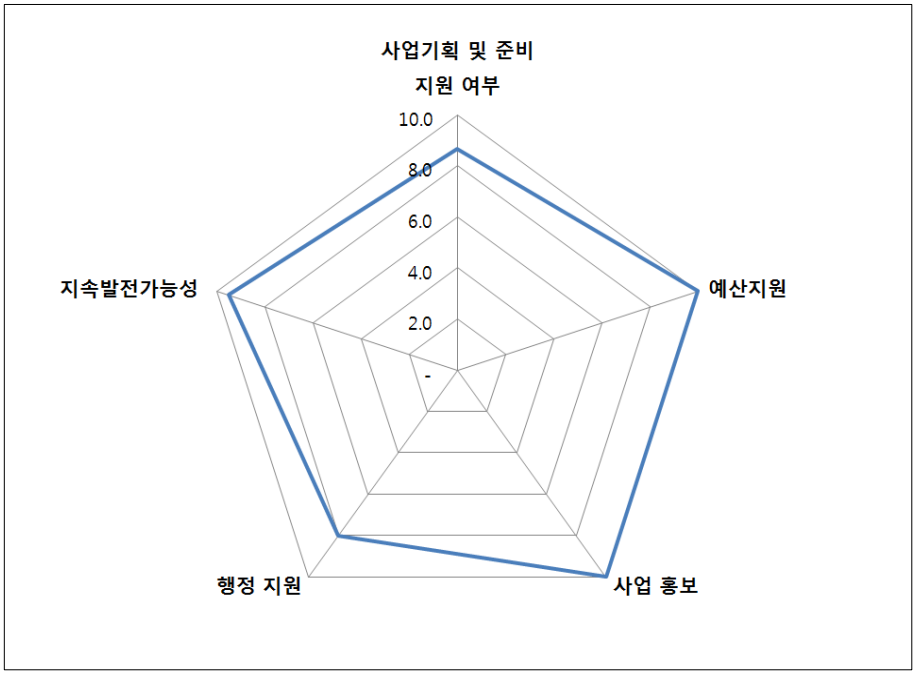
- 현장모니터링 당일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한 편이었지만, 야외에서의 체험행사는 10월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더구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일의 일기에 맞추어서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기에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계절을 고려한 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음. 전체 사업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임.
- 인근의 대학(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의 관련 학과나 연구소와 연계하여 현장진행(자원봉사자), 학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이를 통하여 참가 대상층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대학교와 교수, 대학생들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사업의 주체에 참여하는 방식임.
- 문화재 보존만이 아니라, 전시물(모형, 복제품 등)에 대해 디자인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보물인 '수표'도 방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측우기(대), 앙부일구 등은 아무리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세종대왕 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풀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고, 안내판도 너무 조악하였음. 2층의 박물관에 전시물 또한 낡고 조잡했음.
- 세종대왕 기념관 웨딩홀은 찾을 수 있어도, 세종대왕 기념관은 잘 알 수 없음. 기념관에 대한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웨딩홀이겠으나, 현재의 모습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예식장이 아니라 '궁중 혼례, 전통 혼례'를 관광 상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되어야 할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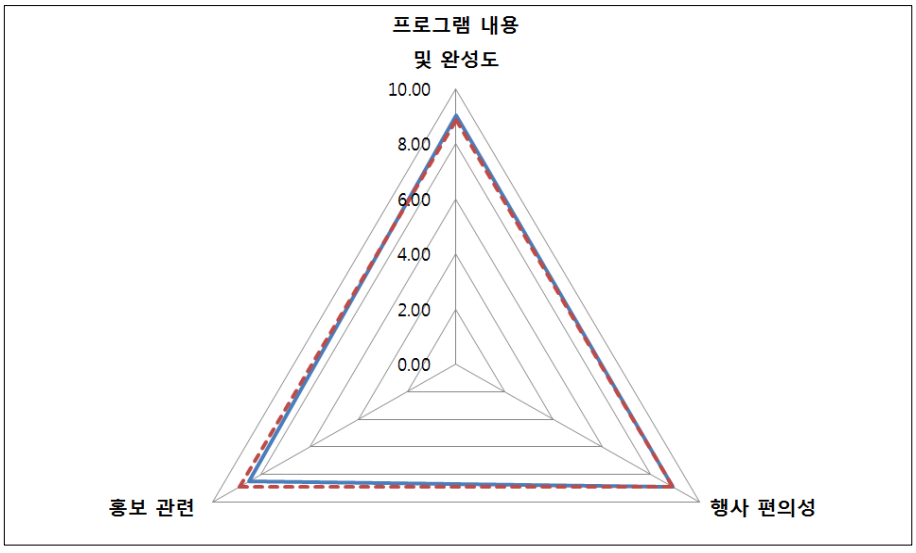
[그림 54]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55]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56]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동대문구













[그림 57]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그림 58] 현장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박물관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41호)
나. 사업기간: 2012년 1~12월(12개월)
다. 장소: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산소재 대안학교(참빛학교, 우다다학교, 사과나무학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부산시 서구청
나. 수행단체: 동아대학교 박물관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국가등록 문화재 제 41호인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등록문화재 활용의 좋은 예를 홍보하고자 함. 또한 대안학교와 병원학교 찾아가는 박물관을 2012년도 시범 운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단체에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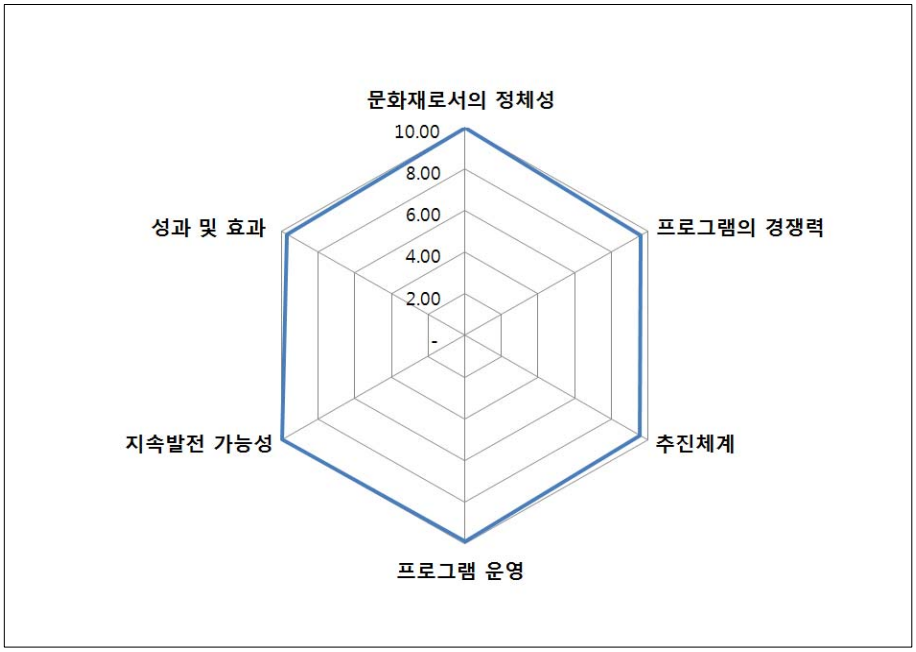
가. 상시 프로그램 –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상시프로그램)
나. 토요 프로그램 – 탁본 체험하기, 발굴 체험, 도자기 만들기, 민화부채 만들기, 탈 만들기, 퍼즐 만들기, 연 만들기 체험
다. 어린이 박물관 학교
라. 대안학교/병원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마.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 교원 직무연수
바. 구덕골 문화예술제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6월 4일(월) '대안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2012년 10월 19일(금)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서구/동아대학교 박물관

현장모니터링



[그림 5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부산 서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생생 문화재 사업은 기존의 임시수도정부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뉴얼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특히, 생생 문화재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근대역사자료관, 임시수도 기념관과 더불어 임시수도정부청사를 오가던 전차를 전시함으로써, 일방향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단순체험 사업을 극복한 사례로 보임.

□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당시대의 교통문화인 전차의 퍼즐체험, 미니어처 제작과 전시된 근대유물인 신석기 토기, 전차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국내 유물 박물관에서는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임.

□ 이 사업의 수행단체인 동아대 박물관은 문화재의 정체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험, 체득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문화재의 정체성 획득과 더불어 이번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 높이 살만 한 프로그램 요소는 전년도에 시행하던 상시프로그램(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과 다양한 체험행사 외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사업 프로그램이라 판단됨.

□ 역사문화를 체험하기에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 소아암 환자(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박물관'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생생 문화재 사업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여타 박물관 및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됨.

□ 또한, 생생 문화재 사업의 본래 취지인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 회복'이라는 부분에 조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업 경쟁력 역시 우수하다고 판단됨.

□ 상시 프로그램과 정기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체험 교육 기회를 균형감 있게 이루어낸 사업으로서 향후에 도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이번 사업의 수행단체인 동아대 박물관의 추진체계는 해당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실행 팀을 주축으로 지자체, 박물관(학예사, 자원봉사자 등), 기타 지역의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추진체계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이 지역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는 역사문화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물관 실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되는 상황이므로 보다 원활하고 사업의 효율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은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상시-정기 프로그램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사업 교육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를 감안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안배가 필요하고, 사업의 기획 업무와 교육 운영 업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부산 서구 동아대 박물관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이 지역 사회서비

스사업으로의 가능성과 함께 현재보다 충분한 재원 및 인원의 보강된다면 역사문화교육사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해 볼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 문화재 가치 회복을 위한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의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도 전수,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나. 성과 및 효과

□ 이번 생생 문화재 사업의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적인 성과 및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프로그램의 단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2011년 대비 교육 참가 인원이 약 27%가 늘어난 결과에서 이미 우수한 성과를 이룬 사업이라고 판단됨.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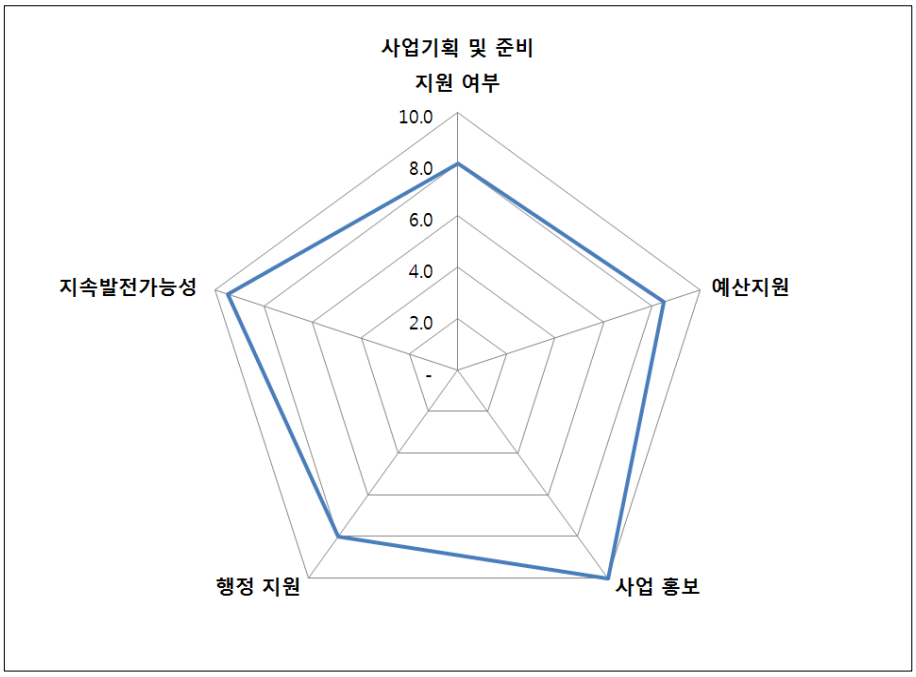
□ 동아대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생 문화재 사업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교육 대상자인 유소년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교육 운영체계와 기존에 여타 박물관에서도 시행되었던 '찾아가는 박물관'을 그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도 합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라고 판단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이 기존의 유무형 문화재의 가치 회복에만 치우쳐 있던 측면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순응하며 기능과 파급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 준 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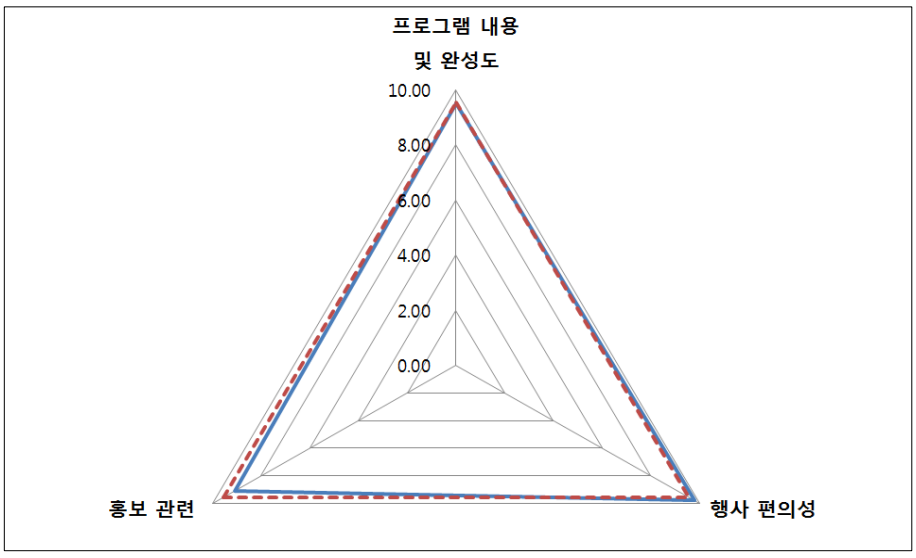
[그림 60] 현장 이미지 – 부산 서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61]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부산 서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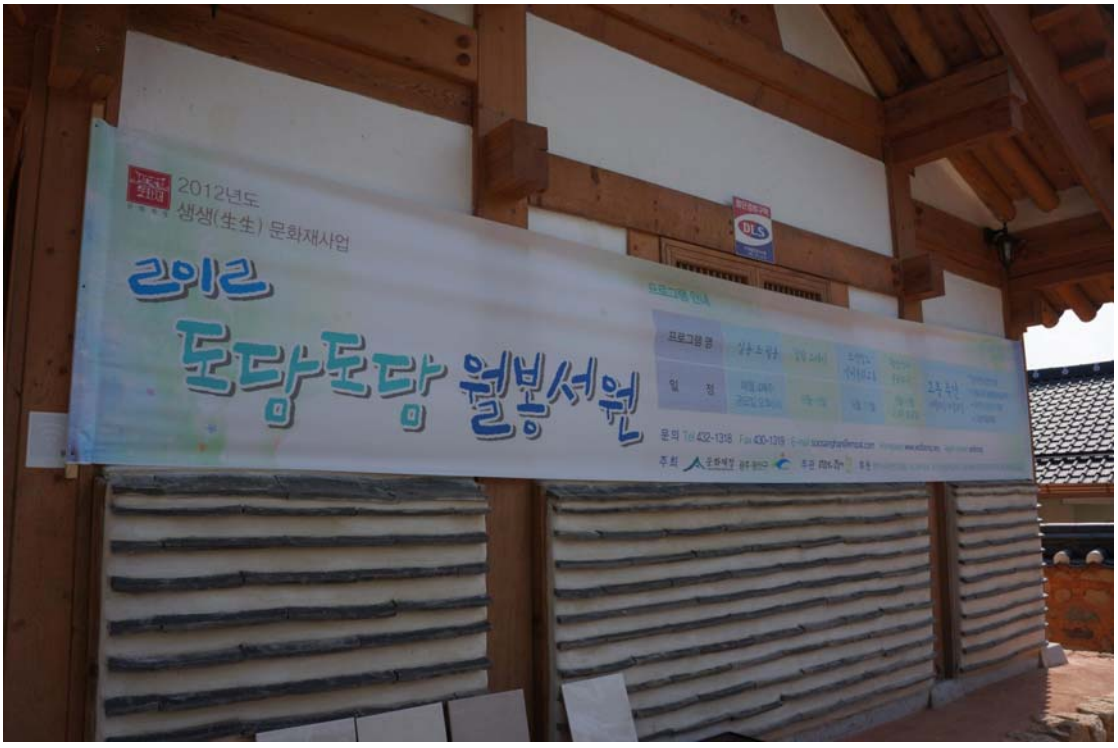
[그림 62]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부산 서구



[그림 63] 현장 이미지 – 부산 서구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광주 광산구
교육문화공동체 결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 및 빙월당(시지정기념물 제9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12월(10개월)
다. 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월봉서원 일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 수행단체: 교육문화공동체 결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고봉 사상 및 월봉서원의 전국화를 위한 현대적 의미를 살린 놀이와 예술,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 교육문화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통한 서원 활성화 모델을 제시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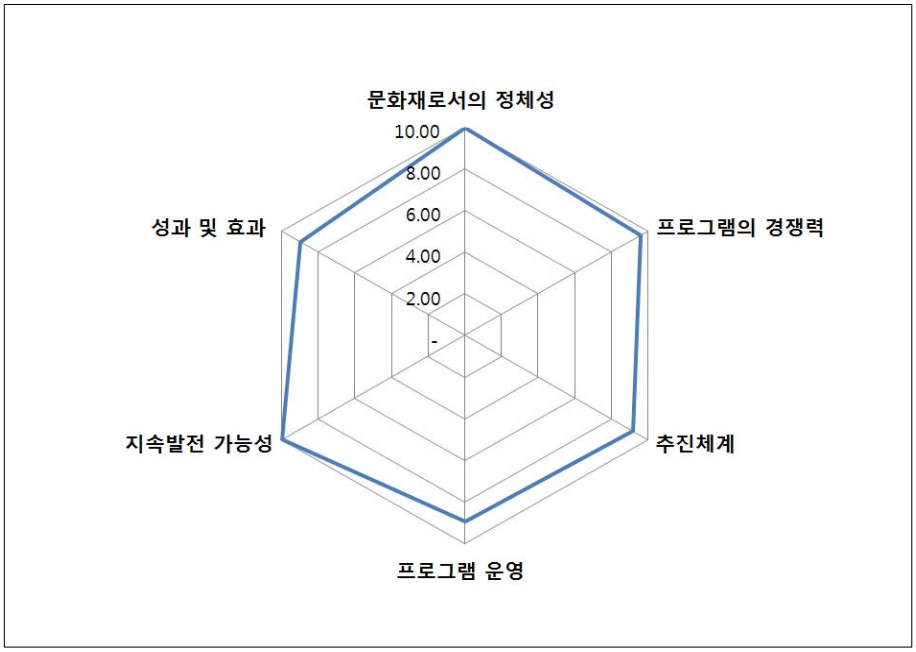
가. 고품격 서원 문화 살롱, '살롱 드 월봉'(salon de Wolbong)
나. 월봉서원 철학 STAY운영
다. 조선팔도 선비문화교류 프로그램
라. 월봉서원 전국 한시 경연 대회
마. 아름다운 월봉 엽서 공모전
바. 월봉서원 어린이 글짓기 대회
사. 광산 역사 문화 투어
아. 고봉학 학술대회
자. 월봉서원 가이드북 제작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7월 27일(금) '고품격 서원 문화 살롱, '살롱 드 월봉'(salon de Wolbong)'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광주 광산구/교육문화공동체 결

현장모니터링



[그림 64]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월봉서원은 광주 광산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서원으로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으나 1941년 빙월당을 시작으로 새로 복원되었고, 2012년 관리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공사 및 월봉서원 주변 문화생태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었음. 고봉 기대승은 16세기 조선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퇴계와의 사단칠정을 비롯한 성리논변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율곡, 오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함. 한국 성리학이 보다 철학화 되고 심화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사람임.

□ 현재는 월봉서원 옆에 따로 교육체험관을 지어 월봉서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두었음. 영역을 차츰 넓혀 서원스테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월봉서원에서 진행된 생생 문화재 사업은 매월 1회씩 다양한 장르의 강사를 초빙하여 인문학과 결합시켜 이야기를 해보는 프로그램인 '고품격 서원 문화 살롱, 살롱 드 월봉', 서원 고유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월봉서원 철학스테이', 어린이 글짓기 대회, 학술대회 등으로 구성된 '고봉문화

제',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지역 고유의 다양한 학문사상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한 '조선팔도 선비문화교류프로그램', '월봉서원 전국한시지상백일장대회', '아름다운 월봉엽서공모전', '광산역사문화투어' 등으로 구성됨.

- 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생생 문화재 사업에 걸맞게 사업들이 탄탄하게 진행되어 옴.
- '광주 광산구'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성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학자의 서원이라는 문화재가 가진 의미를 살려 기획한 프로그램들임.
- 서원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우수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미 여러 차례의 실행을 통해 안정되었다고 판단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사업 수행단체인 교육문화공동체 결은 2006년부터 광주를 거점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대안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재생교육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임. 2008년부터 월봉서원을 중심으로 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외에도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문화마을공동체 사업, 광주 작은 여행청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광주 광산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광주 광산구청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5년 동안 선정되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음.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의지가 많음. 지역 문화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공사한다거나, 철학스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곡마을 입구 쪽 서원스테이 숙박 시설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는 지자체와 수행단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우수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12년 7월 27일에 진행된 '열한 번째 살롱 드 월봉' 프로그램임. 공연과 이야기 마당이 함께 진행되는 행사로, 당일은 전라도닷컴 한풍년 편집장의 전라도와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 '이야기가 있는 세계 음악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라의승 음악칼럼리스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크게 보면 행사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며 행사 전에 간단하게 다과의 시간이 있음.
- 진행요원이 적지 않음에도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아 보이고, 산만한 부분이 있었음.
- 프로그램 진행 자체는 큰 무리는 없었으나, 좀 더 세련된 진행과 구성이 필요해 보임.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월봉서원, 교육문화교육센터 결 모두 홈페이지가 있지만, 행사 3일 전까지도 행사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 현재 월봉서원의 생생 문화재 사업 홈페이지에는 2011년도 사업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 월봉서원 교육학습관에는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홍보 현수막들이 잘 비치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라도, 전국으로 참가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온라인 홍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화장실, 주차장은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잘 되고 있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광주 광산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지원 5년차로 2012년을 마지막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졸업한 첫 사업임. 하지만, 광주 광산구는 철학스테이를 위한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월봉서원 일대를 정비하는 등 생생 문화재 사업 이후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던 지역의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생 문화재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한 성과임.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수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해오고, 또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된 점 또한 큰 성과로 보임.
- 지자체와 수행단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문화재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콘텐츠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이후 생생 문화재 사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성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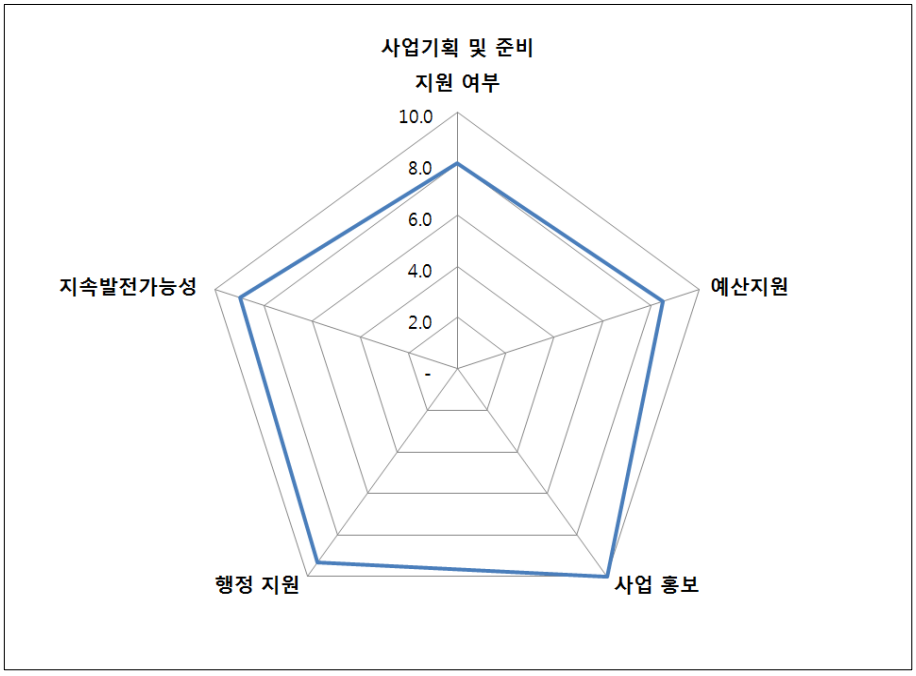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5년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월봉서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리고, 다양한 인문학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봉서원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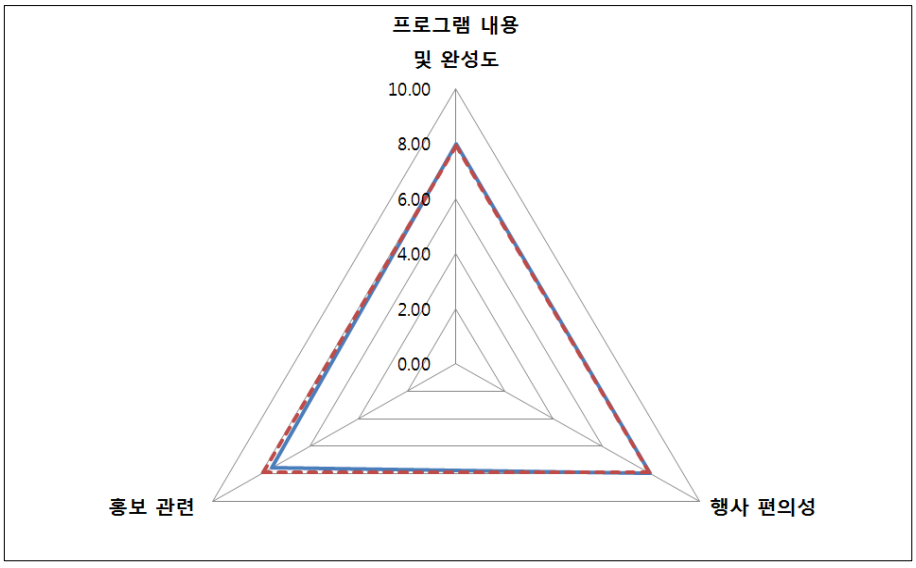
[그림 65]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66]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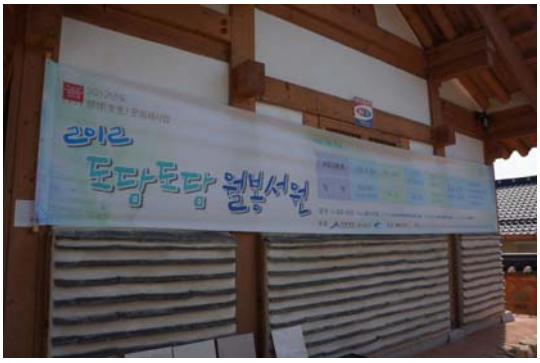


[그림 67]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 그래프 - 광주 광산구













[그림 68]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그림 69] 현장 이미지 – 광주 광산구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연대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광역시/대전문화연대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계족산성(사적 355호), 노고산성(대전시 기념물 제19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12월(10개월)
다. 장소: 대전시 권역의 산성과 그 주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대전광역시
나. 수행단체: 대전문화연대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계족산성과 노고산성을 비롯한 40여 곳의 대전지역 산성을 대전의 대표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산성의 도시 대전'을 브랜드화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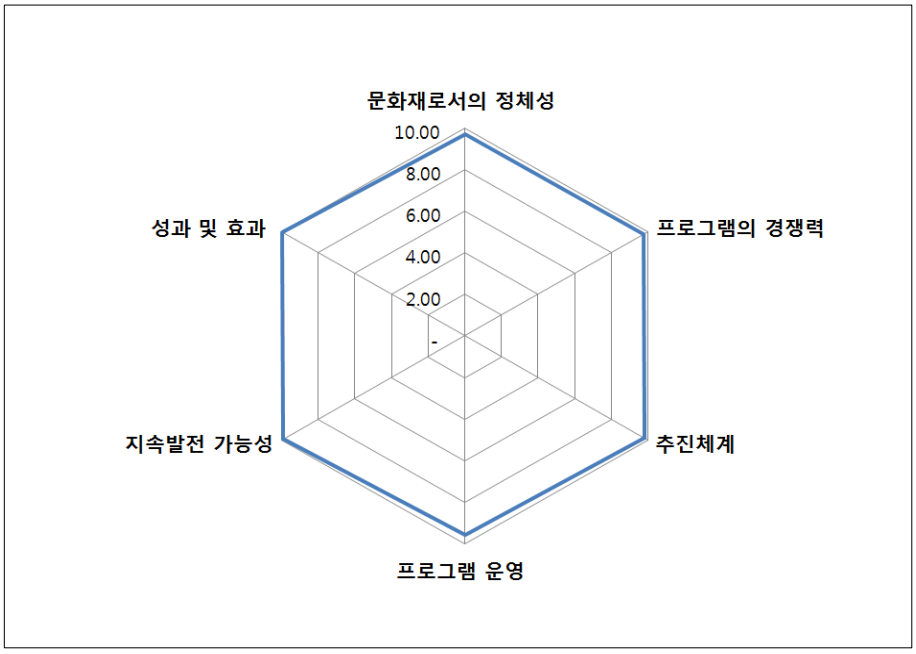
가.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
나. 1박 2일 가족 산성캠프
다. 뚜르 드 산성(Tour de Sanseong)
라. 세부 사업명 : 산성 톡, talk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10월 20~21일(토~일) 뚜르 드 산성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광역시/대전문화연대

현장모니터링



[그림 70]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대전은 근대에 와서 발전한 도시로, 역사문화 유산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임. 역사문화 유산도 대부분 사찰이거나, 궁궐과 유물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기에 대전에는 이렇다 할 역사문화유산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전은 삼국시대 때 감국 간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산성을 토대로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

□ 계족산성과 노고산성으로 대표되는 대전 지역의 산성은 40여 곳으로 대전의 대표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주요 프로그램은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 '1박 2일 가족 산성캠프', '뚜르 드 산성', '산성 톡,talk'으로 크게 네 가지 단위사업임.

□ 단순한 관람이나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산성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는 지역과 가족의 지킴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스스로 산성의 이야기와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형 체험 학습'이라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확실한 차별성을 가짐.

- 1박 2일로 진행되는 '산성캠프' 또한 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야간 백제 군사 미션 훈련, 성벽 쌓기, 봉수체험, 계족산성 트레킹 등 재미있게 놀이에 참여하면서 '산성'과 연계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모든 사업은 가족 단위의 산성 탐험대를 조직하여 산성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놀이형 체험, 조사, 탐험, 기록의 방식으로 진행함.
- 특히, 참여 대상을 초등학생 뿐 아니라 부모 1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것은, 하루의 체험 활동이 이후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당일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참가 어린이 및 가족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세미나와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마무리까지 기획을 하였음.
- 대전 지역의 자체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한산성, 아차산성의 생생 문화재 사업들과 협력·교류를 통해 콘텐츠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참가자가 산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뚜르 드 산성(Tour de Sanseong) 프로그램은 내용과 시민(참여자)의 모든 측면에서 제주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처럼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전국화의 가능성을 찾아낸 탁월한 기획이라고 보임.
- 대전의 내재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여러 방식의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다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한편, 전국적인 여행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전의 대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임.

3.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대전의 문화단체인 '대전문화연대' 내에 '문화유산위원회'가 있어 추진 실무 주체가 명확하고, 사업에 대한 총괄 진행은 사무국장이 맡아서 하되 생생 문화재 사업의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담자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계족산성축제(트래킹, 봉수대 체험, 진혼제, 24반 무예시범,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어, 산성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함.
- 내부의 추진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며,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문화연대로부터 독립하여 '(사)대전문화유산울림'을 결성함.
- 대전시의 적극적인 '산성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와 발전 방안 수립, 대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의 협력 체계 등 추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1박 2일의 체험과 숙식을 위한 장소로 찬샘마을을 활용하였는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어 식사와 숙박의 서비스 측면에서 깔끔하여 참가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음.

- 전제적인 시간대별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였고, 진행자들이 능숙하여 매 프로그램마다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사회자의 진행 또한, 산만한 어린이들을 잘 모아내고, 계획성 있는 시간 활용, 완벽한 내용 전달 등 전체적으로 매끄러웠음.
- '산성이 옛날에 지역과 나라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 주자'는 말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수행단체의 관점을 잘 드러낸 말이었음.
- 단위 프로그램마다의 성격을 잘 구분하여 어린이들을 부모들과 함께 참여하거나, 따로 나누어져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미션을 수행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방식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획이었음.

4.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단순해 보여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콘텐츠를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만들어 내어 생생 문화재 사업의 목표를 잘 담아낸 사업임.
- 문화유산 답사는 '과거와의 대화'라 했는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대화를 스스로 해나가고, 가치를 찾아내고 나누는 사업으로서 향수 지속 가능성이 높음.
- 탐험과 체험만이 아니라, 기록을 스스로 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회와 시상식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환류를 거치는 방식을 보면, 이 사업이 기획과 운영의 흐름이 잘 잡혀 있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가족 단위의 참여, 뚜르 드 산성과 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방식을 볼 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유산 답사'로 트렌드를 형성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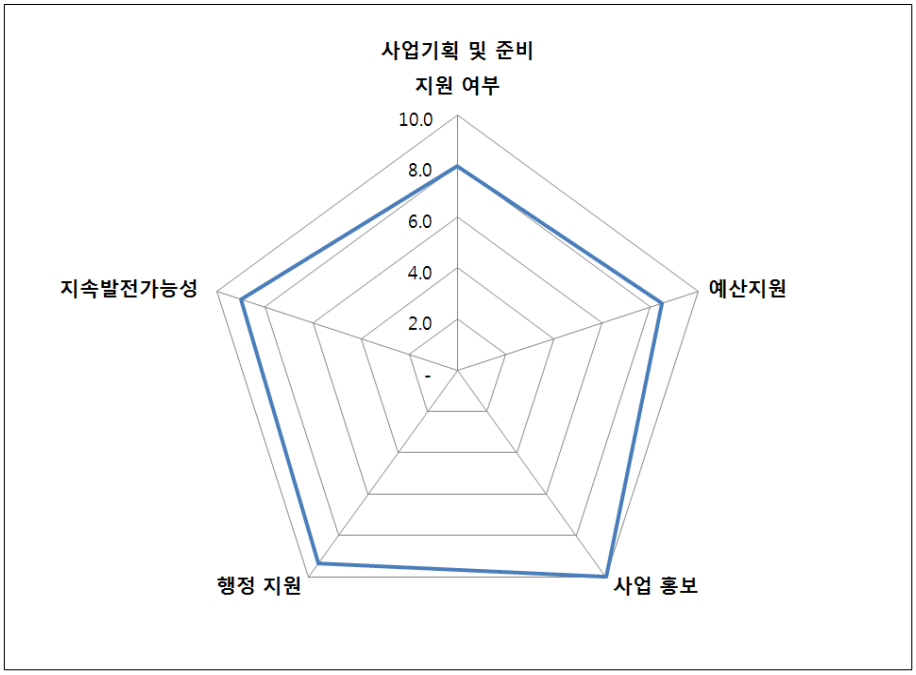
- 등산을 다니면서 대강 보아오던 산성을 훌륭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재 사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일상 속에서 작은 것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사업임.
- 문화유산이 부족한 대전을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역사회에 산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 대전시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전시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산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는 성과를 낳았음.
- 기획과 운영의 우수성의 면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새로 만들어진 '(사)대전문화유산울림'의 체계가 잘 잡히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낸다면 학교 차원의 체험,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됨.
- 뚜르 드 산성 사업을 발전시켜 전 국토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각 수행단체들의 전문성과 기획력, 운영과 진행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사업을 현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의 공모 지원방식에만 그치지 말고, 그 성과들을 모아내어 '문화재'를 활용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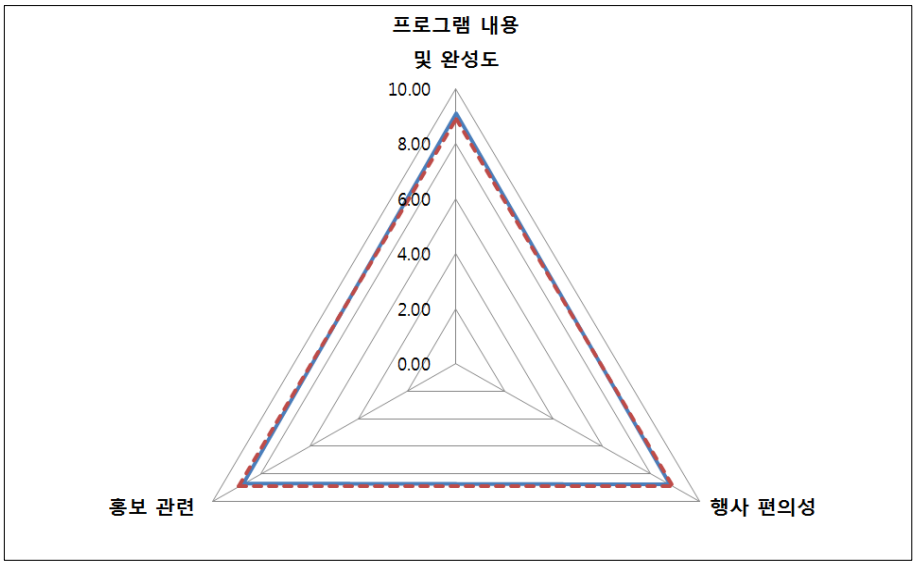
[그림 71]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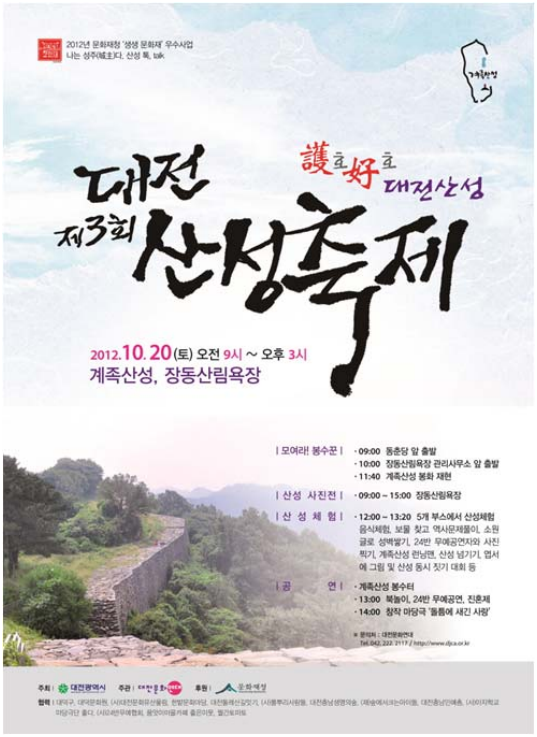
[그림 72]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73]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대전(산성)











[그림 74]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그림 75] 현장 이미지 - 대전(산성)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 12월(9개월)
다. 장소: 남한산성 일원(경기도 광주시 소재)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경기도청
나. 수행단체: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남한산성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남한사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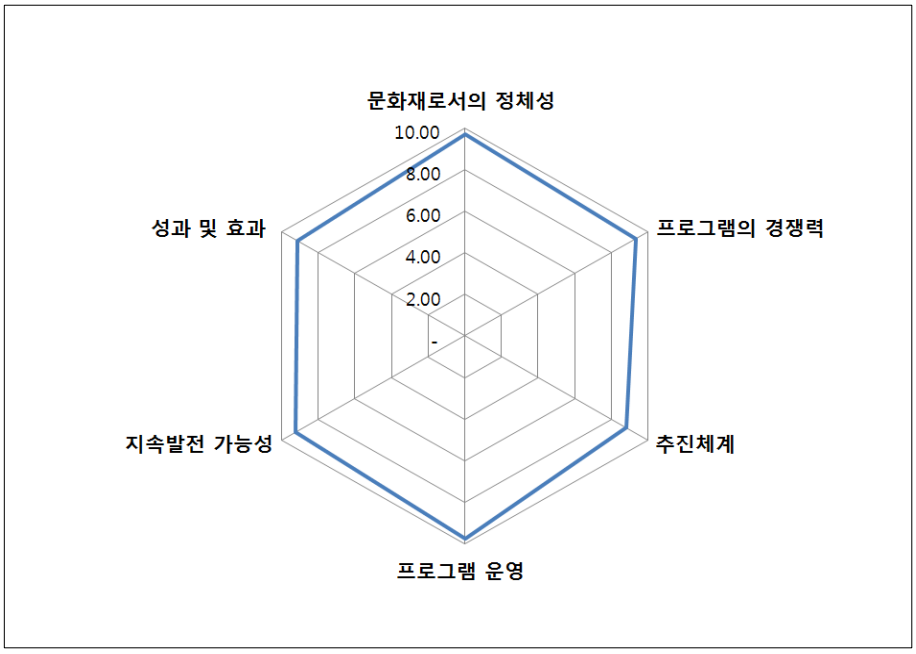
가.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어린이날 행사)
나. 임금님, 납시오! (역사인물체험+연극공연)
다. 행궁에서 만나는 가족 풍류여행 (국악공연+문학체험)
라. 성곽을 지켜라! (성곽무예체험)
마. 뚜르 드 산성! (산성연계답사)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10월 3일(수)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경기도/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현장모니터링 평가



[그림 7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에서 진행된 이 사업은 세계무화유산에 예비 등재된 남한산성과 복원된 행궁을 알리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음.
- 산성과 행궁의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방문객들과 참여자들에게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임.
- 행궁에서 펼쳐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 재현을 통해 정조가 행궁에서 열었던 과거 시험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산성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가 과거에 어떤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단순히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행궁에서 있었던 사건을 연극적으로 드러내어 역사 여행을 통해 선조들의 생각과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물적 공간을 넘어선 살아있는 공간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재현해 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총 5가지의 프로그램은 각각 어린이, 가족, 일반등산객, 가족 투어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각각 재현행사, 연극을 통한 역사인물체험, 참여형 공연관람, 역사문화체험, 지역 간 연계 투어 프로그램 등 교육, 공연, 체험, 투어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 특히,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남한산성과 대전 산성, 아차산성을 연계한 지역 간, 산성 간 연계 투어프로그램은 생생 문화재 사업의 사업간 교류 협력을 통한 문화재활용 네트워크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사업 추진체계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국에서 드물게 문화재를 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남한산성은 문화재 활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진행이 용이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

□ 지자체 매칭예산이 5천만 원으로 1:1매칭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도 재단의 전담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 참여, 매칭노력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차기년도 본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다음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다면, 충분한 매칭예산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각의 사업은 사업단과 연계한 여러 공연팀, 이벤트팀, 행사전문 기획사들이 실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행사의 기획과 운영은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행사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행궁에서 상시적으로 관광,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의 팀원들이 운영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현장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궁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으로 참여에 제한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료 사업과는 달리 소수의 관심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밀도 높은 사업추진과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행궁에서 진행된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라는 사업은 별도의 참가비(1만원)를 받고 추진하여 제한된 인원(50명)으로 추진하여야 효과적인 행사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다. 홍보, 편의성, 문화재 보존 관리

□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관광사업단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화장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나, 깨끗하고, 남한산성 입구에 마트 등이 있음.

□ 최근에 행궁을 다시 지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음.

4.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추진체계가 안정적이며, 행궁과 산성이라는 문화재 공간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전년도에 비교해서 다양한 사업구성과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측면으로 볼 때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행궁과 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고 역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재현해냄을 통해 공간의 살아있는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밀도 높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재 활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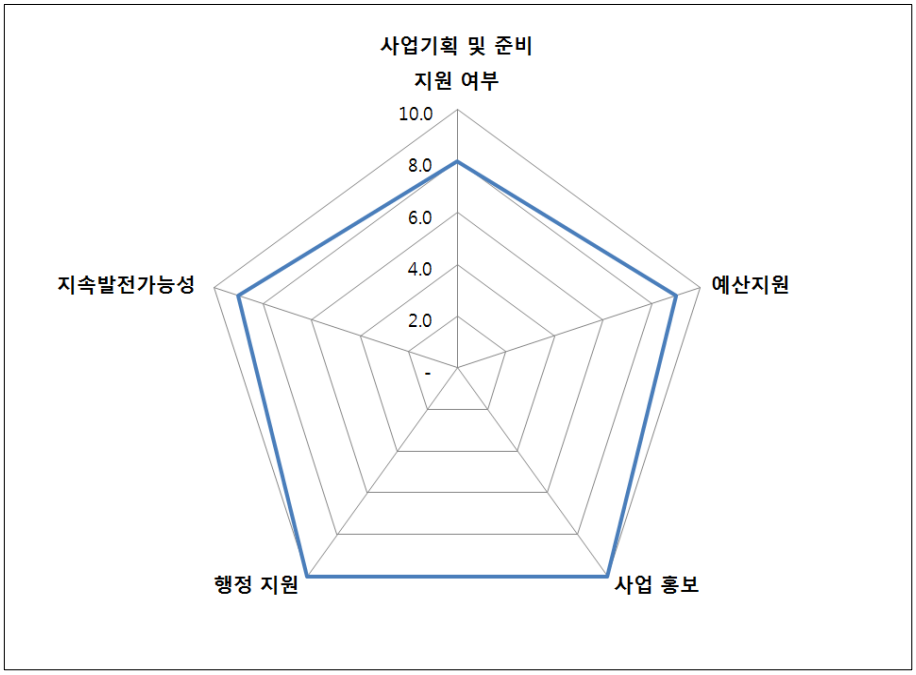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이번 사업은 과거시험 1회, 가족풍류 2회, 산성투어 4회, 성곽무예체험 8회, 역사인물체험 연극 32회 등 5가지 프로그램에 약 50회에 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연중 남한산성과 행궁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됨. 하지만,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효과나 만족도가 높으며 다른 문화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각의 사업이 어린이와 가족, 성곽등산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남한산성 행궁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는 행궁 내 프로그램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유도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남한산성은 등산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으로, 건전한 등산객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성곽을 배경으로 군사무예 시범을 보이고 군사체험을 해보는 '성곽을 지켜라'라는 프로그램이 성곽체험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남한산성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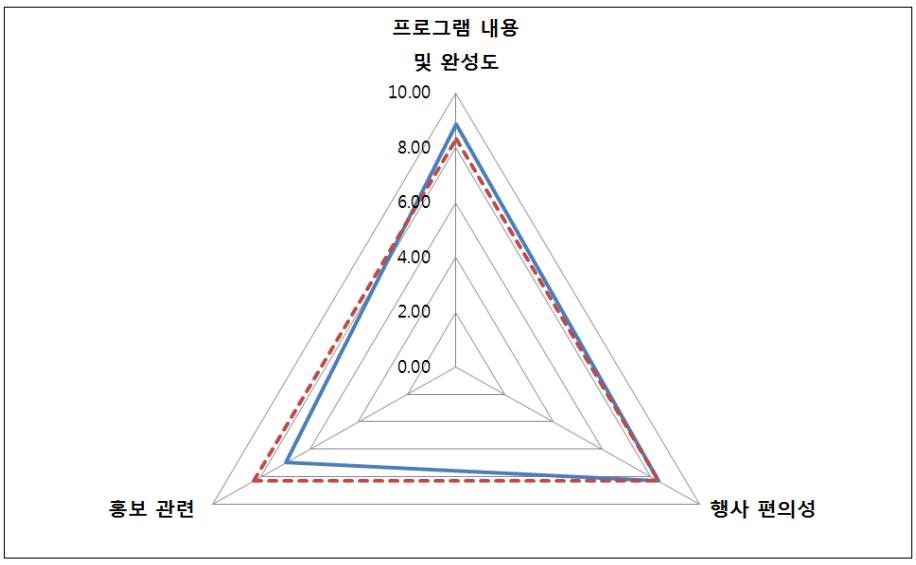
□ 전체 프로그램이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연중 상설 사업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상설사업이 가지는 매너리즘이나, 형식적 반복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산성사업단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실험과 문화재 활용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77]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78]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남한산성)



[그림 79] 현장 이미지 - 경기(남한산성)













[그림 80] 현장 이미지 - 경기(남한산성)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강원도 원주시 원주매지농악보존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원주 매지농악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 12월(10개월)
다. 장소: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원주시 문화유산, 전국 생생사업장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강원도 원주시
나. 수행단체: 원주매지농악보존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활기차고 같이하는 즐거움(체험, 공연, 축제)이 있는 매지농악 생생사업과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통해 매지농악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함. 또한 연희농악, 두레농악, 축원농악, 제의농악의 근본정신인 두레와 품앗이의 정신을 매지농악의 핵심가치임을 깨달아, 생생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생한 기운과 복과 덕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상생천년 매지농악이 될 수 있도록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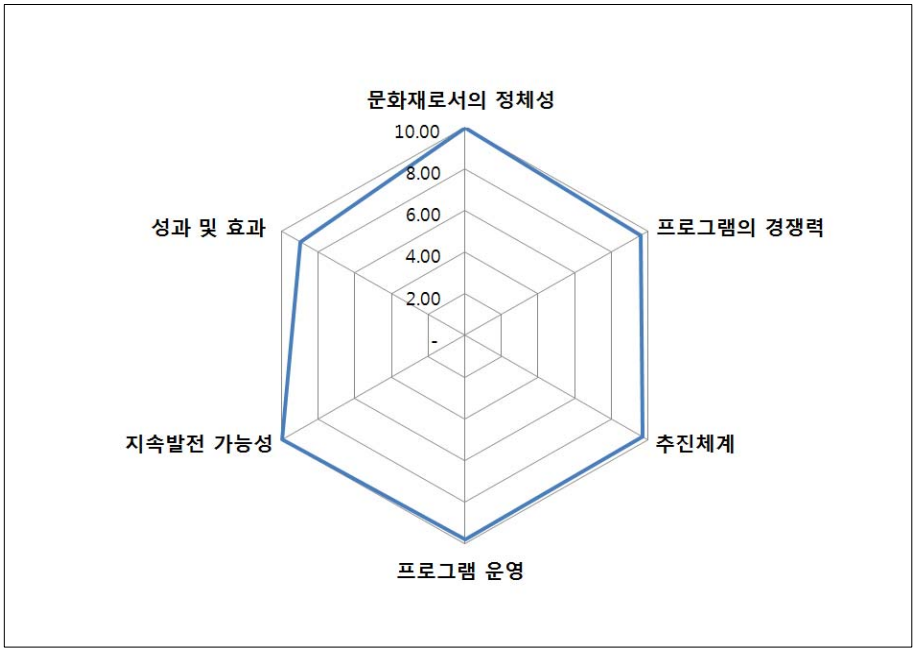
가. 생기발랄 쌩쌩 체험 프로그램
나. 얼라이브 (alive) 생생생 금요공연
다.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 축제
라.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마. 생생 친구들 만나기 (Hi-Five 생생)
바. 문화재 쌩쌩 도우미 운영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6월 24일(일)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 축제 - 단오서낭제'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강원도 원주시 / 원주매지농악보존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81]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매지농악)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매지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 3리 회촌 마을에서 6.25 전후 5월 단오제에 단골무당들이 굿을 하고 풍물을 치며 제를 지내고 놀며 지내던 성황제를 이어와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생기복덕한 사람을 제주로 하여 지내는 단오제에서 유래되었음.

□ 원주매지농악은 고장의 옛 풍물 본래의 소박함을 원형대로 잘 보존한 전형적인 두레풍물로 축원, 오락, 두레를 위해 주로 연주되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강원 원주에서 진행하는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프로그램은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009년 완공)과 회촌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1년 내내 계절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 성황당과 관련된 제의 농악, 농사력에 맞춘 두레농악, 지신밟기 등 축원농악, 연희농악 등의 농악들을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의 싸움과 경쟁, 화합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한 '생기발랄 쌩쌩체험 프로그램(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 매 계절마다 단오서낭제,

옥수수 축제, 땅속 김장축제, 달맞이 축제 등 농사력에 맞춘 민속형 축제들과 공연으로 구성된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축제', 야외 밤 공연이 가능한 9~10월 금요일마다 농악을 활용한 디너쇼인 '얼라이브(Alive) 생생생 금요공연',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이외에도 타 지역 생생 문화재 사업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생생 친구들 만나기(Hi-Five 생생)'과 지역의 주민들을 생생 문화재 사업 도우미로 양성하는 '문화재 쌩쌩 도우미' 등을 진행함.
- 시기별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교육, 공연, 체험이 모두 가능한 '농악'의 특성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기획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의 이름을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지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 또한, 다른 지역의 비슷한 성격의 생생 문화재 사업들과의 교류 사업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단순한 자원봉사가가 아닌 생생 문화재 사업을 만들어가는 도우미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역시,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중심에 있는 매지농악보존회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2004년)하는 등 경력도 화려하고 기량이 뛰어나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사업을 수행하는 원주매지농악보존회는 1994년에 창립되었으며, 다양한 수상경력과 공연 경험을 보유한 단체임.
- 보통 무형문화재 전승보존회는 고령의 이수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기획 능력이 없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원주매지농악보존회는 공연자들의 연령대도 낮은 편이고, 기획실장을 따로 두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추고 있음.
- 사업을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원주문화재단 등 지자체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1년을 시행기로, 2012년을 활성기로, 2013년을 성숙기, 2014년을 정착기로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 축제' 중 '단오서낭제'였음.
- 행사 당일 행사 포스터,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 행사가 있음을 잘 알리고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안내부스와 체험부스, 공연장 등의 구역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었음.
- '문화재 쌩쌩도우미' 사업을 통해 문화재 도우미로 거듭난 지역 주민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요원으

로, 행사 진행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5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쿠폰북을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체험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나, 쿠폰북을 따로 제작하여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기획한 부분이 눈에 띄었음.
- 체험 프로그램들이 창포물 머리감기, 농기 만들기 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었으나, 바람개비 만들기 등 어느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나, 부채 만들기 등 성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들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크게 다양한 공연들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농악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됨. 특히, 생생 문화재 사업인 '진도 북놀이' 팀의 공연과 경기 군포의 '전통농업 오감 체험' 사업의 홍보 부스 등은 '농업'이라는 맥을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음.
- 현장에서는 문화재 쌩쌩도우미들 뿐만 아니라 매지농악보존회 전수회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음.
- 좁은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산만한 경향도 있었고, 시간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엿보였음. 또한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음.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원주매지농악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음.
- 포스터, 현수막, 안내 표지 등도 생생 문화재 사업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전시되었고, 화장실 등은 매지농악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사업 수행단체가 2014년까지의 사업 발전 단계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매우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농경문화'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민족의 삶의 기반이 '농경문화'에 있음을 주목한다면, 시기별로 다양한 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요소가 풍부하게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시기별로 개최되는 축제의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행사로 성장했으며, 문화재와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 축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성과가 있음.
-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업들과는 달리 디너쇼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악' 역시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문화재 쌩쌩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함께 돕고, 이후에도 지역에서 문화재를 이해하고 자원 봉사할 수 있는 핵심그룹을 양성함.
- '농업' 문화에 핵심을 둔 타 생생 문화재 사업과 공연과 사업을 교류함. 올해는 공연을 교환하는 등 기초적인 단계였지만,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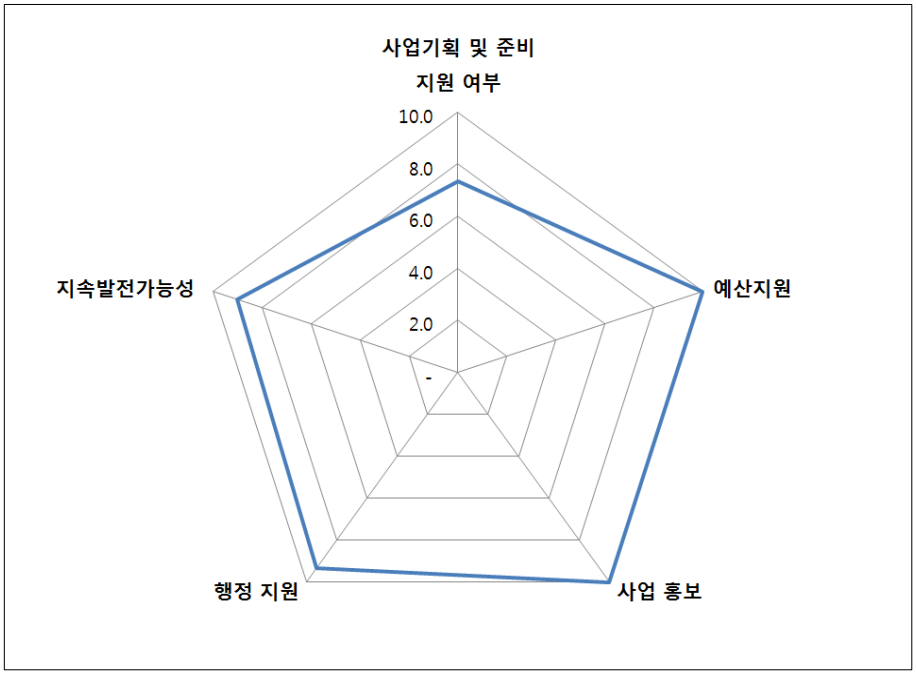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매지농악전승보존회가 전수관을 중심으로 회촌 마을 주민들과 공고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을 문화재 도우미로 계속 양성해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차장, 교통시설 등의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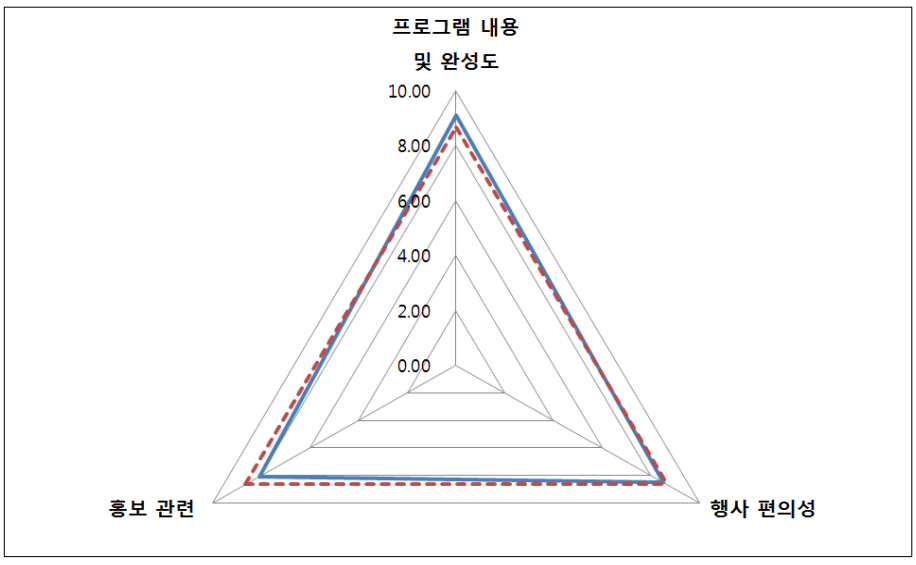
[그림 82]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매지농악)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83]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매지농악)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84]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매지농악)



[그림 85]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매지농악)



[그림 86]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매지농악)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강원도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횡성회다지소리(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2월(8개월)
다. 장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속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강원도 횡성군
나. 수행단체: 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강원도 무현문화제 횡성회다지소리 체험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과 회다지소리의 계승 발전 및 전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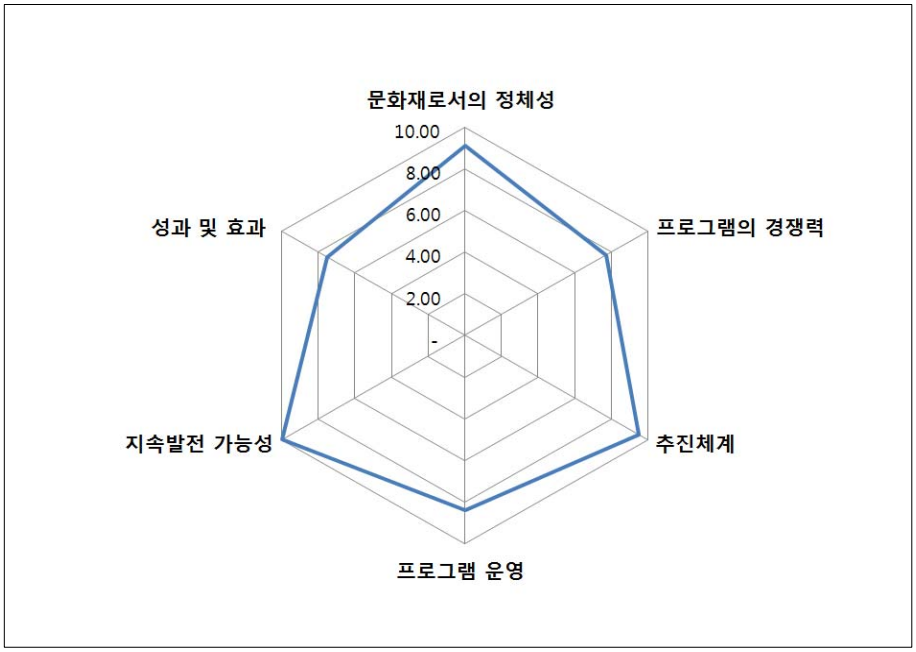
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체험
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5. 현장모니터링 진행프로그램

2012년 7월 30일(월) '횡성회다지소리 상설체험'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강원도 횡성군/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87]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횡성회다지소리는 장례행사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灰)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임. 처음으로 느린 가락으로 시작되어 점차 빨라지며 후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는 식으로 변화됨. 상주의 슬픔을 달래주는 한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민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진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드러내어 해학적인 가사가 포함되기도 함. 독특한 기능 민요로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음.

□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생기고, 병원 등을 통해서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유적 유물만 보더라도 죽은 자를 배웅하는 장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오고, 신성하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장례의식에서 불린 민요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무덤을 밟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회다지소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큼.

□ 횡성회다지소리는 잘 보존되는 것뿐 아니라, 삶이 빨라지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죽는 것'은 무엇인지, 장례 의식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로서 의미를 가짐.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강원 횡성의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체험과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으로 구성됨.

□ 횡성회다지소리 상설 체험은 상시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되며, 횡성회다지 시연과 염라국 체험, 박물관 관람 등으로 진행됨.

□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는 횡성문화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 2회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였음.

□ 전통 장례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많은 문화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재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특히 상설 체험의 경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한 쉬운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 없이 시연과 체험으로 바로 이어져 프로그램이 진행되다보니,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강원 횡성의 생생 문화재 사업의 수행단체는 횡성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임. 하지만 보존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고령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횡성군청의 담당자가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다른 사업들까지 함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기획하기에는 역부족임.

□ 사업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나, 기획 역량이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이 시급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 체험이었음.

□ 참가자는 1박 2일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프로그램으로 횡성회다지소리 체험에 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었고, 비가 조금씩 흩뿌리는 날씨였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진행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생생 문화재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무슨 문화재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를 설명하고, 이 체험 행사로 하여금 참가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 대해 알려준 뒤, 당일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요약 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함. 당일 프로그램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었음. 학생들이 비를 피해 무대 안쪽에 자리를 잡자마자 보존회에서 회다지 공연을 시작하였고, 바로 학생들을 나오라고 해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염라국 체험관에서 유서쓰기, 입관체험 등을 진행 후 작은 민속박물관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음.

□ 보존회의 선생님 2분이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염라국 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을 도움.

□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기획과 실행에 대한 탄탄한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진행자도

참가자도 힘든 운영이었음.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한 보도 자료나 뉴스 기사는 무척 많으나, 횡성회다지소리축제의 공식 홈페이지나, 횡성회다지소리나 보존회에 대해 잘 소개해 놓은 온라인 페이지는 없음.
- 프로그램이 진행된 정금 마을의 횡성회다지소리전승보존회 건물이 있어서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전승보존회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지가 있고, 보존회 내의 젊은 인력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횡성회다지소리가 1년 1회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기획, 고민의 시간을 거친다면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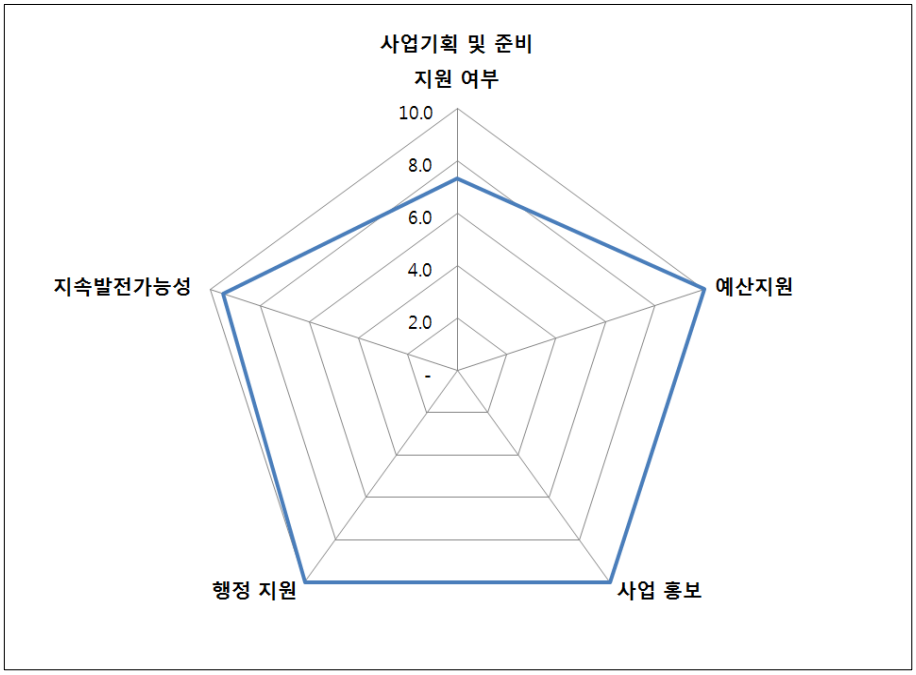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4월 즈음 진행되는 횡성회다지소리축제는 죽음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고, 전국의 다양한 회다지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전통 장례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축제로서 의미를 가짐.
- 횡성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한 횡성회다지소리 강좌의 경우 초반 수강신청자의 50%이상이 강좌를 수료하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로서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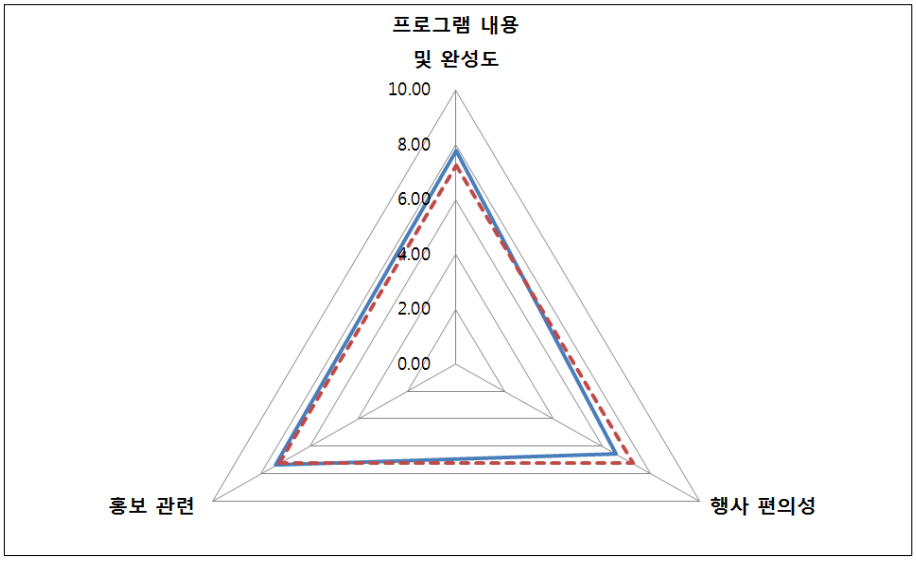
- 현대인의 관심이 점차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더불어 '잘 죽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볼 때 전통 장례문화의 하나로서 횡성회다지소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요소는 무궁무진함.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8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8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횡성



[그림 90] 현장 이미지 – 강원 횡성



[그림 91] 현장 이미지 – 강원 횡성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 곳 생생체험

충북 괴산군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화사모)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괴산 송시열유적(사적 제417호)
나. 사업기간: 2012년 2~7월(10개월)
다. 장소: 우암 송시열 유적 및 화양구곡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충북 괴산군청
나. 수행단체: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화사모)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괴산 송시열유적(화양서원·만동묘·암서재·바위글씨)은 전국 최고의 구곡인 화양구곡 안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과 자연생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며, 그를 통해 문화가 흐르는 화양동으로 가꾸어 고품격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감.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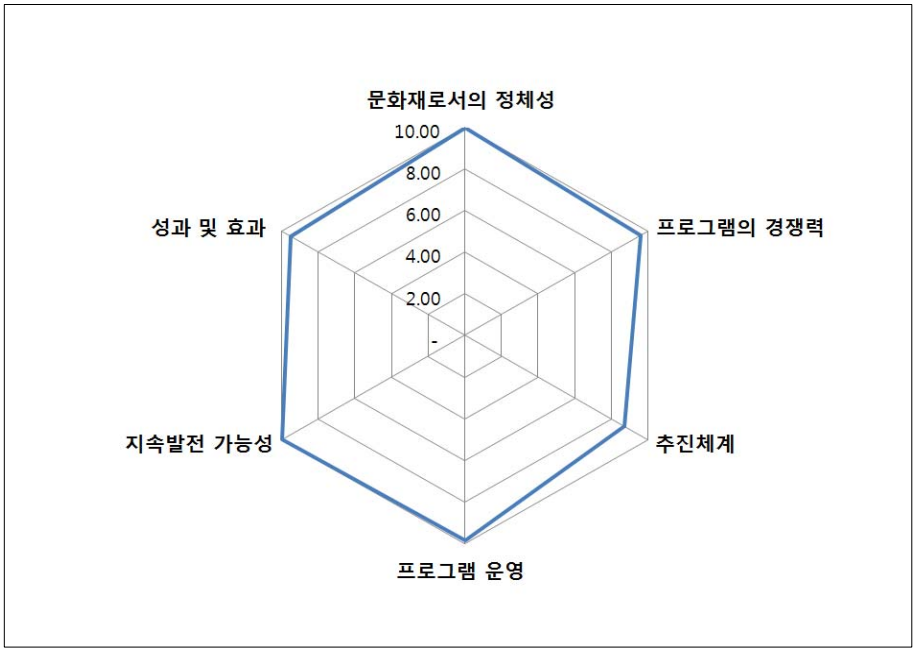
가. 화양서원 생생 문화체험
나. 화양동 선비풍류축제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13일~14일(토~일) – '화양서원 선비학교'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 충북 괴산군/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장모니터링



[그림 9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사적 제417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북 괴산의 송시열 유적은 조선시대 성리학 중심지 중 한 곳임. 송시열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문신으로 조선 효종을 도와 북벌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인 정치를 펼쳤으며, 주자학의 대가로 많은 인재를 양성함.

□ 특히 이 사업의 중심인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장소에 세워진 서원으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임. 이 주변에는 송시열과 관련된 암서재, 하마비, 읍궁암, '충효절의', '비례부동'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암벽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많음.

□ 만동묘의 자리는 중국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중국 명나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어졌던 건물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조선 학문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원으로 조선 시대의 선비 정신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화양서원 일대의 문화재들은 일제 강점기 때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거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문화재 복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그 의미가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충북 괴산에서 진행된 '2012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 싶은 그곳 생생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서낭제와 격주 토요일마다 다례, 탁본 등의 체험 행사, 매월 2째주 주말마다 진행된 선비학교 1박 2일, 그리고 선비풍류축제로 진행됨.

□ 또한,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을 위하여 수행단체인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기반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짐.

□ 일반 체험행사는 만동묘의 계단을 오르는 경행체험,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명심보감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경서성독, 우암송시열과 관련된 '비례부동'등의 글자가 새겨진 비석을 탁본해 보는 탁본체험, 다도 체험, 화양동과 관련된 판화 찍기 체험,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해설이 있는 화양서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서원'이라는 공간과 '화양서원'이라는 공간에 적합한 재료들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음.

□ 또한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훈장님과 함께 명심보감의 문구를 읽는 경서성독 체험은 어린이부터 성인, 외국인들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한편, 어렵고 재미없게만 느껴지던 고전을 의미를 되새기며 읽어볼 수 있는 체험으로 과거의 교육 방식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

□ 화양서원 선비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실제 유생들의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수료식을 진행함.

□ 서원이라는 문화재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적인 체험행사도 문화재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암서재, 읍봉암, '비례부동' 등 우암 송시열 선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들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당시 선비들의 풍류와 정신을 배워보는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여 다양한 대상들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임.

□ 어두운 밤에 전등 없이 화양구곡을 걸어보는 체험이나, 접근이 제한된 암서재에 올라 명심보감 문구를 읽는 등의 경험은 다른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는 할 수 있는 충북 괴산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충북 괴산의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단체는 '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화사모')' 이라는 민간조직임. 충북 괴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임.

□ 일반 단체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위험이 있는데 반해 문화재 활용사업에 의지가 있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등이 세심하고 열의가 느껴짐.

- 지자체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본적인 홍보에의 도움을 받는 수준임.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홍보와 모객, 지원금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다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
- 일반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인건비 등이 없이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개인의 열의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이었던 '화양서원 선비학교'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아동센터 15명 내외가 참여하여 진행되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무엇인지, 화양서원 선비학교의 진행 일정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 후에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음.
- 진행인력으로는 화사모 소속의 선생님 5명 정도가 세부 프로그램별로 담당을 하였음.
- 1박 2일 동안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조선 시대 선비의 일상과, 화양서원 문화재에 대한 설명, 경서성독을 하기 위한 명심보감 문구 등 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하였음.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진행 흐름이 매끄러웠으며, 시간 계획도 잘 지켜짐.
- 프로그램 수행단체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북 괴산의 경우는 참가하는 단체에 지도교사가 부재하여 수행단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참가 아이들을 통솔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야 해서 부담감이 느껴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단체들이 반드시 참가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교사 2~3인이 동행하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은 아주 좋았으나, 참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중학교 저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프로그램 이해가 어려운 듯 보였음.
- 화양서원 공간이 복원이 된 시점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숙박을 하는 민박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는데, 비용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화양서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 등을 지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을 알리고 있었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화양서원에 대한 소개와 생생 문화재 사업을 알리고 있음.
- 근처 민박집을 이용하여 화장실, 숙박과 식사 등을 해결하고 있었음. 시설이 불편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고민한다면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교육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암 송시열 유적 인근이 일제 강점기 때 많이 훼손되었고, 지금도 아직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님. 만동묘 유적 역시 낡고 나무둥치가 썩어 있는 등 복원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함. 지금은 지역의 문화유산해설사와 수행단체가 공간을 활용하면서 청소와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과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적합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임.
- 해당 문화유산과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깃거리가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매우 아름다워, 이들을 잘 결합하여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면 청소년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선비체험, 휴양의 성격을 가진 1박 2일 서원 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행단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체계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지자체 또한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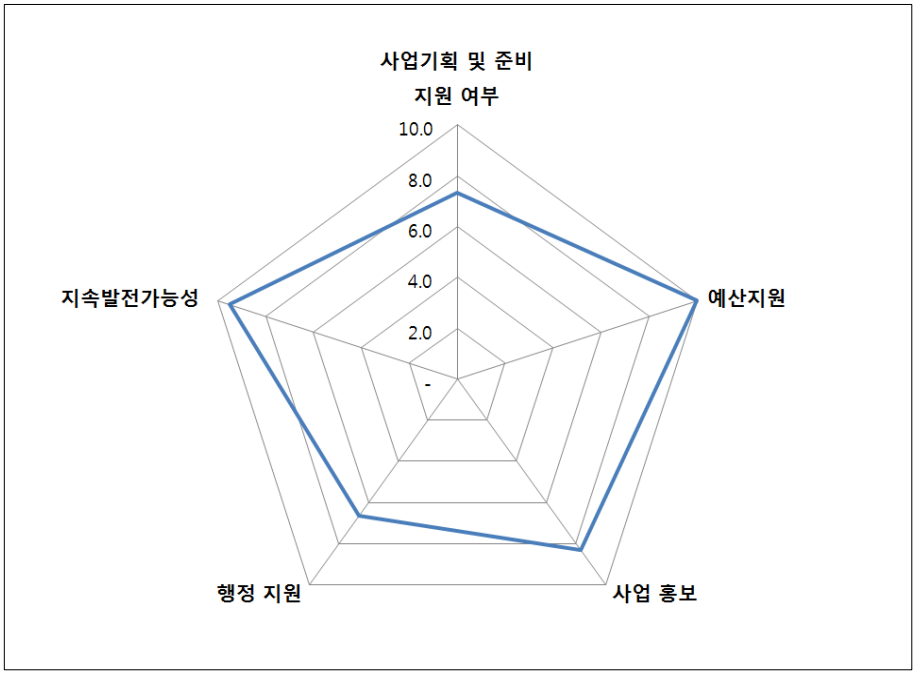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속리산에 '화양서원'이라는 조선 성리학과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해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여 공간을 알리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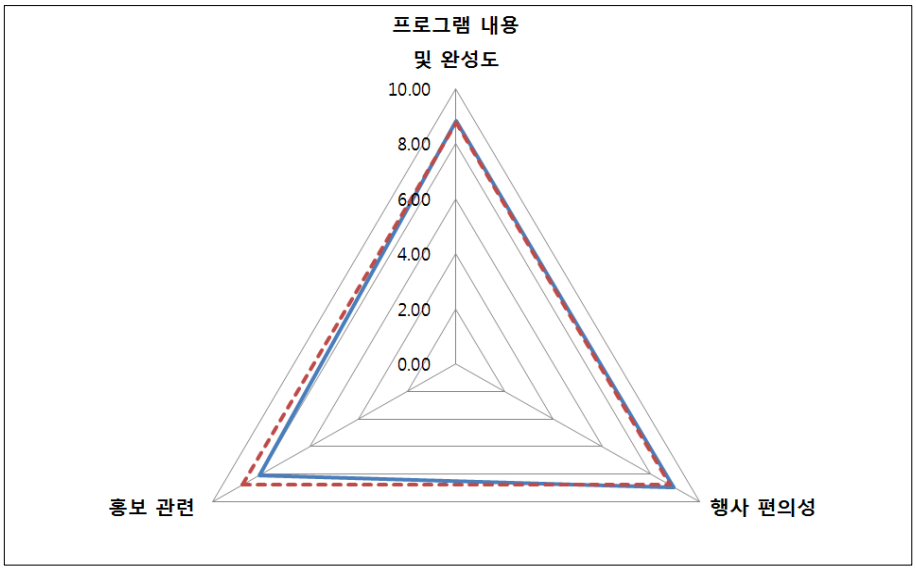
[그림 93]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94]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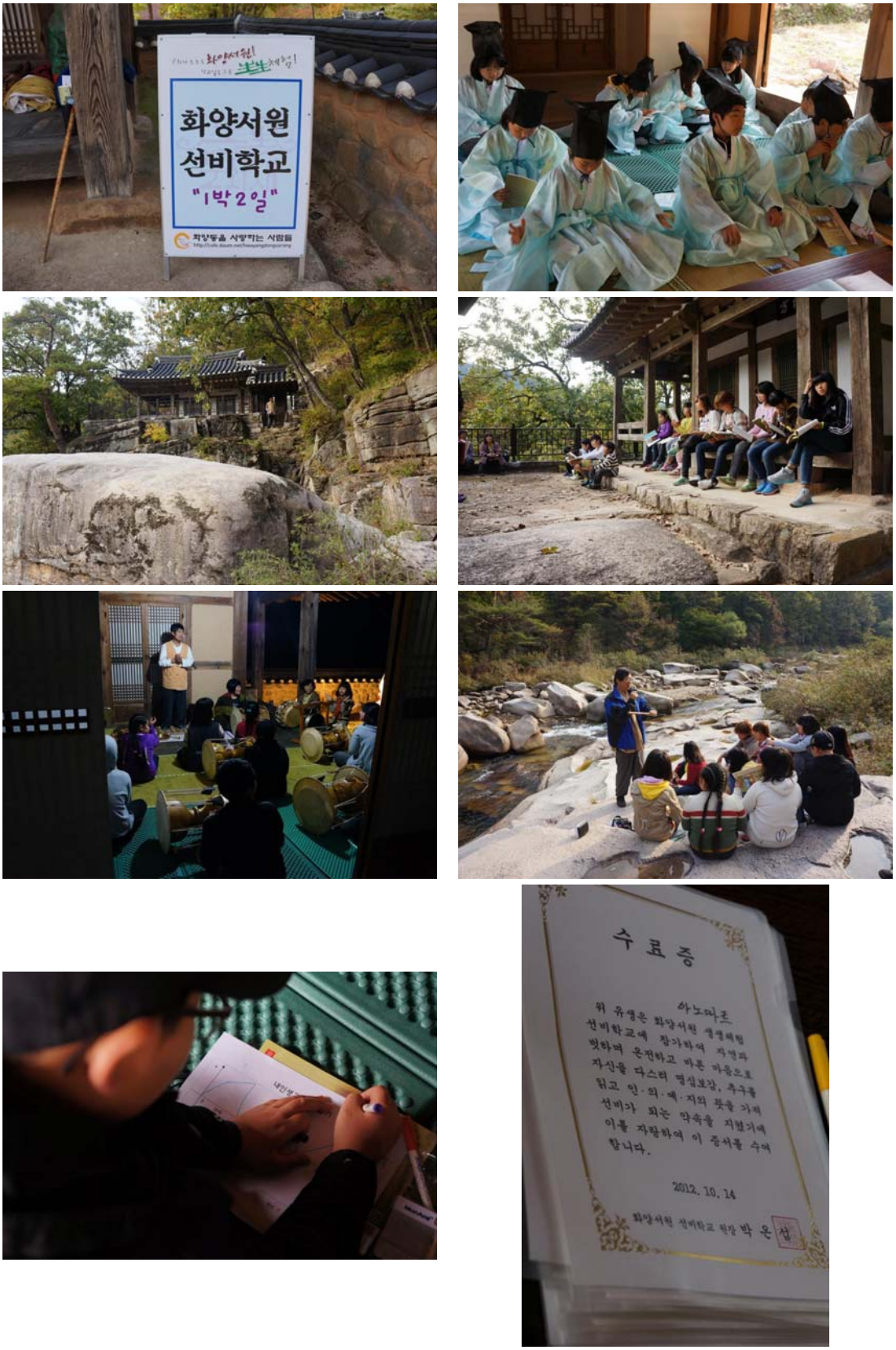
[그림 95]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괴산



[그림 96]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



[그림 97]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



[그림 98] 현장 이미지 – 충북 괴산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충북 영동군
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11월(9개월)
다. 장소: 천태산 및 은행나무 일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충북 영동군
나. 수행단체: 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천연기념물과 예술, 문화를 접목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예술 체험과 향유의 기회제공으로 문화 선진의식 고양하며 자연생태 학습장과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문화의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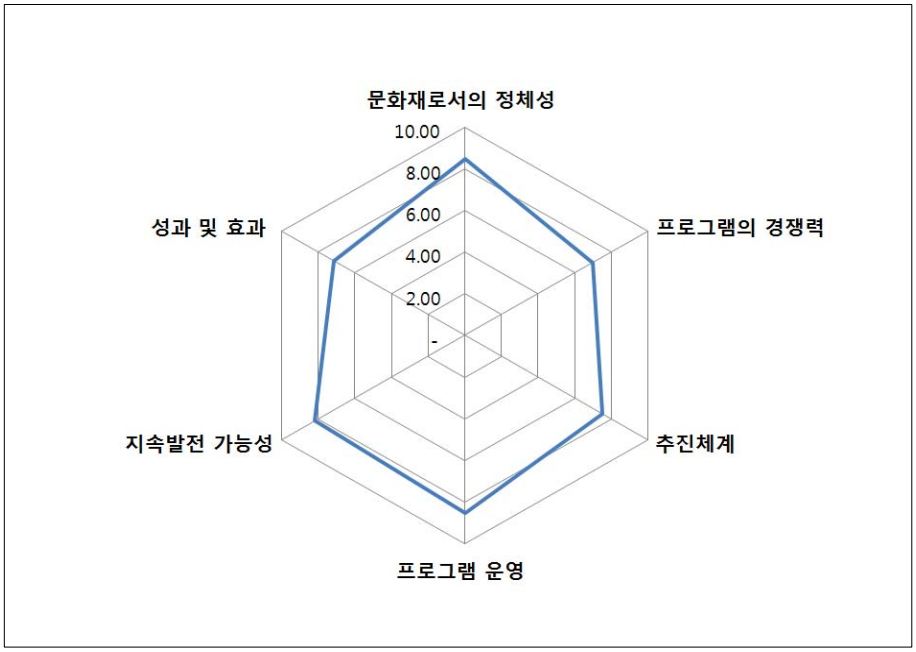
가. 영동 은행나무 및 문화재(망탑봉삼층석탑, 보물 제535호) 등 일원 환경정비
나. 천년 은행나무 생명 스테이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27일(토) –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충북 영동군/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현장모니터링



[그림 9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영국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223호로 높이 31미터에 가슴높이 둘레 11미터인 거대한 고목임. 수령은 6백년이라고도 하고, 1천년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음. 천년을 이어 온 생명력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면 소리 내어 운다고 하니 역사성과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음.

□ 통일신라 후기에 창건되어 천년고찰 영국사가 있고, 이 영국사에는 신라시대의 인삼층석탑(보물 533호), 고려 중기인 12세기경에 세워진 망탑봉삼층석탑(보물 제535호), 명종 10년(1180년)에 세워진 원각국사비(보물 534호)와 원각국사로 추정되는 부도(보물 제532호)등과 함께 충북 유형문화재인 대웅전(61호), 원구형 부도(185호)와 석종형 부도(184호) 등 보존되어 있는 여러 연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은행나무의 생명성과 역사성, 신비함으로도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사의 여러 문화재까지 더해져, 훌륭한 문화재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은행나무의 생명성과 역사성에 주목하여 생명 스테이를 진행하고, 전국의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시집을 출판하고 매년 '시제'를 여는 것은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장에서 관찰한 시제의 운영 면에서는 직접적인 주제로서의 '은행나무'이기보다는 시인들의 문학적인 소재로 한정된다는 느낌이 들어 생생 문화재 사업, 문화재 활용사업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천태산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발적인 단체임.

□ 시민들의 자생성에는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동호회 수준의 모임이기에 실무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운 듯함. 인근에서 상주하고 있는 대표자 양문규 시인의 헌신성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음.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은행나무 소유주인 '영국사' 측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당일의 '시제'는 당초 기획안에 있던 2부 공연 행사가 축소되었고, 부대행사(가마솥 영양은행밥상 차려 먹기, 영국사 은행나무 판화 찍기 체험, 은행나무 소재 부채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등)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천 관계로 많은 관객이 모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 행사의 진행이 '시인들의 내부의 회합'을 넘어서지 못하여 대중적인 가치를 드러내지는 못하였음.

□ 음향 문제로 사회자의 멘트와 시낭성이 자주 끊기는 등 시낭송회의 거친 연출은 사업 역량을 의심하게 하였음.

□ 시상식은 김명곤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초청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엿보였으나, 시상식 진행의 무게감이 없어 권위가 없어 보여 아쉬웠음.

□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수상작에 '시화(샌드 브러스트) 설치'는 '시제'의 구체적 결과물을 남기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음. 다만 현재는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라, 향후 은행나무 주변의 경관과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장소 설계가 필요함.

□ '걸개 시화전'은 '은행나무'에 관한 전국의 시인 작품을 영국사 입구 길목에 설치한 것으로 의도와 노력은 좋으나, 너무 큰 현수막에 여러 개의 시를 인쇄하는 등 자연 풍광에 어울리지 않았음. 숲의 경치를 가리지 않도록 작은 낱개의 걸개로 만들어 전시하는 방향을 제안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 영국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 연간 여러 단위 사업이 진행되어 당일의 야외행사만을 가지고 사업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시제의 현장 운영을 보았을 때 애초의 의도대로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가 되기에는 아직 실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나. 성과 및 효과

- ☐ 은행나무의 생명성과 역사성을 지켜보는데서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시인들의 시를 통해 다시 문학적으로 현대적 생명력을 살려낸 사업으로는 의미가 있음.
- ☐ 이 사업을 통해서 영동군에서도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어 향후 발전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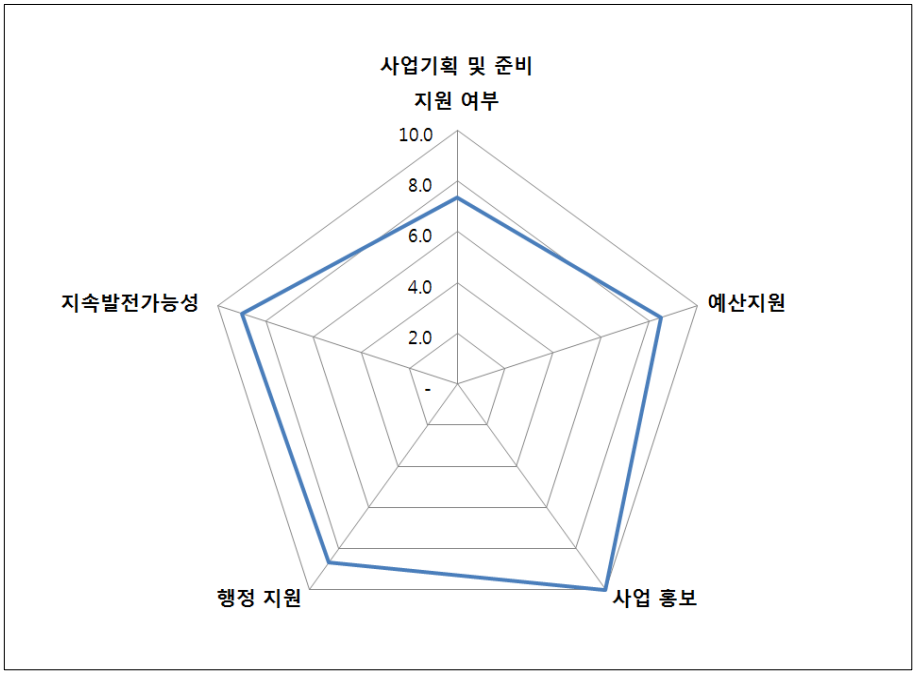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 은행나무가 영국사의 소유이고, 연계 문화재(보물 등)도 영국사에 있는 만큼, 영국사와의 협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차적 해결과제임.
- ☐ 영국사 종무소나 신도회와의 공동주최를 확보하여,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위한 실무 인력,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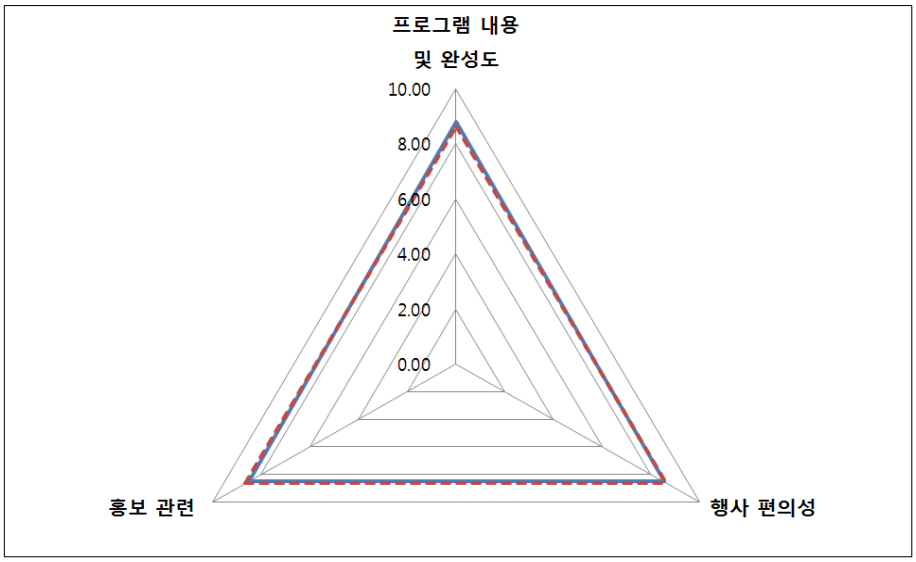
[그림 100]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01]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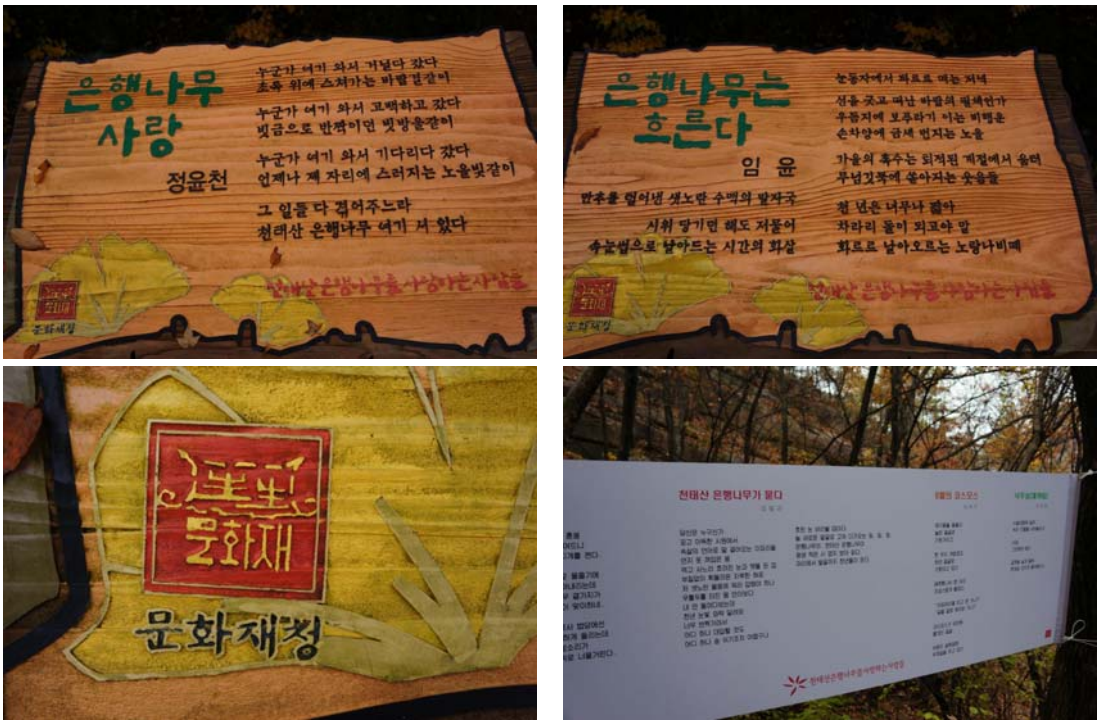
[그림 102]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영동



[그림 103]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



[그림 104]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



[그림 105] 현장 이미지 – 충북 영동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충북 청주시

(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청주 정북동 토성(사적 제415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11월(9개월)
다. 장소: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정북동 토성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충북 청주시
나. 수행단체: 사단법인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정북동토성(사적415호)을 활용한 문화재 생생체험을 통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 활성화에 기여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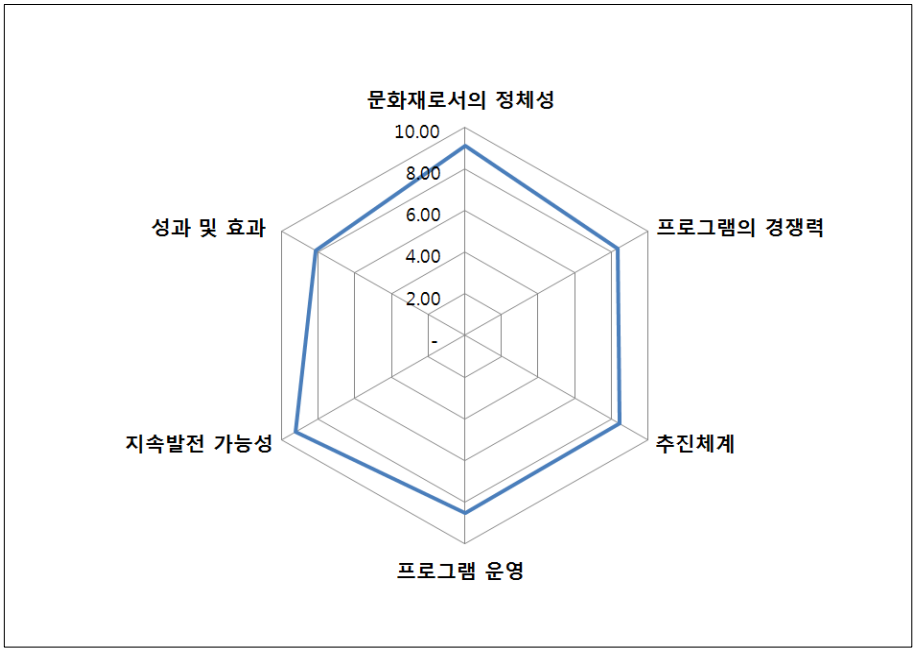
가. 선사시대 토성 캠프 1박 2일
나. 정북동 토성 연 날리기 한마당
다. 정북동에서의 신나는 생생 역사교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20일(토) – '선사시대 토성 캠프 1박 2일'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충북 청주시/(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10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충북 청주'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사업의 일환인 '선사시대 토성캠프 1박 2일'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삼국시대의 접경지에 있던 토성 내에서 연날리기,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단순체험행사보다는 움막집을 참여자(가족 및 단체)들이 직접 짓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부여함으로써 참가자에게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에는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토성 내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체험 프로그램 역시 토성의 역사적 가치와 접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연날리기, 목판인쇄체험 등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역사문화체험과는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참가자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에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차후년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사업 시행 프로그램 내용인 선사문화유적인 토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도슨트 프로그램의 부재나 토성 증축된 당시의 문화 해설프로그램 안내서 등 참가자들에게 역사문화적인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물이 부재함. 여타 역사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하는 캠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정북동 토성이 우수한 문화유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충북 청주의 생생 문화재 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주제와 콘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야 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박 2일의 캠프보다는 토성 안에서 선사시대의 유희와 풍습, 먹거리 등의 의식주 문화를 참가자가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소축제로서의 기능을 보완해야함. (예. 선사시대 의복 착용, 찰흙 화폐, 움막 문패, 운영본부의 움막화, 상형문자로 소통 등등)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사업의 업무 추진체계는 지자체 - 수행단체-지역문화유산돌봄이-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러나 각 기관 및 단체가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을 둔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의무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듯함.

□ 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된 점은 앞서 언급한 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홍보 / 편의성 / 문화재 보존 관리

□ 정북동 토성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사시대 문화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했어야함. 예를 들어 행사 참가자의 복장 위에 선사시대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피무늬 복장의 겉옷 착용, 문패를 나무에 인두로 새긴 상형문자 가족 문패제작 등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의 고민과 세심함이 있었다면 보다 다양한 선사체험이 가능했을 것임.

□ 1박 2일 체험인 만큼 지역 내 시민과 주민의 참여가 많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의 참여가 많았던 점은 사업 수행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이렇다 할 지역 내 홍보가 없었음. 이는 지역 내 내부 고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임. 이후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지역 내 시민 및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토성의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않은 만큼 타 지역 참가자 뿐 아니라 지역 내 참가자를 위해나 배려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는 셔틀 버스 등의 운행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성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시프로그램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1회성 프로그램으로 배치된 연날리기 등의 프로그램보다는 사업 프로그램 내용 중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선사시대 토성캠프 1박 2일' 사업을 연중 약 3회~5회 정도 이내에서 선사문화를 토성 내에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선사문화체험캠프(또는 소축제)'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여 정례화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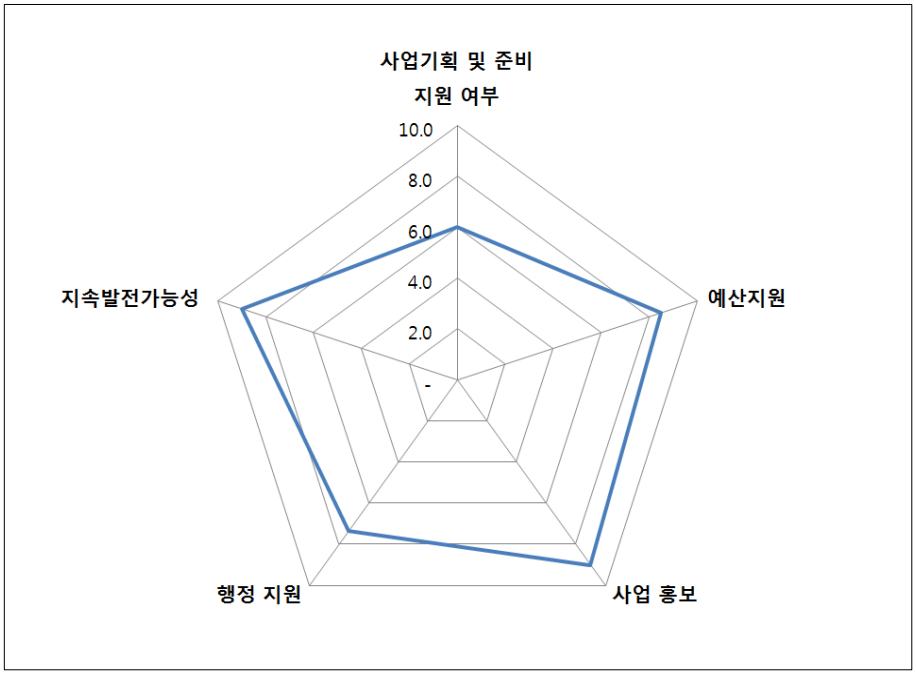
□ 상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규 프로그램인 토성 캠프와 연날리기 프로그램의 정성적, 정량적 성과 및 효과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음.

□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한 문화재 가치에 대한 대국민의 의식 전환을 기대하기 위한 성과 및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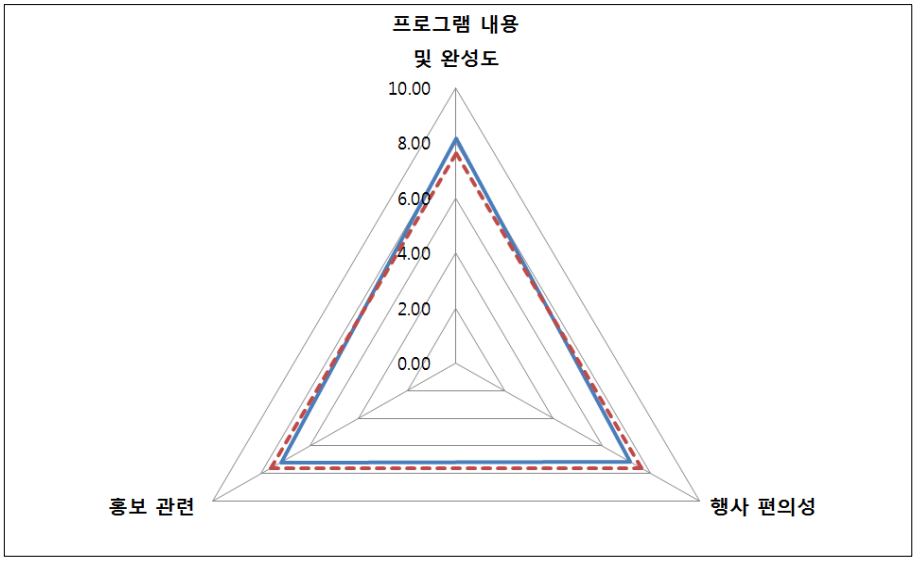
[그림 107]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0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0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충북 청주



[그림 110]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



[그림 111] 현장 이미지 – 충북 청주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
문화기획학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문화재와 민속자료 다수
나. 사업기간: 2012년 3~12월(10개월)
다. 장소: 온양민속박물관, 아산외암마을 등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충남 아산
나. 수행단체: 문화기획학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온양민속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생활사, 민속을 모티브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기반과 근간을 조성하고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활용하고 알리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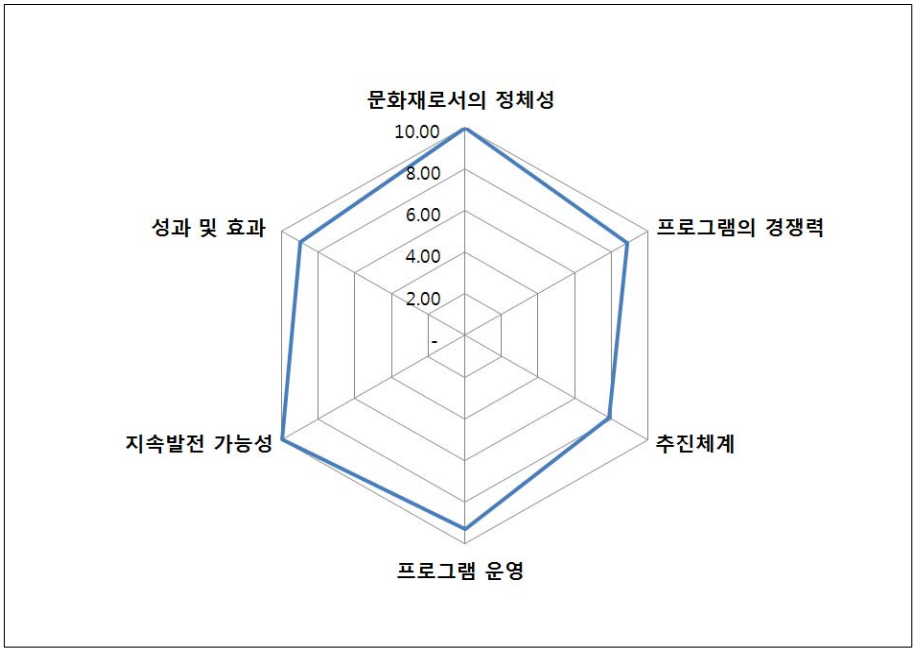
가.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6월 29일~30일(금~토) –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문화기획학교

현장모니터링



[그림 11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남 아산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충남 아산의 생생 문화재 사업인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사업은 온양민속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 민속자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됨.

□ 온양민속박물관은 1978년 10월 충남 아산에 개관한 민속박물관으로 한국인의 삶, 농업, 다양한 신앙, 공예 등의 민속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음.

□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랜 시간동안 저절로 형성된 삶의 방식과 태도인 '민속'은 우리 민족이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불교와 유교, 다양한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온양민속박물관은 이러한 민속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박물관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사업은 온양민속박물관의 유물을 활용하여 젊은 예술가들에게 한국의 미와 전통생활사를 강의하고, 이 강의 후에 한국적인 정서와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작품을 만들도록 하여 공모전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됨.

- 이를 위해 온양민속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모든 강좌의 교재로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작품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4월과 6월에 1박 2일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9월에 공모전을 진행하여 시상하는 방식임.
- 일반적인 생생 문화재 사업들이 주로 청소년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산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교육 및 인력 양성을 하는 차원 높은 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아카데미 강좌는 주로 공예, 건축, 디자인 등에 특화된 문화재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공모전 진행 후 우리 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창작물, 한국적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된 창작물, 창의적인 아이디어, 세계적인 디자인인지를 평가하고 상위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함.
- 아카데미 진행시마다 수강생들의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활동하는 등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충남 아산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지자체와 수행단체가 그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함. 지자체는 온양민속박물관과 외암민속마을 등 아카데미 진행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공모전 수상 시 자치단체상 지원, 충남 아산시 공식 홍보물을 통한 사업 홍보 등을 진행함.
- 수행단체는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홍보 및 모객, 강의 준비, 공모전 준비 및 진행, 전시회 진행까지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운영함.
- 지역의 문화, 축제, 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기획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문화기획학교는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단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생생 문화재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고, 1년에 2회의 아카데미 진행으로 능숙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장점임.
- 수행단체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구축한 강사진 네트워크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 모집, 교육 운영, 현장 답사 등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 수행단체 자체의 운영 시스템은 잘 짜여 있으나, 아카데미 진행시나 현장 답사 시 세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강의 운영 능력에는 아쉬움이 있었음. 강의의 특색에 맞는 좌석 배치, 우천을 대비한 우의 등의 사전 준비 등은 기계적인 운영 능력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참가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함.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온라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나, 주로 활용하는 홍보 매체는 온라인 블로그임. 그러나 검색 등이 용이하지 않음. 홍보 시스템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페이스북, 트위터, 미술 정기 잡지 등을 통해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을 권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지역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일반적인 생생 문화재 사업들과는 매우 다른 형식과 의미를 가지는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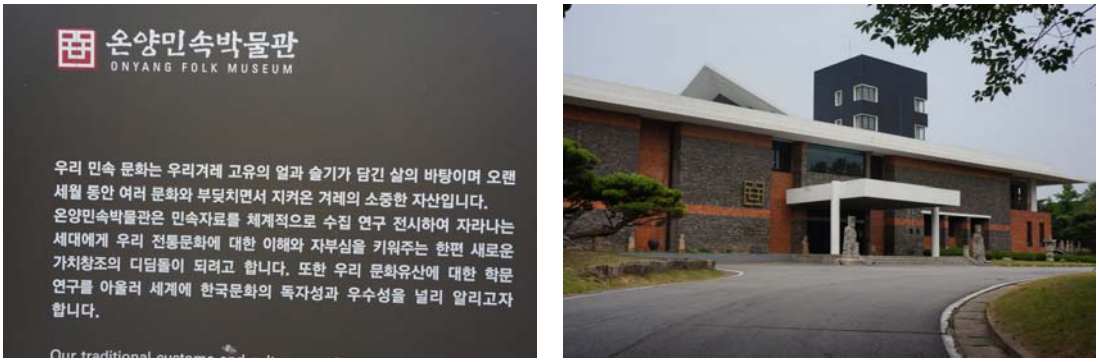
□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문화재'와 '문화재 활용'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고, 그 성과물을 공모전을 통해 시상을 하는 형식으로 고차원적인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임.

□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문화재의 결합을 통해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를 세계로 알리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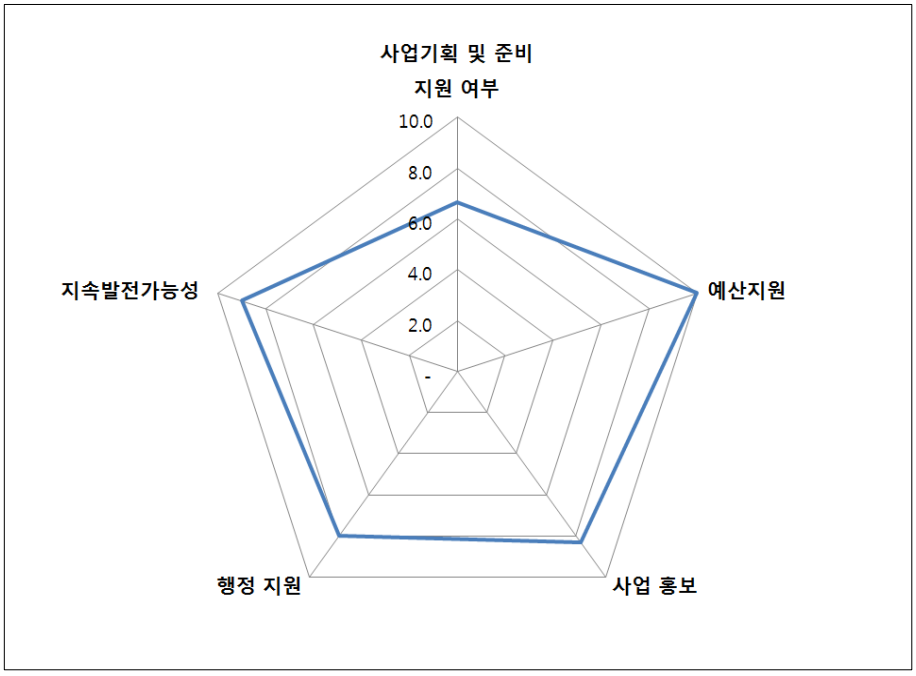
□ 2년 동안 4회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고민한 예술가가 양성되었고, 그 중 20여 명은 그 결과물을 인정받기도 하였음.

□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업으로 꼭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말고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이라는 전제 하에 문화재 활용 인력과 범위를 넓히는 활용사업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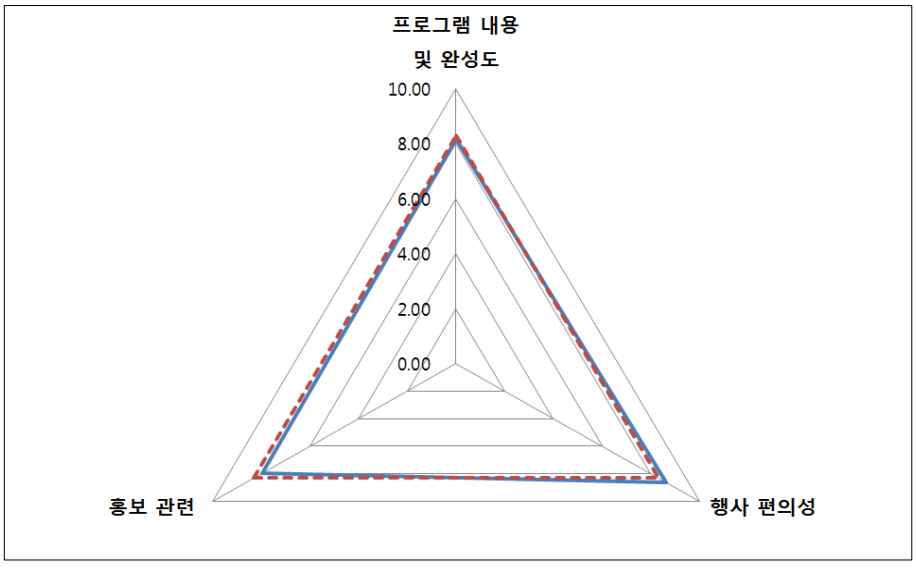
[그림 113]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14]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남 아산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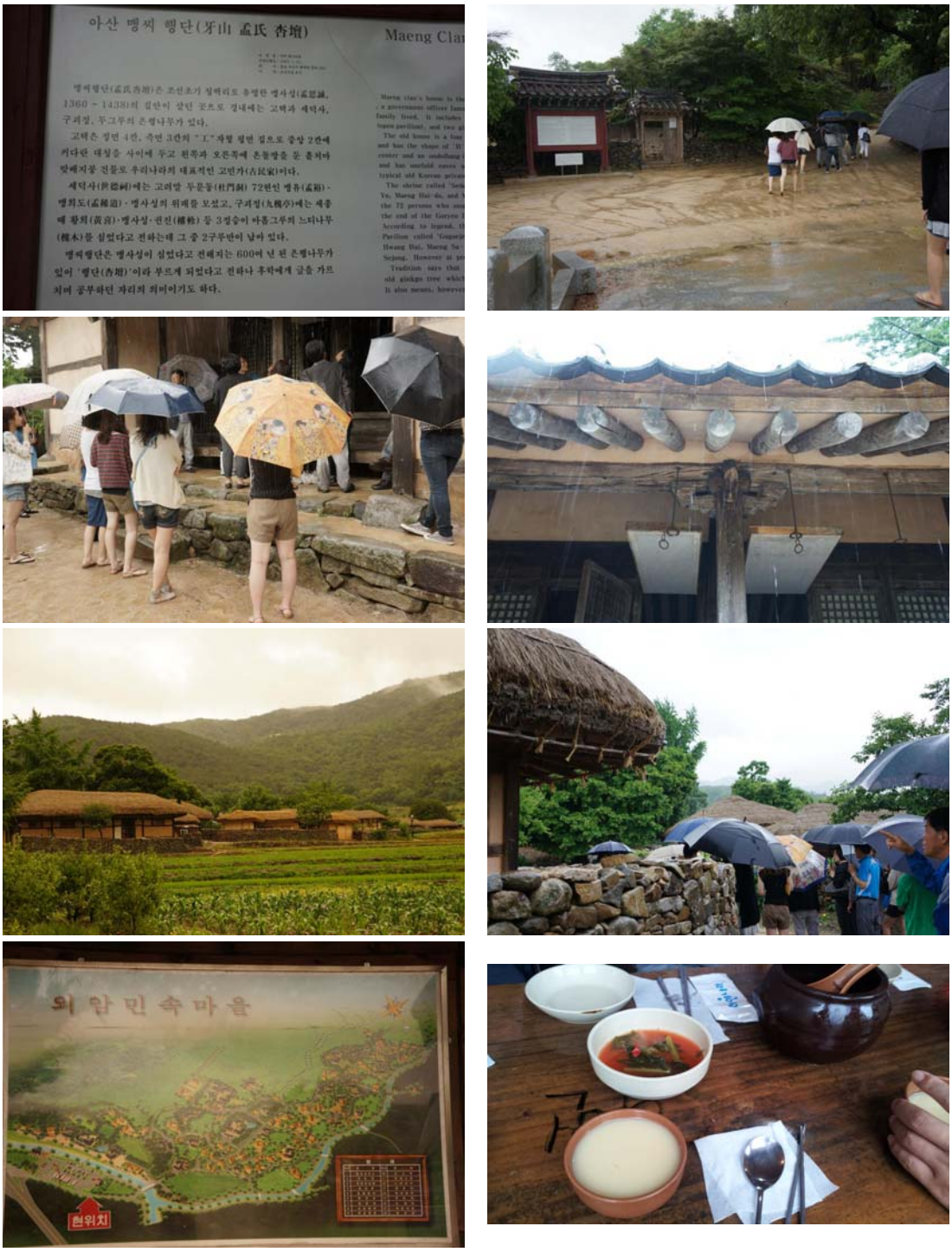
[그림 115]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충남 아산



[그림 116]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



[그림 117]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



[그림 118] 현장 이미지 – 충남 아산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전북 김제시
김제문화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쌍룡놀이(전북민속자료 제10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0월(7개월)
다. 장소: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벽골제 일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전라북도 김제시
나. 수행단체: 김제문화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임진년 흑룡의 해와 연계한 김제 벽골제 및 축조설화(쌍룡)를 주제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보전과 관심을 높이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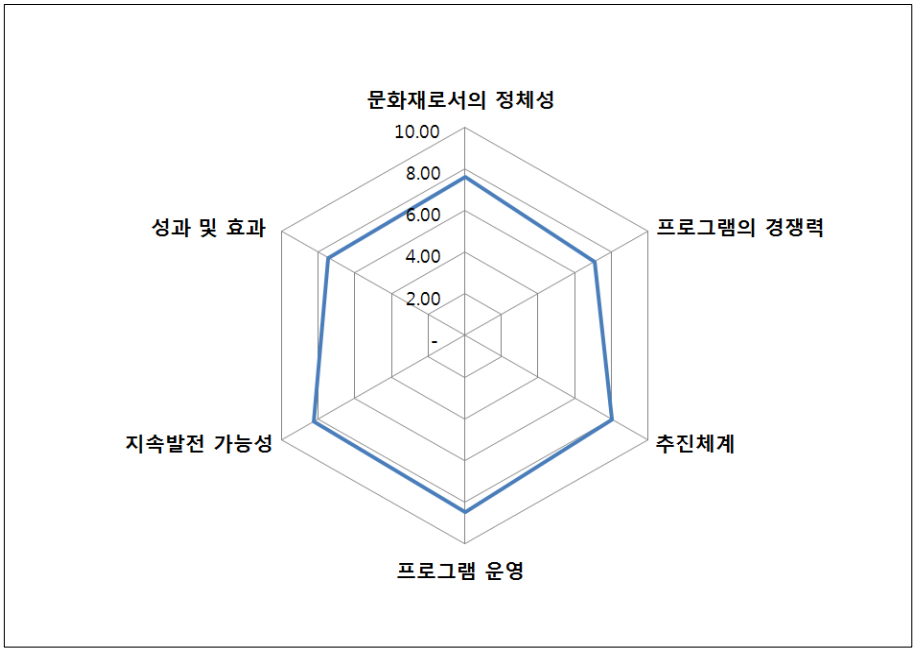
가. 해설사와 함께하는 벽골제 역사탐방
나. 장생거 수문모형 만들기
다. 벽골제 쌍룡, 단야낭자를 구하라!
라. 벽골제 축조설화 애니메이션 관람(단야낭자와 쌍룡 이야기)
마. 설화 속 쌍룡 만들기 체험
바. 벽골제 제방 연날리기, 날아라 용!
사. 방문객과 함께하는 쌍용놀이 공연
아. 박물관 속 벽골제 보기
자. 지평선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재 생생체험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11일(목) – '벽골제 생생체험'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전북 김제시/김제문화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11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북 김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김제 벽골제 생생체험'은 설화에 바탕을 둔 유·무형 문화재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서, 그 역사성 및 상징성은 높이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임에는 분명함.

□ 그러나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벽골제의 문화적 정체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음.

□ 지평선 축제 속에 녹아든 생생 문화재 사업의 프로그램은 기능과 역할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축제 기간 외의 상시 사업 운영은 단순 체험형 행사로만 진행이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벽골제 쌍룡의 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공연물보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좀 더 세밀한 홍보물과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사업 참여자 당사자들의 사명감이 필요하리라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축제 기간 외 기간인 평상시에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무리가 없음.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됨. 아울러, 공연물(쌍룡놀이 공연 / 벽골제 쌍룡, 단야 낭자를 구하라), 벽골제 역사 탐방, 연날리기 체험 행사 등은 단체객의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이 역시 사업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있어야만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축제 행사 외에는 시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생생 문화재 사업의 본래 취지인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 회복을 위한 취지에 조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업 경쟁력은 다소 떨어짐.

□ 2011년 대비 사업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나, 생생 문화재 사업 체험을 통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축제 행사 프로그램 중의 일부 콘텐츠가 되어 버릴 수 있음. 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자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향후에는 여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차별성을 갖는 것이 사업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평가자가 방문했던 당일 표면적으로 이해했던 사업의 추진 체계는 '김제시-김제문화원' 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사업 운영보다는 김제시와 김제문화원 간의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사업 기간 중 축제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 벽골제 및 농경사 주제관에서 시행되는 체험행사는 김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김제 벽골제 축제가 시행되는 축제 기간 중에는 농경사 체험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축제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시행하여, 업무 추진체계가 모호하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확연하지 않아 농경사 체험관 일부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추진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처럼 축제 기간 중에 시행되는 공연물의 경우 문화재의 전달 파급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600만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어려움.

□ 인형극'단야낭자를 구하라'의 경우 탈 제작비로만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추진 운영 주체의 모호함과 더불어 집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벽골제 및 농경사체험관을 활용한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1박 2일)으로 운영되었음.

□ 기타 농경사 체험관에서 시행하겠다고 한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도 김제 시내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승용차와 대중교통으로는 택시만 가능하여 접근성과 교통편의성이 떨어져,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음.

□ 사업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확고한 체계로 정리가 되어야 사업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이루어지는 위치 및 장소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문화재의 상징성과 더불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날리기, 수조성 만들기, 쌍룡 만들기 체험 등은 상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벽골제의 특징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수로를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고, 풍년을 맞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놀이를 체험화 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강화된다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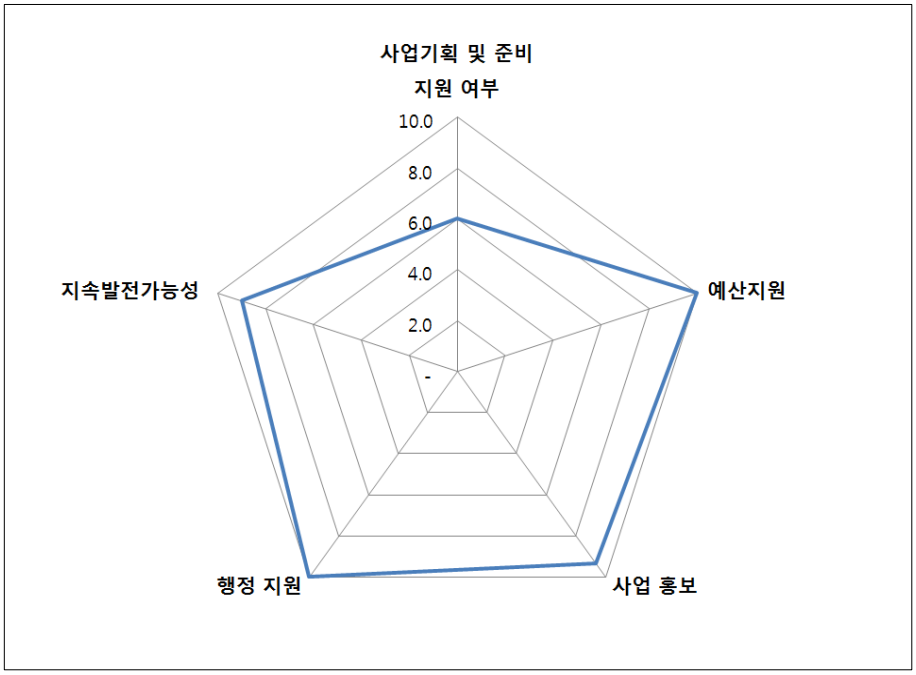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사업 참가자들이 축제를 관람하기 위한 참관객으로서 생생 문화재 사업만을 위한 참가자로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성과 및 효과는 측정하기가 어려움.
- 단, 농경사 체험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참관객에 대한 정량적 성과 측정은 향후 사업 운영 주관단체로부터 그 결과물로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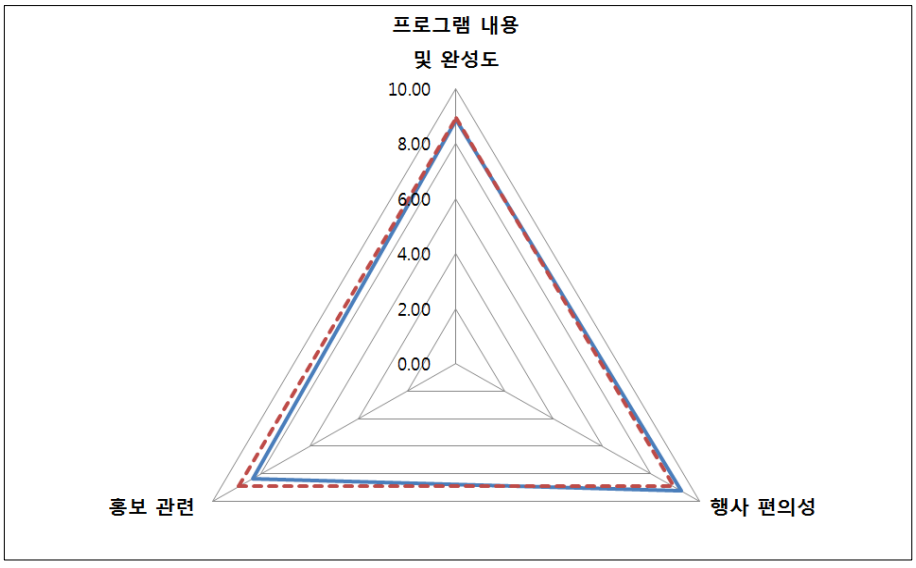
- 김제의 벽골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 운영, 추진체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농경사 체험관의 기능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김제시 뿐 아닌 타 지자체 유입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채널의 확보, 가동이 필요함.
- 문화재청이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 기관이 지역 이해도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현실화,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인터뷰 후에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함.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20]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북 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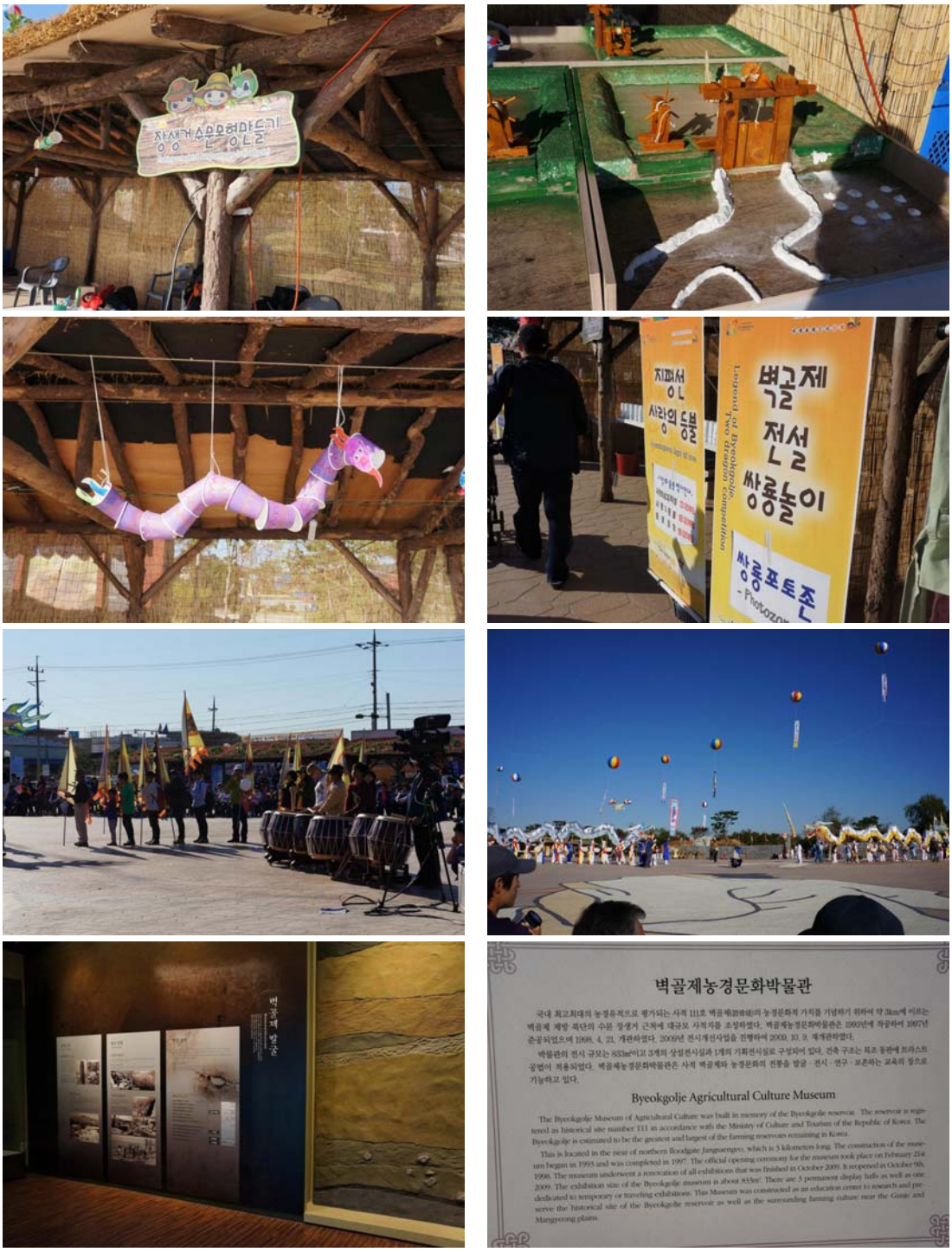
관람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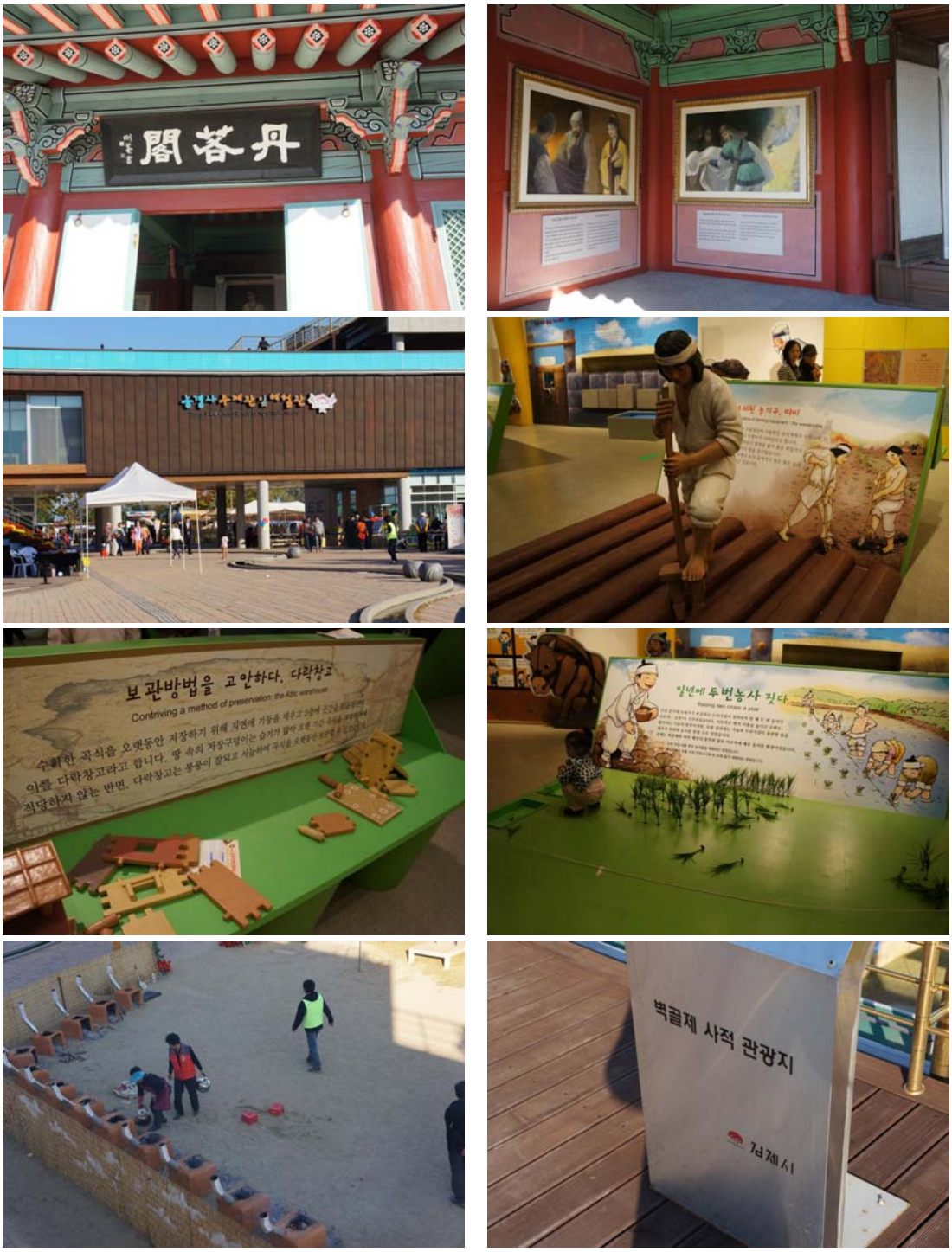
[그림 121]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전북 김제



[그림 122]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



[그림 123]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



[그림 124]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



[그림 125] 현장 이미지 – 전북 김제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
(사)문화진흥협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정암조광조 적려유허비(전라남도기념물 제41호), 학포선생부조묘(향토문화유산 제7호), 죽수서원(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0호), 학포당(전라남도 기념물 제92호), 영벽정(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67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0월(7개월)

다. 장소: 화순군 일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전라남도 화순군청

나. 수행단체: (사)문화진흥협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지역의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민들의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 하고, 외지에 대한 지역의 홍보와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가. 지란지교 Talk Concert

나. 호연지기(浩然之氣)!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크고 넓은 마음

다. 지란지교의 향기

라. 우리지역 문화유산 콘테스트

마. 문화트래킹: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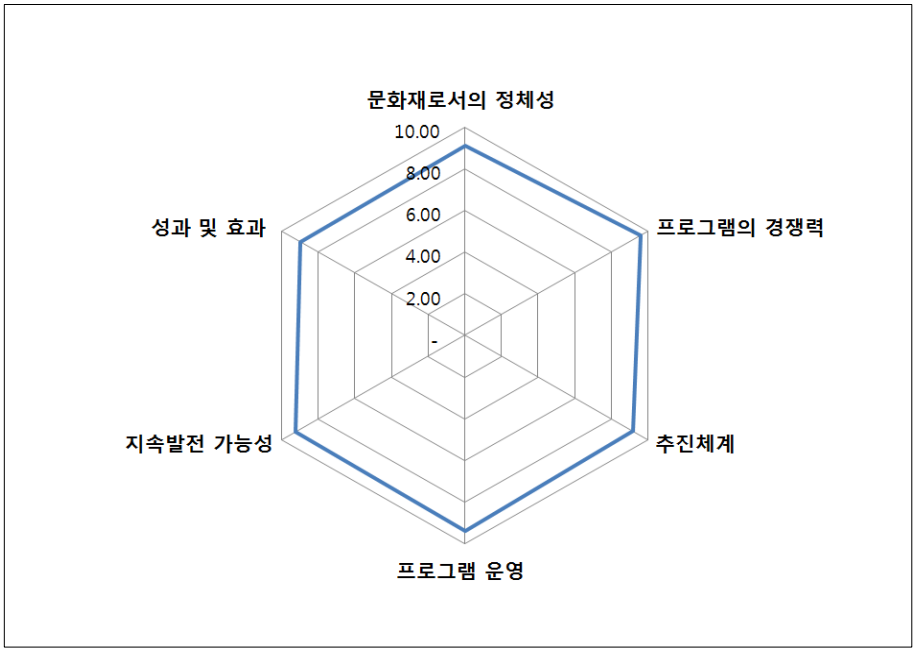
바. 지란지교 음악회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22일(토) – '그윽한 가을, 정자길 걷기 체험'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사)문화진흥협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12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전남 화순 생생 문화재 사업의 대상 문화재들은 주로 정암 조광조(1482~1519)선생과 학포 양팽손(1488~1545)과 관련된 문화재들임.

□ 조광조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임. 양팽손 역시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회화에도 일가견을 보였다고 알려짐.

□ 전남 화순에 있는 학포선생부조묘, 정암조광조 적려유허비 등을 비롯하여 죽수서원, 학포당, 영벽정 등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조광조, 양팽송 등 여러 문신들의 시가 남아 있는 정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전남 화순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암 조광조 선생과 학포 양팽손 선생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우정과 개혁에 대한 이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는 토크 콘서트, 그들의 이야기로 유명한 '지란지교'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와 그림 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지란지교의 향기', '지란지교 음악회', 옛 선비들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캠프

프로그램인 ‘호연지기!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크고 넓은 마음’, ‘문화트래킹,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화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우리지역 문화유산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어린이들이 전래동화를 통해 접한 경험이 있는 ‘지란지교’이야기를 바탕으로 체험,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내용에 대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화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재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순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짐.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전남 화순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문화진흥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음.
- (사)문화진흥협회는 문화재예방관리센터로 출발하여 전국의 각지에서 문화유산 관련 답사,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안정된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남 화순군에서 홍보,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의 대학생들을 문화재지킴이로 양성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문화트래킹,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프로그램은 화순 지역의 대상 문화재들을 연계하여 옛 선비들의 정자 문화를 체험하고 길을 따라 걸으며 관련된 퀴즈들을 풀어보고 선비들의 정취를 느껴보는 프로그램임.
- 트래킹 프로그램의 성격상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장거리를 걸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하여 사전에 세심하게 고민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충분한 사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이름표를 제공하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조를 구성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각 조에 멘토로 참여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각 프로그램 진행마다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게임, 간식이 주어지는 퀴즈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였음.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온라인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시급함. 프로그램 신청은 물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 생생 문화재 사업과 연관된 보도 자료들이 검색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역부족임.
- 프로그램 대상 문화재들, 생생 문화재 사업을 바탕으로 전남 화순 지역의 트래킹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리플렛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함.

□ 화순 지역의 정자 등의 대상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고, 자연환경 속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음.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관광이나 '치유', '쉼'이라는 현대 사회에서의 이슈와 연결해 낸 사업으로 교육적 의미로 어린이 참가자들 뿐 아니라 성인 및 가족 참가자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수행단체가 지역의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많이 찾도록 하겠다는 사업 수행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과의 연계, 지역 대학생들의 멘토 활용, 지역 주민들과의 협조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장소 확보 등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지속발전의 가능성이 엿보임.

나. 성과 및 효과

□ 전남 화순의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 주민, 지자체(화순군), 민간의 협력을 통한 도농교류의 모델을 시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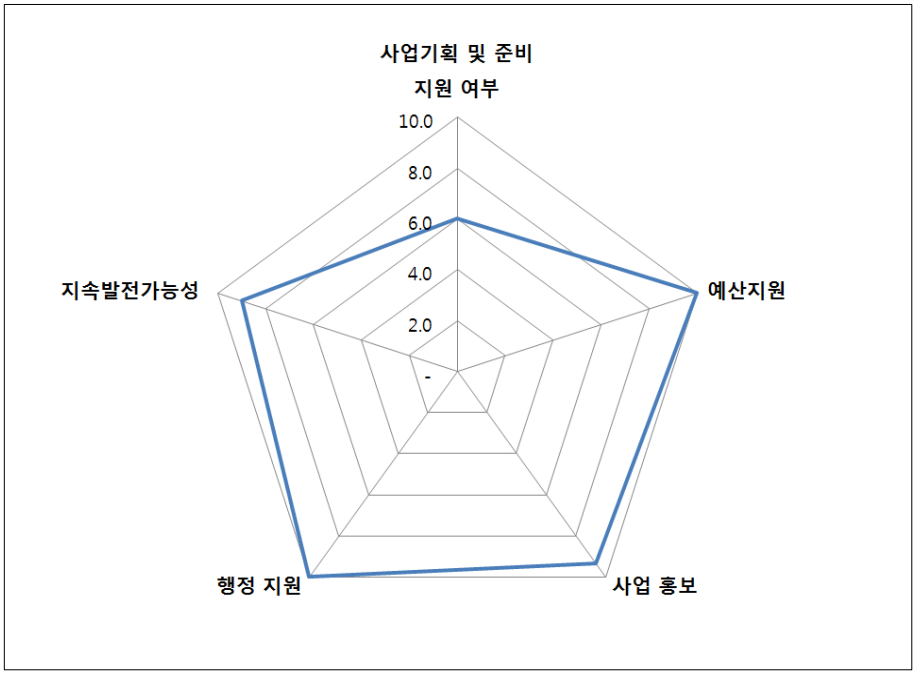
□ 문화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가족 여행, 쉼, 치유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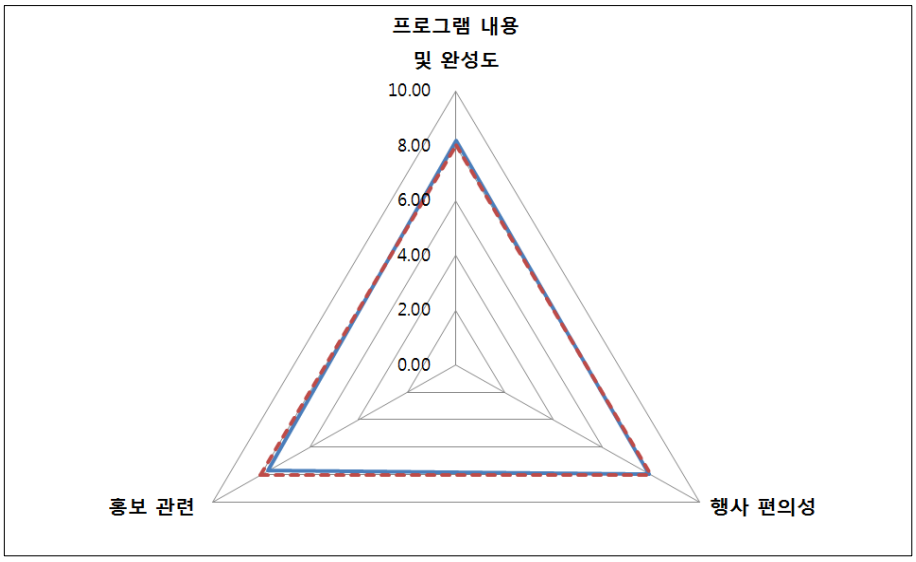
[그림 127] 현장 이미지 – 전남 화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2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2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 화순



[그림 130] 현장 이미지 – 전남 화순



[그림 131] 현장 이미지 – 전남 화순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전남 진도군
진도북놀이보존회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전남 진도군/진도북놀이보존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진도북놀이(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24일~12월 29일(9개월)

다. 장소: 세방낙조, 향토문화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북놀이민속전수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진도군

나. 수행단체: 진도북놀이보존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전남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보존·전승과 생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활용의 활성화와 진도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함.

4. 진행 프로그램

가. 지는 해! 노을! 생생 북놀이!

나. 토요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다. 진도 북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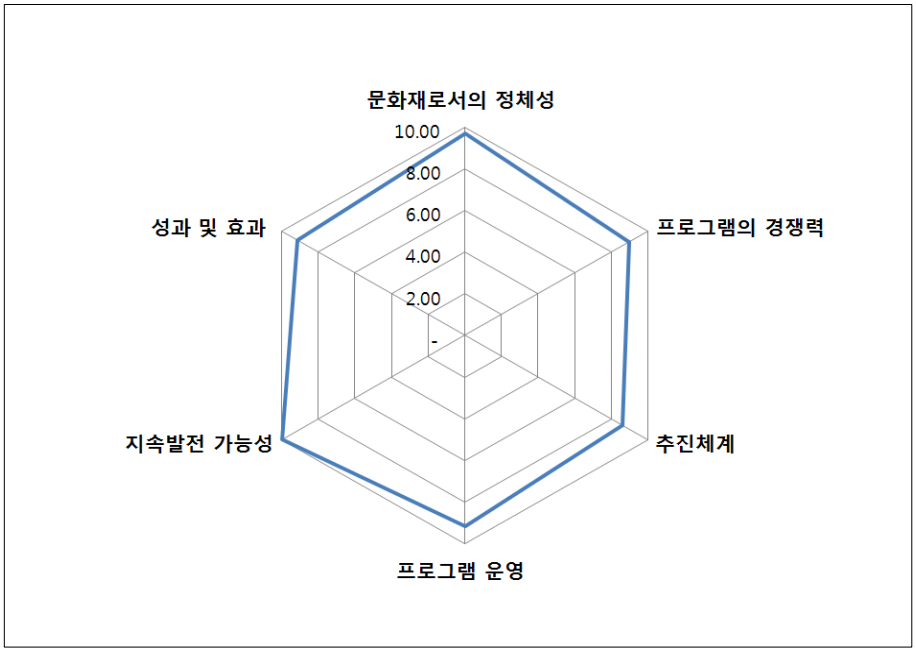
라.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1월 3일~4일(토~일) – '진도 북 페스티벌'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전남 진도군/진도북놀이보존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13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전남 진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진도 북놀이'를 대상 문화재로 하고 있음.

□ 진도북놀이(珍島북놀이)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풍물놀이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놀이로 소리와 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전라도 지역이 주로 한손으로만 치는 외북치기의 특성은 나타내는데 반해 진도의 경우는 양북치기가 전승되고 있음.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구를 치듯이 다양한 기법으로 연주를 하며, 동시에 화려하고 뛰어난 춤사위도 더해짐.

□ 진도 북놀이에는 다양한 명인들이 있으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양태옥류의 북놀이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전남 진도의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사업은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매주 토요일마다 세방낙조에서 오후 시간에 진행된 '지는 해! 노을! 생생북놀이!'은 단체 관광객 및 지역 주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도 북놀이 전수 조교자, 이수자, 보유자가 직접 시연을 하고, 북놀이를 배워보며 진도 북놀이의 가락과 춤사위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 '토요민속여행 북놀

이 생생 체험!'은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진도의 향토문화회관에서 진도 북놀이 공연을 보고 진도 북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함. 진도에 있는 북놀이 전수관 3군데를 활용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구성, 진도 북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진도 민요도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서울부터 진도까지 전국의 모든 북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체험과 강원 원주의 생생 문화재 사업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도 북 페스티벌'등이 진행되었음.

□ 전남 진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확신이 있으며, '전통'과 '타악'이라는 면에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좋은 문화재임.

□ 또한, 세방낙조의 노을을 보기 위해 진도를 방문한 4,50대의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도 북놀이에 대해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신명나는 북놀이가 함께 어우러져 참가자들에게 매우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진도 북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북을 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축제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기획력이 아쉬웠으며, 공연만 봐도 신명나는 전국의 북놀이들이 모두 모여 즐겼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임.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전남 진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진도북놀이보존회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진도군청에서는 홍보, 장소 지원 등의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진도 군청에서는 진도 북놀이 생생 문화재 사업을 위하여 생생 체험 전용 체험장을 세방낙조에 조성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진도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 준공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은 진도북놀이보존회의 전수조교, 이수자들이 투입되었으며, 민속전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 활동가들이 투입되었음.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사업 홍보를 위하여 소형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진도군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고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배포함. 또한, 진도 투어코스를 연계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체험관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국립남도국악원 국악방송에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하여 홍보했으며, 그 외에 진도문화지도 제작, 광주 KBC 방송, 토요민속여행 배너 홍도 등을 진행하였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수행단체의 전문성은 매우 확실하며, 수행단체가 많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매우 확실함. 매주 세방낙조에서 진행하는 북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속하여 전남 진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도 북놀이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전남 진도'라는 지역이 가진 전통성과 예술성, 그리고 '진도 북놀이 전승보존회'라는 탄탄한 수행단체, 2010년부터 3년간 꾸준히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 2013년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진도 군청에서 '진도 북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
- 이후에는 무형문화재전수관, 운림산방, 세방낙조 동선을 연계하여 전남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무형문화재 생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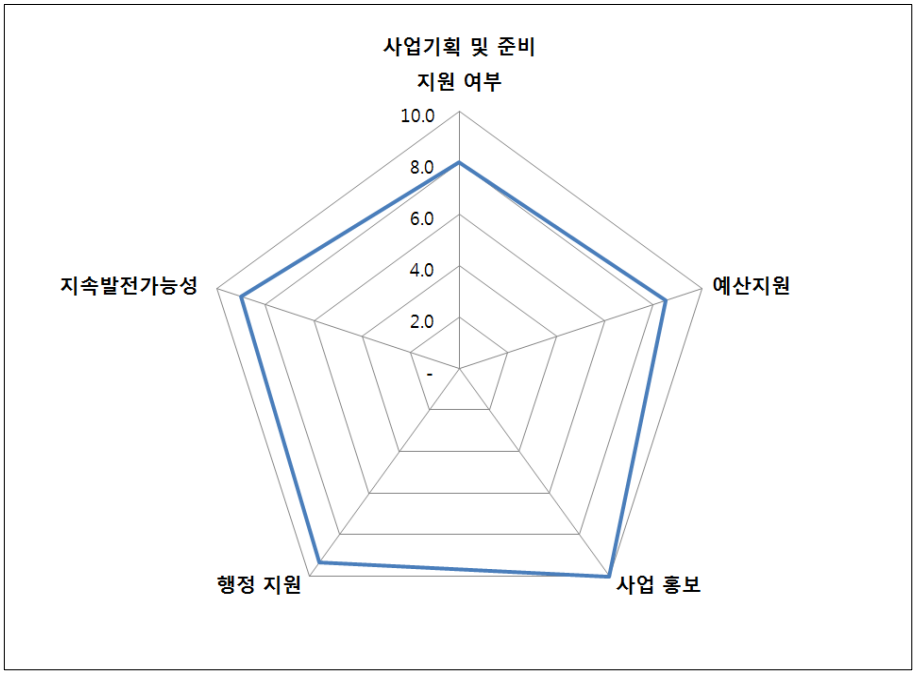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이 사업을 통해 민속전수관 1박 2일 체험 연계 방문객 증가, 토요민속여행 공연과 연계 방문객 증가 등 전남 진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었음. 또한, 대부분의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도 북놀이에 대한 이미지 효과 또한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진도 북놀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이 되었고, 2012년의 경우 강원 원주의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사업과 교류 사업을 진행, 전국 북놀이들을 한 자리에 보았다는 것 등은 진도 북놀이가 2012년에 이룬 큰 성과들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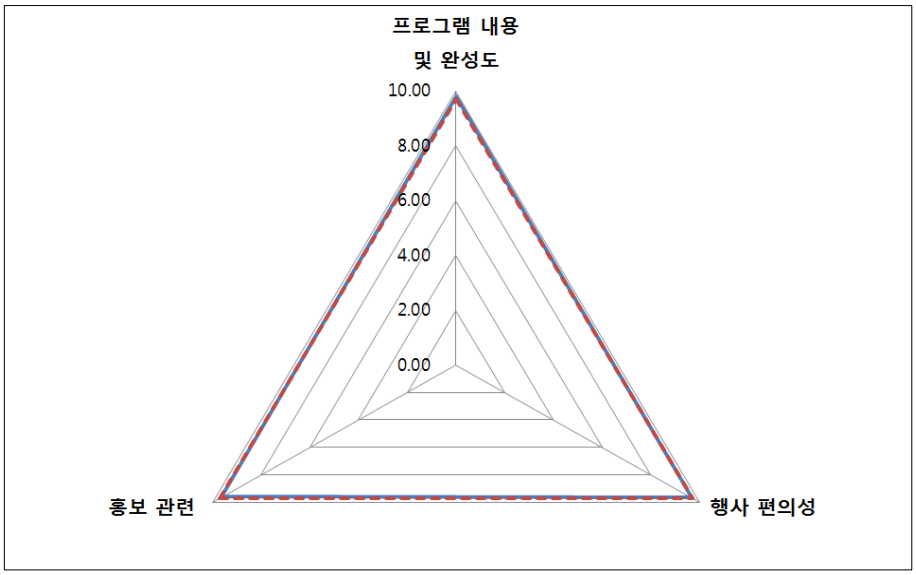

[그림 133]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34]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35]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 진도



[그림 136]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



[그림 137]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



[그림 138] 현장 이미지 – 전남 진도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체험 하기

경남 하동군
교육문화공동체 결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발굴 체험하기] 경남 하동군/교육문화공동체 결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하동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읍성(사적 제453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11월(9개월)
다. 장소: 하동송림 및 하동읍성이 소재한 하동군 하동읍 고전면 일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나. 수행단체: 교육문화공동체 결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하동송림, 하동읍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마을주민과 국민과 함께 즐기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 문화재 보존의식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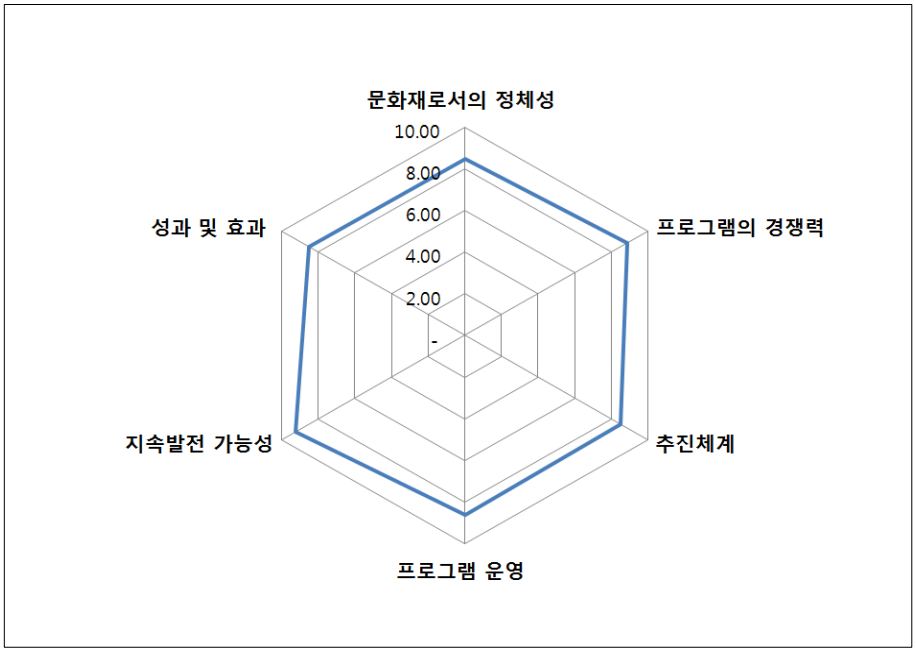
가. 하동송림이 베푸는 따뜻함(솔가리 수집해 나눠주기)
나. 하동송림 옛이야기 모음(하동 4대 소나무)
다. 송림 솔솔 할아버지에게 엽서 보내기
라. 우리가 만든 하동송림 Play
마. 하동송림 가족 그림 대회
바. 하동 4대 소나무 우표디자인 공모전 및 우표 제작
사. 하동읍성 역사탐방, 발굴체험
아. 옹기종기 하동읍성 돌담길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15일(토) – '하동읍성 푸른밤'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발굴 체험하기] 경남 하동군/교육문화공동체 결

현장모니터링



[그림 13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경남 하동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45호인 하동송림과, 사적 제453호인 하동읍성으로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하동읍성은 조선 시대에 축성된 읍성으로 구조나 축조수업이 조선전기 연해읍성과 관방성의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 하동의 중심이 되는 곳에 있던 곳으로 왜군과의 전투가 있었기도 했고,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음.

□ 현재 계속 복원중이며 2015년에 읍성 복원이 완료될 예정임.

□ 하동 송림은 조선 영조 21년 당시 도호부사였던 전청상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었던 소나무 숲으로 2㎞에 달하는 길이에 750여 그루의 노송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음. 국내의 제일가는 노송숲으로 백사장과 섬진강이 어우러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움.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경남 하동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하동

읍성의 지역 주민들에게 하동 읍성의 가치와 발굴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하동읍성 푸른 밤', '하동 송림 내에 쌓인 솔가리를 관내 노인들에게 난방용 땔감으로 전달하는 나눔 행사인 '하동 송림이 베푸는 따뜻함', 하동읍성 발굴 성과를 강의하고 탐방로를 걸어보며 발굴 및 복원 체험을 하는 '하동읍성 역사탐방, 발굴체험', '하동 송림 가족그림대회', '솔솔 할아버지께 엽서보내기', '하동4대 소나무 우표디자인 공모전'등을 진행함.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한문화재한지킴이, 경상문화재연구원, 하동청소년수련관, 미라벌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고, 어린이, 혹은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함.
- 그러나 프로그램들이 지역 문화재에 최적화되어 진행된다기보다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진행시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콘셉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문화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경남 하동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광주 광산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공동체 결에서 진행하고 있음. 경남 하동 지역의 단체가 아닌 타 지역의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주요한 과제임.
- 지자체인 하동군청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수행단체와는 전자우편, 전화,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 하동 읍성과 관련해서는 읍성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협조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작년까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하동 생태해설사 모임이 사업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 주목하여 지역의 단체와 협조 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던 '하동읍성 푸른 밤' 사업은 하동읍성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하동읍성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발굴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계획은 어떤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음.
- 주로 노령의 농촌 인구들이 주를 이루는 하동읍성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화재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는 매우 좋으나, 프로그램 진행이나 구성 전반에서는 아쉬움이 남음.
- 다양한 음식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광주 지역의 국악예술단체의 공연, 경상문화재연구원의 하동읍성 발굴 현황 공유, 그리고 하동군청의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었음.
-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특성상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간이 농사일이 막 마무리되는 시간대로 주민들이 행사장에 모이는 데까지 1~2시간 정도 소요되어 일정보다 늦게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분위기였음. 저녁 시간과 겹쳐서 진행되어 하동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질 즈음에는 가족들의 저녁 식사 준비 등의 이유로 행사장에 남은 사람들이 절반가량에 그쳤음.

- 또한 퀴즈 대회가 하동읍성이나 하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오락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것들로 구성되어 좋은 기획을 채울 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함.
- 경남 하동에서 진행한 다양한 생생 문화재 사업 중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에 만들어졌고, 하동읍성의 발굴과 활용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던 것만큼 좀 더 세심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했음.

다. 홍보 / 편의성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리플렛 자료가 만들어졌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유가 되었으나, 수행단체의 홈페이지나 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게 매우 어려웠음.
-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들과 연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도 홍보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경상문화재연구원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하동읍성이 발굴되고 있고, 하동송림 역시 소나무들마다 일련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 휴식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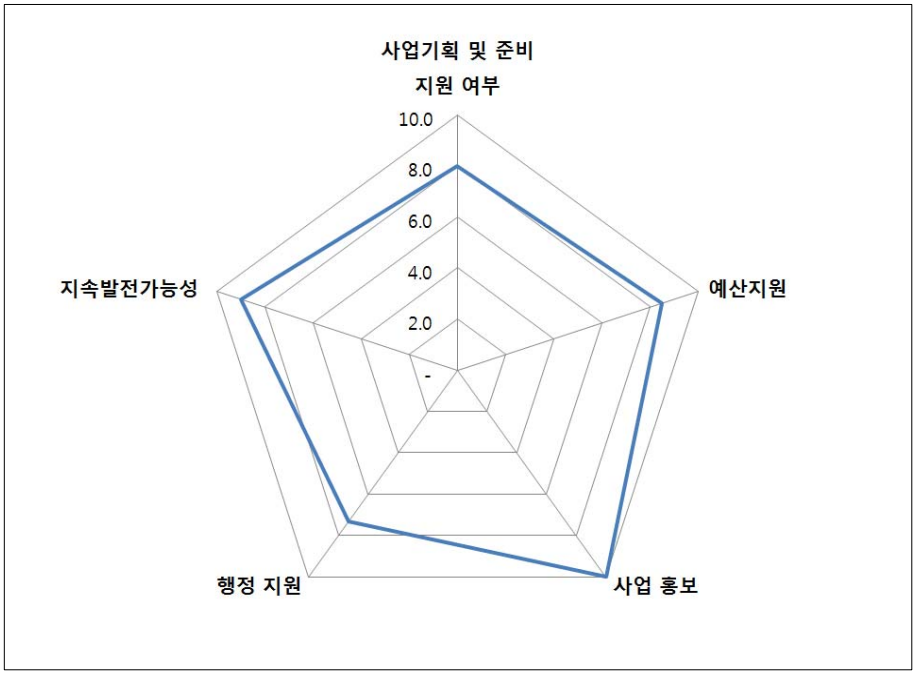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경남 하동은 하동야생차 축제, 쌍계사, 화개장터 등 소설 <토지>의 배경,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매우 풍부함. 이러한 문화콘텐츠들과 하동 송림, 하동읍성의 역사성을 함께 결합한다면 하동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 또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의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나아가 경남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연계하여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할 것임.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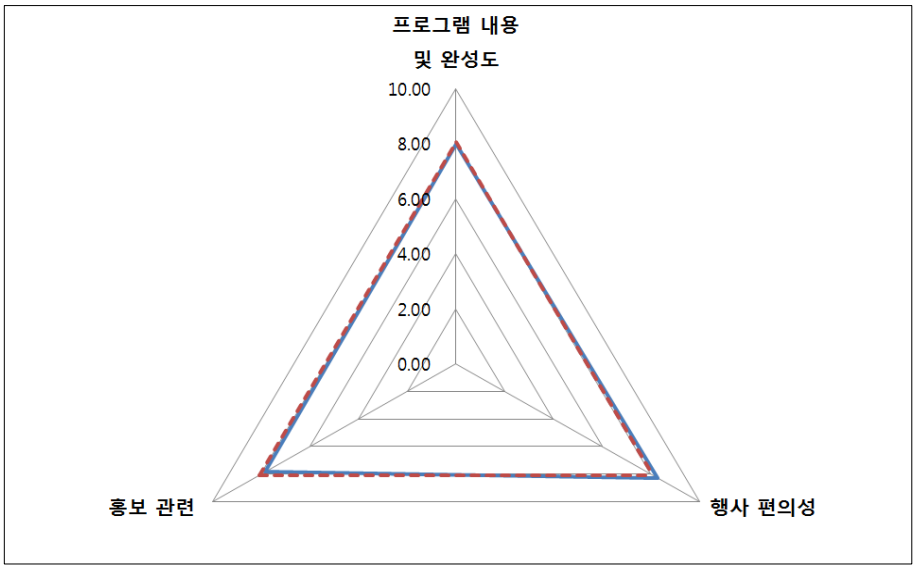
- 경남 하동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2012년으로 4년차 지원을 받는 사업임. 이미 문화재의 정체성이나 프로그램들은 안정되어 진행되고 있음.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하동4대 소나무 우표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우표들은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우표로 제작되어 나오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음. 이렇게 사업을 통한 결과물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알릴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임.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40]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41]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남 하동군



[그림 142]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그림 143]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그림 144] 현장 이미지 - 경남 하동군

제5장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 (시범사업)

제 1절 : 서울 동작구
제 2절 : 대구 달서구
제 3절 : 대전 (택견)
제 4절 : 울산 동구
제 5절 : 경기 (소풍열차)
제 6절 : 경기 고양시
제 7절 : 경기 군포시
제 8절 : 강원 원주시 (고판화)
제 9절 : 충남 공주시
제10절 : 전남 나주시
제11절 : 경북 경산시
제12절 : 경남 남해시
제13절 : 제주시

[사업 개요 및 내용]
[현장모니터링 평가]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평가]
[사진]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

서울 동작구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사육신묘(서울유형문화재 8), 용양봉저정(서울유형문화재 6)
나. 사업기간: 2012년 3~11월(9개월)
다. 장소: 동작구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서울시 동작구
나. 수행단체: (주)우리가만드는미래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동작구 내 문화유산의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사인식을 제고함. 또한, 동작구 내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동작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를 마련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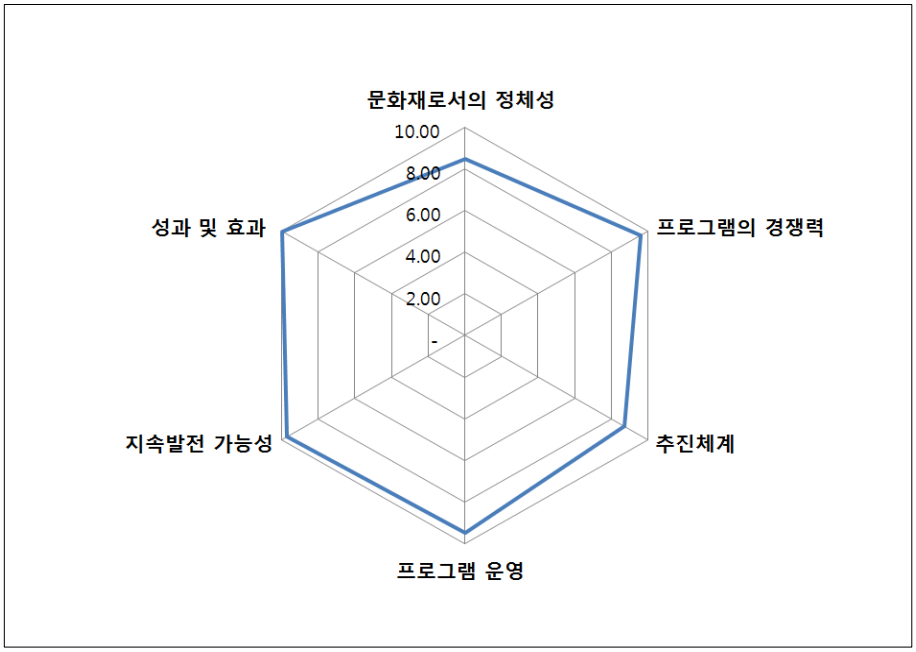
가. '사육신의 다섯 가지 소원'
나.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6월 23일(토) – '사육신의 다섯가지 소원',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서울 동작구/(주)우리가만드는미래

현장모니터링 평가



[그림 145]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지역에 있으나 쉽게 지나치기 좋은 문화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음.

□ 정조 대왕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들러 점심을 먹곤 했다는 용양봉저정은 문이 항상 닫혀있고, 지역주민들의 접근도 많지 않았던 문화재임. 그냥 두었을 때는 낡은 정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의 이야기이며, 정조의 효심, 그 와중에 배들로 다리를 놓아 한강을 건넜다는 조선 시대의 지혜까지 가진 이야깃거리가 매우 충분함.

□ 또한 사육신묘 역시 지역의 공원으로만 지나치기 쉬운 사육신 공원 역시 사육신, 영조, 세종, 단종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지역의 숨겨져 있던 문화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풍부한 이야깃거리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에 걸맞은 체험과 연극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구들은 자체 기획 및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하였는데, 교구의 질과 수준이

매우 높고, 참가객들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음.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해당 문화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내용을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 프로그램 진행 강사에 따라서 아무리 훌륭하게 기획된 사업이더라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위해 최적화된 강사 또한 이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 요인임.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역사문화프로그램으로서 전국으로 확대되거나 관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생생 문화재 사업의 취지가 지역의 숨어있는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지역 주민들이 그 문화재를 활용하고 그로인해 보존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인 요소를 가장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프로그램임.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우리가만드는미래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워낙 지역에 문화재 관련 시설 등을 잘 구비해두고, 지하철역을 나오면서부터 지역을 트래킹해 볼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두는 등 적극적임.
- 또한 평소에는 닫혀있는 용양봉저정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열어 주어 참가객들이 직접 정자 안에 들어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수행단체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콘텐츠 제작 경력을 가지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 처음 용양봉저정에 모여 함께 설명을 듣고 퍼즐을 찾는 등 체험 시간을 가지고 이동을 하였음. 사육신 공원으로 이동 후에는 2팀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이 혼자 하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보조 강사들이 더 투입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함.
- 다만, 용양봉저정에서 사육신 공원으로 이동할 때 도보로 20분 정도를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가 심하게 흩어지고, 안전 문제의 위험이 있기도 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이미 훌륭하게 잘 하고 있기는 함. 하지만, 서울 동작구의 지역 주민들, 나아가서는 서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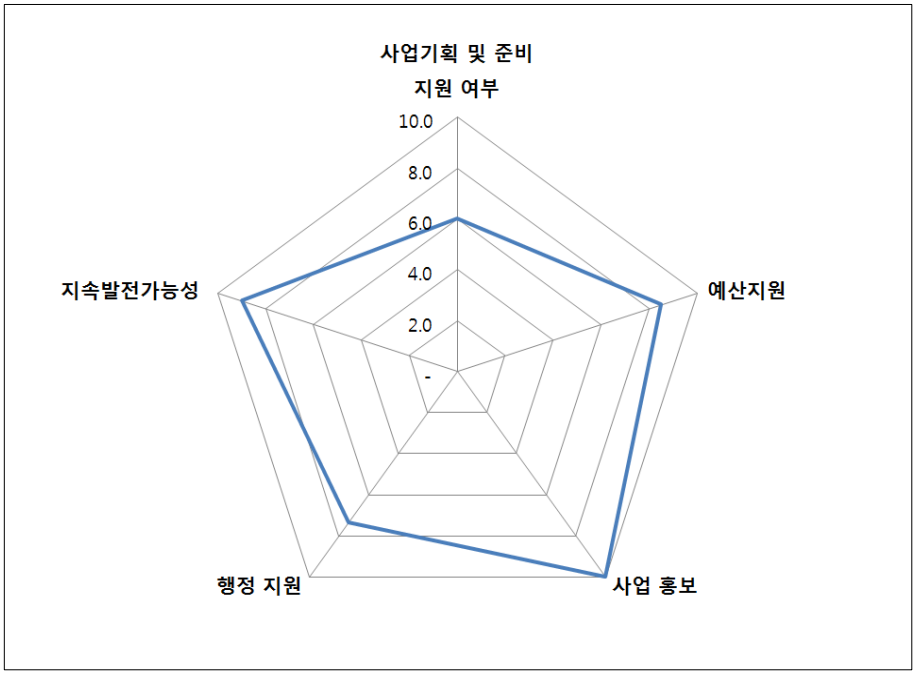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이 사업의 성과와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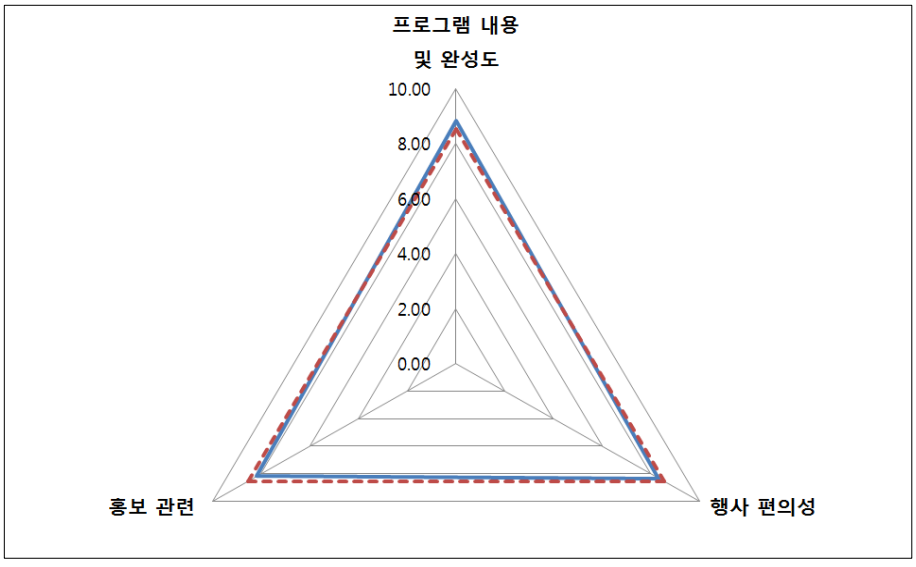
[그림 146]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47]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48]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서울 동작구



[그림 149]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그림 150]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그림 151]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그림 152] 현장 이미지 - 서울 동작구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

–낙동서원을 중심으로

대구 달서구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화원우배선의병진군공책 및 관련자료(보물 제1334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1월(8개월)
다. 장소: 낙동서원, 월곡역사박물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나. 수행단체: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낙동서원은 임진왜란 의병장 지낸 단양 우씨 우배선장군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30만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 둘러져 있는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3km 안에 초·중등학교가 15학교나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월촌 공원과 함께 있어 인근 주민 및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음. 그러므로 임진왜란의 역사가 담겨있는 낙동서원을 중심으로 우리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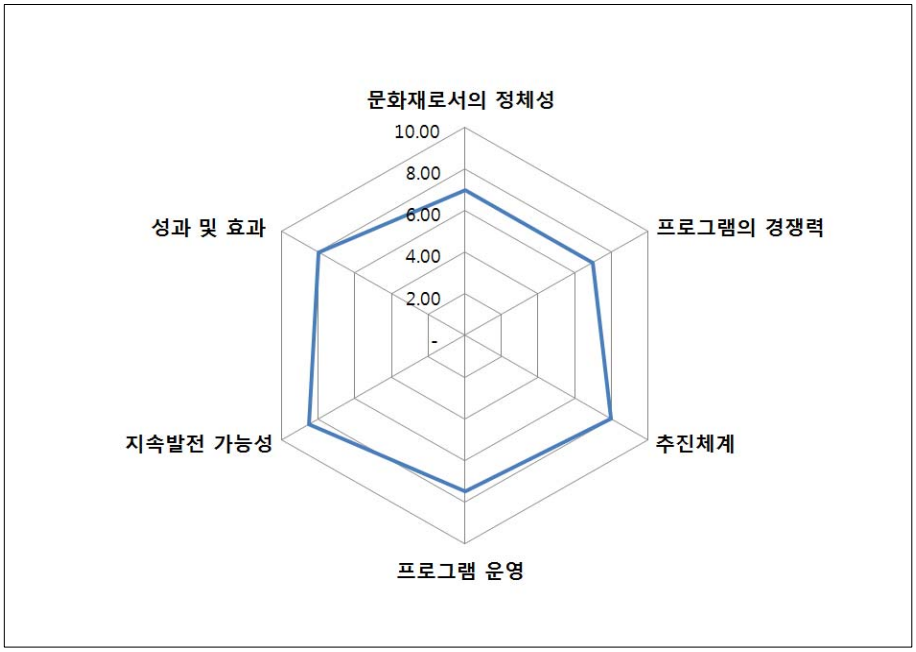
가. 임진왜란 스토리텔링 문예한마당
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6월 23일(토) – 임진왜란의 승전의 축포를 울린다!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 대구 달서구/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15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대구 달서구에서 진행한 생생 문화재 사업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는 '화원 우배선 의병진 관련자료' 즉,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자 문신이었던 월곡 우배선 장군의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대상 문화재로 하고 있음.
- 우배선 장군은 대구 일원을 중심으로 왜군과 싸워 공을 세웠으며, 그 포산으로 합천군수 등 여러 관직을 지내기도 하였음.
- ''화원 우배선 의병진 군공책'은 '의병군공책'을 비롯하여 첩, 소지, 전령 등 12종 20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의병군공책'은 의병 우배선을 비롯하여 그 부하의병들의 군공을 자세히 수록해 두어 임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 대구 달서구는 이 우배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월곡 역사박물관이 있음.
- 낙동서원은 원래 우배선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덕동서원이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이후, 단양 우씨 판서공의 17대손이 이름을 바꾸어 건립한 것임.
- 임진왜란, 나라에 대한 충정 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짐.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대구 달서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낙동서원과 월곡역사박물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 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농경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위치의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재로서 활용되는 것이 기획 의도임.
- 이를 위하여 '임진왜란 스토리텔링 문예한마당'과 '온고이지신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라는 2가지 사업을 진행함.
- '임진왜란 스토리텔링 문예한마당'은 우배선 장군이었다면 임진왜란을 어떻게 극복했을 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상황극을 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됨.
- '온고이지신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은 임진왜란의 승전을 알리는 음악놀이를 중심으로 한지공예체험과 민화그리기 등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의병 활동을 한 '우배선 장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프로그램 구성임.
-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루 동안 방문해서 답사하고 설명하고 '내가 우배선 장군이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하는 글짓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임.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가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요건을 교육하고 우배선 장군의 이야기를 대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 문화적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된 작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온고이지신 체험 및 음악놀이' 역시, 어디서나 할 법한 음악공연, '전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한지 공예', '민화그리기'를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함.
- 해당 문화재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의 고민이 매우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대구 달서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사)대구파라미타청소년협회'라고 하여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아끼고 지키는 문화재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국적인 단체의 대구 지회임.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체험 활동, 1인 1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
-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에서는 달서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해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실 홍보 방송 등의 협조를 요청함.
- 지자체에서는 행사 진행 시 인근소방서에 행사를 알리고, 전담 진행요원을 배치, 사전에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임시 의무실을 설치하여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인 '임진왜란, 승전의 축포를 울리다!' 프로그램은 과거 임진왜란 의병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현대적인 클래식 음악을 엮어 곡을 재해석하여, 전통 속의 클래식 음악을 느껴보는 생생 음악회와, 전통의복체험, 전통미술체험, 전통문양 페이스페인팅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었음.
- 그리고 '제 8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 사생대회가 이어짐.
- 실제 프로그램 진행은 계획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음. 음악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후 사생대회로 이어졌는데, 불교방송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순수 참가객의 수는 적었다고 판단됨.
- 또한 수행단체인 '대구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음악회 행사만 진행하고 사생대회 진행시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함.
- 사생대회의 주제가 '나라사랑', '의병', '월곡역사공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애초에 행사 진행시에 사생대회 주최 측과 긴밀하게 연계하게 음악회와 사생대회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주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음.
- 음악회의 경우 기획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실행 단계에서 미숙함이 드러남. 임진왜란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클래식, 영화, 드라마 OST 등의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과 엮어 구성하였는데, 곡에 대한 소개나, 임진왜란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과정 없이 연주만 계속되어 완성도가 떨어졌음. 원래 아이들이 연극을 연습하였으나 대사를 다 외우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설명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음.
- 부대행사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었고, 재미도 있었으나, 음악회 이후 철수했기 때문에 진행 시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기 어려웠음.
- 원래 낙동서원에서 진행하려던 행사였으나, 낙동서원이 반개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이 있을 경우 월곡역사박물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사업 수행단체 담당자가 인솔해서 관람을 해야 하는 등 관람 단계가 번거로워 참가자가 적었음.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객들이 본인들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식수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그늘막도 없어 더운 날씨에 햇살 때문에 참가객들이 불편을 호소함.
- 교통편이나 시설 면에서는 좋은 편임.
- 행사장 안내 이정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행길인 경우 헤맬 가능성이 높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역사적 사실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과 서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임.

- 그러나 이는 사업 수행단체가 해당 문화재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고, 프로그램 수혜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빛을 보기 어려울 것임.
- 인근에 신도시가 조성되어 30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문화재들보다 접근성이 우수한 편임. 지역 주민들이 해당 문화재를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지, 지역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을 문화재 하나하나를 알리고 활용하며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 지킴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함.
- 수행단체가 '청소년' 대상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체이고, 행사 진행의 경험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의 생생 문화재 사업들(서울 동작구, 서울 동대문구 등)을 참고로 하여 사례 답사,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면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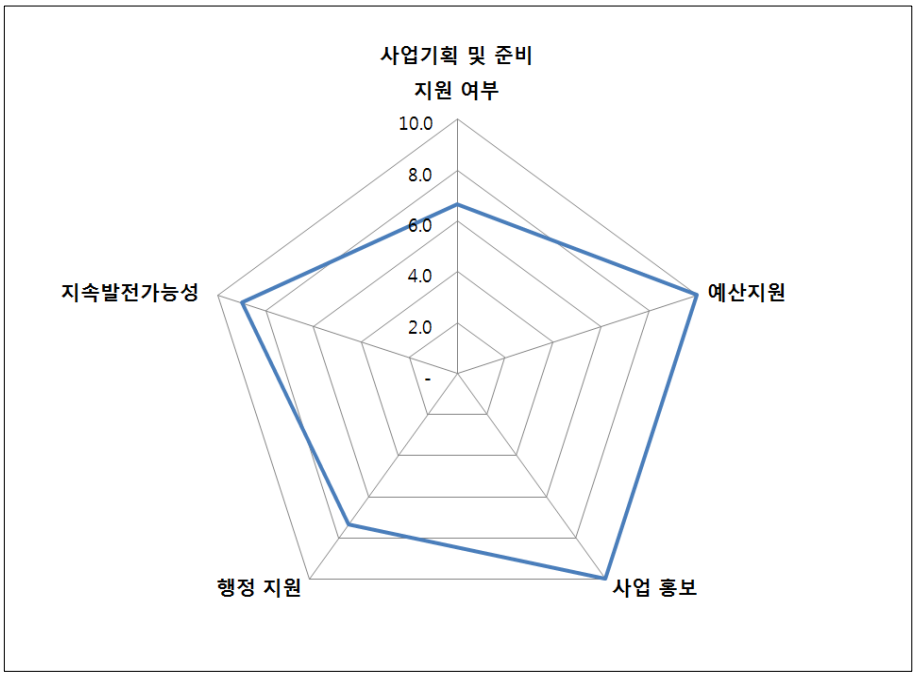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해당 문화재에 찾아오고, 쉼터로서 정적이었던 공간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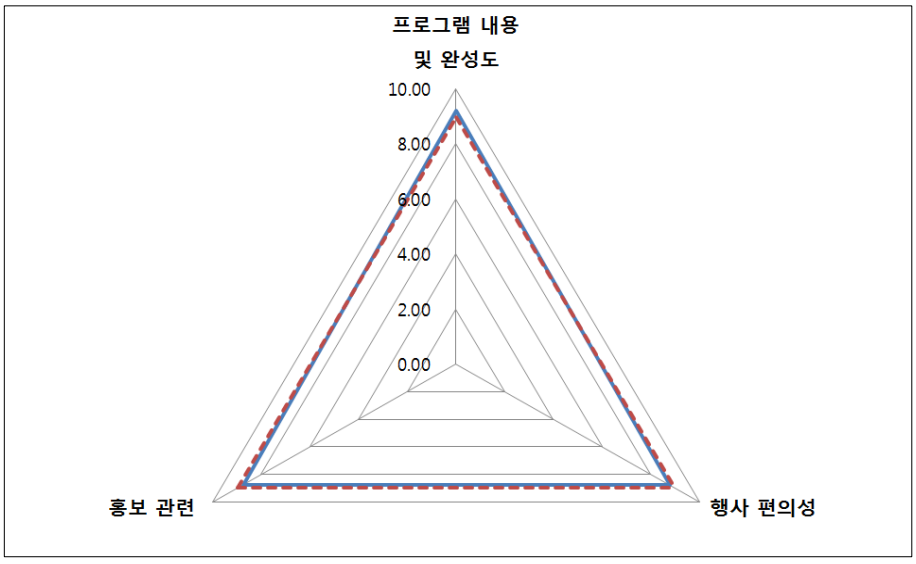
[그림 154]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55]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56]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대구 달서구



[그림 157]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그림 158] 현장 이미지 – 대구 달서구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

대전광역시
(사)한국택견협회대전지부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택견(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1월(8개월)
다. 장소: 택견전수관, 대동사회종합복지관, 샘머리공원 및 송촌중학교강당, 충주택견총전수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대전광역시
나. 수행단체: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대전지부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내재된 가치를 발굴·참여시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캠프를 통하여 택견의 역사와 정신을 보급하고, 이로 인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뿌리를 배우고 문화의 소중함과 활용의 활성화를 극대화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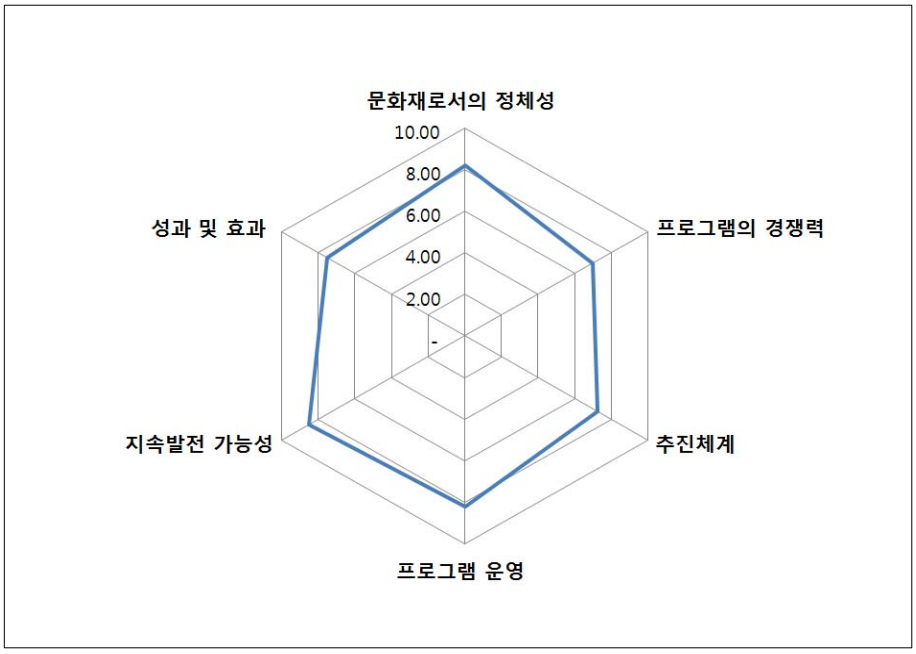
가. 온가족 다함께 생생 문화재 택견(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포함)
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택견 생생 문화재
다.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캠프
라. 현대음악춤과 어우러지는 무형문화재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21일(일) – '택견 한마당'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 대전광역시/(사)한국택견협회대전지부

현장모니터링



[그림 15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택견은 고구려부터 이어져온 민족 전통 무예로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임.
- 호방한 기상을 담으면서도 섬세하고 자연스러우며 유연한 몸놀림과 기술 등, 현대인들에게도 건강 증진과 마음 수양에 효과적인 운동임.
- 일제를 거치면서 말살되었던 우리 문화의 원형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대중화, 현대화할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공연으로 진행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함. 택견꾼들이 시범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재미나 감동을 줄 수 없음.
- 프로그램의 구성, 순서, 내용 설명, 진행 등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하여 발표회 수준으로 진행되어 아쉬움.
- 사전 공연을 한 사물놀이 팀의 연주가 프로그램 속에 함께 녹아들어가지 못해 반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함.

- 휴일에 공원에 놀러 나왔다가 잠시 동안 만난 신기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특별한 발전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찾기가 어려움.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사)한국택견협회대전지부는 대부분의 지부처럼 지부장 1인이 운영하고 있음. 일반적인 무예를 가르치는 도장의 수준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이나 기획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 지부장 1인의 열의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택견협회 본부 차원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협회 본부와 지역 문화단체들과의 네트워킹, 협력이 절실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택견 시범 역시 공연의 형식이고 더구나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임에도 전문성이 없어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였음. VIP용으로 깔아놓은 매트 때문에 먼저 온 시민들을 내보내는 등 야외행사의 성격에 따른 기본 운영 역량이 부족함.
- 지부장 1인이 당일 출연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 운영 설비를 옮기고 진행을 하는 등 실무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 인력의 부족이 드러남.
- 사회자의 진행 역시, 품격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었음.
- 택견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관객들은 그저 단순히 관람만을 하는 수준이었음. 씨름처럼 힘으로 부딪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다른 무술과 다른 신체(근육)을 사용하는 택견만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고 아직 널리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요즘의 건강과 웰빙의 분위기에서 본다면 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은 사업임.
- 그러나 현재의 단순한 관람과 새로운 구경거리 수준의 시범 공연만으로는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역사와 원리'를 현장에서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택견의 유연성과 멋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멋진 공연물이 되어야 할 것임.

나. 성과 및 효과

□ 자주 접할 수 없는 택견이 대전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음을 알리는 성과가 있음.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택견은 전통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택견의 역사와 정신을 보급하고, 이로 인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뿌리를 배우고 문화의 소중함과 활용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기간 몸으로 익혀야 하는 체육 활동임.

□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공연(시범), 체험의 방식으로는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움.

□ 일정기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전문인과 대중이 함께 나누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는 형식의 작은 축제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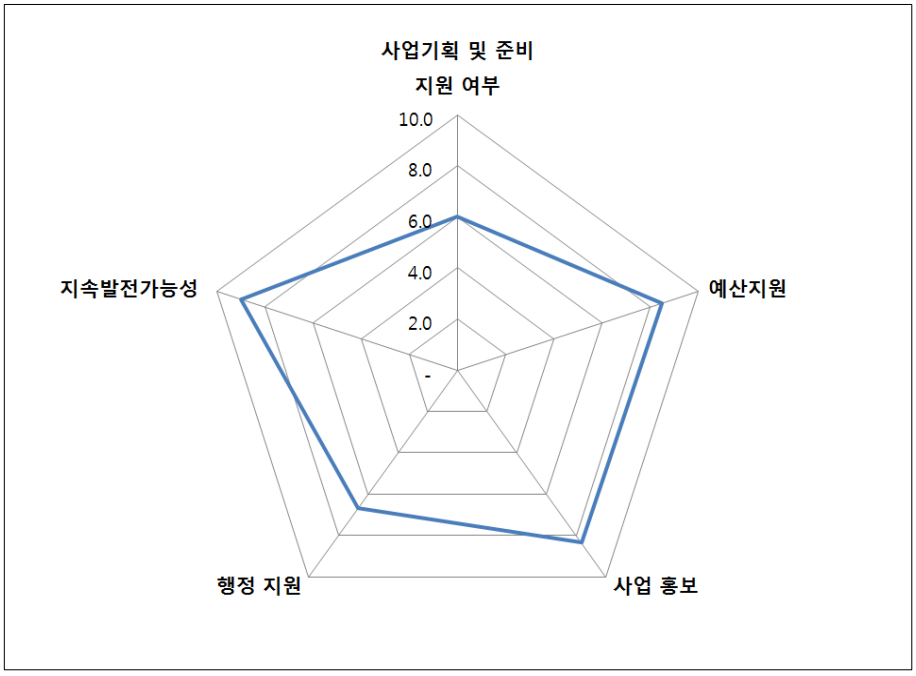
□ 택견협회 대전 지부만의 힘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경험, 전문성이 부족함.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을 고민해 보길 제안함. 프로그램 및 대본 구성, 음악(작곡 및 편곡, 연구), 현장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함

□ 유형의 제재가 없는 무형문화재의 활용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함. 가치를 가지되 대중 사업으로 벌이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활용 사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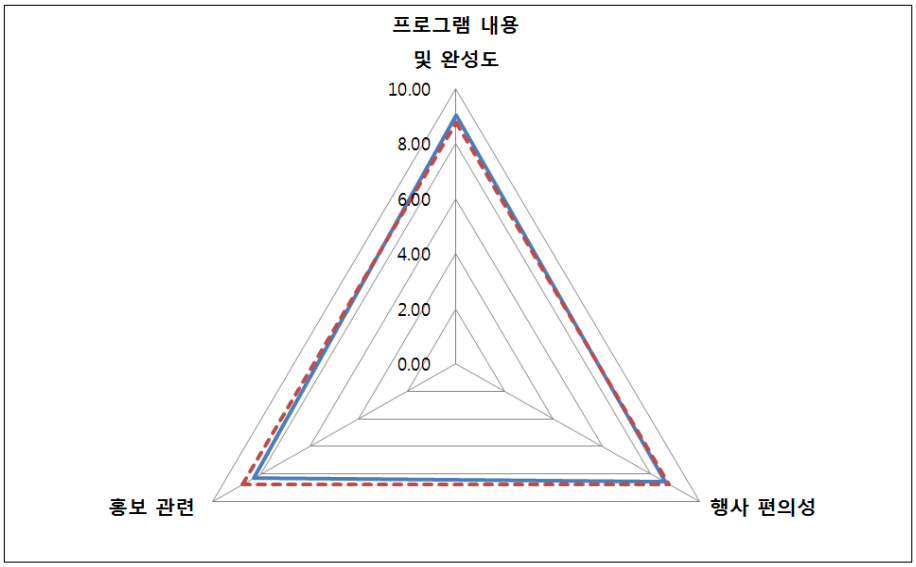
[그림 160]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61]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62]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대전(택견)



[그림 163]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그림 164]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그림 165] 현장 이미지 - 대전(택견)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울산 동구
울산 동구청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울기등대 구 등탑(등록문화재 제106호)
나. 사업기간: 2012년 3월 2일~11월 30일(9개월)
다.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일원(대왕암공원 내)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울산광역시 동구
나. 수행단체: 울산광역시 동구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근대화의 기원이 되는 대표적 역사자원인 '울기등대'의 가치 재발견으로 사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 유도 및 참여와 체험을 통한 문화재의 의미를 재정립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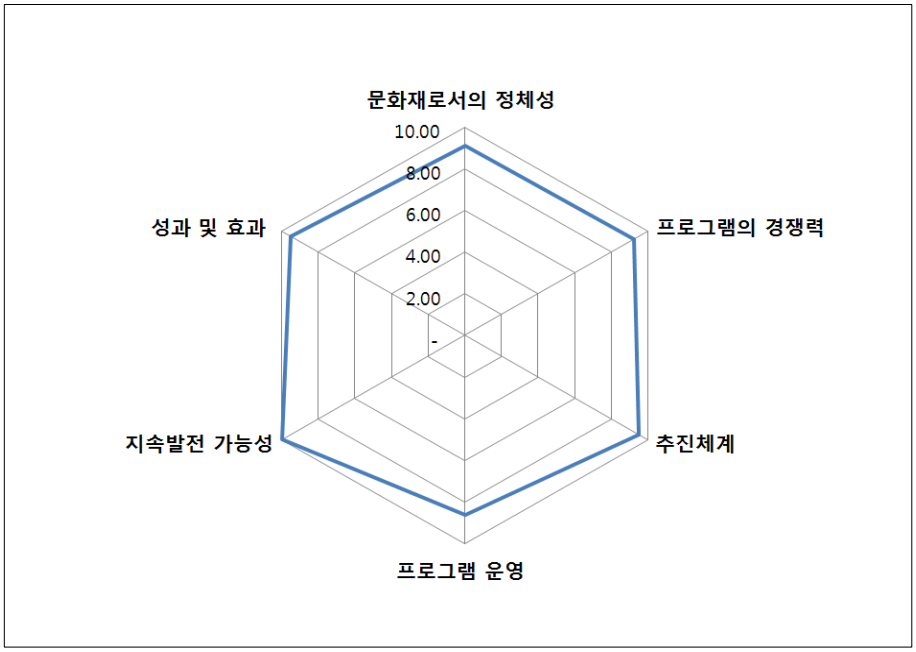
가. 등대체험 – 100년의 빛을 찾아서...
나. 문화어울림 한마당 – 백년의 빛과 천년 소리의 만남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8월 25일~26일(토~일) – '등대문화체험(1박 2일) 100년의 빛을 찾아서'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울산 동구/울산 동구청

현장모니터링



[그림 16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이름 짓기가 훌륭함. 브랜드 네이밍 기법에서 문화재 보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 내 사찰이나 성곽을 선택하지 않고 등대를 선택한 부분도 차별성을 가짐. 역사 속의 이야기가 있고, 근대화의 기원을 찾는 일이어서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 침략자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극일 교육과 함께 신라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역사의식 고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을 때 빼앗긴 우리 땅에서 울산 해전을 지켜보는 조상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 또한 매우 좋음.

□ 울기 등대와 대왕암, 화암추등대와 솔도, 그리고 바다가 합쳐진 문화재 콘텐츠 패키징 기술이 돋보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전자항해보조기구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는 등대의 역할을 인문학적 접근으로 재해석하여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획력이 엿보임.

- 프로그램 참여자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선박가상시뮬레이션과 4D 영상체험 등대탐방 등으로 해양문화를 겪게 하고 그 뒤에 서려 있는 이야기를 통해 민족정신까지 심어주는 스마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지역 내 관광자원을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상품화하는 모습에서 선진 문화마케팅 능력과 프로그램 기획력을 볼 수 있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지자체(울산 동구청)가 직접 수행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지역민 참여도나 사업 자체의 주인 의식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울산 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직접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함이 모범사례로 남을 만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프로그램 구성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짜여 있어서 계획대로 수행하기가 수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임.
- 교육적 효과 면에서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상의하달 식에서 쌍방향소통 방식으로, 시청각교육 중심에서 오감만족 체험학습으로 발전해야함. 전문교사 1인의 투입이 필요함. 청소년 소통은 행정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교사가 필요함.
- 울산 동구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보여주는 프로그램 기획력, 운영 능력, 흥미유발 리소스 개발 능력 등은 탁월함. 그러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 교육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절약하기만 해서는 최상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움.
- 소규모의 사업이라서 집객의 어려움은 없음. 집객만 두고 본다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음. 다만, 문화재의 가치 홍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시책이 추가되어야 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생활 편의성 면에서 자원 봉사를 활용하여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안전사고 대책이나 비상 의료서비스도 능숙하게 이루어짐.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프로그램임. 기본적으로 무한한 공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다양하게 각색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드넓은 시야, 근대사와 중세사가 공존하는 다양한 테마 공간, 천혜의 자연 환경

등이 존재함.

- 울산 동구청의 문화 마인드 수준이 높고 재원 확보 의지도 있어서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은 편임.
- 다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함.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과로에 의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염려가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걸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아주 좋은 편임.
- 울산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에서 문화해설을 통해 문화재의 참뜻을 쉽게 접하는 모습이 큰 성과라고 생각됨.
- 흥미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지루하기 않게 문화재 활용 인식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 관광산업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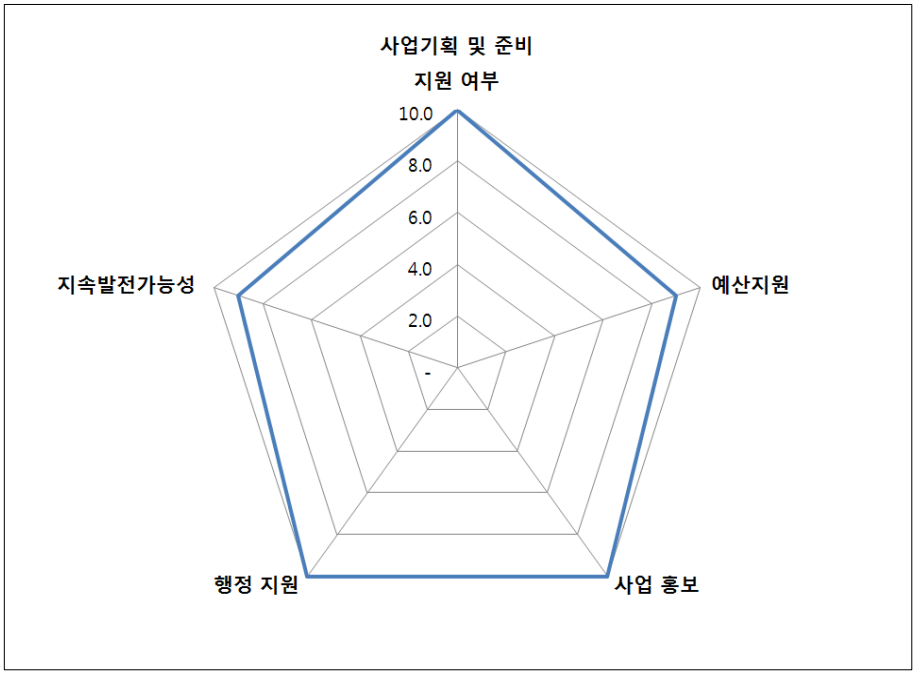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세련된 프로그램이라서 생생 문화재 사업에 선정되었겠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 단발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형 사업 수행이 되어서도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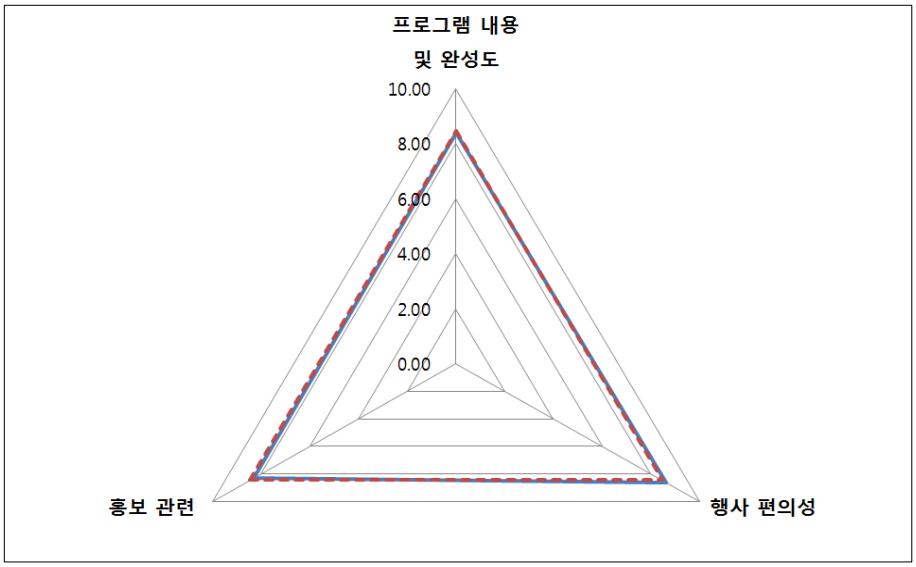
[그림 167]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6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6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울산 동구



[그림 170]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그림 171]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그림 172] 현장 이미지 - 울산 동구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제 78호, 2004년 2월 6일 등록)
나. 사업기간: 2012년 3~12월(10개월)
다.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나. 수행단체: 경기관광공사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등록문화재(제 78호) "경희선 장단역 증기기기관차" 국내외 방문객의 이해를 증진하고 스토리텔링 발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재 홍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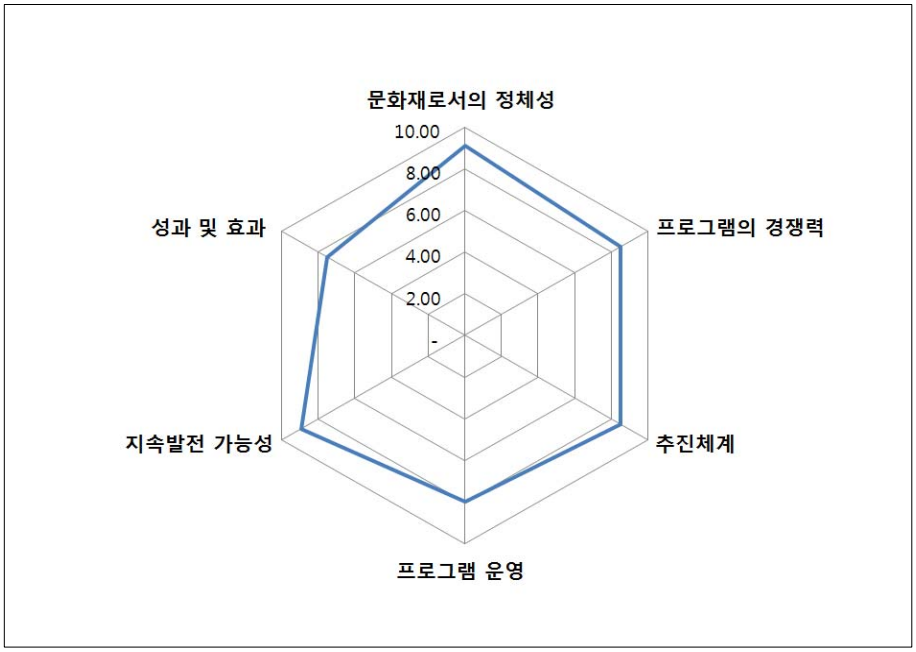
가. 이야기꺼리가 있는 증기기관차 스토리텔링 개발
나. 증기기관차 홍보(홍보리플렛 제작·배부)
다. 증기기관차 교육프로그램 운영(초, 중, 고교생)
라. 열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상상세계 체험(승차, 퍼즐)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1월 24일(토) - '증기기관차 교육 프로그램'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현장모니터링



[그림 17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생생 문화재 사업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철마를 달리고 싶다'의 주인공인 등록문화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현재와 가장 가까운 역사 문화유산이 대상인 만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쯤은 들어본 문화유산임.
- 이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물자 수성을 위해 개성역에서 황해도 한포역까지 올라갔다가 전세가 악화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1950년 12월 31일 밤늦게 경의선 장단역에서 피폭되어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음. 검붉고 녹슬고 부식된 채로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2004년에 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으로 옮겨왔음.
- 몸체에 총탄자국이 1,000여 개가 있어 당시 전쟁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임.
- 또한, 2005년 국내의 유명한 철강기업이 이 증기기관차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철제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약을 맺고 보존처리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2009년부터 공개 전시되기 시작하였음.
- 단지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도 의미가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사업은 주로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국내의 유명한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초빙하여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등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한 '증기기관차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그리고 증기기관차와 관련된 피폭내용, 보존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제작, 증기기관차를 바탕으로 하는 퍼즐 교구 개발과 실제 통일이 되고 기차가 복원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본 대륙 횡단 기차표들을 제작한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상상세계 체험 물품 제작',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한 '증기기관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임.

□ 경기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 구성, 스토리 개발, 교구 개발 및 제작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사업임.

□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였다는 점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이러한 경우 1년 지원만을 통해서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후 최소 3년간의 사업 기획이 이루어졌더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경쟁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직각 평화누리'를 운영하는 '경기관광공사 운영기획팀'에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체계임.

□ 해당 문화유산을 직접 관할하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이 수월하고, 문화유산 접근성이 높은 편임.

□ 경기도에서 문화재 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2013년 사업 공고 등이 수행단체에 전해지지 못한 부분 등에 있어서는 수행단체가 도 지자체와 업무 협조 관계를 사전에 구축해 놓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이후 사업 진행시에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임.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스토리텔링 개발, 퍼즐 및 교구 개발, 홍보물 개발 등은 매우 잘 추진되고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개발된 이야기의 구성이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이후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또한, 퍼즐이나 열차 티켓의 경우 단순하지만, 참가자들이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편임.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증기기관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이나, 참가자, 진행 등에서 미숙함이 보였음.

□ 현장모니터링 일정을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일정 변경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해당 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나,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사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었음.

□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 강사가 없이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거나, 시간을 운영하지 못하였음.

□ 지역의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들을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방문객들, 참가자들이 해당 문화재에 대해 생생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막상 임진각에 가면 다양한 홍보 자료들을 만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의 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지역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 및 서울 지역의 학교들,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 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 층이 매우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교통 편의성이 좋지는 않음. 문산역까지 경의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곳에서 임진각 내부까지 오기가 쉽지 않고, 자가 차량이 있어야만 가능함. 주차 시설은 우수한 편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 맞추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 가진 지속발전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음. 첫째는 현재와 가장 시간적 거리감과 정서적인 거리감이 짧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1950년대의 역사가 생생한 사람들부터 교과서에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설 수 있음.

□ 또, 2012년 사업을 통해 스토리텔링 개발, 교구 개발, 홍보물 제작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토대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만 구축되기만 하면 됨. 이미 임진각과 평화누리 공원도 관광지로서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성 등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임.

□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도 지자체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관계, 충분한 예산 확보, 사업 진행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전문 교육 강사의 도입 등 실무적인 문제들에서의 해결만 진행된다면 충분히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나. 성과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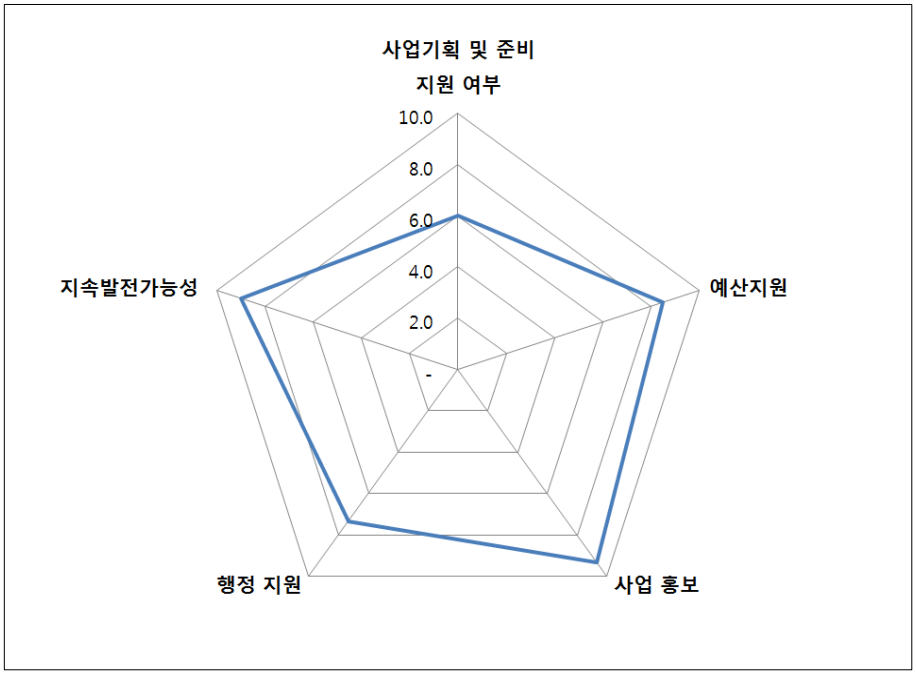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증기기관차 진입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봄.

□ 전시관, 엽서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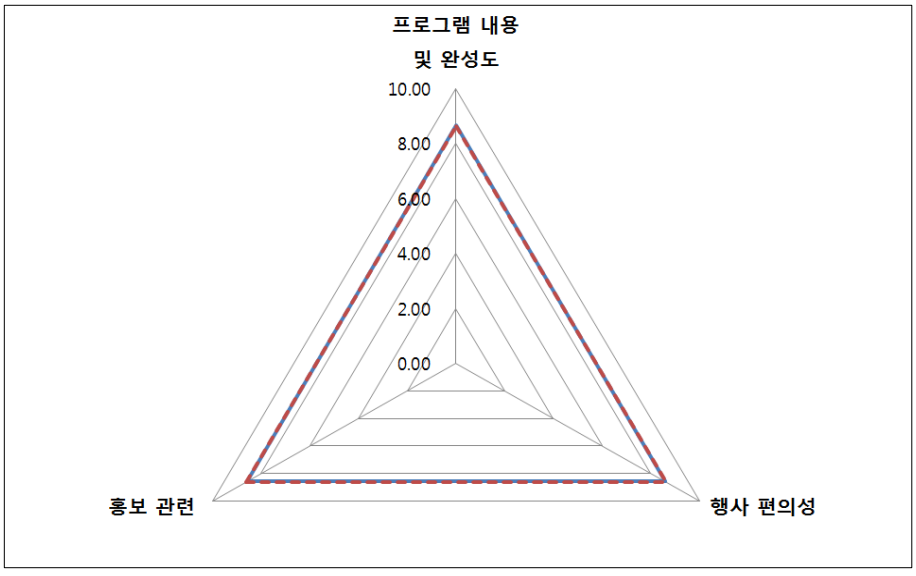
[그림 174]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75]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76]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소풍열차)



[그림 177]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그림 178] 현장 이미지 - 경기(소풍열차)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경기 고양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북한산성(사적 제 162호)
나. 사업기간: 2012년 5~9월(5개월)
다. 장소: 북한산국립공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고양시
나. 수행단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수도권 이천만 시민의 "녹색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적 제162호로 지정된 북한산성이라는 문화재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활동을 활성화시킴. 또한 참여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을 가능하게하며, 한국적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재 향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문화의 질적 성숙에 기여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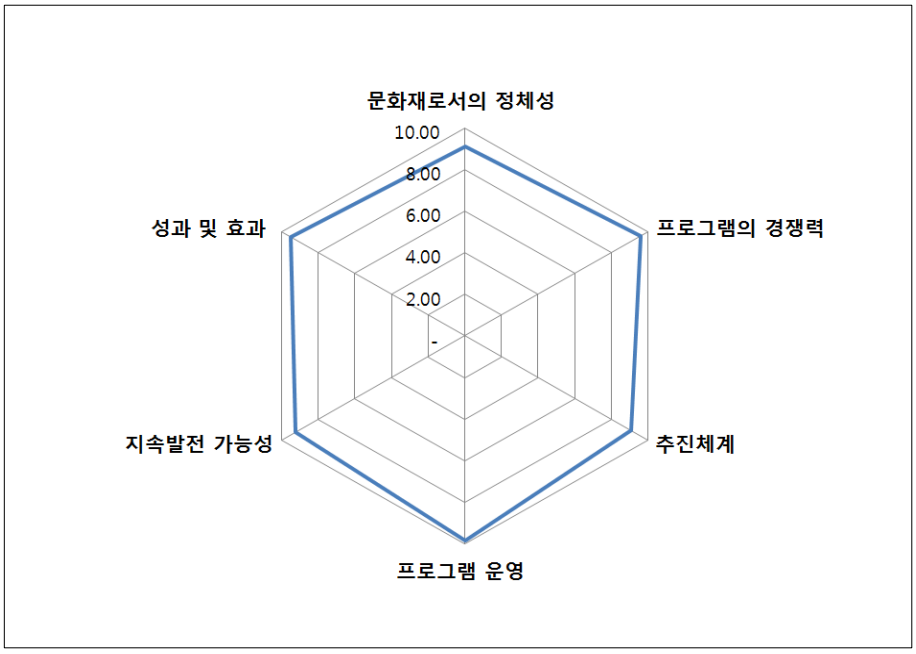
가.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8일~9일(토~일) – '북한산성 역사해설 및 1박 2일 체험'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경기 고양시/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현장모니터링



[그림 179]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북한산성은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을 말함.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지키는 중요한 곳이었음.
- 북한산성 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5개, 도 지정 문화재가 6개를 포함하여 총 71개의 문화재가 있음.
- 현재 북한산은 한해 850만 명이 찾는 명산이며 우리나라에서 1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음. 북한산국립공원은 매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도심의 생태 관광지로서, 또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 문화, 역사 학습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경기 고양시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일요일, 1박 2일 캠프로 총 5회 진행되었음.
- 1회의 프로그램 진행이지만, 세부 일정은 북한동마을 역사박물관 견학, 북한산성 탁본 뜨기 등 북한산성의 역사 해설, 장군 복장을 입고 직접 성곽을 지키던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전통의상체험, 조선시대 성과 전투시의 무기를 알아보는 성곽 전투체험, 북한산둘레길 트레킹,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야간별 관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 북한산성 내에서 진행되는 캠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숙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북한산 사랑채라고 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한옥 공간을 보수하여 가족 단위 캠프가 가능하도록 조성함.
- 가족 단위 참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프로그램들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자연 환경도 즐기며, 가족 간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도 장점임.
- 또한, 흔하게 체험하기 어려운 '국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호'와 '방어'라는 북한산성의 성격에 맞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지루하기 쉬운 '아버지' 대상들이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어 호평을 받음.
-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행단체의 진행 능력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탐방프로그램 해설 등을 진행하는 인력들이 투입되어 북한산 전반에 대한 정보,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 등을 전문적이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북한산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학예사나 교수 등을 섭외하여 전문성을 확보함.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경기 고양시의 생생 문화재 사업의 사업 수행단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곳으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또한, 북한산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산 탐방 프로그램 등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산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산성'을 활용하여 캠프 프로그램 형식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함.
- 고양시에서 주최하였고, 사업 담당자 1인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안내원, 자원 활동가 등 인력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우선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산에 올라가기 전 체조를 진행하고, 산을 올라가면서 나무, 자연과 관련된 퀴즈, 숲의 중요함 등에 대한 설명 등으로 생태 중심적으로 진행됨.
- 북한산 사랑채에 도착해서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풀고는 가족별로 모여서 북한산과 관련된 퍼즐을 맞추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드는 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후 준비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북한산성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가치에 대해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설명을 들은 뒤, 장소를 이동하여 북한산성의 대서문을 찾아가 공간을 둘러보고 장군복장 등 전통 의상을 직접 입고 사진을 찍어봄. 이후 국궁 전문 강사에게 '국궁'의 의미, 역사,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동하여 실제로 연습을 해보고 가족단위로 게임을 진행하여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석식 이후, 야간에는 별을 직접 관찰해보고 가족끼리 편지를 쓰는 등의 프로그램 이후, 다음날 아침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 등을 줍고 환경 보전 캠페인을 한 뒤 해산하는 식으로 진행됨.

- 4~5단위의 가족들, 총 18명에서 21명 사이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최적화되어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8~10명의 진행 인력이 투입됨.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의 시간 계획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젊고 유쾌하여 프로그램들이 지루하지 않음.
- 문화재라는 역사적 사실과, 숲과 자연이라는 생태, 그리고 가족이 함께한다는 확실한 기본 콘셉트에 탄탄한 계획과 유쾌한 진행이라는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임.
- 기념품으로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 진행시마다 유용하게 착용할 수 있는 캠핑용 모자를 줌.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웹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어 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음.
- 주로 홍보는 지역 신문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진행했으며, 사진첩, 안내지도,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음.
- '북한산 사랑채'라고 하여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하여 참가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수행단체의 조직이 탄탄하고 기존 북한산 탐방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 경험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패기가 넘치는 진행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만 있다면 참가객들의 호평 속에서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그램임.
- 현재는 가족단위의 캠프만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프로그램들을 상설화하여 국궁체험, 북한산성 수호 체험 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수행단체가 2013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여 2013년도 지방비 매칭(서울 은평구)을 얻어낸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함.
-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체에서 해당 공간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활용 사업이 문화재 교육 뿐 아니라, 환경 보전, 나아가 가족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콘셉트를 유지한다면, 가족들의 좋은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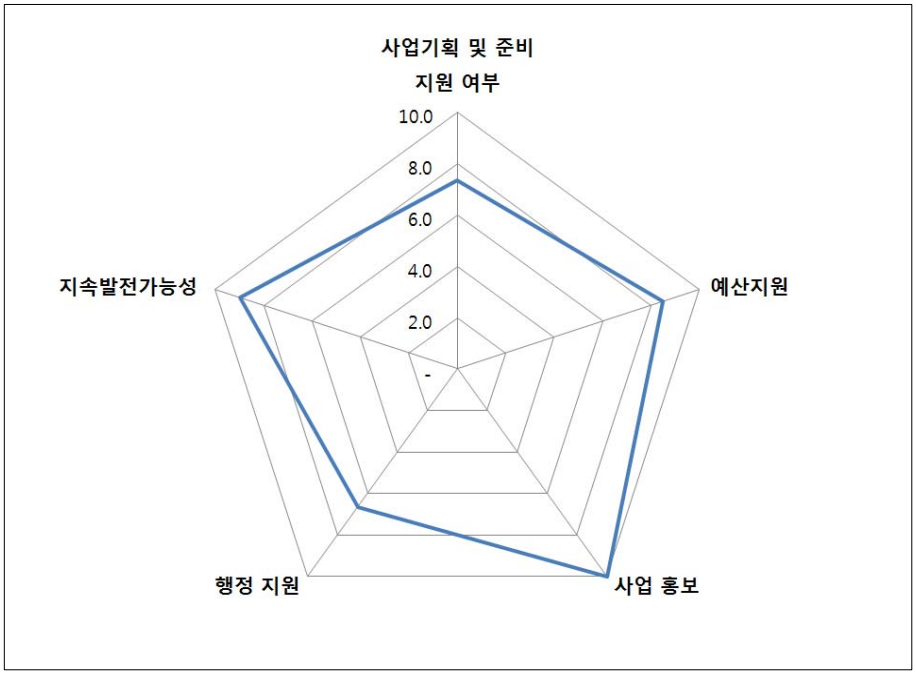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단일 프로그램만 진행하던 수행단체가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에서 야영 개념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도전하였고, 참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 성과임.
- 단순히 등산의 코스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이 살아있고, 함께 보호해야하는 공간으로서 설득시키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할 성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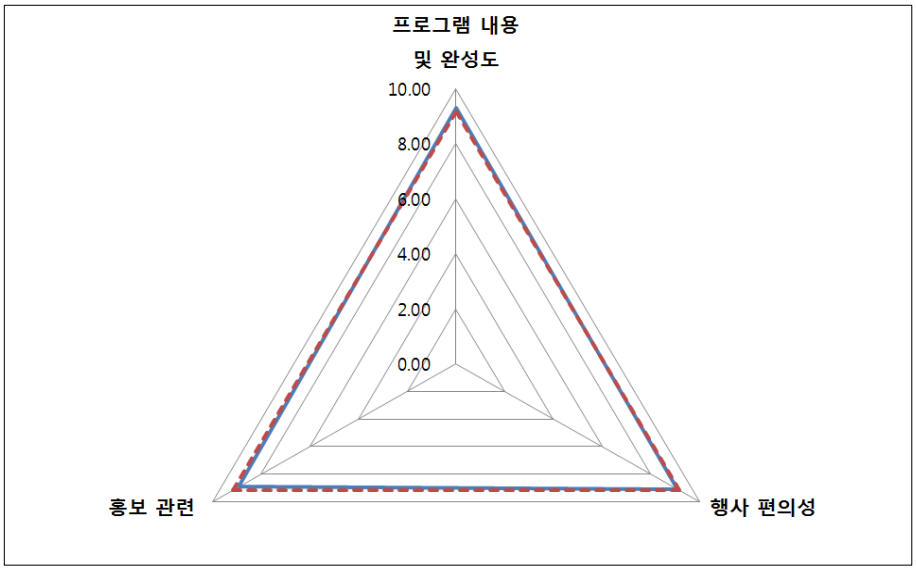
[그림 180]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81]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82]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그림 183]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그림 184]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그림 185]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그림 186]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그림 187] 현장 이미지 – 경기 고양시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경기 군포시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군포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1월(8개월)
다. 장소: 경기 군포시 속달마을 및 종택 일원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나. 수행단체: (사)전국귀농운동본부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유형의 문화유산(동래군파 종택)과 기록 문화유산(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그리고 무형의 문화유산(전통농사)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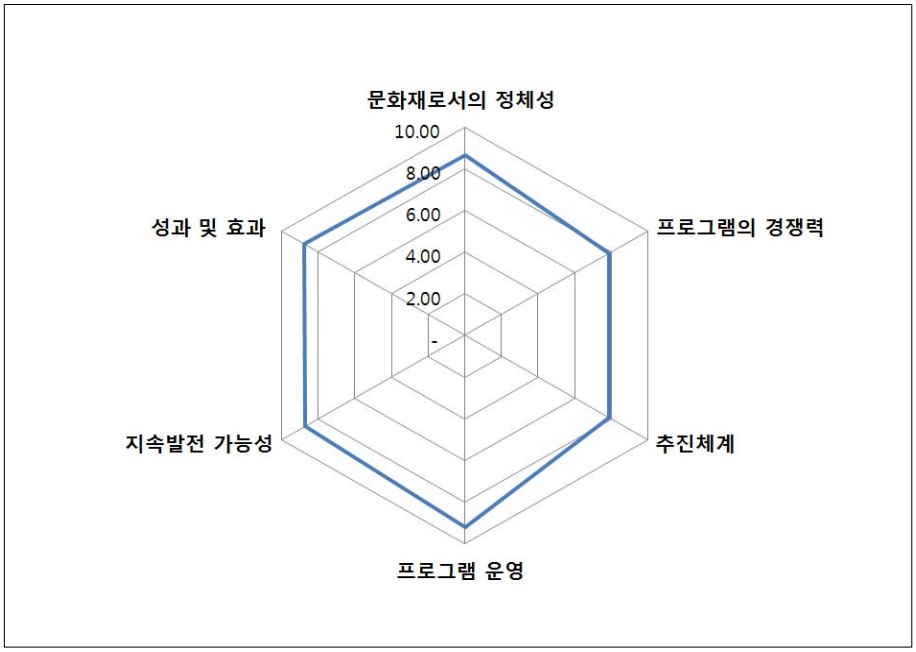
가. 자연유산 위에 써내려가는 생태적인 문화유산 이야기 '임원경제지 속 전통농업 오감 체험'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6월 10일(일) –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이야기 - 모내기'
2012년 10월 28일(일) –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이야기 - 벼베기'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경기 군포시/(사)전국귀농운동본부

현장모니터링



[그림 188]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기 군포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전통농사와 종택'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조화를 이루어내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함.

□ 상대적으로 종택 본가에 대한 향후 추진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인지 종택의 역사성 및 문화적 보존가치 등 유의미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유기적으로 합치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

□ 그러나 종택 본가를 근간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 중인 전시실 마련 및 정난종 선생 묘와 신도비외 묘역 등을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더 할 수 없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전통농사법에 대한 사계절 체험과 종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문화재와 함께하는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함.

□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선정하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종택이 갖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전통 농사에 대한 체험은 그 얼개가 다소 미흡하다 해도 향후에 가져 올 사업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참가자 중에 종택 본가라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유소년 자녀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가족계층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역 네트워킹을 통한 주말 농장 또는, 귀농에 관심 있는 청장년층의 참여도 또한 높아서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 전통농사법과 문화재의 역사문화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임.

□ 이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종택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우리 선조의 전통 농사법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짜임새 있게 가져간다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임.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전체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사)전국귀농운동본부로서 지자체(경기 군포시)는 행정적 지원 및 관리에 그 업무가 국한되어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자원과 지역 생활협동조합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각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협조와 지원을 받는 모범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업에 있어서 종택 본가 및 정난종선생의 묘 등 역사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좀 더 숙고해 볼 수 있는 운영인력(역사문화해설사)의 확보로 교육적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프로그램의 운영은 일정한 시간표에 의해 짜인 획일화된 운영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종택과 주변 경관을 자유롭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짐.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 중인 강원 원주 매지농악의 초청 공연은 이 사업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으로, 각 지역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임.

□ 각 지역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중 중복되지 않거나 해당 사업 단체에서 유의미한 문화재라 생각되는 생생 문화재 사업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 소통은 사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상생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은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전통농사법을 통한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역사와 생태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며, 좀 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종택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적극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사업임.

나. 성과 및 효과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연계하고 있는 지역 NGO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한 홍보, 집객 등의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정량적 성과에 있어서도 6~70명의 참가자와 함께 전통농사법을 체험한 후 전통농사에 있어 농부의 힘의 원천이 농악에서 유래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는 농악놀이 공연은 유의미했으며, 참가자 및 지역의 등산 나들이객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음.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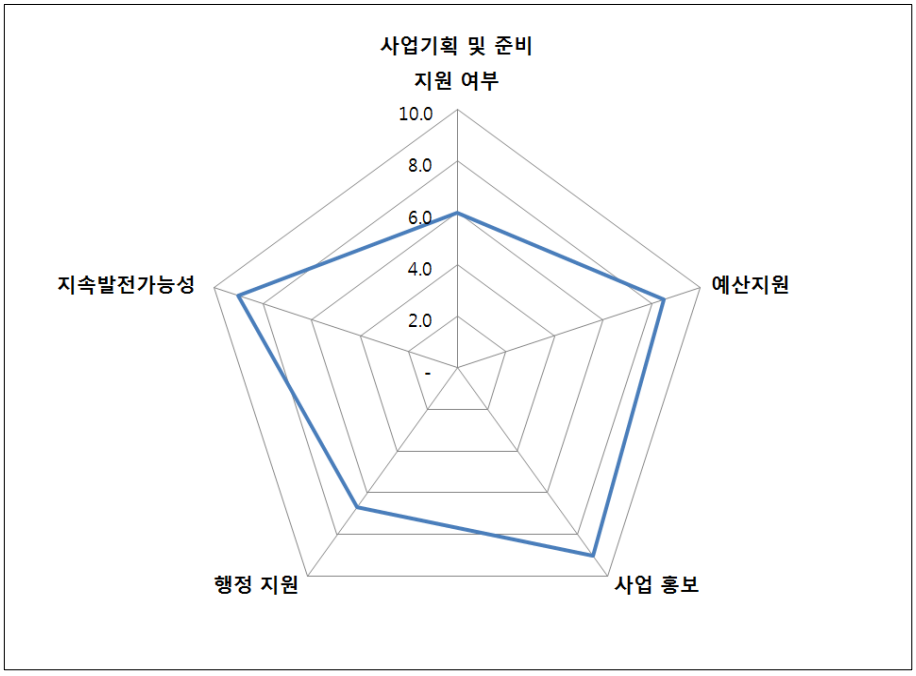
□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은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의미한 사업 프로그램임. 현존하는 문화적 가치인 농경문화가 지속적인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이 역시 무형문화의 한 갈래로서 지원하고 관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우리의 사적 및 유물 문화와 더불어 농산어촌 문화, 음식 제례문화 등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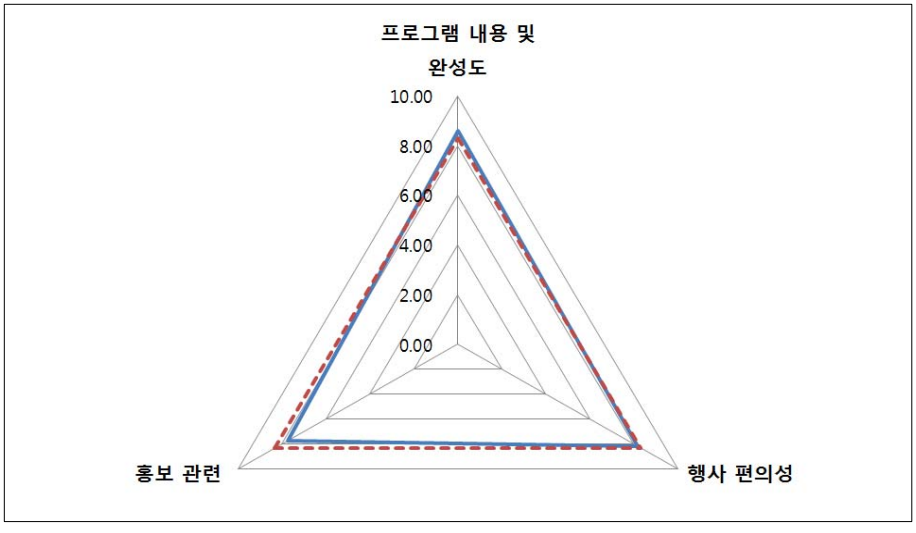
[그림 189]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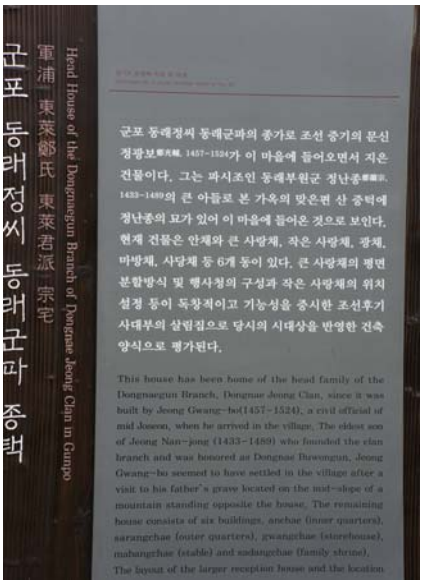


[그림 190]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91]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기 고양시

















[그림 192]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그림 193]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그림 194]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그림 195] 현장 이미지 – 경기 군포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
치악산고판화박물관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1호 안심사판 제진언집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3호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4호 안심사판 옥추보경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문화재자료 146호 만연사판 중간 진언집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문화재자료 147호 불정심다라니경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문화재자료 148호 예념미타도량참법

나. 사업기간: 2012년 4~12월(9개월)

다. 장소: 치악산고판화박물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강원도 원주시

나. 수행단체: 치악산고판화박물관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판화 박물관 목판본 삽화를 역사문화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내에 하나뿐인 고판화 박물관을 전통판화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함. 강원도와 원주시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의 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디자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부 창출의 자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학생)

나.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일반시민 문화소외계층)

다. 지정문화재(목판본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전문가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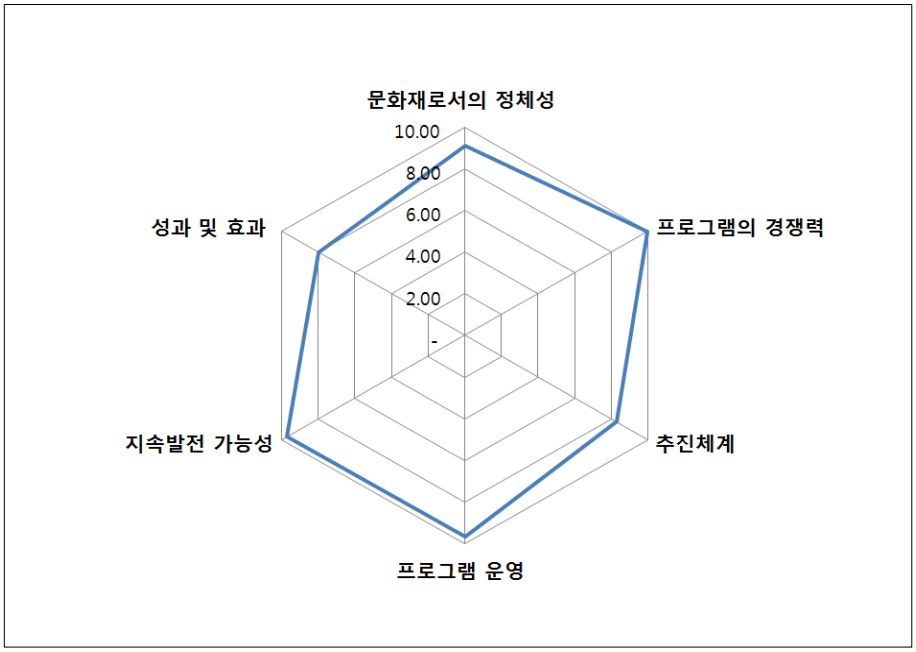
라.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9월 19일(수) –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현장모니터링



[그림 196]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고판화)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강원 원주에서 진행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치악산고판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 삽화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임.

☐ 고판화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티켓, 몽골, 인도, 네팔 등 판화가 발전되었던 동양 각국의 고판화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 연구, 교육하는 곳으로 총 3,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임.

☐ 박물관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나, 오륜행실도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경 판본 등 가치 있는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목판 제작술은 매우 훌륭한 수준으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이기도 함. 인쇄술의 기본이기에 고판화박물관의 문화유산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눈여겨볼 만함.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강원 원주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교육과 학술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학생, 일반시민 및 문화소외계층,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15~16회에 걸쳐 판화에 대해 알아보고, 고판화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통판화를 체험해 보고, 책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음.

□ 또 10월에는 고판화박물관에서 한, 중, 일의 목판화 현황과 연구, 전통 인쇄 시현 워크숍 등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과정으로만 배우고 넘어가는 목판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참가자들도 목판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체험을 해보면서 목판화가 가지는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또한, 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뿐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 또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역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강원 원주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치악산고판화박물관에서 진행하였으며, 강원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치악산고판화박물관의 관장은 직접 목판본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 진행도 직접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행사를 직접 참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예산 담당자에게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관심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이 사업의 수행단체는 이미 고판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진행, 운영 등이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프로그램임.

□ 당일에는 지역의 보호감찰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일정에 맞게 고판화박물관에 멘토와 함께 도착한 학생들은 우선 고판화박물관 관장의 설명 아래 고판화박물관의 목판본들을 견학함. 이후, 교육 공간에 모여 목판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목판화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짐.

□ 깎고, 찍는 예술인 목판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목판본 작업 시 조각칼을 잡는 법, 사용하는 법 등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보조 강사들이 직접 티셔츠에 판화를 찍어보고, 각자의 작품을 찍어볼 수 있도록 도와줌.

□ 체험 이후에는 저녁 식사와 마련된 음악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직접 전통책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1박 2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숙박 시설은 고판화박물관 자체에 마련되어 있었으며, 백반 식단으로 마련된 부페식 식사를 제공함.

- 직접 고판화 작업을 하고, 수집과 연구를 진행한 관장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이었지만,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의 수위가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경우 산만하고 집중이 금방 흐트러져 박물관 관람할 때에는 아쉬움이 있었음.
- 그러나 직접 티셔츠에 판화를 찍어보고 그걸 입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고도의 집중력으로 판화를 직접 새겨보는 작업, 자신만의 전통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 등은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문화재의 보존이나 관리는 박물관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물, 박물관 소개 자료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신문들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사업의 내용, 일시 등에 대해 홍보 하고 있었음.
- 고판화박물관이 치악산 안쪽에 위치해 있고, 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가기는 어려우나, 주차장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자가 차량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강원 원주의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교실'은 수행단체가 워낙 탄탄하고, 기존에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고판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가족 단위, 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큰 기획 변화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장기적으로 목판본과 관련된 국제교류, 학술대회 등의 개최로 문화재를 단순히 활용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구하고, 현재진행의 시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나. 성과 및 효과

- 농촌의 학생들, 문화소외계층, 노인, 다문화가정, 군 장병, 새터민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인쇄술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큰 성과임.
- 또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인쇄술을 알리고, 이를 통해 현대적인 디자인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임.
- 2012년 10월에 치악산고판화박물관의 관장인 한선학 대표, 중국 주심혜 북경수도도서관 부관장, 일본 이리구치 국문학 자료관 교수를 선임하여 한, 중, 일 3인 대표체제로 아시아고판화 연구회가 출범한 것도 고무적인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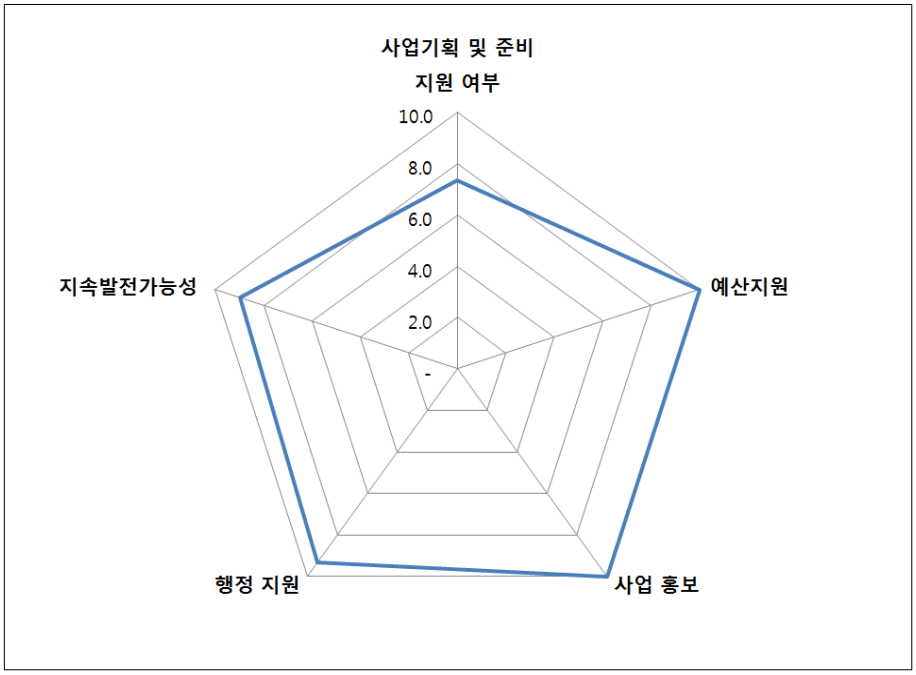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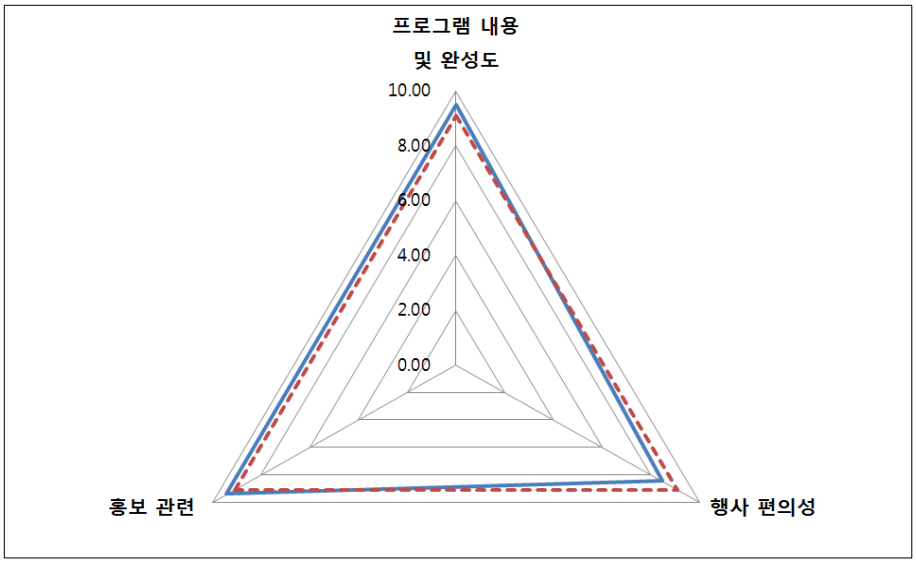
[그림 197]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198]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고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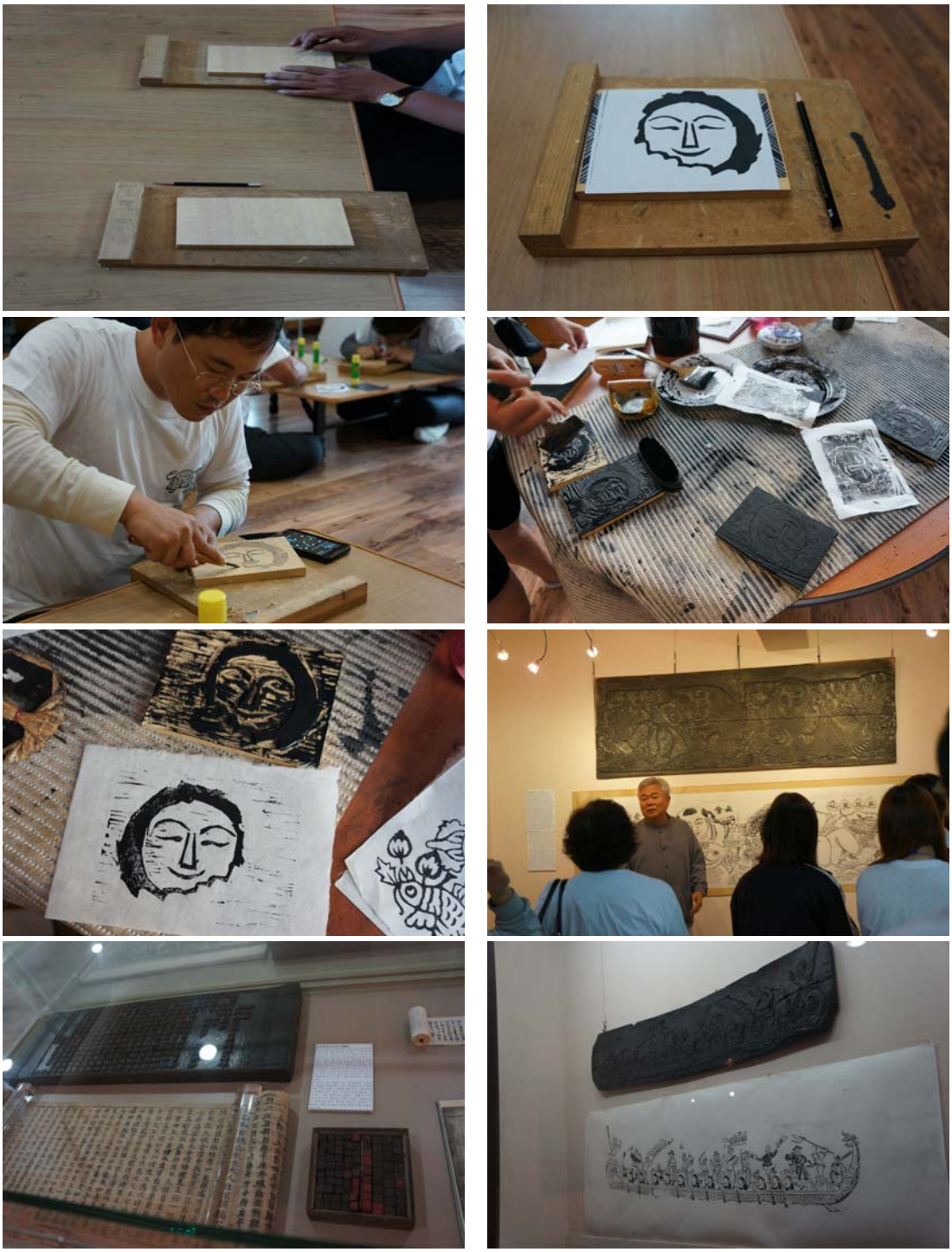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199]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강원 원주(고판화)



[그림 200]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그림 201]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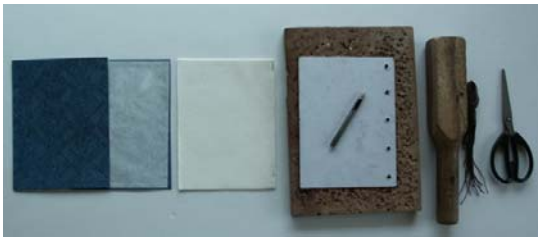
[그림 202]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그림 203] 현장 이미지 – 강원 원주시(고판화)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충남 공주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공주 수촌리고분군(사적 제460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0월(7개월)

다. 장소: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1-3번지 일원(수촌리고분군 내)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공주시청

나. 수행단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일부 전문가들만의 발굴조사가 아닌 시민 및 관람객이 함께하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존에 낯설고 어려운 발굴조사과정을 친근하고 접근하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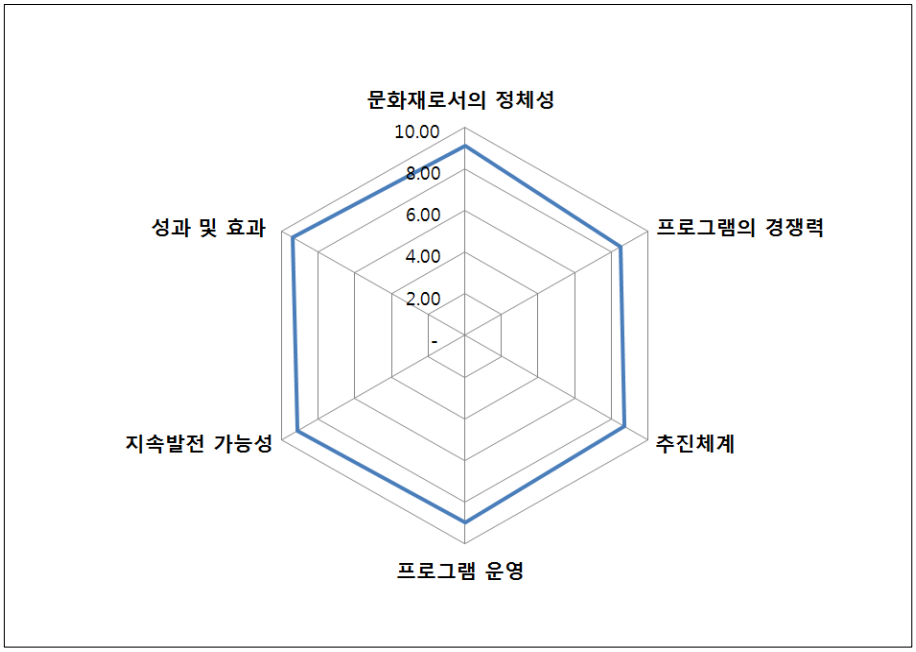
가.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10월 17일(수) -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충남 공주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204]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공주 수촌리고분군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백제시대부(대형토광목곽묘, 횡혈식 석실분, 수혈식 석곽묘) 등이 조사되었으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검자루 끝장식) 등 다양한 청동제품과 점토대토기(점토띠토기), 흑고장경호 등 토기가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묘제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

□ 백제시대 분묘는 공주지역 백제고분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일 뿐 아니라, 출토된 유물이 백제의 웅진천도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짐작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금동관과 금동신발, 금제이식,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중국제 흑유도기, 흑유 계수호 등 위세품으로 판단되는 유물들이 함께 부장되어 있어 피장자의 신분이 당시 공주 지역 유력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한성 백제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백제사의 중요한 자료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출토 유물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묘제가 함께 공존하여 초기철기시대 공주

지역 백제고분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유적으로서 중요함.

- 본 사업을 통한 공주 수촌리고분군을 통해 백제의 역사, 고분의 형성 및 변화과정, 부장품이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을 교육하고, 역사 유물을 대하는 태도, 발굴 및 보존 방법 등을 통해 매장 문화재가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발굴 교육과 실재 발굴이 이루어지는 발굴 현장을 답사하여 발굴조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발굴현장답사와 함께 진행되어진 발굴체험은 직접 발굴조사에 참여 또는 발굴 유적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유적 복토 후 실재와 같이 복원하여 모형유물을 직접 발굴하는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한 본 프로그램은,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현장의 생생함을 직접 체험하고 놀이로 교육되어지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서의 확대 가능할 수 있는 경쟁력과 가치가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주시에서 지원연계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괄팀, 운영팀, 자원활동팀으로 분류되어 진행하고 있음.
- 지역민과의 협조가 잘 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교육동, 체험동, 지표조사체험장이 별도 설치되어 교육, 지표조사, 발굴체험으로 진행하고 있음.
- 교육과 체험 진행은 예산 부족 문제로 발굴팀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임. 발굴팀에서 교육 체험의 진행을 잘하고 있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교육팀이 별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교육과 체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팀 전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 운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 1회 2시간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1회당 약 20~30명 정도로 사전 전화접수나 현장접수를 운영하고 있음. 인터넷 접수는 인력 문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주로 교육과 답사, 체험 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육장에서 고고학이란 무엇일까부터 수촌리 고분과 관련된 영상자료, 백제이야기(유치부 대상은 애니메이션)상영, 지표조사, 답사, 체험 진행방법을 사전 교육으로 진행함.
- 발굴조사 체험 이전에 유적의 위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 후 흩어진 토기유물(모형)을 찾아서 수습하고 모형틀에 맞추는 퍼즐놀이를 통해 지표조사체험을 진행함.
- 유물 발굴에 대한 기본 설명과 장갑 착용 후 솔과 삽 등으로 고분 모형 안에 흙 속에 묻혀 있는 장식물 등의 유물을 발굴하는 체험을 진행함.
- 연령층에 따라 와당탁본체험, 와당 석고체험, 고분 속 주인공 체험, 문양 스탬프 체험, 유언장 체험, 발굴조사 체험 – 탐색 구덩이 파기, 토층읽기, 유구유물찾기, 시료 뜨기, 유물 관찰과 그리기 등이 진행됨.
- 발굴팀 해설사의 설명으로 유물사진 설명이 진행되고, 실제 유물발굴 현장을 관람함.

□ 재원부족으로 교육, 체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발굴팀이 체험을 진행하며, 발굴을 병행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교육 담당자(발굴 전문가)의 높은 전문적인 지식과 성실한 진행으로 당일 체험 참가자인 어린이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임.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 체험 사업은 백제사의 중요한 자료로서의 발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아닌 시민 및 관람객이 함께하는 발굴조사 체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존의 낯설고 어려운 발굴조사과정을 어린이, 일반 시민까지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존의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험관광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 기회가 되어졌다고 보임.

□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고분 발굴만이 나닌, 발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광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할 각 분야의 교육, 체험 전문가가 필요함.

□ 교육장, 탐방로, 전시장, 토실, 체험장 등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팀, 교육팀 등의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 기반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필수 항목임.

□ 이번 생생 문화재 사업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공주시에서 기존 발굴 사업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체험 활동 부분에 예산의 부족에 따른 교육, 체험의 별도 인력을 두지 못하고 발굴팀이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음. 물론 유치부 대상의 진행도 잘하고 있었으나, 발굴조사팀이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힘든 제약 조건은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제약 조건이 될 것임. 본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인력 확보에 대한 재원 확보와 전문 교육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 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스테이 콘텐츠는 공주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공주대 집자리 체험팀, 산성체험 등을 연계하여 로드맵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차후 공주대 고고학과를 연계하여 고고학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음. 이러한 작업들은 하드웨어 작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작업으로 더 많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나. 성과 및 효과

□ 참가 대상에 따른 역사성과 매장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 있으나, 연령대별로 나누어 진행된 다양한 교육 방식과 체험 활동은 수촌리 고분군을 통해 백제의 역사, 고분의 형성 및 변화과정, 부장품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등을 교육하고, 역사 유물을 대하는 태도, 발굴 및 보존 방법 등을 통해 매장 문화재가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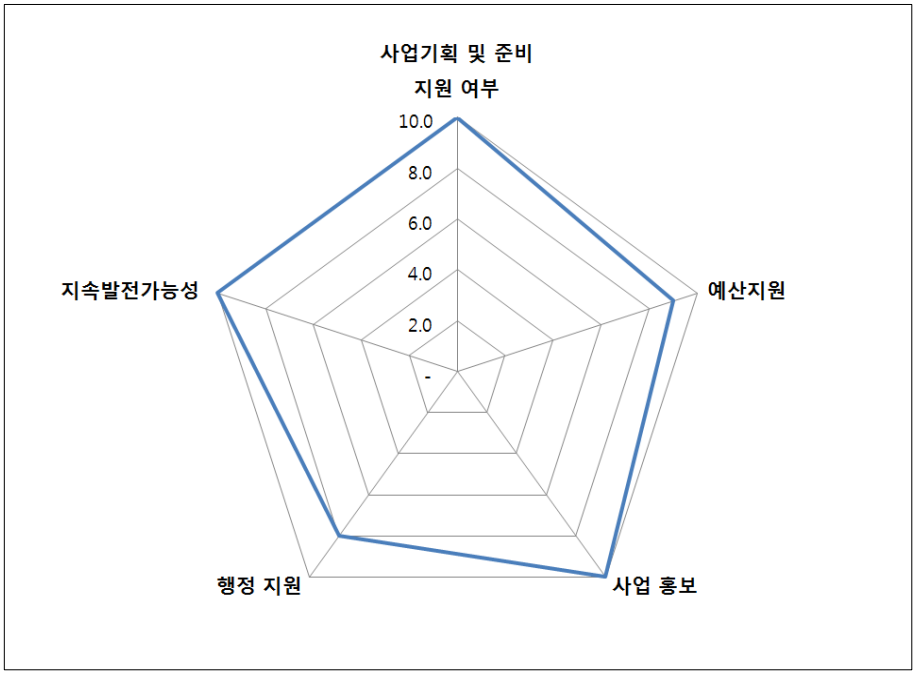
- 생생 문화재 사업의 예산으로는 연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황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비용문제로 인건비 조성이 안 되어 발굴조사 연구원이 수시로 체험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본 체험 교육은 본업에 맞는 교육전문가 투여가 필요함. 발굴팀은 지식을 제공하는 주변적 요인이 되고, 전문적인 교육팀이 따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 지원해야 함.
- 체험에 쓰이는 모든 재료는 재사용, 재활용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보임.
-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등의 역할과 자발적 지역의 동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좋은 사례로 보임. 문화재 체험장 등의 보안 부분은 체험은 정해진 기간에만 개장하고, 전문 보안 경비 업체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한 무인경비가 진행되어 CCTV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2일 이상 공휴일 시에는 직접 경비로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 측면의 적극성이 엿보임.
- 이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하여 공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 계획 – 교육장, 탐방로, 전시장, 토실, 체험장 등 -과 동시에 문화재 발굴의 공개 발굴, 문화재청 활용과의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확대 시 인력비 등이 보강이 되어 더 많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이 사업의 추진처인 공주시와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발굴 체험장은 백제문화 고증의 산실로서의 역사적 가치성과 자긍심은 상당히 높게 평가됨.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 체험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연계적 홍보가 더욱 필요함. 또한, 체험 활동 확대와 발굴 체험장의 안내와 행사장 방문의 편리성까지 노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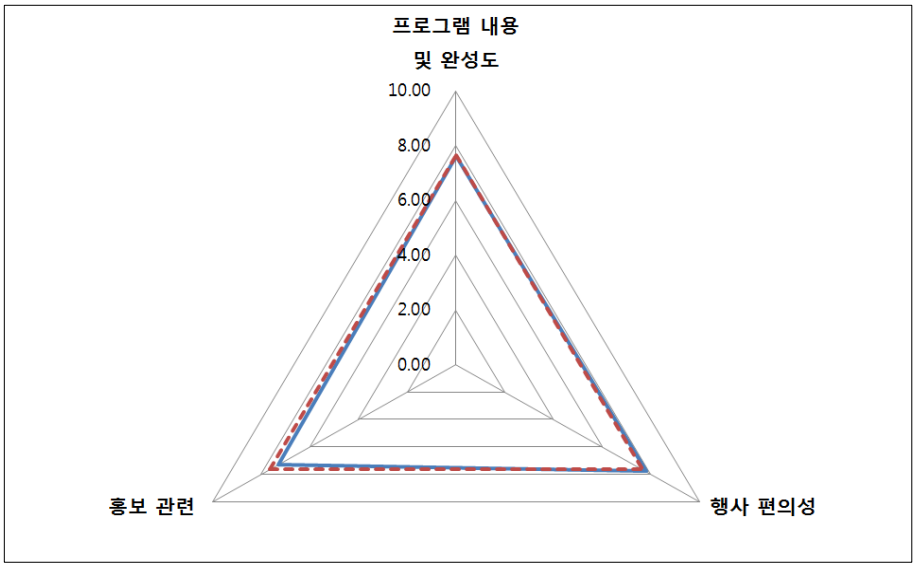
[그림 205]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206]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207]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충남 공주시



[그림 208]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그림 209]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그림 210]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그림 211]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그림 212] 현장 이미지 - 충남 공주시

조선의 도시로 가자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
나주문화원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남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목사내아(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정수루(도문화재자료 제8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나. 사업기간: 2012년 3~10월(8개월)

다. 장소: 나주읍성권(나주 도심),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과 소재 마을(명하쪽빛마을–2011년 농촌관광테마(쪽천연염색)마을)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나. 수행단체: 나주문화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오래된 역사도시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 매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재생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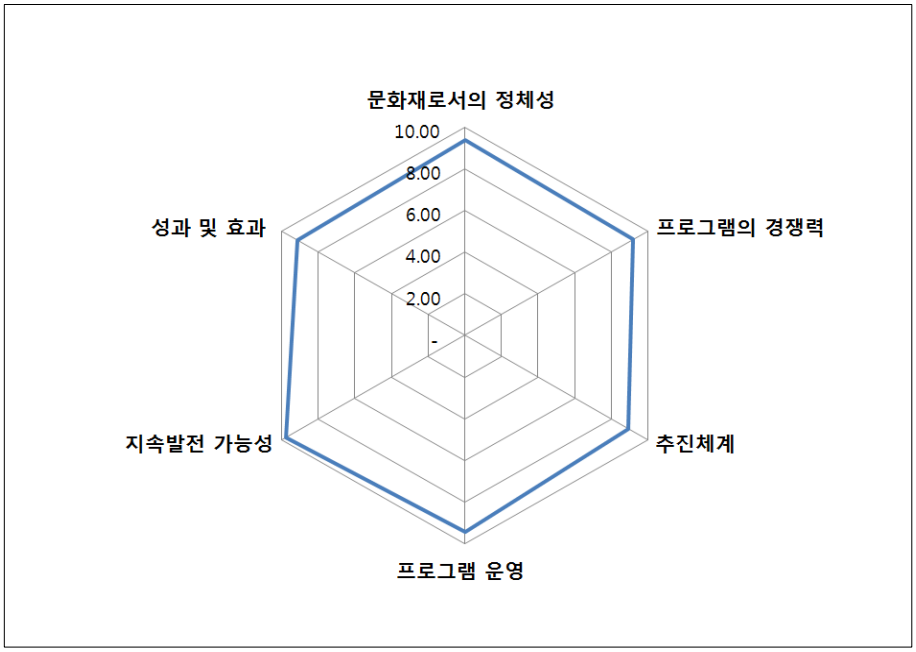
가. 조선의 도시로 가자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7월 6일~7일(금~토) – '보름달과 함께하는 조선의 도시 야간답사와 쪽염색체험'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213]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전남 나주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나주는 조선의 도시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도임.
- 조선시대의 도시 행정과 교육기관, 민가의 형태를 보존 및 복원하고 있는 나주의 장점을 고려하여 하나하나의 문화재 가치를 고려했음은 물론, 도시 공간적 통합 가치로서 생생 문화재 사업을 기획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나주 쪽염색, 목사관아, 향교, 나주 객사, 성곽 등 나주가 지닌 문화재의 정체성을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도록 함.
- 나주 목사 관아의 경우 지방의 관리들 생활상이 어떠했으며, 직무와 역할, 중앙기관과의 협력관계, 중앙 통치를 위한 방법, 조선시대 나주의 역할 변화와 더불어 남도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변 거점 역할에 대한 연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임.
- 나주 객사는 남도 지역의 교육 중심지로서 당대의 풍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들녘 지역의 향교 배치 방식과 공간에 담긴 유교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음.
- 쪽염색의 경우, 근대 이후에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로서 나주가 유일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쪽염색의 전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전남 나주의 경우 도시 공간 전체가 조선의 도시 철학과 통치 정신을 공간을 통해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 교육 및 역사교육 공간임.
- 현재 도시계획의 경우 서구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답습하여 한국적인 풍수와 지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도시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축 및 공간 디자인 등에서 한국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됨.
- 나주의 문화재가 도시 공간에서의 건축물이 매우 우수하고 잘 보존되어 있으며 도한 개화기의 공장 및 일식 건물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선 시대와 그 이후의 공간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됨.
- 또한, 1박 2일 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조선의 도시를 거닐며 일제에 의해 훼손된 조선 500년의 통치 철학을 재확인 할 수 있는 밀도 있는 기획이 병행되어야 함.
- 각 공간을 이동하면서 각 공간의 특이점을 확인하고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면밀한 기획력이 보강된다면 매우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성문에서의 축문을 읽는 체험, 향교에서 족자에 붓글씨를 써보는 체험, 목사 관아에서 나주의 음식과 풍류를 즐기는 체험, 쪽염색 무형문화재와 쪽염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은 적합하나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괄적인 기획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나주시청 문화재 팀이 관리 감독을 하고, 나주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임.
- 나주 시립 예술단과 나주 향교 유림회 등이 협력하며, 나주 염색체험마을 주민들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한국의 도시는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적인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고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도보존법을 만들어 익산과 경주, 공주, 부여를 고도로 지정하고 건축 문화재를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를 이끌고 있지만, 도시민들의 역사도시로서의 자긍심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음.

- 나주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는 물론 근대화 산업화 기간 동안에도 성장에서 소외되어 온 덕분에 역사의 흔적을 보전할 수 있었음.
- 나주가 지니고 있는 땅의 지문이 한국도시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임.
- 나주가 조선의 도시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요소임.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생활상, 관아 내아, 성곽, 객사, 향교, 민간 가옥 등 각각 문화재로 보존된 점들을 연결하고 조선의 도시를 상상할 수 있는 지도를 완성하여 누구나 쉽게 도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함.
- 각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연결성이 필요함. 나주의 정신과 생활상, 풍습, 민속, 음식, 의식주 등 나주를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충만하게 준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나주에 대한 그리움을 지닐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함.
- 도시 투어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조선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와 나주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높게 평가됨.

나. 성과 및 효과

- 문화재가 도시 활성화의 기본 소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각 도시는 나름대로 지닌 문화재가 있으나, 현재는 문화재와 현재의 삶이 분리되어 역사로서의 문화재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도시 공간 활성화의 자산으로서의 문화재를 인식하고, 지금 여기의 삶이 문화재에 투영되어 경제적인 발전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자존감을 확인하도록 한다면, 현대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나주를 배가 유명한 도시, 나주 곰탕 등 특산물 위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나주가 품고 있는 역사적인 자존을 즐겁고 신나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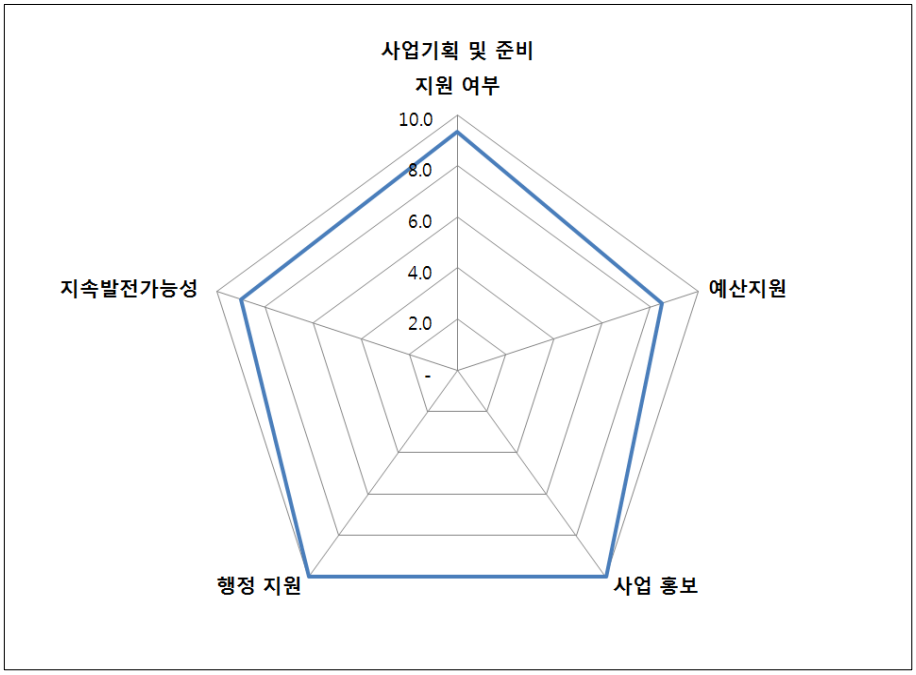
- 나주는 지니고 있는 문화재 자산이 풍부함에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 큰 울림으로 기획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나주의 도시와 조선의 도시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자와 관련 기념품을 개발하여 나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삶에 대한 이해를 친근하게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보다 품격 있는 진행이 필요함.
-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내용에 대한 사전 인지를 위한 사전 홍보 시스템이 필요함.
-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평가회의를 토해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시작된 조선의 도시 나주의 투어 페이퍼를 배포한다면 도시 마케팅의 중요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고려 왕건의 이야기인 오 씨 부인 설화는 나주의 역사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 나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엮어 자료집을 공유하고 입소문 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나주가 지닌 오래된 가옥을 작가들 혹은 창작자들의 레지던스로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나주의 속살을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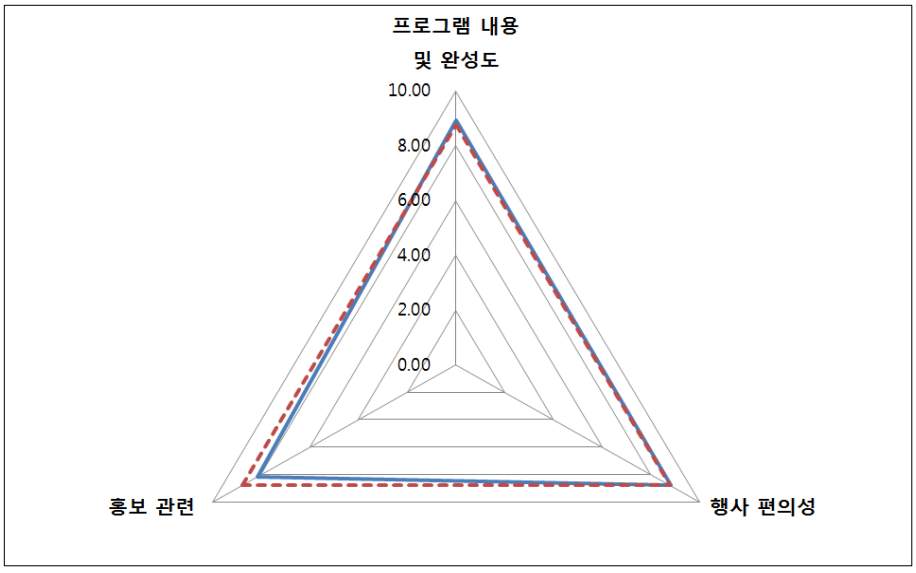
[그림 214]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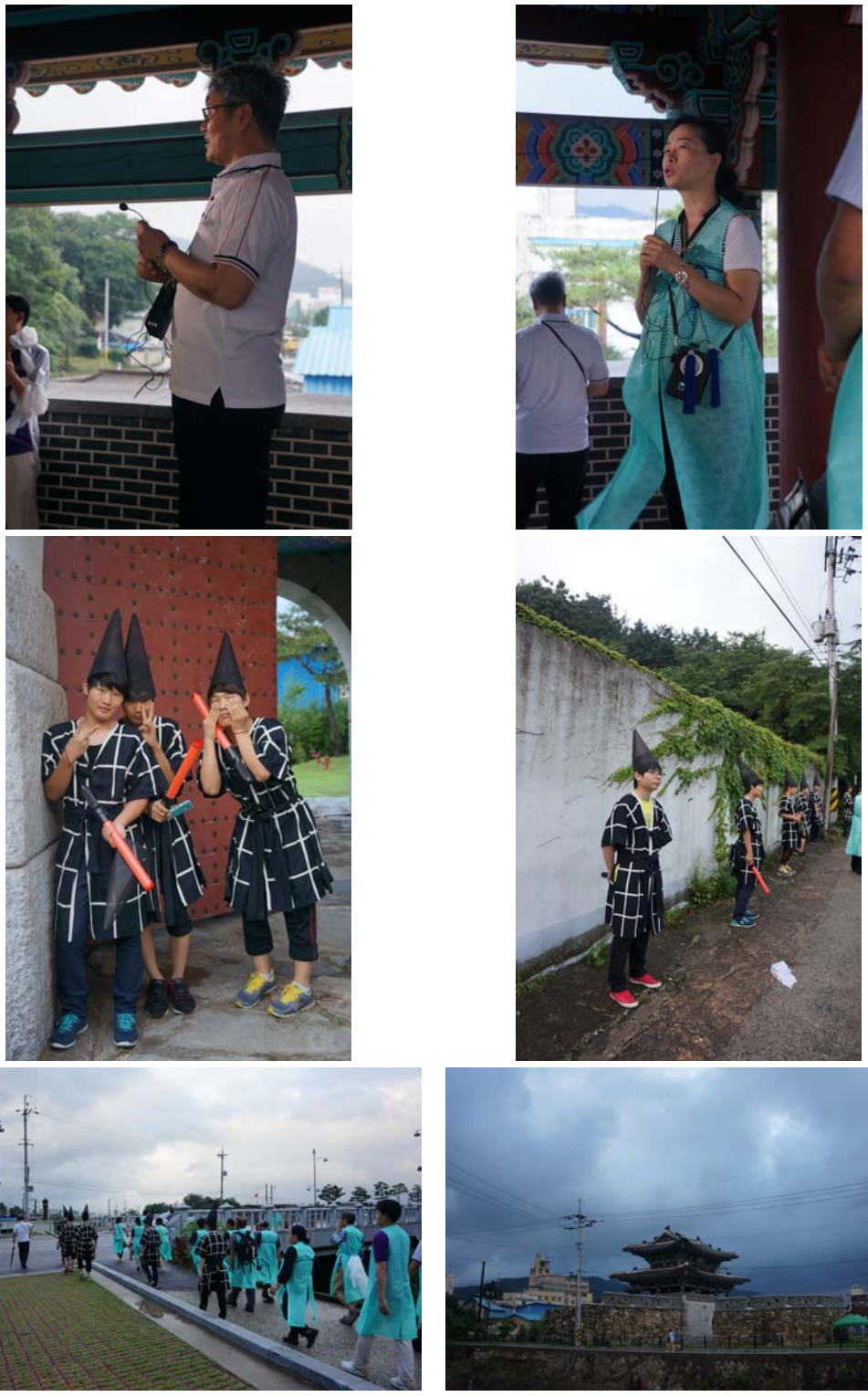


[그림 215]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전남 나주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216]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전남 나주시



[그림 217]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그림 218]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그림 219]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그림 220]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그림 221] 현장 이미지 - 전남 나주시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경북 경산시
(재)한빛문화재연구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1월(8개월)
다. 장소: 임당동전시관, 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시립박물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경북 경산시
나. 수행단체: (재)한빛문화재연구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임당고분군을 바탕으로 압독국에 대한 체험형·학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압독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민의 역사의식 고취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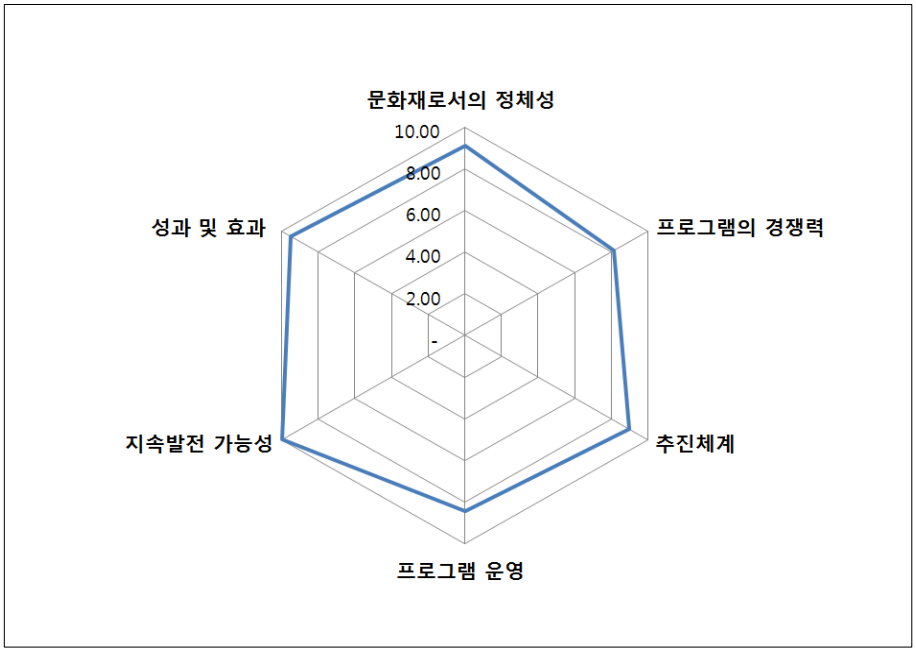
가. 1600년 전 '압독국'을 찾아서
나. 임당고분군과 함께 하는 압독국으로의 여행
다. 학교로 찾아 간 압독국 사람들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8월 11일(토) – '임당고분군과 함께하는 압독국으로서의 여행'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경북 경산시/(재)한빛문화재연구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222]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경북 경산에서 진행하는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생생 문화재 사업은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압량면 부적리 일대에 존재하는 소국 '압독국'의 고분군을 대상으로 함.

☐ 1981년 도굴된 유물을 밀반출하려던 것이 검거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여 년간 대규모로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도심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접근성과 관심도가 떨어져 현재는 압독국전시관을 비롯하여 주변 유적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함.

☐ 경산시 임당동의 고분군과 조영동의 고분군을 하나도 통합하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임당동의 고분군은 으뜸덧널과 딸린덧널로 이루어져 있고 유물은 고분 주인공이 지배자의 신분임을 나타내는 금동관 조각, 금동제의 귀고리, 신발 등으로, 그 때의 사회, 문화, 경제, 기술 등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임.

☐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의 압독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라와 가야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유물 및 묘의 구조로 당시 문화가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사업은 '압독고분군'을 지역에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압독고분군' 프로그램은 경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강의, 박물관 및 현장체험을 6주간 1일 3시간씩 진행했으며, 수업을 모두 마친 경우 문화재청 혹은 경산시청 수료증을 수여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압독고분군' 프로그램은 압독고분군이 위치한 조영동, 대동 일대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2012년 압독국 발굴 30주년 겸 지역 주민들에게 압독고분군을 알리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소축제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압독고분군'은 경산시의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진행했으며, 지역 내 학교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압독전시관과 임당고분군을 찾아가서 체험하는 '찾아가는 문화유산 수업'을 실시하였음.
-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었고, 발굴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었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문화유산에 대해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기획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교육하고,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축제로 만들어간 프로그램 구성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임.
- 소축제는 어린이 사생대회, 유물 복원 체험, 한옥 축조 체험, 고분 음악회, 역사체험연극 등의 주요 프로그램들과 전통매듭체험, 짚풀공예체험, 목공체험 등 다양한 상시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 그러나 단순한 강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음. 소축제 때 진행했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1회만 진행하기보다는 상설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가족단위, 지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문화유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도 병행되었더라면 더욱 경쟁력을 가졌을 것임.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경북 경산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경산시립박물관과 (재)한빛문화재연구원이 함께 진행함.
- 경산시립박물관은 2007년 개관하여, 압독국, 원효, 설총, 일연 등의 생애와 업적,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유산, 조선시대까지 경산의 역사와 문화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음.
- 한빛문화재연구원은 매장문화재를 비롯하여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문화재 발굴, 연구 뿐 아니라, 고고학체험교실, 역사문화강좌 및 답사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임.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박물관은 박물관 견학 및 강의 지원, 경산시 관내 학교 홍보, 공문 협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재)한빛문화재연구원은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및 전체적인 기획과 진행, 교재 및 모의 유물 제작 등을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함.
- 전문적인 기관과 교육 담당 전담팀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진체계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탄탄함을 알 수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현장모니터링은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압독고분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장에는 1기 수강생 약 30명이 임당고분군 앞에 모여 있었으며, 학생들도 있었으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음.
- 임당고분군에 대한 짧은 강의 이후,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문화재 해설을 진행함. 실제로 임당고분군이 발길이 드문 외진 곳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고분들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어떤 유물들이 발굴되었는지가 전시실에 잘 보존되어 있었음.
- 조영동 고분으로 이동하여 역시 설명을 듣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짐.

다. 홍보/편의성/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현재 문화재의 보존은 잘 되어 있으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님.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홍보는 주로 경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역 신문 보도 자료와 지역 학교에 공문 발송 등을 위주로 진행됨. 별도의 홍보물 제작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려움.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존재를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역사책 속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역사의 작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터전이 있고, 현재까지고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후 사업을 고민한다면 단순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연, 연구, 세미나 등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임.
-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콘텐츠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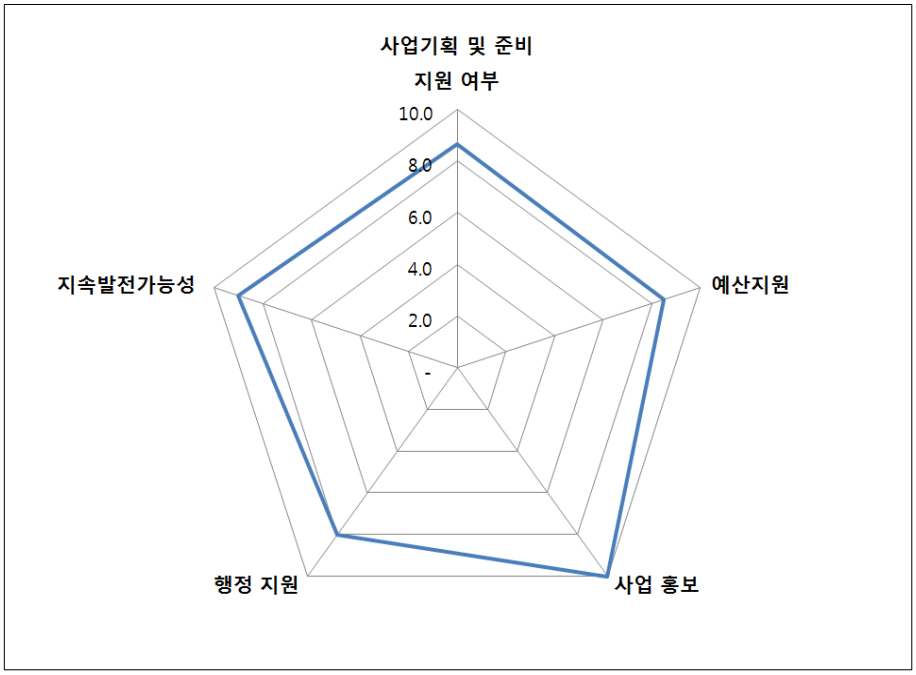
나. 성과 및 효과

-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당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해 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성과가 있음.
- 또한,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유도했다는 것도 성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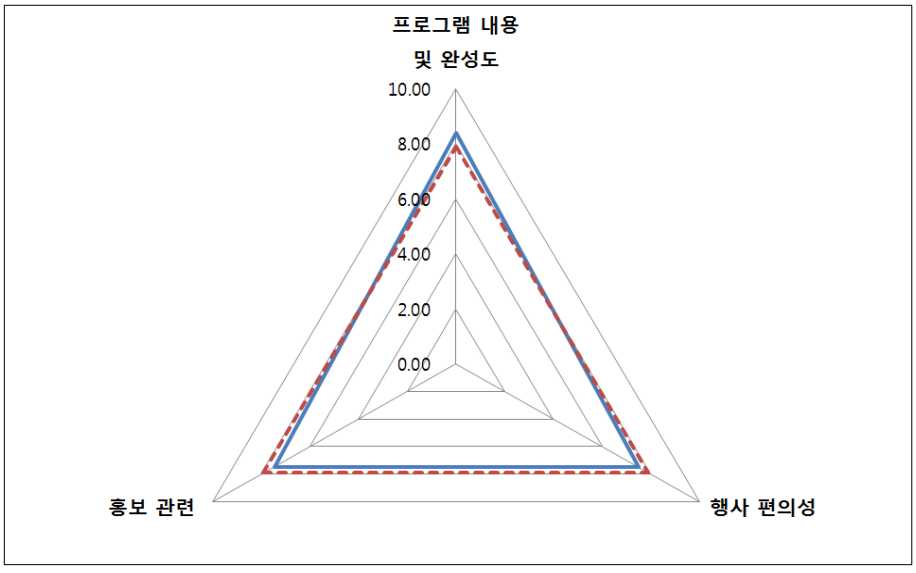
[그림 223] 현장 이미지 - 경북 경산시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224]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225]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북 경산시



[그림 226] 현장 이미지 - 경북 경산시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경남 남해군
경남발전연구원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71호)
나. 사업기간: 2012년 4~10월(7개월, 7회)
다. 장소: 남해군 지족마을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경남 남해군
나. 수행단체: 경남발전연구원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71호)활용하여 원시어업 체험을 통한 문화재 홍보 및 관광자원발전을 도모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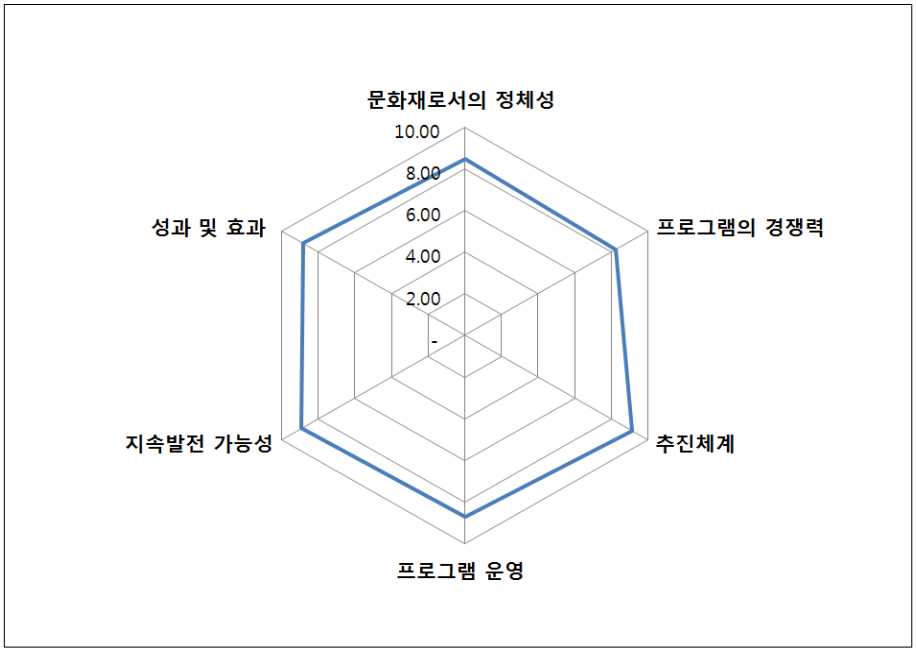
가.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7월 21일~22일(토~일) – '남해에서의 1박2일 홰바리체험'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경남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현장모니터링



[그림 227]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지족해협 죽방렴은 500년 전 옛 선인들이 거센 물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던 방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어업활동임.

□ 원시어업인 대나무어사리의 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임.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오랜 역사를 가진 선조들의 생업활동이 오롯이 원형으로 남아 있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희귀성과 교육적 가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서 경쟁력을 가짐.

□ 죽방렴 체험과 연계한 야간 낚시나 새벽의 홰바리 체험 등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임.

□ 또한, 인근 지역의 '남해유배문학관'과 '관음포 전몰유허지' 답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짐.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경남도정연구전문기관이지만,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문화센터를 개원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문화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
- 수년간 도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문화유산답사를 실시하고 있어, 문화재 관련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본 체계가 잡혀 있음.
- 프로그램 방문지의 운영주체들과도 사전에 협조가 잘 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경남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고 자체 홍보를 통해 가족 단위 참가를 유도하는 등 집객을 위한 기본 홍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당일 진행도 '남해유배문학관'에서 행사의 중심 내용인 '대나무어사리-죽방렴'에 대한 역사와 과학적 원리 등을 미리 교육하여, 체험에 앞서 이론적 배경과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게 하고, 이동이 많음에도 시간대별 진행이 매끄러웠음. 또한, 참여자가 많았음에도 식사와 음료, 간식 등 부가적 요소들도 무리 없이 진행됨.
- 다만, 조개잡이 체험을 위해 방문했던 바닷가의 물때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오랫동안 참가자들이 기다려야 했음. 자연을 소재로 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계절별, 날짜별 요소들을 잘 점검해서 진행해야 할 것임.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기획과 운영, 진행은 완벽하였음.
- 이 사업이 새로이 기획,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해당 지역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음. 식당과 숙소가 갖추어진 체험관이 있고 낚시도구, 장화 등 필요 물품을 빌려주는 등 이미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게다가 어촌계를 중심으로 조직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고, 해설과 체험을 진행하는 인력(사무국장)도 상주하고 있음.
- 사업 자체의 발전가능성은 높지만, 이 사업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지녔는지, 수행단체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문화유산답사를 진행하는 가이드 역할을 잘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나. 성과 및 효과

- 지역의 문화재를 잘 모르는 도시민들과 거주 지역 이외의 관광을 하기 힘든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재미있는 체험을 통한 추억 거리를 제공하였음.
- 지역의 독특한 멸치잡이 방식을 이해하게 되어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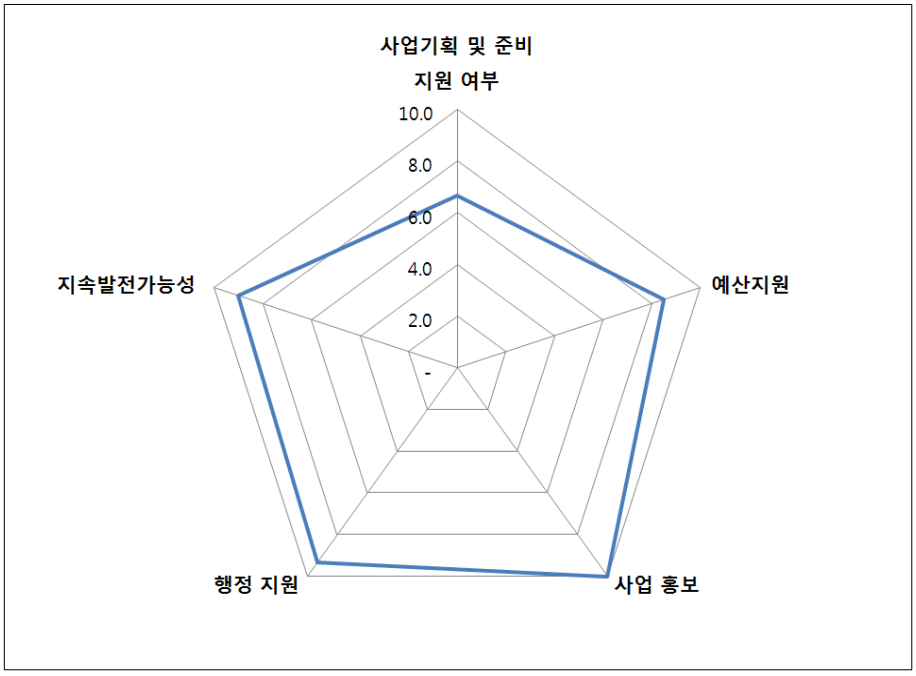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남해유배문학관'에서의 사전 교육, 현장에서의 고기잡이 체험이라는 흥미로운 행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밀물 때에 물고기가 들어오고 입구가 닫히고, 썰물 때에 물고기를 잡는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음. 물 때 등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전달하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함.
- 규모가 큰 모형을 만들어 모든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체험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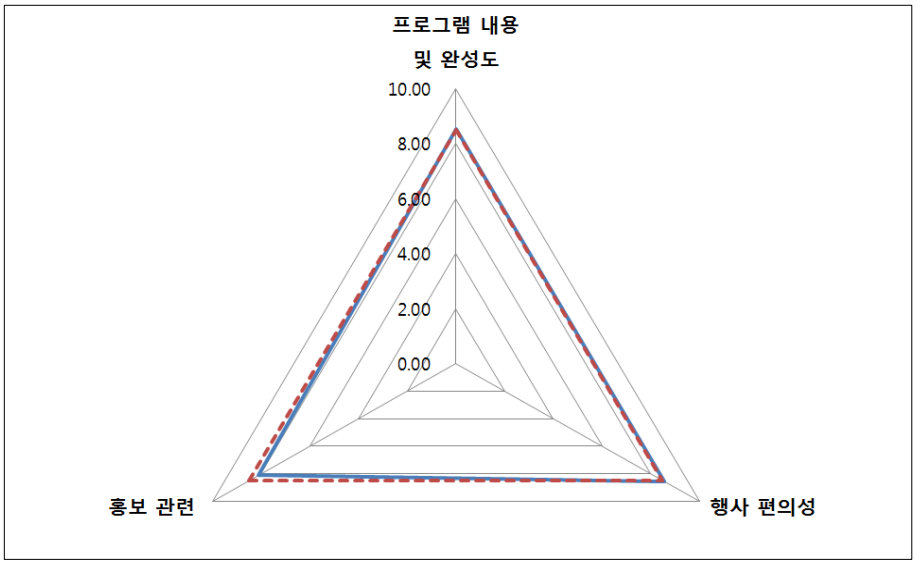
[그림 228]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229]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230]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경남 남해군



[그림 231]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그림 232]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그림 233]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그림 234] 현장 이미지 - 경남 남해군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특별자치도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 개요

가. 대상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영등굿
나. 사업기간: 2012년 3~12월(10개월)
다. 장소: 제주도 일원 및 무형문화재전수관

2. 지자체 / 수행단체

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나. 수행단체: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3. 사업 목적

가. 사업 목적: 제주는 당굿의 고장으로 오랜 옛날부터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는데 본향은 공동체의 생산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마을의 정신적인 구심체 역할을 함. 당굿에는 많은 문화적인 유산이 담겨 있다. 이러한 많은 문화유산을 콘텐츠 화하여 교육자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4. 진행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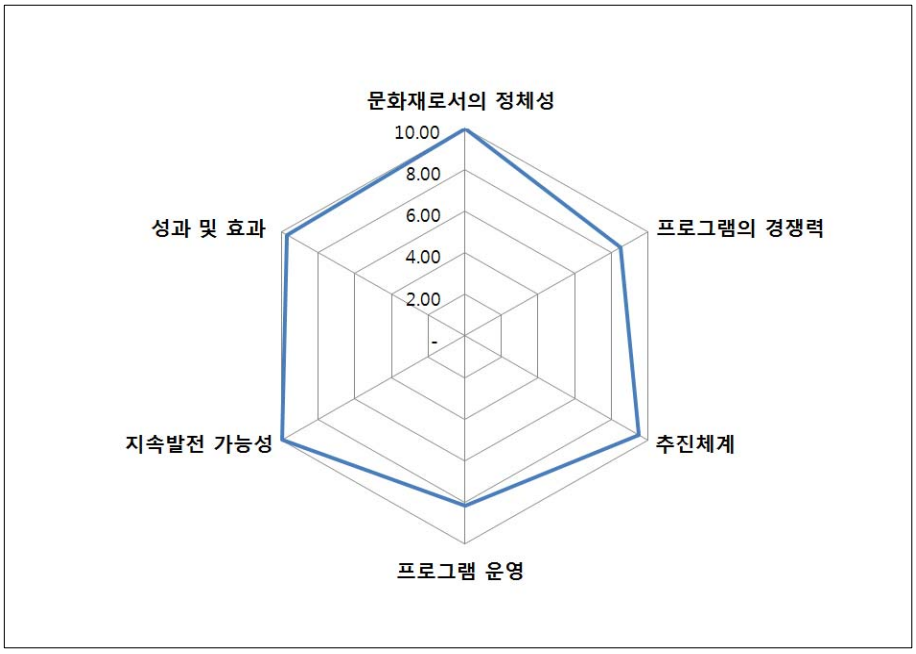
가.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에서 놀아보기>
나. 제주전통문화강좌 <궤~낭들~랑 열~두당~번 연물 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
다.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 기행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

5. 현장모니터링 프로그램

2012년 7월 15일(일) –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기행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특별자치도/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현장모니터링



[그림 235] 현장모니터링 결과 그래프 – 제주시

1.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가. 문화재로서의 정체성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무형문화재로, 일반인들이 그 본령을 체험하기 쉽지 않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본향당 뿐 아니라 곳곳에 당굿과 관련된 시설(천제단 등) 장소가 많이 존재함.
- 이 사업은 제주굿의 원형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영등굿이 가진 신화적 이야기와 상징성, 공연 예술적 요소를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 내용으로 잡고, 영등굿 연관 장소를 찾아 굿의 절차와 흐름을 이해하도록 잡아내었음.

나. 프로그램의 경쟁력

- 제주는 삼다(바람, 돌, 여자)와 삼무(도둑, 거지, 대문)와 함께 삼보(자연, 민속, 언어)라는 특징이 있음. 삼보 중에서 자연은 일반 관광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언어는 제주에 정착해서 살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고 보면, 제주의 민족이야말로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그 민속 중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제주인의 일상에 깊이 새겨있는 영등굿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훌륭한 콘텐츠임.

- 제주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영등굿을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영등굿과 관련된 장소(현장)를 찾아가면서 굿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탐방, 영등굿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가락, 춤 익히기, 영등굿의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놀이는 만들고, 여러 기메(굿상에 오르는 여러 상징물들)를 만드는 세 가지의 큰 범주로 기획됨.
-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영등할망 ㅂㆍ름질 걷기'의 조천읍 북촌리는 영등굿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잘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제주가 가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현실적 존재 공간을 정확히 선정하였음. 당굿의 기원과 연행방식, 내용을 각 공간의 특성에 따른 로드맵으로 잘 선정함.
- 제주만이 가진, 그러면서도 정말 제주를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관광 상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 체계

- 연희(굿, 탈춤, 풍물 등) 분야의 대부분의 무형문화재 보존회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만한 인력이 부재함.
-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에는 자매단체로 놀이패 한라산이라는 마당극 단체가 함께하고 있어, 오랫동안 제주의 신화를 가지고 공연물을 만들어 온 경험이 축적된 인력들이 보존회의 전수생, 이수자로 함께 활동하고 있음.
- 사업기획서와 홍보물, 교재 제작에서 볼 수 있듯 다른 보존회에 없는 기획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굿'을 하는 보존회의 특성상 이러한 기획 프로그램을 보존회 내부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출발 전 모임 장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으며, 교재 준비, 이동 중 음향 설치 등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임.
- 민속학자를 강사로 하여 가는 곳마다 굿의 내용과 장소의 유래, 성격을 설명하도록 하였음.
- 프로그램의 기획은 잘 되어 있는데 비하여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현장 진행의 미숙이 보임.
- 진행 보조 인력(자매단체인 놀이패 한라산의 단원들과 자원봉사자)이 많았음에도 현장에서 업무 분장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숙함이 보임.
- 처음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참가자라 너무 많았고,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연령층이 다양하여 어린이들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음.
- 사업 진행 이후 인지도가 높아서 참가 희망자가 많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참가 인원을 제한하거나, 회차별로 대상층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3.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및 성과

가. 지속발전 가능성

- 콘텐츠가 훌륭하고 원형질을 그대로 반영한 기획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역사관광의 측면에서나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
- 최근 유행이 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또는 창조도시의 측면, 지자체의 관광 상품 개발 측면, 문화재청의 생생 문화재 사업 측면에서 적합한 사업임.
- 올해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문화재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 관광공사(중앙, 도)가 나서서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 상품으로 만들어도 좋을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며, 홍보물 제작, 교재 제작 등은 잘 구성되어 있음.
- 현장 운영의 체계화와 전문성이 아직은 많이 미숙하고,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극복한다면 국내 최고의 현장 교육, 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듯함.
- 마지막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한 '서우제 소리' 등의 공연은 이 프로그램이 '마을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봄.

나. 성과 및 효과

- 보존회의 성격상 홍보가 쉽지 않음에도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였고, 특히나 회차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굿에 쓰일 음식들을 스스로 장만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제주굿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등 향후에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기초를 충분히 만들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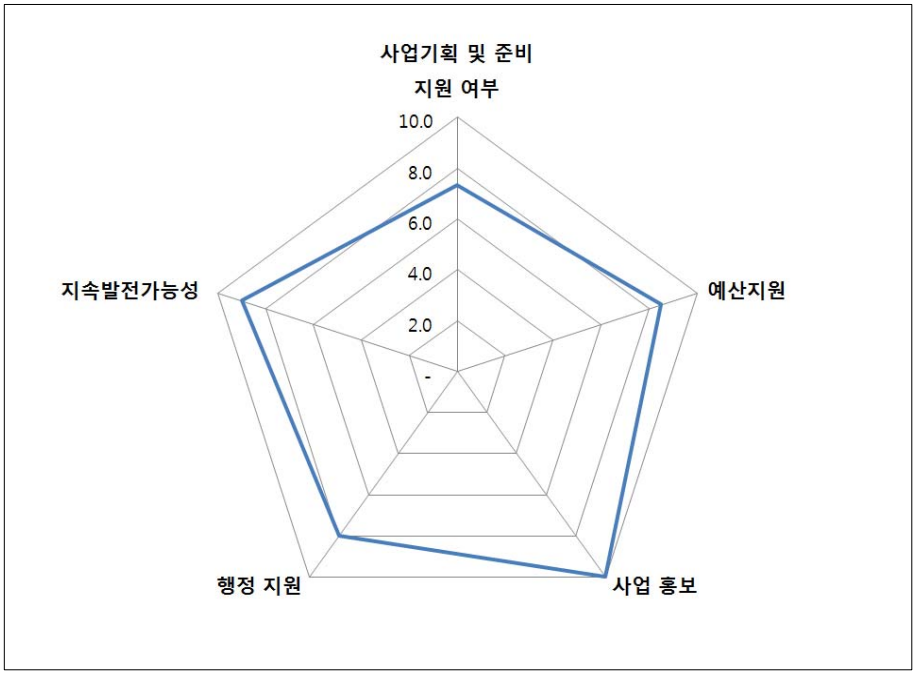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제시 및 프로그램 컨설팅

- 북촌리가 가진 콘텐츠를 1일 행사로 모두 담기에는 일정상 무리가 있음. 사업 일수를 1박 2일로 확대하고 바닷가—주민들의 어업활동과 당굿을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육지의 관광객(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임.
- 대상과 규모에 따라 면밀한 기획이 필요하지만, 민박 체험(팜스테이 형식), 숙소 개발(지역 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건축 사업이 아닌)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항공사와 여행사 등과의 연계도 필요함.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보존회 회장님,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생들로 이루어진 회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임. 안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내부에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 최소한의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인력을 보존회의 소속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외부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협력을 맺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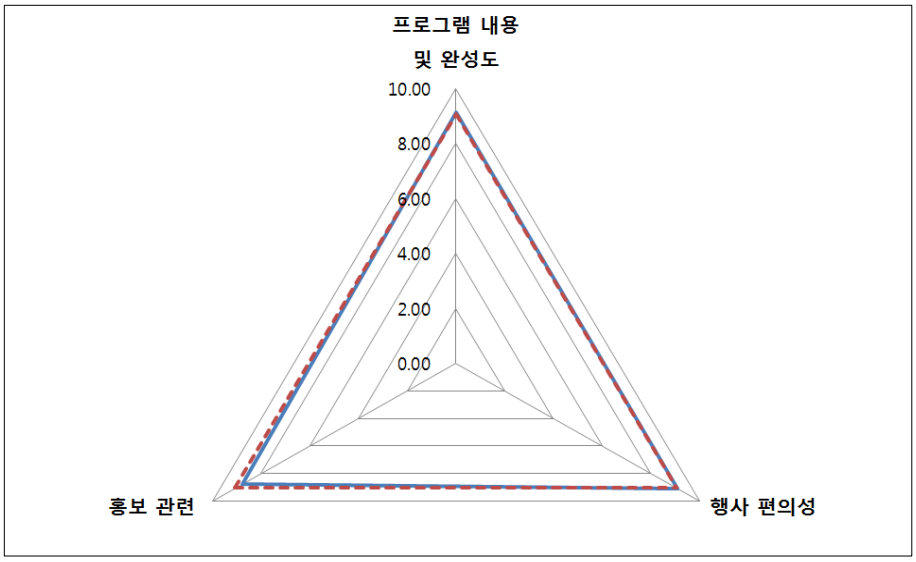
[그림 236] 현장 이미지 – 제주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그림 237] 지자체 사업지원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 그래프 – 제주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그림 238]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 제주시



[그림 239] 현장 이미지 – 제주



[그림 240] 현장 이미지 – 제주











[그림 241] 현장 이미지 – 제주



[그림 242] 현장 이미지 – 제주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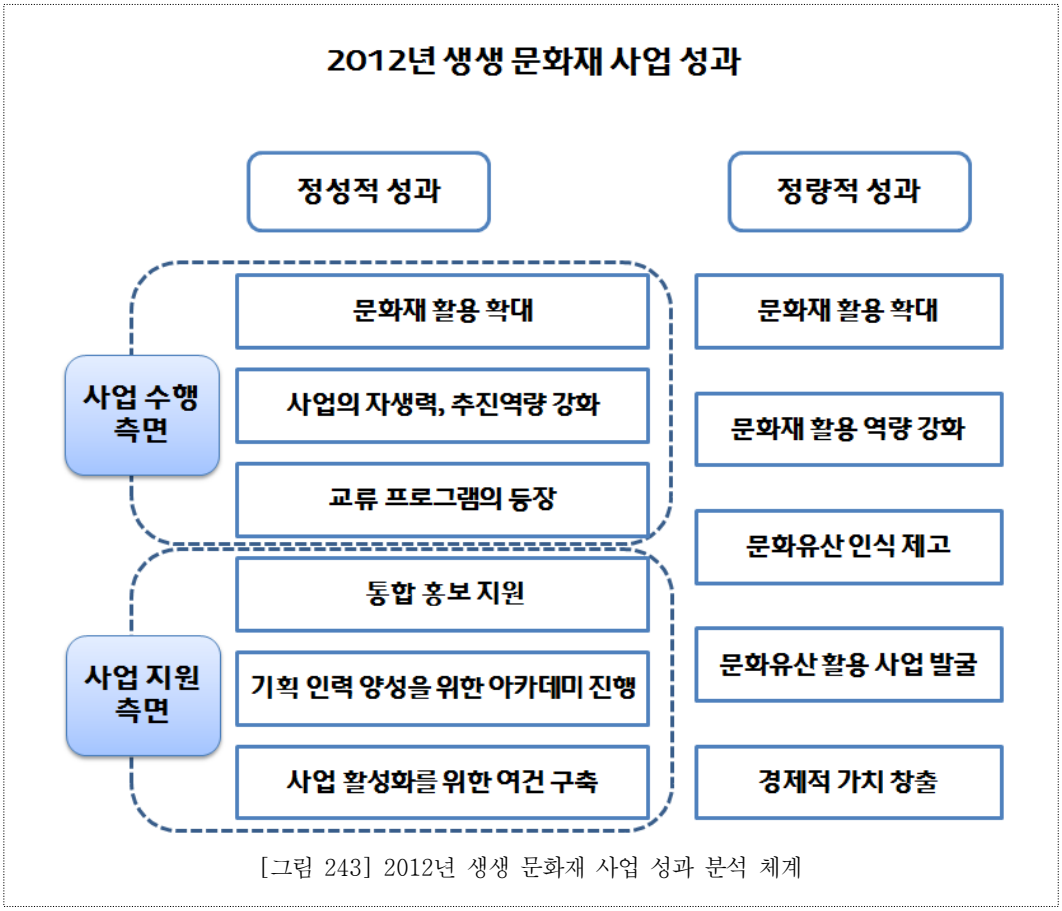
생생 문화재 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 및 개선 사항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제안

생생 문화재 사업

2012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그림 24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 분석 체계

1. 정성적 성과

사업 수행 측면

1) 활용 범위의 확대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보면 단순히 문화재만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범위를 넘어서 타 분야(복지, 여행 등)와의 결합을 통해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부산 서구의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대안학교를 찾아가 문화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적인 성격을 갖추었으며, 병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와도 연계하는 등 단순히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 여러 사업 범위와 결합하며 확대하는 걸 알 수 있음.

☐ 제주의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사업의 경우 제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수용하여 제주 지역을 답사해 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임.



▲2012년 병원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이미지



▲2012년 하도리 신당기행 현장 이미지

[그림 244]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활용 범위의 확대

2) 사업의 자생력, 추진역량 강화

- 광주 광산구의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금)으로 시작되어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와 장기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음. 그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금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되었음.
-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사업 중 '살롱 드 월봉' 프로그램의 경우는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2012년 말 광곡마을 입구 쪽에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서원스테이 숙박 시설이 완공됨.
- 대전광역시의 '나는 성주다. 산성톡,talk' 사업의 경우 대전문화연대에서 문화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산성'을 관심 문화재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시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전시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산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여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얻었음.



▲월봉서원 정비사업 안내판



▲2012년 대전 산성축제 포스터

[그림 245]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사업의 자생력, 추진역량 강화

3) 교류 프로그램의 등장

- 생생 문화재 사업이 2008년에 시작하여 5년에 걸쳐 오며 개별 사업들이 성장하고 틀을 잡아왔다면,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류 사업이 등장했다는 것임.
- 시범사업이었던 경기 군포의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사업과 강원 원주의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은 서로의 행사를 방문하여 홍보 천막 운영과 공연 등 교류를 했으며, 전남 진도의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사업은 강원 원주와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등 '전통'이라는 공통점에서 착안하여'하이파이브 생생!'이라는 명칭으로 교류 사업을 진행함.
- 또한 대전의 '나는 성주다. 산성톡,talk' 사업과 서울 광진구의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그리고 경기도의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사업은 '산성'이라는 대상 문화재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산성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지역의 참가자들이 여러 지역의 산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문화재청의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수행단체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생생 문화재 사업이 점차 진행되고 각각의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기획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강원 원주에 방문한 군포 전통농업 생생 사업



▲강원 원주에 방문한 진도 북놀이 생생 사업


▲경기 군포에 방문한 원주 매지농악 생생 사업


▲전남 진도에 방문한 원주 매지농악 생생 사업

[그림 246]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교류 프로그램의 등장

사업 지원 측면

1) 통합 홍보 지원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이후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생생 문화재 사업 로고 및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 행사 플랜카드 시안, 행사 배너 및 기타 홍보물 시안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여 홍보물의 가이드라인을 시도하였음. 이를 통해 홍보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과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함께 노림.
- 전체 생생 문화재 사업의 소개 및 주요 일정 정보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30개 지자체를 통해 배포함.
- 문화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생생 문화재사업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팝업창을 구성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역별 내용, 일정 소개, 간단한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생생 사업 현장에 비치된 생생 문화재 사업 리플렛

▲생생 문화재 사업 로고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팝업창



▲생생 문화재 사업 소개 팝업창

[그림 247]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통합 홍보 지원

2)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진행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문화재 관련 기관이거나,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경영 기획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함. 이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재 활용 분야의 전문 기획자를 키워내기 위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2012년 11월 17일(토)부터 2012년 12월 8일(토)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전일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음. 총 94명이 교육에 참여 하여, 이 중 65명이 과정을 수료함.



▲문화유산 경영 기획인력 양성 아카데미 포스터



문화유산 경영인력 아카데미 강의 개요

1주차 2012. 11. 17		
1강	정강환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방법 성공 요소 I
2강	조희숙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방법 성공 요소 II
3강	황상훈	계안서 작성법
4강	황상훈	발표문 작성법
2주차 2012. 11. 24		
1강	강진갑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기획자
2강	조경국	문화기획이란
3강	류기태	이야기를 만들고 홍보하기
4강	박재길	조사하고 전략짜기
3주차 2012. 12. 1		
1강	조상열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기획자
2강	조상열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기획자
3강	윤성진	기획워크숍
4강	윤성진	
5강	윤성진	
4주차 2012. 12. 8		
1강	진병길	문화재를 활용하는 전문기획자
2강	진병길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기획자
3강	황평우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하기
4강	황상훈	
5강	안이열노	

▲문화유산 경영 기획인력 양성 아카데미 강의 개요

[그림 248] 2012년 생생문화재 사업 정성적 성과 -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진행

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구축

□ 생생 문화재 사업의 예산은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2008년 총 1억 원, 2009년 2억 원, 2010년 5억 원, 2011년, 2012년에는 8.5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지원된 금액은 25억 원에 달함.

□ 사업 초기에 비하여 8.5배 증가한 예산이며, 2013년부터 예산은 12억 원으로 약 1.5배 증액될 예정임.

□ 또한, 2012년까지는 자율적이었던 지방비 매칭을 2013년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국고보조율 70%, 지방비 30%을 반드시 매칭 하도록 함.

2. 정량적 성과

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한 수행단체들의 성과 기록[1]을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총 횟수는 806건, 한 사업당 평균 27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 총 참가자 수는 86,980명으로 조사됨.
-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의 수는 12개였으며, 총 참가비 금액은 65,489,500만원으로 집계됨.
-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총 1,682명, 한 사업당 평균 56명임.
- 인건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공연자, 진행자의 수는 총 1,964명, 한 사업당 평균 65명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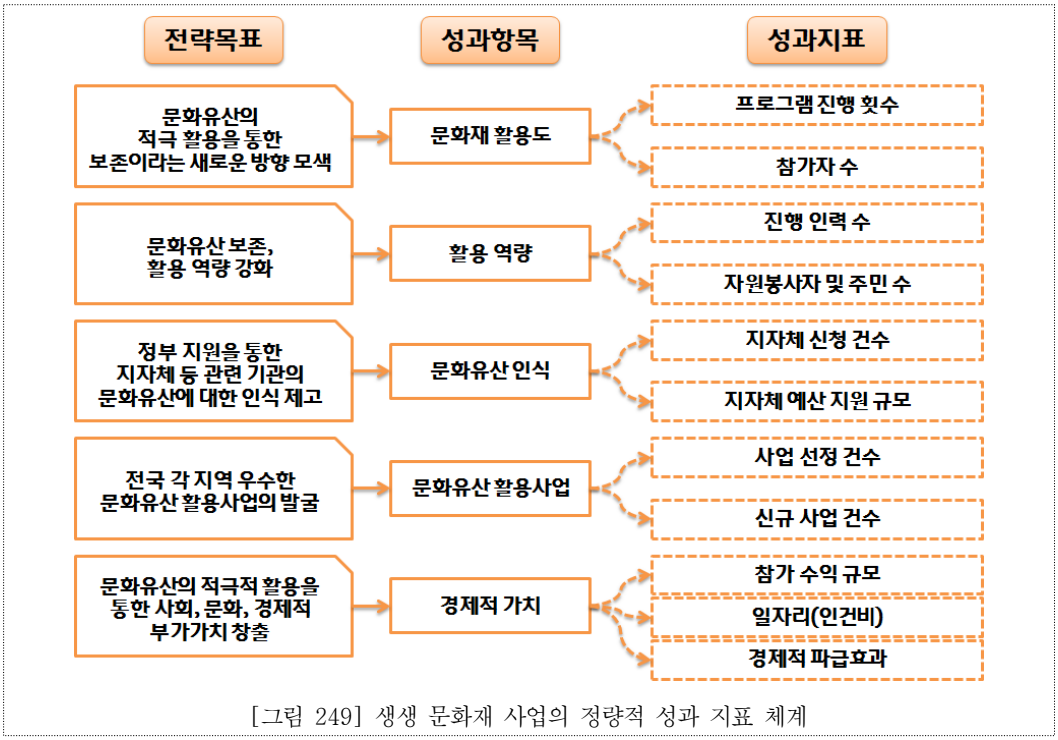
구분	지자체	프로그램 진행횟수	참가자 (명)	참가비 (원)	자원봉사자 (명)	인력 (명)
1	강원 원주시(고판화)	46	2,160	–	270	42
2	경기 고양시	5	99	990,000	–	–
3	경기 군포시	11	548	2,692,500	28	10
4	경기도(남한산성)	64	9,884	8,700,000	4	344
5	경기도(소풍열차)	17	766	–	34	52
6	경남 남해군	7	370	1,660,000	20	26
7	경남 하동군	32	1,058	–	36	115
8	경북 경산시	13	373	–	34	24
9	광주 광산구	25	1,330	–	7	82
10	대구 달서구	10	1,110	–	17	19
11	대전(산성)	15	8,704	3,780,000	142	144
12	대전(택견)	58	1,646	–	26	14
13	부산 서구	207	3,578	–	24	18
14	서울 광진구	25	515	–	9	75
15	서울 도봉구	28	1,300	–	20	66
16	서울 동대문구	29	1,234	7,767,000	19	25
17	서울 동작구	13	603	–	20	–
18	울산 동구	11	1,361	–	292	8

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에게 성과 기록지 작성을 요청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함.

19	전남 나주시	4	120	2,400,000	8	72
20	전남 화순군	9	464	5,120,000	19	28
21	전북 김제시	6	18,252	–	28	–
22	제주	23	399	–	61	110
23	충남 공주시	25	1,129	–	–	225
24	충남 아산시	3	91	4,400,000	–	–
25	충북 괴산군	17	985	170,000	30	4
26	충북 영동군	13	1,751	12,810,000	266	182
27	충북 청주시	17	580	–	53	88
28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21	2,507	15,000,000	77	180
29	강원 횡성군	11	20,095	–	135	1
30	전남 진도군	41	3,968	–	3	10
평균		27	2,899	2,182,983	56	65
합계		806	86,980	65,489,500	1,682	1,964

[표 25]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별 성과 집계

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지표 체계



[그림 249]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지표 체계

성과항목	성과지표	성과	
문화재 활용 확대	프로그램 진행 횟수	2012년	806회
		2012년 평균	27회
	사업 참가자 수	2012년	86,980명
		2012년 평균	2,899명
문화재 활용 역량 향상	사업 진행 인력 수	2012년	1,964명
		2012년 평균	65명
	자원봉사자 및 주민 수	2012년	1,682명
		2012년 평균	56명
문화유산 인식 제고	지자체 신청 건수	2012년	104건
		2008~2012년 합계	317건
	지자체 예산 지원 규모	2012년	4.1억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	사업 선정 건수	2012년	30건
		2008~2012년 합계	91건
	신규 사업 건수	2012년	13건
		2008~2012년 합계	53건
경제적 부가가치	참가 수익 규모	2012년 건수	12건
		총 금액	65,490,000원
		평균 참가 수익	5,457,000원
	일자리(인건비)	총 인건비 액수	436,700,400원
		사업당 평균	14,566,680원
		1인당 평균	222,353원
	경제적 파급효과	2012년 생산 파급효과	2,588,077,363원
		2012년 부가가치 파급효과	1,179,192,791원
		2012년 총 파급효과	3,767,270,154원
		2012년 고용 파급효과	23.1명
		2008~2012년 생산 파급효과	5,664,721,625원
		2008~2012년 부가가치 파급효과	2,579,860,615원
		2008~2012년 총 파급효과	8,244,582,240원
		2008~2012년 고용 파급효과	54.0명

[표 14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집계표

1) 5대 전략 목표

□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전략 목표 5가지를 기본으로 하며,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5가지 전략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문화유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
-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함.
-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발굴함.
-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함.

2) 11개의 성과 지표

□ 5가지의 전략 목표에 맞추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게 문화재 활용 확대, 활용 역량, 문화유산 인식 제고, 문화유산 활용사업,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5가지의 성과 항목을 설정하고, 각 성과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재 활용이 확대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재 활용 사업의 역량이 향상되었나를 측정하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진행 인력의 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및 주민의 수를 확인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문화유산에 대해 인식을 제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신청한 건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규모를 확인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얼마나 발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롭게 발굴된 신규 사업 건수를 확인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유료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수입 규모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인건비 정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인쇄 및 복제업, 숙박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차량 임대업, 문화예술, 관광사업 등의 산업들과의 연관효과를 통해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취업 창출 효과 등을 살펴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정량적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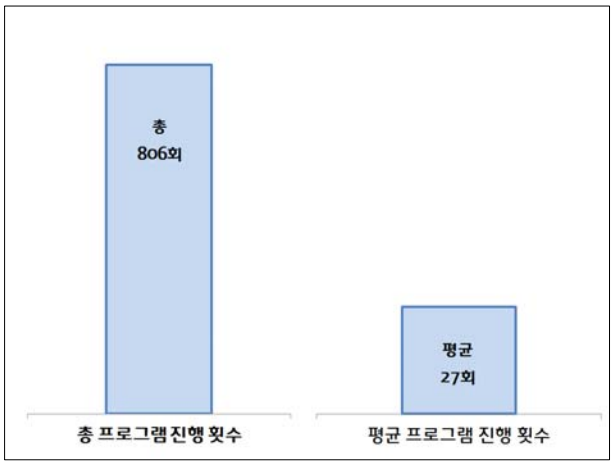
1) 문화재 활용 확대 성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재 활용이 확대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측정함.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진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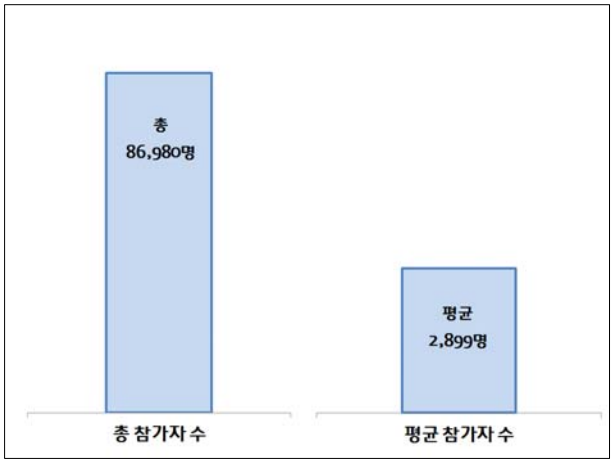
□ 2012년에 진행된 30개의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진행한 총 프로그램 횟수는 806건으로 사업당 평균 27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이는 하루에 약 2건 이상의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5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진행 횟수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자 수

□ 총 참가자 수는 86,98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한 사업당 평균 2,899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25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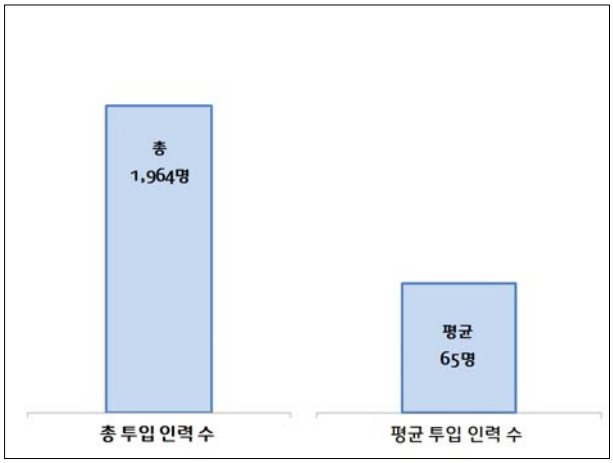
2) 문화재 활용 역량 향상 성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재 활용 사업의 역량이 향상되었나를 측정하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진행 인력의 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및 주민의 수를 확인함.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 인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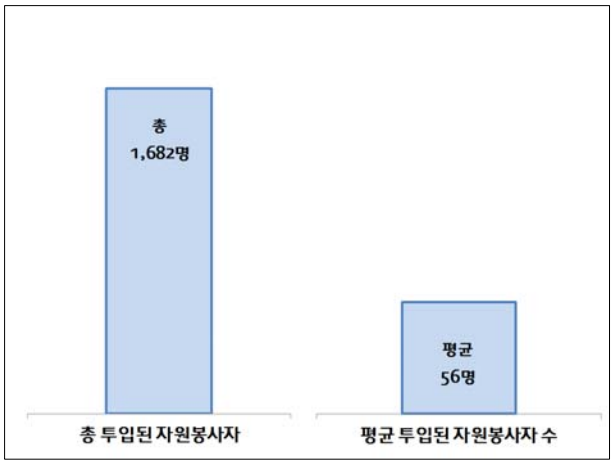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진행 인력의 수는 평균 65명, 총 1,964명으로 집계됨.



[그림 252]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 인력 수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자원봉사자 및 주민 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의 수는 평균 56명, 총 1,682명으로 조사됨.



[그림 25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자원봉사자 및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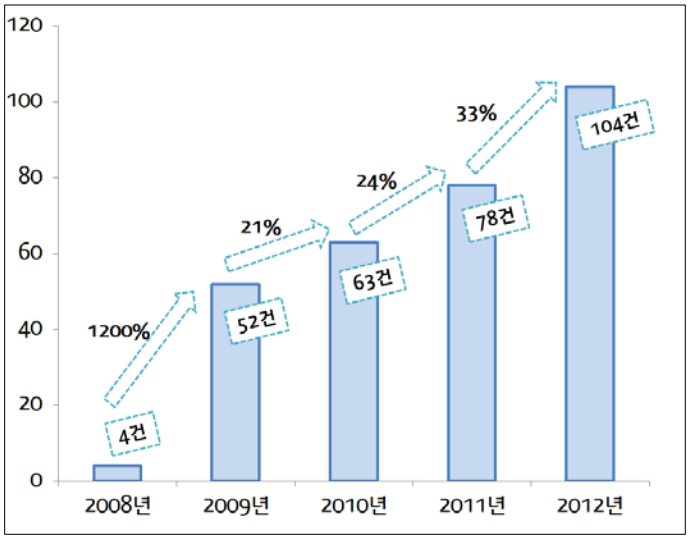
3) 문화유산 인식 제고 성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문화유산에 대해 인식을 제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신청한 건수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규모를 확인함.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신청 건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자체의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를 보면 2008년 총 4건, 2009년 총 52건, 2010년 총 63건, 2011년 총 78건, 2012년 총 104건으로 4년 동안 총 297건의 사업 신청이 있었으며, 사업 신청 건수는 매년 평균 1.3배씩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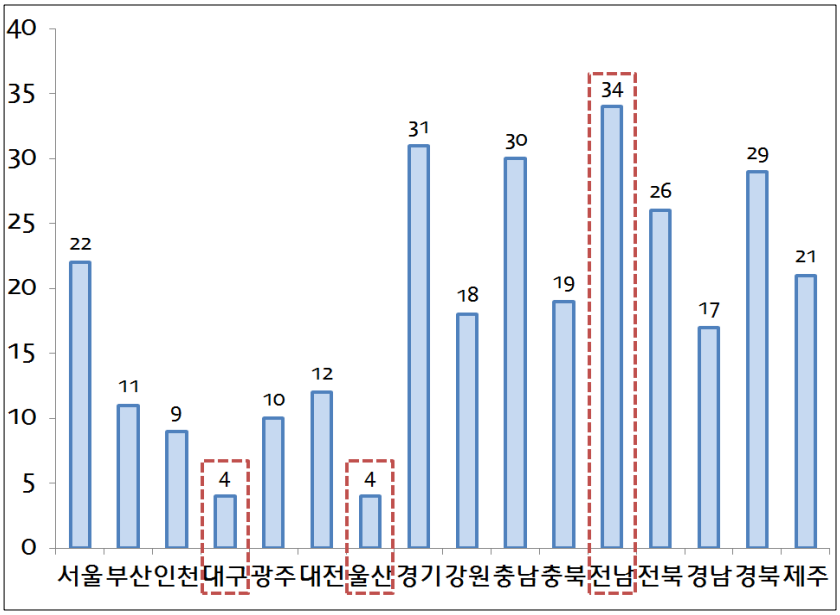


[그림 254]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신청 건수 추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동안의 지자체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22건, 부산 11건, 인천 9건, 대구 4건, 광주 10건, 대전 12건, 울산 4건, 경기 31건, 강원 18건, 충남 30건, 충북 19건, 전남 34건, 전북 26건, 경남 17건, 경북 29건, 제주 21건으로 총 297건의 사업 신청이 이뤄짐.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2009년	3	1	2	1	2	2	0	3	5	4	4	7	4	3	4	7
2010년	2	3	2	1	4	2	0	9	3	8	5	8	4	4	4	4
2011년	7	5	2	0	1	5	1	6	4	9	4	7	8	4	10	5
2012년	10	2	3	2	3	3	3	13	6	9	6	12	10	6	11	5
합계	22	11	9	4	10	12	4	31	18	30	19	34	26	17	29	21

[표 26] 지자체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그림 255] 지자체별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 예산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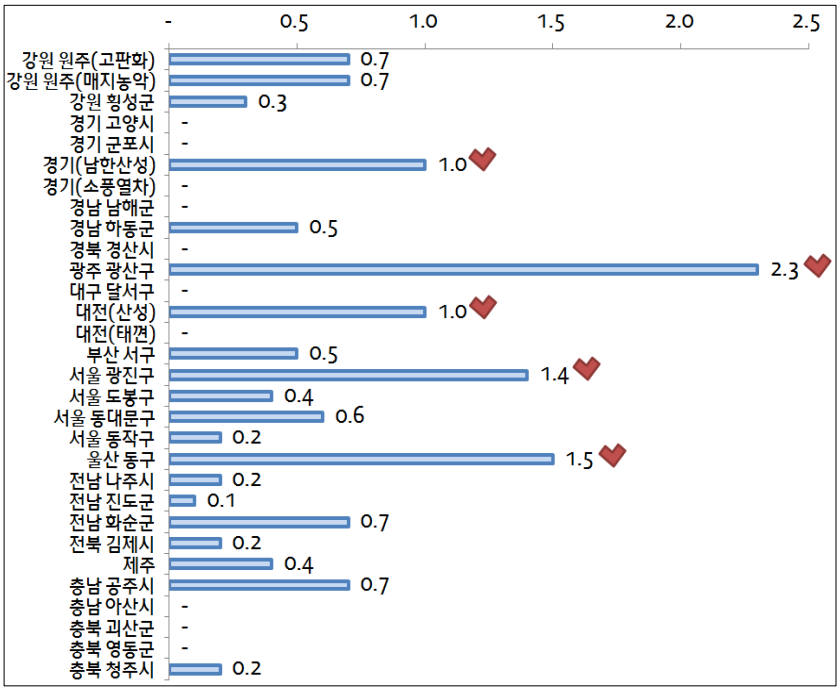
- 지자체별 예산 지원 규모는 2012년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함.
- 2012년 30개의 생생 문화재 사업 중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한 사업은 20개 사업임.
- 투입된 총 국고지원금은 8.5억 원이며, 총 지자체 지원금은 약 4.1억 원으로 국고지원금의 48.0%, 전체 투입금액인 14.1억 원[2]의 31.0%. 평균 매칭 비율은 1:0.3임.

2) 국고지원금 8.5억 원 + 지자체 지원금 4.1억 원 + 수행단체 자부담 1.5억 원

지자체	매칭 비율	지자체	매칭 비율
강원 고판화	1 : 0.7	서울 광진구	1 : 1.4
강원 원주	1 : 0.7	서울 도봉구	1 : 0.4
강원 횡성군	1 : 0.3	서울 동대문구	1 : 0.6
경기 고양시	1 : 0	서울 동작	1 : 0.2
경기군포	1 : 0	울산 동구	1 : 1.5
경기 남한산성	1 : 1	전남 나주	1 : 0.2
경기 유라시아	1 : 0	전남 진도군	1 : 0.1
경남 남해군	1 : 0	전남 화순군	1 : 0.7
경남 하동군	1 : 0.5	전북 김제시	1 : 0.2
경북 경산시	1 : 0	제주	1 : 0.4
광주 광산구	1 : 2.3	충남 공주시	1 : 0.7
대구 달서	1 : 0	충남 아산	1 : 0
대전 산성	1 : 1	충북 괴산군	1 : 0
대전 택견	1 : 0	충북 영동군	1 : 0
부산 서구	1 : 0.5	충북 청주시	1 : 0.2

[표 27]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예산 매칭 비율

□ 매칭을 한 지자체 중 경기(남한산성), 광주 광산구, 대전(산성),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5개 사업은 1:1 이상의 매칭을 진행하였음.



[그림 256]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예산 매칭 비율

4)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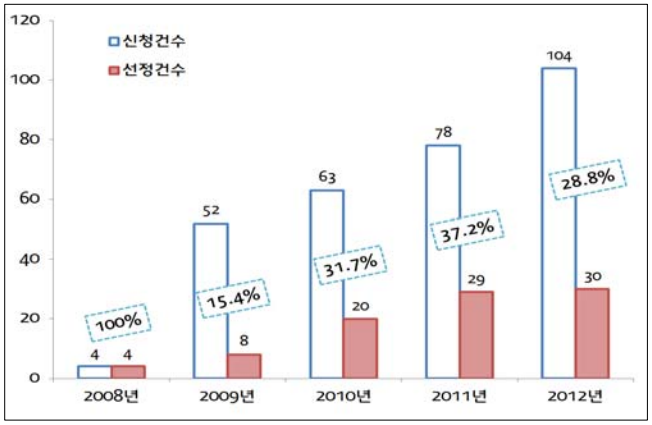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얼마나 발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건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롭게 발굴된 신규 사업 건수를 확인함.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건수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건수 추이는 2008년 4건, 2009년 52건, 2010년 63건, 2011년 78건, 2012년 104건으로 증가해왔음. 이에 대한 선정 건수 또한, 2008년 4건, 2009년 8건, 2010년 20건, 2011년 29건, 2012년 30건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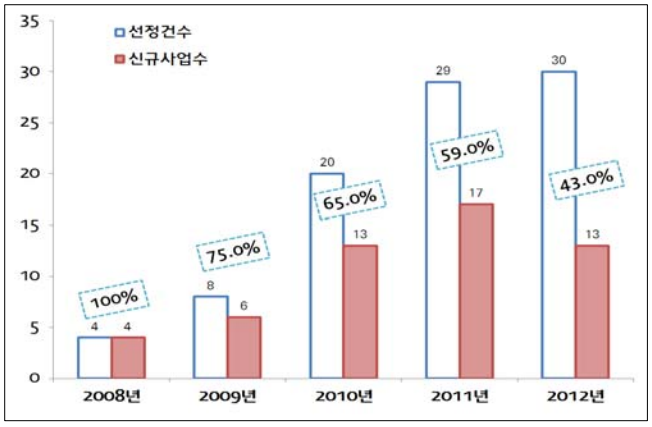
□ 선정률은 2008년 100%, 2009년 15.4%, 2010년 31.7%, 2011년 37.2%, 2012년 28.8%임.



[그림 257] 생생 문화재 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와 선정률

생생 문화재 사업 신규 사업 건수

□ 매해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총 선정 건수의 75%인 6건, 2010년은 65%인 13건, 2011년은 59%인 17건, 2012년은 43%인 13건임. 총 신규 사업은 53개가 발굴됨.



[그림 258]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건수 및 신규 사업 수와 비율

- 동일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5년 동안 계속 지원받은 사업은 광주 광산구 1건이며, 4년 동안 계속 지원받은 사업은 전남 신안군(2008~2011), 대전(산성)(2009~2012년), 경남 하동군(2009~2012년), 강원 횡성군(2009~2012년), 부산 서구(2009~2012년) 등 총 5건임. 3년 동안 계속 지원받은 사업은 전남 진도군 1개 사업임.
- 2년 동안 지원받은 사업은 경북 경산시(삽살개), 인천(근대문화존), 충북 괴산, 전북 전주, 경북 경주, 경북 안동, 경기 연천, 충남 서천, 서울 동대문구, 서울 광진구, 경기도(남한산성), 충북 청주시, 전북 김제시, 충북 영동군, 서울 도봉구, 강원 원주시(매지농악), 전남 화순군, 충남 아산시 등 16건임. 이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만 단기로 지원된 사업은 총 14건으로 전북 완주군, 충남 부여군, 서울 강동구, 충남 논산, 제주(알뜨르), 전남 담양, 경기 용인,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제주(강좌), 인천(클래식 공연), 대전(불교미술), 제주(돌담) 등이 이에 포함됨.

사업명[3]	지자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2012)	광주 광산구	●	●	●	●	●
<바다의 기억이 지워지면 소금이 온다>(2011)	전남 신안군	●	●	●	●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 톡, talk>(2012)	대전		●	●	●	●
<하동송림 마을숲 이야기 듣고 읍성 발굴 체험하기>(2012)	경남 하동군		●	●	●	●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2012)	강원 횡성군		●	●	●	●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2012)	부산 서구		●	●	●	●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2012)	전남 진도군			●	●	●
<삽살개를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2010)	경북 경산시		●	●		
<2010 인천 근대문화존으로의 초대>(2010)	인천		●	●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2012)	충북 괴산			●		●
<경기전 태조어진 생생체험,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배우고>(2010)	전북 전주			●	●	
<화랑정신과 향가에서 배우는 기상과 풍류>(2011)	경북 경주			●	●	
<서원한자 별시캠프>(2011)	경북 안동			●	●	
<숭의전에서 고려를 만나다>(2011)	경기 연천			●	●	
<한산소곡주 & 모시 생생체험>(2011)	충남 서천			●	●	
<동대문구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2012)	서울 동대문구				●	●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2012)	서울 광진구				●	●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2012)	경기도				●	●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2012)	충북 청주시				●	●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2012)	전북 김제시				●	●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2012)	충북 영동군				●	●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도봉서원(道峰書院) 生生사업>(2012)	서울 도봉구				●	●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2012)	강원 원주시				●	●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2012)	전남 화순군				●	●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2012)	충남 아산시				●	●
<완주 문화유산 생생 리얼토크>(2009)	전북 완주군	●				
<부여 정림사지, 백제의 혼을 되살리다>(2009)	충남 부여군	●				
<고고 선사로>(2010)	서울 강동구			●		
<생생한 서원체험>(2010)	충남 논산			●		
<알뜨르, 역사의 올레>(2010)	제주			●		
<담양 가사문화 누정 생생체험>(2010)	전남 담양			●		
<조광조와 기묘명현을 만나다>(2010)	경기 용인			●		
<문불여(文不如), 무불여(武不如) 장성에서의 1박 2일>(2011)	전남 장성군				●	
<신비의 왕국 대가야 1500년 전 생생체험 속으로>(2011)	경북 고령군				●	
<한일근대문화유산과 Hi-Story & Life Story>(2011)	경북 울릉군				●	
<근대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중강좌>(2011)	제주				●	
<생생(生生) 문화예술교육과 클래식 공연>(2011)	인천				●	
<불교미술을 통해서 찾아보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2011)	대전				●	
<제주 돌담 문화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2011)	제주				●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2012)	강원 원주시					●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2012)	경기 고양시					●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2012)	경기 군포시					●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2012)	경기도					●
<500년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2012)	경남 남해군					●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2012)	경북 경산시					●
<임진왜란 그 현장 속으로>(2012)	대구 달서구					●
<"야"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2012)	대전					●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2012)	서울 동작구					●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2012)	울산 동구					●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2012)	전남 나주시					●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영등굿>(2012)	제주					●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2012)	충남 공주시					●

[표 28] 생생 문화재 사업 지자체별 지원 현황

3)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사업명을 기재함.

5) 경제적 부가가치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유료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수익 규모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인건비 정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인쇄 및 복제업, 숙박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차량 임대업, 문화예술, 관광사업 등의 산업들과의 연관효과를 통해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취업 창출 효과 등을 살펴봄.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 수익 규모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30개 중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의 수는 총 12개이며, 참가비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순번	사업명	지자체	참가비 내역		
1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경기 고양시		1인당	10,000원
2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경기 군포시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 및 체험비)	성인 어린이 미취학 아동	5,000원 ~ 10,000원 무료 ~ 5,000원 무료
3	<행행중행복한 남한산성>	경기	(프로그램에 따라) (뚜르드산성) (체험비 및 재료비)	어린이당 성인 어린이	무료 ~ 10,000원 30,000원 10,000원
4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경남 남해군	(체험비) (숙박비) (숙박비)	체험비 개인 단체	5,000원 10,000원 5,000원
5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	(식비 및 숙박비)	성인 한 가족당	30,000원 150,000원
6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	대전	(교통비)	지역팀	20,000원
7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	(교육 수강료)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 및 체험비)	 구민 일반인	회당 15,000원 2,000원 5,000원 ~ 10,000원
8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	(식비 및 숙박비)	숙박비 미취학 아동	20,000원 무료
9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	(프로그램에 따라 식비 및 숙박비)	 취약계층	10,000원~20,000원 무료
10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	(교육비)		인당 100,000원
11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	충북 괴산군	(프로그램에 따라)		10,000원 ~ 30,000원
12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	충북 영동군	(식비 및 숙박비) (도서 제작비)	외지인	20,000원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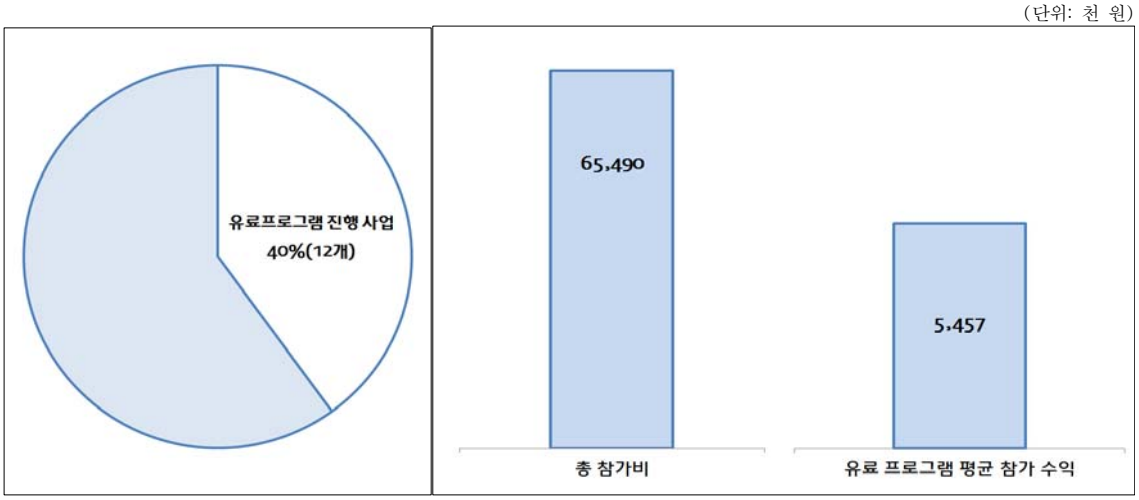
[표 29]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유료 프로그램 참가비 규모

□ 이들 사업들의 총 참가비 금액은 65,489,500원이며 평균 2,425,537원임.

□ 참가비는 2,000원부터 100,000원까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족 단위의 경우에는 150,000원의 참가비를 받기도 함.

□ 참가비 수익은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진행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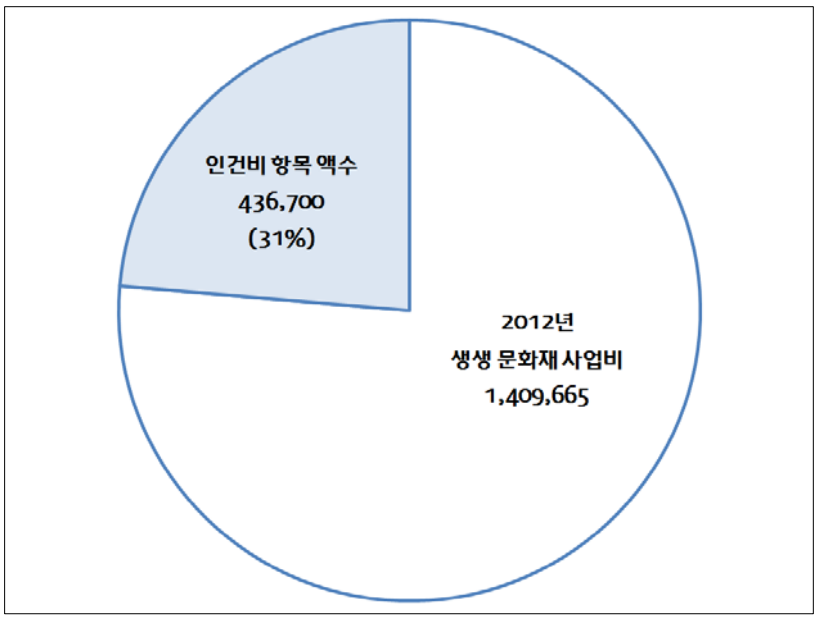
[그림 259] 유료 프로그램 비율 [그림 260]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유료 프로그램 참가 수익 그래프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일자리(인건비) 규모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은 인력의 수는 총 1,964명임. 인건비로 지출된 총 금액은 436,700,400원이며, 이는 전체 사업비[4]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임.

□ 한 사업당 지출된 평균 인건비는 14,556,680원이며, 1인당 인건비 지급 금액은 평균 222,353원임.

(단위: 천 원)



[그림 261]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비의 인건비 비율

4) 사업비=문화재청 국고 지원금 + 지자체 지원금 + 민간단체 자부담금

경제적 파급효과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5]를 활용하여 연구된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6]에 제시된 유발계수들을 근거로 하여 2012년의 생생 문화재 사업의 관광산업 전반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7]

□ 생생 문화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근거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음. [8]

□ 생산 파급효과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수요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 파급효과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것을 지칭하는 경제 용어로, 이 보고서에서는 생생 문화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광 산업 전반의 생산에 미친 영향을 말함.

□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를 통해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 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말함.

생생 문화재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총괄 .

□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은 3,085,688,047원임.

연도	금액	국고 지원금
2008년	126,023,200원	99,153,200원
2009년	200,000,000원	200,000,000원
2010년	500,000,000원	500,000,000원
2011년	850,000,000원	850,000,000원
2012년	1,409,664,847원	849,885,754원
합계	**3,085,688,047원**	**2,499,038,954원**

[표 30]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총 투입 금액

5)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산, 소득, 고용, 취업, 부가가치, 정부조세수입, 수입에 대한 직·간접적 유발승수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도구로, 산업 제품에 대한 1단위 외부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소득, 고용 등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음.(이강욱(2011.2),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이강욱(2011.2),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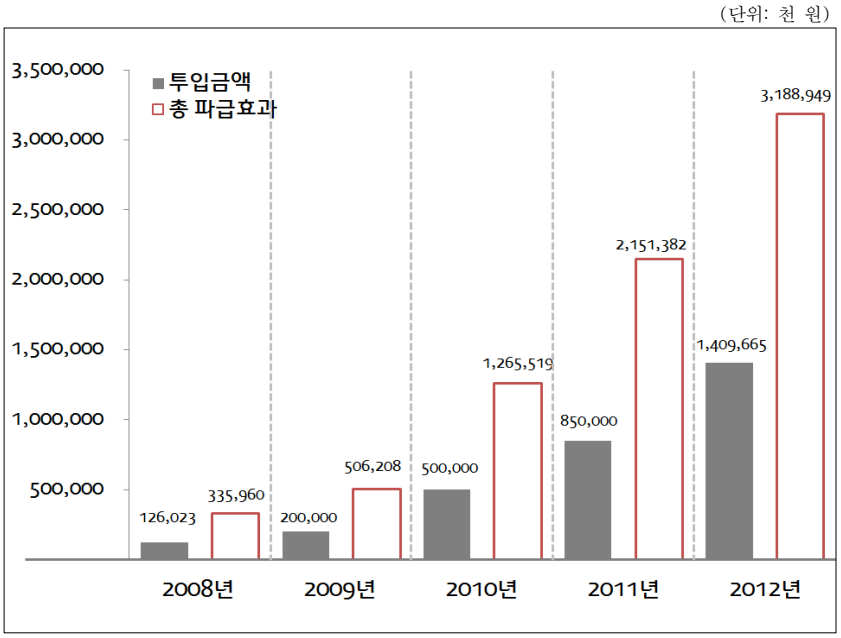
7)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이강욱, 20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산업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관광산업의 분류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표를 연구한 보고서로, 생생 문화재 사업과 가장 유사한 기준으로 지표를 구성하였기에 참고함. 정확한 경제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후에 생생 문화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8) 자료 확보 상황이 각각 달라 2008년과 2012년은 국고, 지자체 지원금, 수행단체 자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2010년, 2011년의 경우는 국고 지원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총 파급효과는 8,244,582,240원임.

연도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2008년	230,918,258원	104,083,867원	335,002,125원
2009년	367,190,452원	167,301,156원	534,491,608원
2010년	917,976,130원	418,252,889원	1,336,229,020원
2011년	1,560,559,422원	711,029,912원	2,271,589,334원
2012년	2,588,077,363원	1,179,192,791원	3,767,270,154원
합계	**5,664,721,625원**	**2,579,860,615원**	**8,244,582,240원**

[표 31]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총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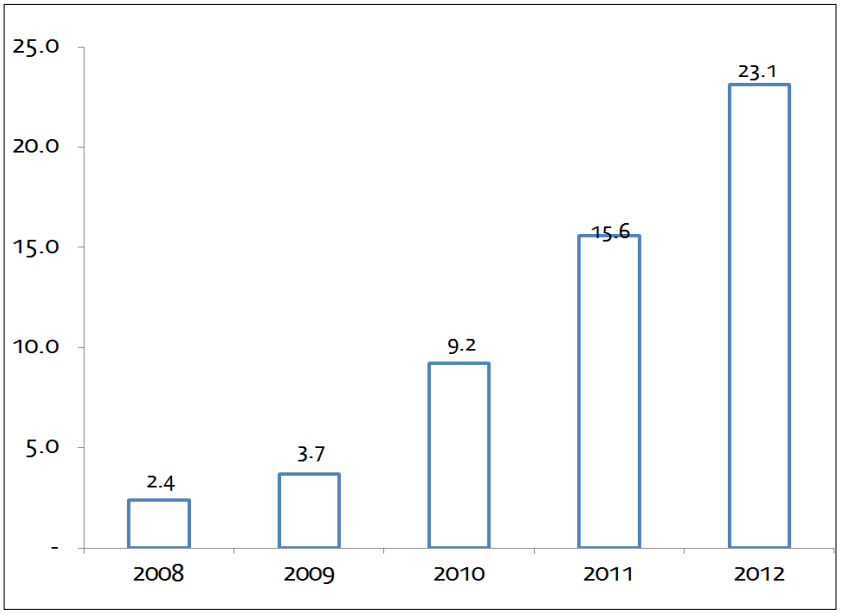
[그림 262] 생생 문화재 사업 투입 금액 대비 총 파급효과 그래프

□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창출된 총 고용 파급효과는 54.0명임.

연도	명 수
2008년	2.4명
2009년	3.7명
2010년	9.2명
2011년	15.6명
2012년	23.1명
합계	**54.0명**

[표 32] 생생 문화재 사업 총 고용 파급효과

(단위: 명)



[그림 263] 생생 문화재 사업 연도별 고용 파급효과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산업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명)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총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문화예술공연(전체)	2,548,392	1,203,572	3,751,964	26.2
인쇄 및 복제업	515,099	191,088	706,187	4.0
도·소매업	344,684	179,156	523,840	3.2
식음료업	138,024	50,450	188,474	2.1
숙박업	37,833	21,145	58,978	0.6
차량임대업	77,487	40,754	118,241	0.9
문화예술공연(부분)	1,474,951	696,600	2,171,551	15.2

[표 26] 문화재 활용 역량 향상 성과 집계표

문화예술공연(전체) 파급효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문화예술공연[9] 전반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9배씩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008년에 비해 11배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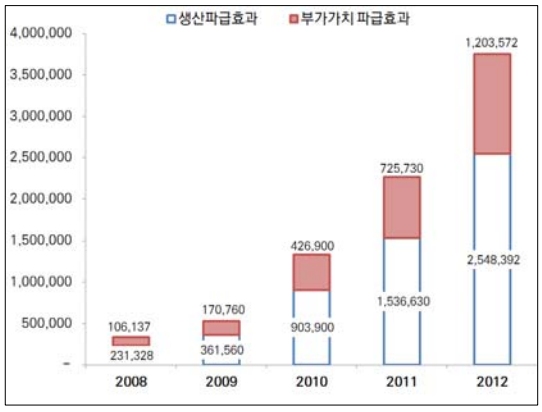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문화예술공연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총 약 55억 8천만 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약 26억 3천만 원임. 총 약 82억 1천4백만 원의 파급 효과가 창출되었음.

□ 생생 문화재 사업의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파급효과 또한 11.9배 증가하였음.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9)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이강욱, 20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부문 분류에 근거하여 문화서비스(국공립, 기타), 영화제작 및 배급, 영화 상영,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이 포함됨.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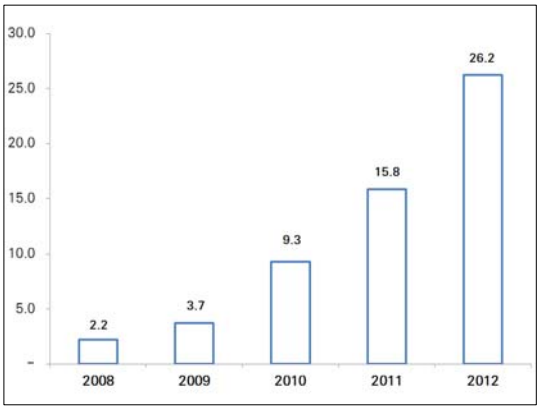
사업의 고용 파급효과는 총 57.3명임.

(단위: 천원)



[그림 264] 문화예술공연(전체)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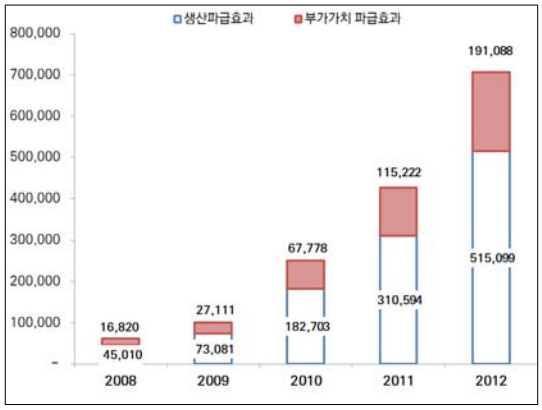


[그림 265] 문화예술공연(전체) 고용 파급효과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쇄 및 복제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차량임대업', '문화예술공연' 등 총 6개의 업종에 대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생산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파급효과, 취업 유발 효과를 분석함.[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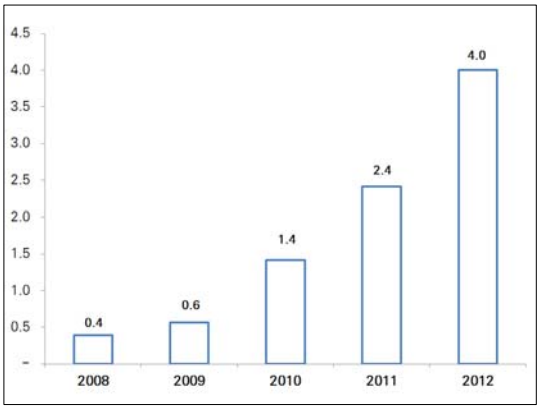
인쇄 및 복제업 파급효과

(단위: 천원)



[그림 266] 인쇄 및 복제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그림 267] 인쇄 및 복제업 고용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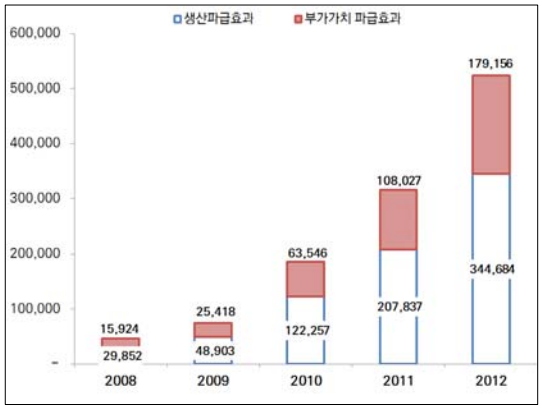
- 인쇄 및 복제업은 생생 문화재 사업 홍보물(엽서, 리플렛, 기념품 제작, 초청장 제작, 현수막 제작 등)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근거로 함.[11]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인쇄 및 복제업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총 1,126,487,439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418,018,994원임. 총 약 1,544,506,433원의 파급 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총 8.8명임.

10)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이강욱, 201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

11) 2008년~2011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출 내역은 2012년 정산 보고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비율에 근거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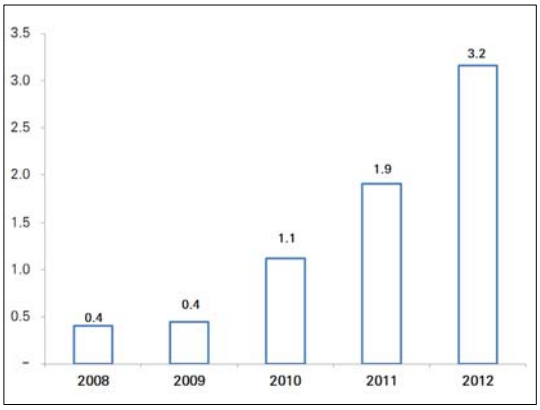
도·소매업 파급효과

(단위: 천원)



[그림 268] 도·소매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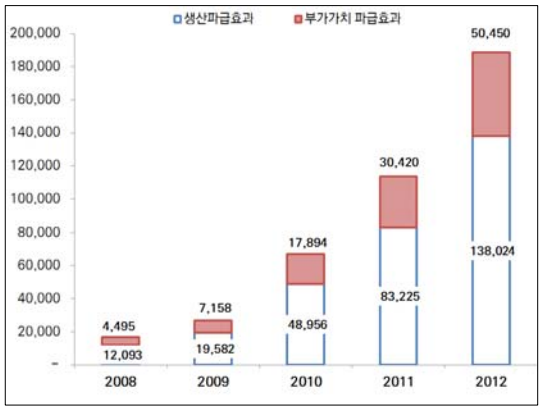


[그림 269] 도·소매업 고용 파급효과

- 도·소매업은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사무 용품, 기념품 등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근거로 함.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도·소매업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총 753,533,765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92,070,333원임. 총 1,145,604,099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총 7.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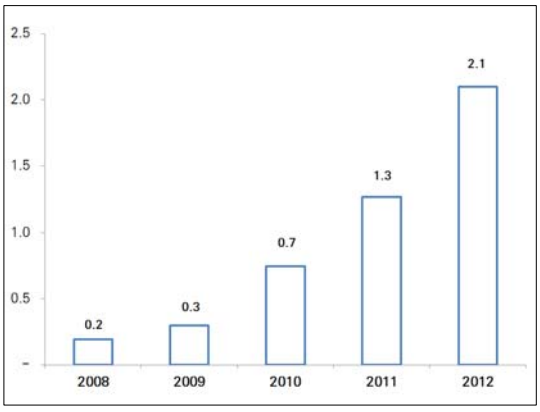
식음료업 파급효과

(단위: 천원)



[그림 270] 식음료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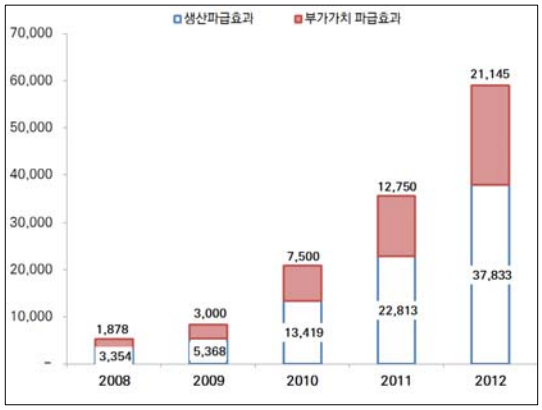


[그림 271] 식음료업 고용 파급효과

- 식음료업은 생생 문화재 사업 진행을 위한 구입한 간식비, 프로그램 진행 시의 식대, 운영을 위한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근거로 함.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식음료업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301,880,899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10.417,425원임. 총 412,298,324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총 4.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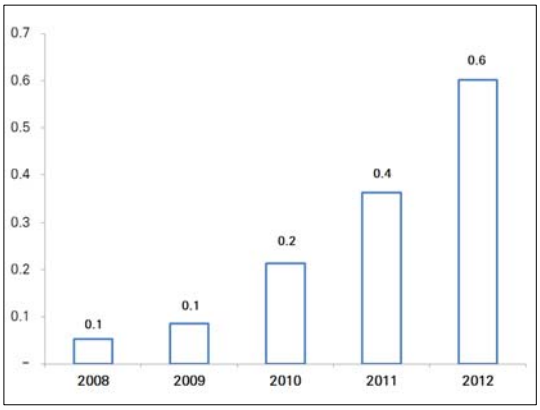
숙박업 파급효과

(단위: 천원)



[그림 272] 숙박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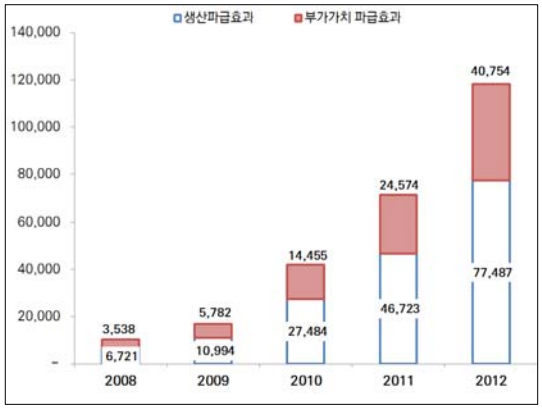


[그림 273] 숙박업 고용 파급효과

- 숙박업은 생생 문화재 사업 중 1박 2일 등 숙박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경우 지출된 민박, 모텔 등의 숙박 비용을 근거로 함.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숙박업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82,786,036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46,273,460원임. 총 129,059,496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1.3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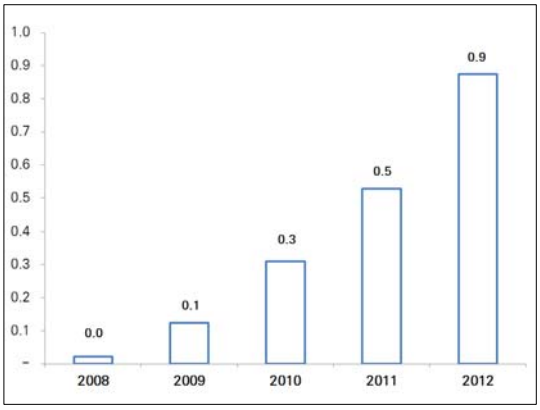
차량임대업 파급효과

(단위: 천원)



[그림 274] 차량임대업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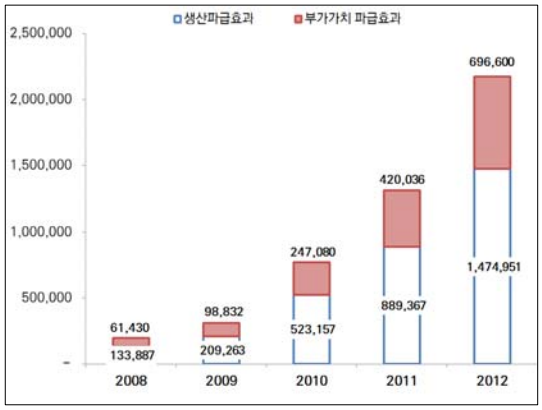


[그림 275] 차량임대업 고용 파급효과

- 차량임대업은 생생 문화재 사업 중 버스나 승용차를 임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에 지출된 차량 임대 비용을 근거로 함.
- 5년 동안 생생 문화재 사업이 차량임대업에 미친 생산 파급효과는 169,408,488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89,102,758원임. 총 258,511,247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1.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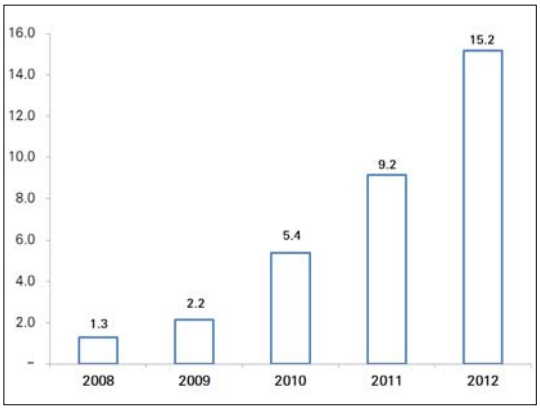
문화예술공연(부분) 파급효과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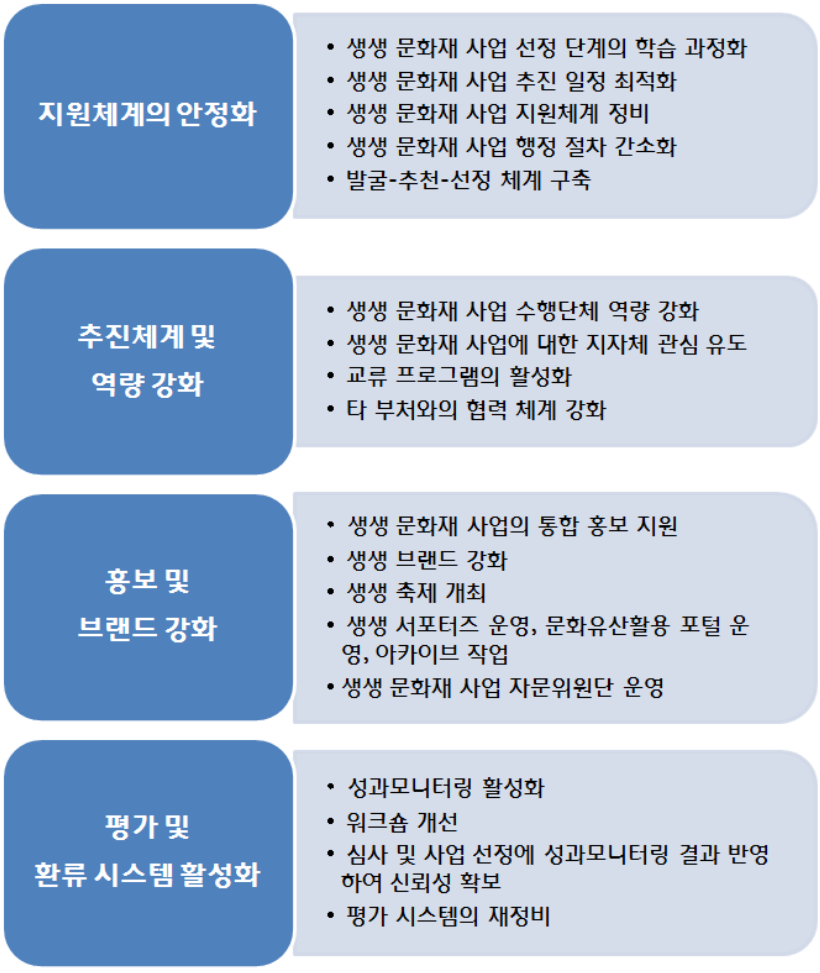
[그림 276] 문화예술공연(부분)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명)



[그림 277] 문화예술공연(부분) 고용 파급효과

- 문화예술공연은 생생 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금액 중 인쇄 및 복제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차량 임대업 등 5개 업종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근거로 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이 5년 동안 문화예술공연에 미친 생산파급효과는 3,230,624,997원이며,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523,977,645원임. 총 4,754,602,642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되었음.
- 고용 파급효과는 33.1명임.



[그림 278] 생생 문화재 사업 발전 제안

1. 지원 체계의 안정화

1)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단계의 학습 과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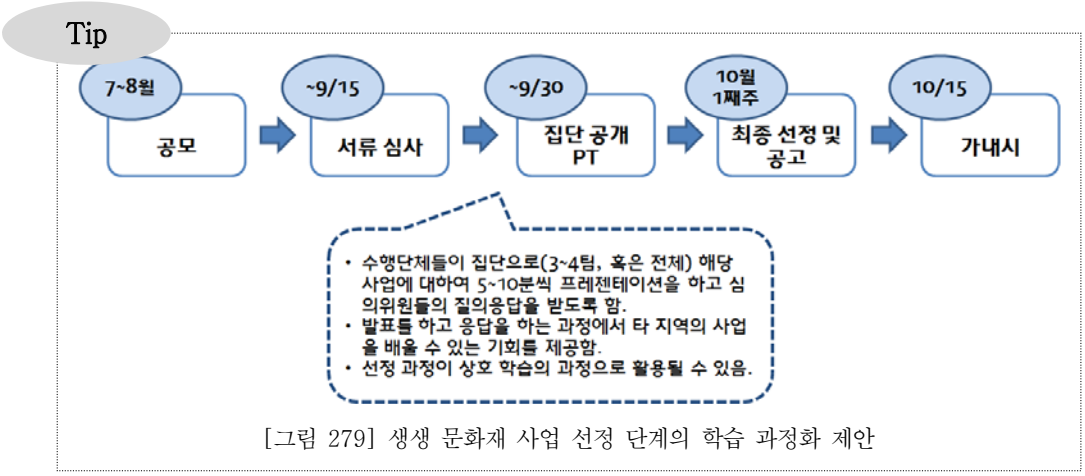
□ 현재 사업 선정에 있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자체와 수행단체들 또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과 탈락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다음 사업에 보완을 할 수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을 위해 전년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 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환류가 필요함.

□ 사업 선정 심의 과정에 서류 심사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및 수행단체를 대상으로 5~10분가량의 인터뷰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실제 실행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심의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신청과 선정 과정이 단체들의 수행역량과 기획역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등의 선정 단계를 제시함.



[그림 279] 생생 문화재 사업 선정 단계의 학습 과정화 제안

2)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일정 최적화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의 신청 및 심사는 2012년 1월, 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2012년 2월, 사업은 2012년 3월부터 시작하도록 공지되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지원금 교부 일정이 늦어지면서 7월이 되어도 예산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역이 있음.

□ 사업 선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예산 교부가 늦어지는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 일정이 모두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교부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함.

3)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체계 정비

□ 현재의 생생 문화재 사업은 연속 지원사업의 경우는 '우수발전사업', 처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시범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의 1년 단위 지원 방식을 세분화하여 사업들의 발전주기에 따른 다년간 지원을 제안함. 사업의 기획 당시 3개년, 혹은 5개년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시행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면 다년간 지원을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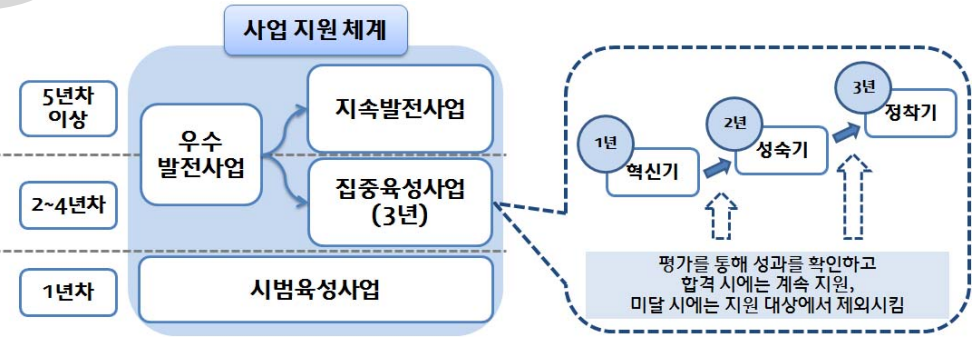
□ 이는 수행단체들이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역의 관심을 만들어가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그와 동시에 다년간의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단체와 지자체의 문화재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임.

□ 정확한 사업 지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우수발전사업', '시범육성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우수발전사업'은 2년~4년 동안 지원 받는 '집중육성사업'과 5년 이상 지원받는 '지속발전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시범육성사업'은 처음 1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을

칭함.

- ‘시범육성사업’의 경우 처음 1년 지원받는 사업을 통칭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연속 지원을 받게 되면 ‘집중육성사업’으로 진입하게 됨.
- ‘집중육성사업’은 다년 선정 심의지원사업으로 매년 각 단계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별, 연차별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 시에는 차년도 계속 지원, 미달 시에는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킴.
- ‘지속발전사업’은 단년 선정 심의지원사업으로 5년차 이상이 되면 매년 심의 선정 단계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 현재 생생 문화재 사업은 사업 지원 5년이 경과하면 ‘졸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라는 ‘인증’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5년차 이상의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우수한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문화관광상품,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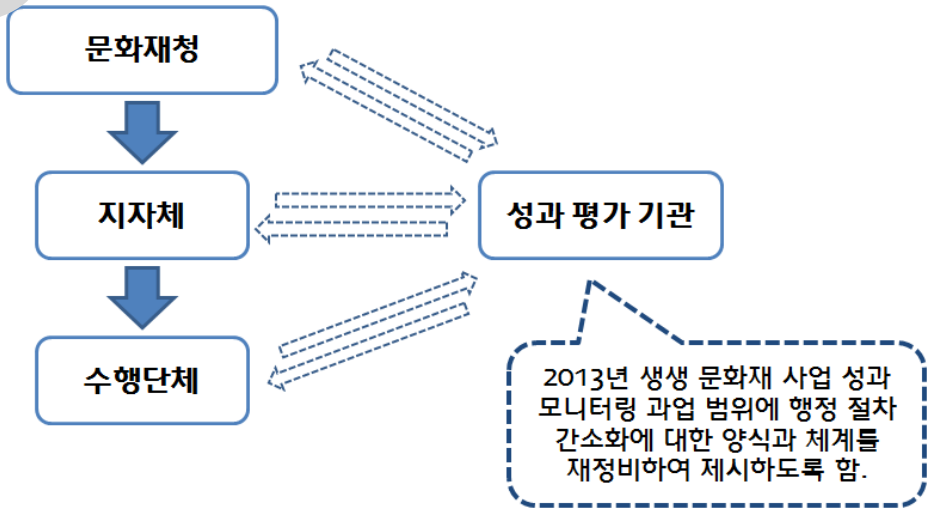


[그림 280] 생생 문화재 사업 지원체계 정비 제안

4) 생생 문화재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 현장모니터링과 지자체 성과지원 보고서 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까지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되면서 수행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의 부담이 많아짐. 또한, 문화재청과 지자체, 성과모니터링 기관에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므로 수행단체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정기적인 보고는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 외의 수행단체들의 성과 기록,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지자체 성과지원보고서는 성과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취합하여 문화재청과 공유하는 등 서류 절차 과정을 체계화하고 최소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과정을 간소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모든 생생 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연락체계는 지자체와 수행단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보가 지자체 단위에서 멈추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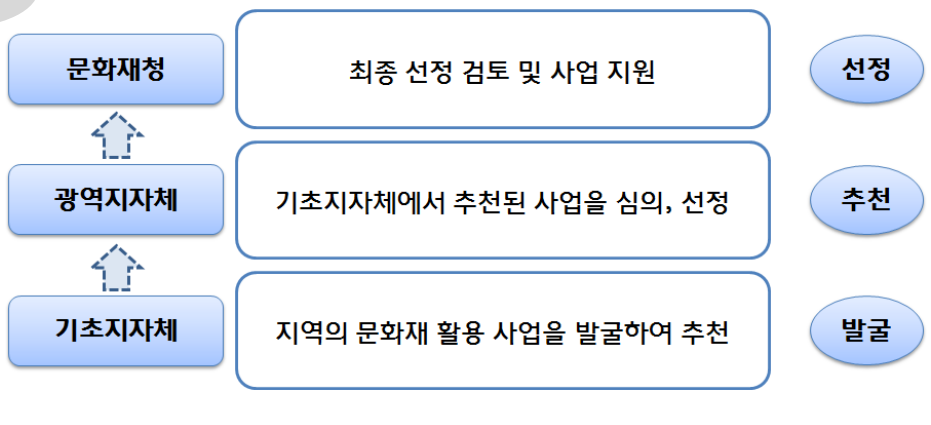
[그림 281] 생생 문화재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예시

5) 발굴-추천-선정 체계 구축

□ 지역의 작은 문화재들을 찾아내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재를 즐기고 활용하며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생 문화재 사업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1 지자체 1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등 지역의 기초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재 활용이 가능한 단체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광역시도는 기초 지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기획력, 단체의 신뢰성, 사업 진행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추천하고, 문화재청은 광역단위에서 추천된 사업들을 선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는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부처간의 생생 문화재 사업 발굴-추천-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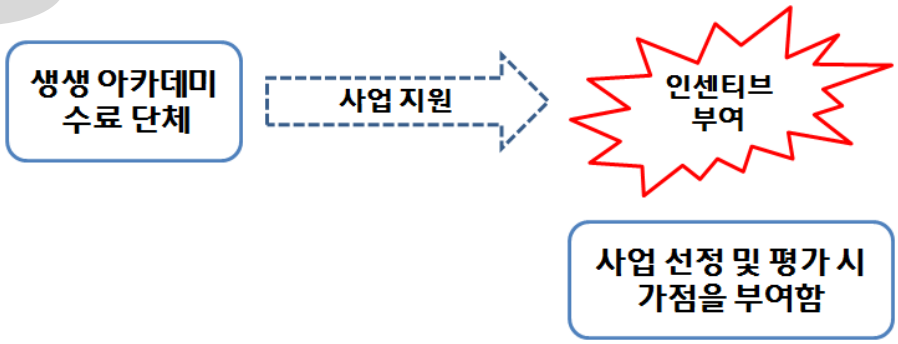
[그림 282] 발굴 - 추천 - 선정 체계 구축

2.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1)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 역량 강화

- 문화재 관련 사업 수행단체들의 기획 역량, 실행 역량이 향상되고 있으나, 단체의 성격이나, 조직 구성 형태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역량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지 못함.
-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 수행단체들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문화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의 문화재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문화유산 경영기획인력 양성아카데미' 교육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 향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는 수행단체들이 '문화유산 경영기획인력 양성아카데미' 의 수준별 과정인 기초 – 심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연계함으로써 기초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업 실행 능력을 갖추고, 심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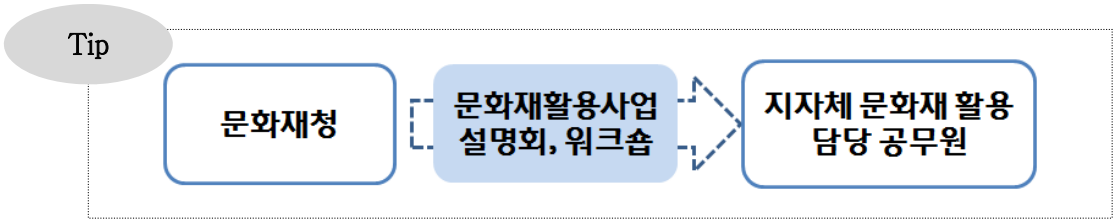
Tip



[그림 283]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 역량 강화 제안

2)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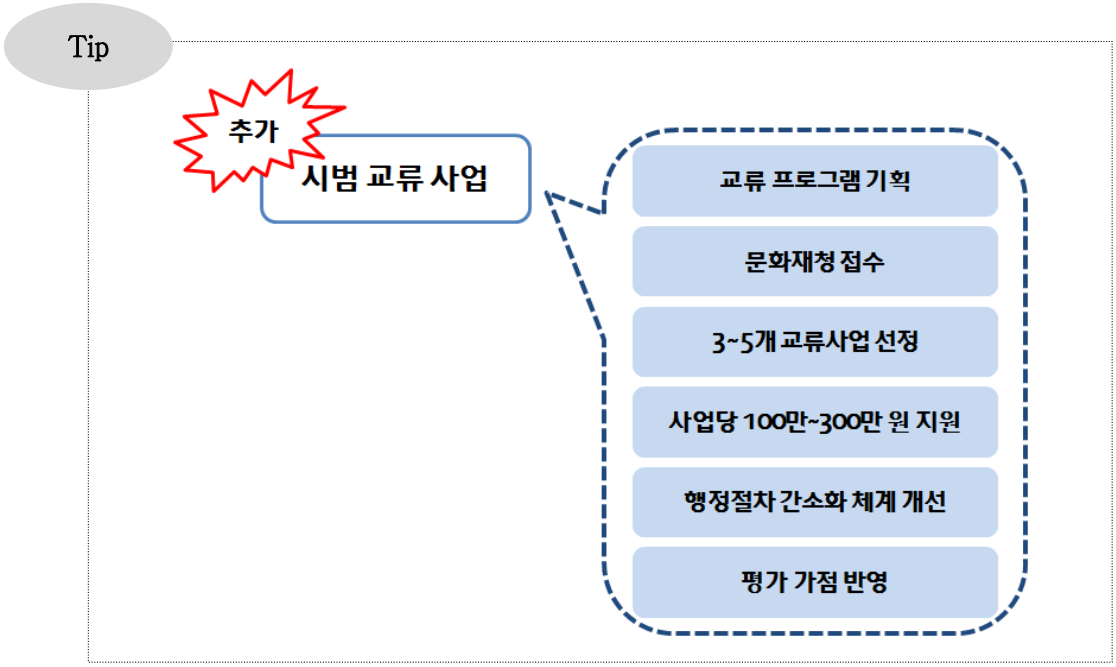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지자체를 통해 수행단체와 연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실제로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의 결과에 지자체의 관심도가 많은 영향을 미쳤음.
-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정의, 문화재 활용사업의 중요성,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된 우수사례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수행 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문화재청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잦은 업무 연락, 상황 공유, 일정 확인 등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림 284]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제안

3)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 2012년 우수한 생생 문화재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전의 산성 프로그램과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 경기 남한산성이 연계하여 진행한 '뚜르 드 산성'사업임. 비슷한 유형의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사업을 기획해 낸 우수사례임.
- 이를 위해서는 유사 유형, 가까운 지역, 혹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화재 활용 간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 시작 초기인 2월~3월 사이에 각 지자체와 수행단체가 모두 모이는 정산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설명회에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서로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맺음으로써 교류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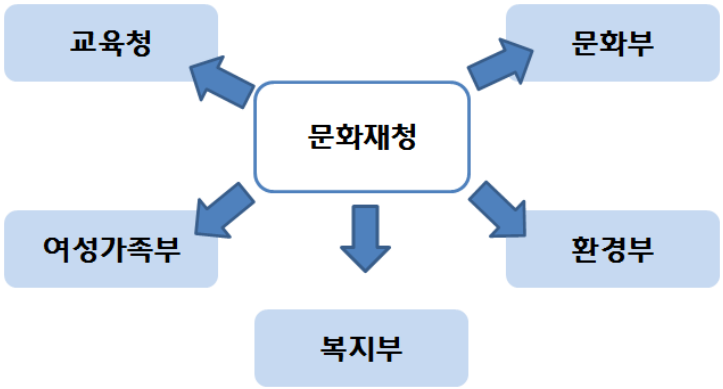


[그림 285]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4)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

-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 유아 교육, 청소년 교육, 사회 복지, 성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임. 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약을 맺어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문화재 활용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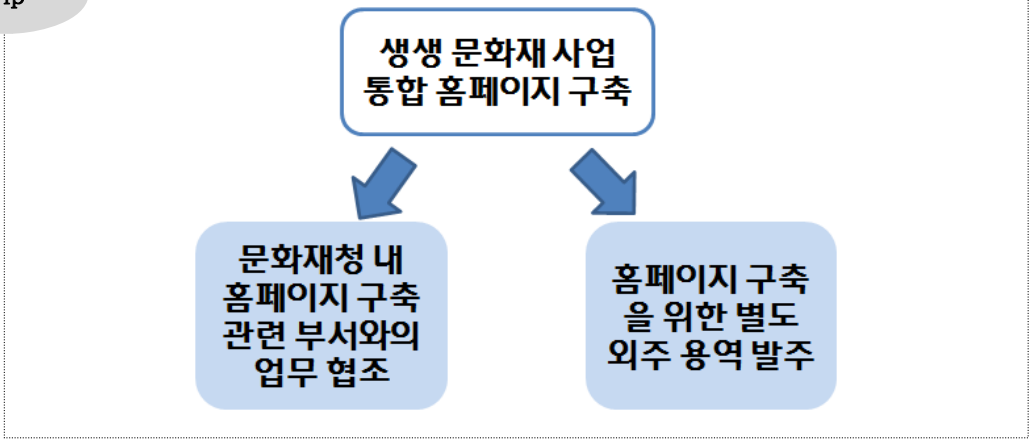
[그림 286]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 예시

3. 홍보 및 브랜드 강화

1)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홍보 지원

-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홍보와 모객임.
- 2012년 문화재청에서 생생 문화재 사업 통합 웹페이지를 구성했으나,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소개에 치우쳐,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미하였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을 위한 별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들이 직접 해당 사업에 대한 사진자료와 홍보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아카이브 역할과 동시에 사업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모바일 웹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또한 제안함.

Tip



[그림 287]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홈페이지 지원 제안

- 장기적으로는 통합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이 전국의 생생 문화재 사업 프로그램들을 확인, 신청,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예. 문화재 생생 체험 국민 포털)
- 홈페이지에는 생생 문화재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정보, 질문과 답변, 후기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 통합 채널로서 수요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수행 단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월간 문화재 등의 홍보물에 매달 진행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SNS, 헤리티지 채널 등을 통해서도 생생 문화재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부터 문화재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생생 문화재 사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음.

Tip



[그림 288]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홈페이지 운영 예시

Tip



▲ 월간 문화재사랑



▲ 문화재청 뉴스레터



▲ 문화재청 Facebook 페이지



▲ 문화재청 블로그

[그림 289] 생생 문화재 사업의 통합 홍보 지원 제안

2) 생생 브랜드 강화

- 생생 문화재 사업이 자체 CI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 시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을 위한 '생생 브랜드'를 구축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 수행단체들이 각종 홍보물, 기념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BI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생생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는 요원들이 통일해서 입을 수 있는 생생 조끼, 생생 문화재 사업 참가자만 받을 수 있는 생생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생생 브랜드가 문화재 활용의 가치를 담고 전파될 수 있도록 브랜드 활용성을 확대하여야 함.
- 생생 문화재 사업을 졸업했거나, 여러 차례 우수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함.

Tip



[그림 290] 생생 브랜드 강화 -우수 프로그램 인증 예시

3) 생생 축제 개최

- '생생 축제', '생생 페어'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지원금으로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홍보물 전시, 프로그램 시연, 진행사항 보고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 번, 생생 문화재 사업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함. 이는 문화재 활용사업들의 사례들이 모이는 자리이자, 단체 간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문화재 활용의 외연을 넓혀 문화, 예술,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축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논의 후 사업 검토, 사업 방향 등을 수립함.

4) 생생 서포터즈 운영, 문화유산활용 포털 운영, 아카이브 작업

- 자원봉사제, 블로그 기자단 등을 도입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 서포터즈를 운영함. 이는 지역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풀을 제공함. 또한, 이들이 참여한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하여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의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음.
- 생생 문화재 사업 뿐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활용 포털'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2008년부터 진행된 생생 문화재 사업의 수행단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진행 이미지, 영상, 교구, 홍보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생생 문화재 사업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활용 백서의 출판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5) 생생 문화재 사업 자문위원단 운영

□ 문화재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기획 전문가 등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정례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문위원단 회의는 선정심사 단계, 평가 단계, 차년도 계획 수립 단계에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있음.

5. 평가 및 환류 시스템 활성화

1) 성과모니터링 활성화

- 생생 문화재 사업의 현장모니터링 전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사업의 수가 많아지고, 사업들이 하반기의 일정 시기에 몰려서 진행될 경우 현장모니터링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 업체 선정을 생생 문화재 사업 초기에 진행하여 생생 문화재 사업과 현장모니터링의 진행이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1회 사업만 보고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어 사업별 최소 2회는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기 다른 2명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교차 평가가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당해 연도 생생 문화재 사업 초기(3월 이전)에 성과모니터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초기부터 생생 문화재 사업의 일정에 맞게 모니터링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함.

2) 워크숍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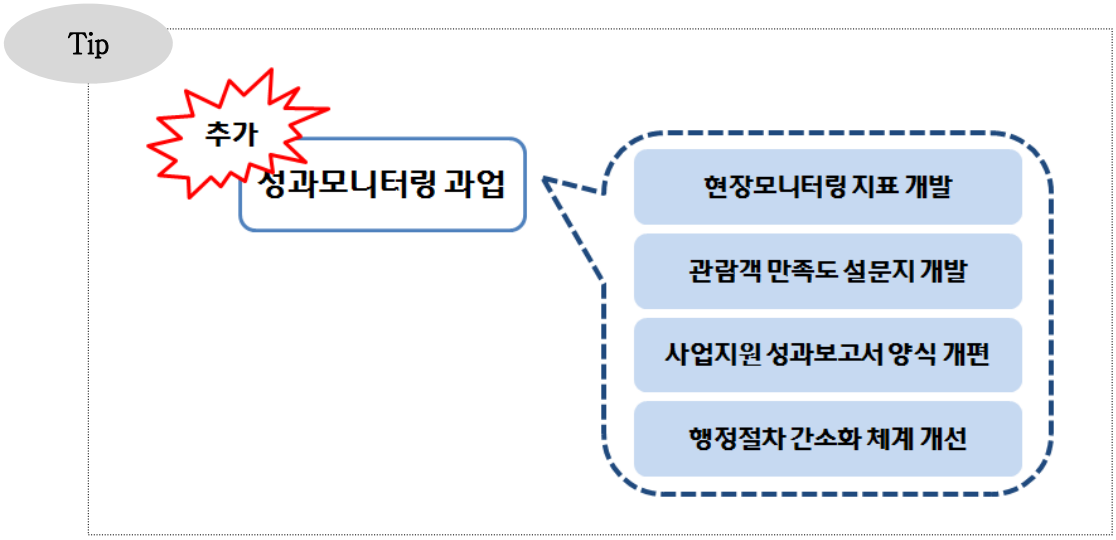
- 현재 추진되는 워크숍은 사업 개시 전에 평가 지표와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워크숍과,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워크숍 2회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워크숍 주제와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권역별, 혹은 주제별로 워크숍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워크숍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2회로 진행하되 형식적인 발표 위주보다는 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례들의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는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3) 심사 및 사업 선정에 성과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신뢰성 확보

- 2013년 사업 신청이 2012년 7월부터 진행됨에 따라 2012년 사업이 종료가 되기 전, 성과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2012년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이미 고지가 되어 버림.
- 다음해 사업 선정에 전년도 사업 성과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생 문화재 사업 성과모니터링이 적절한 권위를 가지기 어려워짐.
- 성과모니터링 기관 선정을 빨리 진행하고, 워크숍 일시와 현장 모니터링 일시 등을 협의하여 다음해 사업 선정에 전년도 사업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성과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 기획부터 운영, 결과 정리까지 그 해 주요 쟁점과 사안에 따라 훌륭한 사업들과,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주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함.
- 지자체의 매칭 비율, 추가 예산 확보 노력 정도를 당해 연도 사업 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하는 것을 제안함.

4) 평가 시스템의 재정비

- 현장모니터링 70%, 지자체 성과보고서 20%, 관람객 설문조사 10%로 진행되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과 생생 문화재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현장모니터링 지표를 재점검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여부, 사업의 개선 및 발전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함.
- 사업의 특성별, 문화재 유형별로 관람객 설문 조사지를 점검하고 개발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특성과 만족도를 최대한 근접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관람객 설문조사지 역시 점검의 필요가 있음.
- 또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지자체 성과지원 보고서 양식 또한 전면 수정하여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들, 수행단체의 실질적인 성과 기록(참가비, 참가객 수, 프로그램 진행 일 수, 일용직 수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양식 개편이 필요함. 더불어 보고서 양식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성과지원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91] 평가 시스템의 재정비 제안

제7장

부 록

제1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목록

제2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세부 사항

제3절 :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주소록

제1절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대상 문화재 목록[12] (가나다 순)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안심사판 제진언집] (강원유형문화재 1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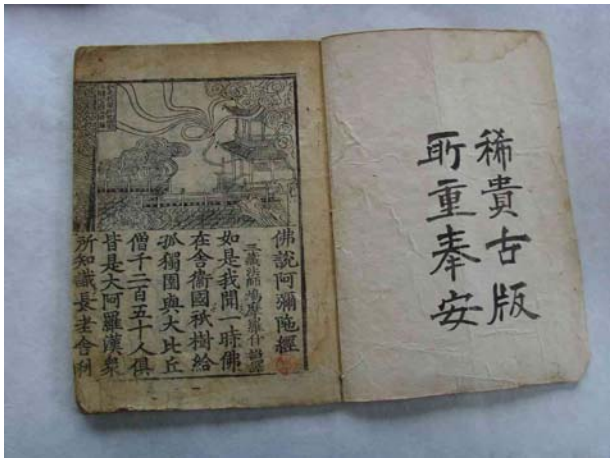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안심사판제진언집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安心寺版 諸眞言集)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안심사판 제진언집은 선조 2년(1569)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밀교가 우리나라 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필수 있는 참고자료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국문표기법과 한글 자모의 용법을 설명한 권수부분과 범자를 한글로 설명한 실담장은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2)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강원유형문화재 152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덕주사판불설아미타경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德周寺版 佛說阿彌陀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08.05.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은 선조 5년(1572) 충주 월악산 덕주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표지는 개장되었으나 도판과 판의 양식이 고려판을 답습하고 있는 등 당시의 서예·판화사·미술사의 양식변천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강원유형문화재 153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3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용천사판불설아미타경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龍泉寺版 佛說阿彌陀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은 선조 10년(1577) 담양 용천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표지는 개장되었으나 선조 5년(1572)에 간행된 덕주사판에 비해 도판이 간략해지고 설명부분이 음각 처리되는 등 당시의 서예·판화사·미술사의 양식변천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안심사판 옥추보경] (강원유형문화재 154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안심사판옥추경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安心寺版 玉樞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안심사판 옥추경은 선조 3년(1570)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표지를 새로하고 전체적으로 배접되어 있으나 권수의 판화가 정교하며, 권말에 시주자・각수・교정자 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등 당시 목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만연사판 중간진언집] (강원문화재자료 146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문화재자료 146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만연사중간진언집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萬淵寺重刊 眞言集)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상·하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만연사중간 진언집은 정조 1년(1777) 전남 화순의 만연사에서 중간한 목판본으로, 독특한 국문표기법을 비롯하여 한글 자모의 용법을 설명한 언본과 범자가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등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불정심다라니경] (강원문화재자료 147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불정심다라니경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佛頂心多羅尼經)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수량/면적	상·중·하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정심다라니경은 성종 때 인수대비가 성종의 장수를 위해 간행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새겨 찍은 불정심다라니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판화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말의 간기나 관련 기록은 없으나 성종 때 간행본의 16세기 번각본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강원문화재자료 148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문화재자료 148호
명 칭	원주고판화박물관소장예념미타도량참법 (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禮念彌陀道場懺法)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수량/면적	5권 1책(冊)
지정(등록)일	2008. 05. 09
소재지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706-6 원주 고판화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관리자(관리단체)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상길)
소 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성종 5년(1474) 간행한 원본에 비해 후에 인쇄된 것이나 오래된 고판으로 목판 인쇄기술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강원 원주시/원주매지농악보존회

[원주매지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
명 칭	원주매지농악 (原州梅芝農樂)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지정(등록)일	2006. 01. 06
소재지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802
관리자(관리단체)	원주매지농악보존회
소 개	회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원주매지농악은 원주권과 영서 이남의 전형적인 형태의 가락과 진풀이를 가지고 있다. 가락의 종류는 모듬굿, 질굿, 긴질굿(칠채), 교환굿(품앗이장단), 덩더궁이, 자진가락, 꽃나비장단, 뚜루세 뚜루세 물구녕 뚜루세, 아랫마당 윗마당 정첨지 뱃가죽, 인사굿 등 상쇠의 가락이 다양하고 마을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농악과 두레농악이 결합된 형태이다.

[횡성회다지소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구분	내용
종 목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명 칭	횡성회다지소리 (橫城회다지소리)
지정(등록)일	1984. 12. 28
소재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 정금리 849-12
소 개	민요는 백성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불러지는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직업·풍속·놀이 등을 기능으로 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의 취향 또는 즉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다지소리는 장례행사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灰)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으로 시작되어 점차 빨라지며 후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메나리조로 변화되어 간다. 회다지소리는 선후창(先後唱)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주(喪主)의 슬픔을 달래주는 한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을 돋게 한다. 우리 조상들은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갖고 있어 상여소리·회다지소리에 해학적인 가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횡성회다지소리는 독특한 기능민요로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예능보유자 양중하 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회다지 소리는 장례행사(葬禮行事) 중에서 망자(亡者)를 금정(金井)에 묻고 묘(墓)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역자(山役者)들이 회(灰)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로 율동(律動)이 곁들여 있다. 옛부터 우리 조상(祖上)들은 극락왕생(極樂往生)의 내세관(來世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검 앞에 초연할 수 있었고 장수한 노인의 죽음을 호상이라 하고 장례(葬禮)는 망인을 환송하는 뜻에서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에 해학(諧謔)적인 가사(歌詞)를 포함했다. 회다지 소리는 처음엔 느린가락으로 시작하여 점차 빨라지며 뒤에는 산역(山役)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횡성지방의 메나리조로 변화되어 간다. 회를 다지는 인원은 8명이 한조가 되나 금정(金井)안에 들어가 회를 다지는 사람은 6명으로 2명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 있는 두사람과 교대로 들어가 역사한다. 소리는 선소리를 메기는 사람이 따로 밖에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 "... 에헤라 달회야" 하는 후렴(後斂)을 받는다. 이와 같은 회다지소리는 상주(喪主)의 슬픔을 달래주는 한편 산역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게 한다.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경기 고양시/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162호
명 칭	북한산성 (北漢山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494,516㎡
지정(등록)일	1968. 12. 05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외 서울 은평구,성북구,강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서울시, 고양시
소 개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세워진 곳으로,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현종이 고려 태조의 관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우왕 13년(1387)에 성을 다시 고쳐지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도성 외곽을 고쳐짓자는 의견이 일어나 숙종 37년(1711)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지었다. 성의 규모는 대서문, 동서문, 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불을 피우던 곳으로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가 있었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으로 여장은 허물어 졌고, 대서문과 장대지·우물터·건물터로 생각되는 방어시설 일부가 남아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지키는 중요한 곳이었다.

[군포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



구분	내용
종 목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
명 칭	군포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 (軍浦東來鄭氏東來君派宗宅)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1곽
지정(등록)일	2000. 04. 11
소재지	경기 군포시 속달동 24-4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정운석
관리자(관리단체)	정준수
소 개	동래 정씨 동래군파의 종가이다. 가옥 안채는 조선 정조 7년(1783)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며, 사랑채는 고종 14년(1877)에 지은 것이다. 현재 건물은 안채, 사랑채, 작은사랑채, 문간채, 행랑채가 남아 있다. 사랑채는 앞면 5칸으로 왼쪽부터 방 1칸·사랑방 2칸·마루방·행사청 순으로 되어 있어 평면 분할이 독특하다. 작은사랑채는 앞면 3칸으로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다. 문간채는 앞면 3칸으로 대문·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에 5칸을 더 지어 안채의 폐쇄성을 높여 주었다. 행랑채는 수해 때문에 가운데 칸이 무너져 있다.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경기 군포시/(사)전국귀농운동본부

[정란종선생 묘 및 신도비외 묘역 일원] (경기도 기념물 제115호)



구분	내용
종 목	경기도 기념물 제115호
명 칭	정란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 (鄭蘭宗先生墓및神道碑外墓域一圓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무덤/ 기타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89. 06. 01
소재지	경기 군포시 속달동 산3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동래정씨종친회
관리자(관리단체)	동래정씨종친회
소 개	조선 전기의 문신 허백당 정란종(1433~1489) 선생과 그의 두 아들 광보(1457~1524), 광필(1462~1538)의 묘지이다. 정란종은 세조 2년(1456)에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467년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호조참판에 올랐다. 사신으로 여러 차례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던 그는 훈구파의 중진인사로 성리학에 밝았으며, 특히 서예에 일가견이 있었고 글씨도 잘 썼다. 정광필은 성종 23년(1492) 과거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있으면서 『성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중종 5년(1510) 전라도 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묘역은 견불산의 능선 중앙에 정란종 선생의 묘가 있고, 그 위로 장남인 광보, 차남인 광필의 묘가 차례로 있다. 모두 부인과의 합장묘이고, 봉분이 2개씩인 쌍분 형태이다. 정란종의 묘는 부인 완산 이씨와의 합장묘이며, 묘 앞에는 성종 20년(1489)에 세운 선생의 묘비와 성종 17년(1487)에 세운 부인의 묘비가 있다. 묘역 앞에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상석(床石)이 있고, 그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든 돌로 된 장명등(長明燈)이 있다. 묘역 좌우에 크기가 다른 문인석 2쌍이 있고, 묘역 아래에는 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가에 세우던 신도비가 있는데, 남곤이 글을 지어 중종 20년(1525)에 세운 것이다. 정광보의 묘 역시 부인 전의 이씨와의 합장묘이며, 묘 앞에 묘비, 상석이 있고 상석 좌우로는 동자상이 1쌍 있다.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고, 장명등 좌우로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있다. 정광필의 묘도 부인 은율 송씨와의 합장묘이며,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이 있고 상석 앞에 장명등이 있다.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 1쌍이 있으며, 묘역 좌측 아래에는 소세양이 글을 짓고 이황이 글씨를 써서 명종 17년(1562)에 세운 신도비가 있다.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57호
명 칭	남한산성 (南漢山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
수량/면적	598,195㎡
지정(등록)일	1963. 02. 21
소재지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
소 개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임.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에 주장성(晝長城), 일명 일장성(日長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보임. 고려시대의 기록은 없으나 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일장산성이라 기록되어 있음.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갖춘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인조 2년(1624)임.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왕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는데, 강화가 함락되고 양식이 부족하여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함. 그 뒤 계속적인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름.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동·서·남문루와 장대·돈대·보 등의 방어시설과 비밀통로인 암문, 우물, 관아, 군사훈련시설 등이 있음. 이곳에는 백제 전기의 유적이 많이 있어 일찍부터 백제 온조왕 때의 성으로도 알려져 옴. 남한산성은 각종 시설이 잘 정비되어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시설이 잘 정비된 곳으로 손꼽힘.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경기도/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행궁] (사적 제480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80호
명 칭	남한산성 행궁(南漢山城 行宮)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궁궐·관아/ 궁궐
수량/면적	19,256㎡
지정(등록)일	2007. 06. 08
소재지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일원(산성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
소 개	남한산성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른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행궁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또한,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로서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행궁은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상궐, 좌전이 복원되었으며,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양의 유물이 출토된 중요한 유적임.

[남한산성행궁] (사적 제480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80호
명 칭	남한산성 행궁(南漢山城 行宮)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궁궐·관아/ 궁궐
수량/면적	19,256㎡
지정(등록)일	2007. 06. 08
소재지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4-29, 외 일원(산성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재)경기문화재단
소 개	남한산성행궁은 정무시설은 물론 다르 행궁에 없는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행궁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또한, 역사적으로 한번도 함락되지 않은 대외 항전의 전적지로서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기술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사적제57호)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행궁은 1999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상궐, 좌전이 복원되었으며, 일부 건물지에서 초대형 기와 등 다양의 유물이 출토된 중요한 유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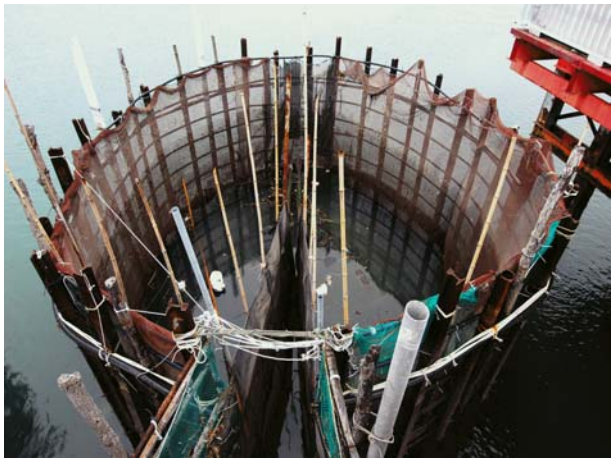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록문화재 제78호)



구분	내용
종 목	등록문화재 제78호
명 칭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京義線 長湍驛 蒸氣機關車)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기관차화통 1식 길이 15m,폭 3.5m, 높이 4m
지정(등록)일	2004. 02. 06
소재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문화재청
관리자(관리단체)	경기관광공사
소 개	이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개성역에서 황해도 한포역까지 올라갔다 전세가 악화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1950.12.31 밤늦게 경의선 장단역에서 피폭되어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선 증기기관차임. 검붉게 녹슬고 부식된 채로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문화재청은 이를 남북분단의 뼈아픈 역사적 상징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였음.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명승 제71호)



구분	내용
종 목	명승 제71호
명 칭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남해 지족해협 竹防簾)
분 류	자연유산 / 명승
수량/면적	5,370,785㎡
지정(등록)일	2010. 08. 18
소재지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남해군
소 개	지족해협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으로, 멸치를 대표어종으로 하는 이 일대의 어로작업은 '죽방렴' 으로 불리는 고유한 어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소의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죽방렴이란 명칭은 대나무 발 그물을 세워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물살이 빠른 바다에 사는 고기는 탄력성이 높아 그 맛이 뛰어나다.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발굴 체험하기] 경남 하동군/교육문화공동체 결

[하동송림] (천연기념물 제445호)



구분	내용
종 목	천연기념물 제445호
명 칭	하동송림 (河東松林)
분 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생물상
수량/면적	약900여주/50,331㎡(지정구역), 21,874㎡(보호구역)
지정(등록)일	2005. 02. 18
소재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소유자(소유단체)	국유,공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경남 하동군
소 개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 21년(1745) 당시 도호부사였던 전천상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심었던 소나무숲으로, 모두 750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노송의 나무껍질은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져 있어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철갑옷을 연상케 한다. 숲 안에는 활을 쏘는 장소인 하상정(河上亭)이 있어 궁사들의 단련장이 되고 있다. 하동송림은 오늘날 국내 제일가는 노송숲으로 넓은 백사장과 맑은 섬진강물이 어우러진 경치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하동읍성] (사적 제453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53호
명 칭	하동읍성 (河東邑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지
수량/면적	123,018㎡
지정(등록)일	2004. 05. 31
소재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일원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공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하동군
소 개	하동읍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에 축성된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연해읍성(沿海邑城)의 하나로서, 일명 고현성(古縣城)이라 하며, 해발 149m의 양경산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전기 산상(山上)에 축조된 산성에 가까운 포곡식 석축성으로서 그 구조나 축조수법이 조선전기 연해읍성과 관방성의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평지성(平地城)과 평산성(平山城)과는 달리 산성에 가깝고 축성신도(築城新圖) 반포 이전에 초축된 성에서부터 세종연간과 그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축성양식을 단일성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성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동읍성이 위치한 고전면 고하리는 삼한시대의 변한 12국 중 낙노국(樂奴國)에 속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가야에 속하여 대외교섭상의 위치에 있어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가야가 멸망하고 백제의 세력권에 들면서 다사성(多沙城)이라 하였으며, 신라 통일 후 한다사군(韓多沙郡)이라 하여 읍기(邑基)를 고하에 둔 이래 고려, 조선조에 걸쳐 읍기였다. 1593년 임진왜란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군대에 의해 성이 함락되어 객사, 관아, 향교 등이 불타버려 1661년에 횡포촌 내기동으로 관아를 이전하였다. 1667년에 다시 성내로 관아를 이전하기도 하였으나, 1703년 진답면 우동(비파리 우치동)으로 이읍(移邑)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둘레 1,019척, 높이 13척으로 성안에 우물 5개, 연못 1개가 있었다고 하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여장의 높이가 3척, 적대(敵臺)가 11개, 원아축 4문, 옹성이 3개로 성은 높으나 협소하여 전시에 방비하기가 힘들다고 적고 있다. 문종연간의 기록을 보면 주위가 2,943척, 높이가 평지는 8척, 높고 험한 곳은 7척이며, 여장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가 11개소로 이미 쌓은 것이 4개소이며, 문이 3개소에 옹성이 있고, 여장이 588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 못이 1개소, 해자는 미착이라고 되어 있다. 읍성의 주변으로는 해발 150~300m 내외의 산줄기가 뻗어 있으며, 산줄기에서 동향 혹은 동남향하여 뻗은 50m 내외의 능선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성내는 작은 곡부(谷部)를 이루고 있어 물은 대부분 남서쪽의 남문터 주변에 집중되어 동쪽으로 흘러 남서방향으로 배수되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잔존둘레는 1,400m이고, 폭 4.5m이며, 잔존 최고높이는 5.2m 정도의 규모이고, 동·서·남쪽 체성 중간에는 옹성을 두른 문지와 그 좌우 및 성 모퉁이에 방대상(方臺狀)의 치성을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다시 해자를 두었으며, 해자와 나란하게 양마장(羊馬墻)을 두른 구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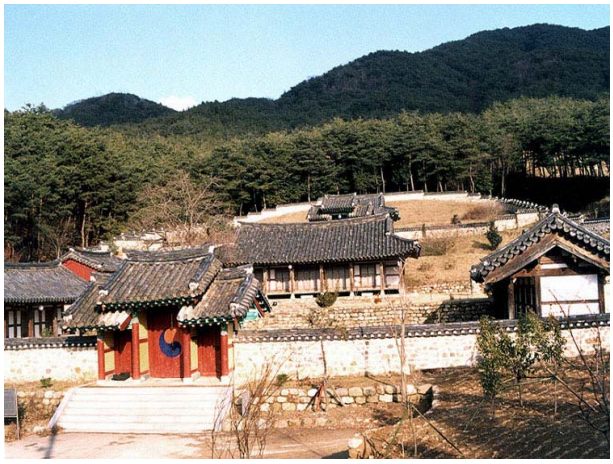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경북 경산시/한빛문화재연구원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제516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516호
명 칭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慶山 林堂洞과 造永洞 古墳群)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무덤/ 고분군
수량/면적	60,260㎡
지정(등록)일	2011. 07. 28
소재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38필지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경산시
소 개	경산시 임당동의 고분군은 경산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임당동 2호 고분에서 고리큰칼[環頭大刀] ·금귀걸이 ·은제허리띠 등이 도굴되어 국외로 팔려가다가 당국에 적발되면서 세상에 알려려졌다. 영남대학 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결과, 옹관 2개를 포함하여 모두 15개 무덤이 확인되었다. 무덤은 으뜸덧널[主槨]과 딸린덧널[副槨]로 이루어 졌는데, 으뜸덧널에서는 금동관(金銅冠) 조각, 순금제 귀고리, 금동제의 귀고리 ·신발 ·고리큰칼 ·호록, 철제 큰칼, 철모, 삼지창, 각종 토기, 인골 등이, 딸린덧널에서는 일상도구 ·음식그릇 등 모두 약 2천 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고분 주인공이 지배자의 신분임을 나타내며, 그때의 사회 ·문화 ·경제 ·기술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있는 고대의 압독국(押督國:押梁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경산시 중앙에는 원래 압독국의 수도인 압량면(押梁面)이 있고, 이 고분의 위치도 압량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신라와 가야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유물 및 묘의 구조로 보아, 당시 문화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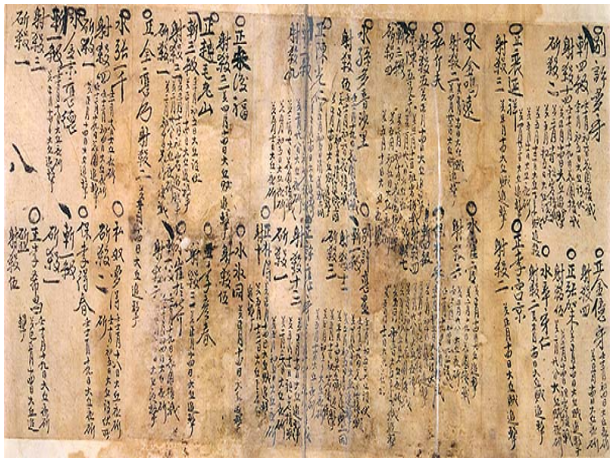
[빙월당] (시지정기념물 제9호)



구분	내용
종 목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
명 칭	빙월당 (氷月堂)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사우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79. 08. 03
소재지	광주 광산구 광산동 452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기세택
소 개	조선 전기의 문신인 기대승(1527~1572)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선생은 성리학의 대가로 새 학설을 제시하여 학계에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스승인 이황 선생과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8년 간의 서신왕래는 너무나 유명하다. 원래 이곳은 기대승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박상·박순·김장생·김집 등 조선의 명신들을 함께 배향하고 있는 '월봉서원'의 강당이었다. 월봉서원은 그가 죽은 뒤 그를 추모하기 위해 큰아들인 기효승이 선조 11년(1578) 세운 것으로 정조가 '빙월당'이라 이름을 지어 내렸다. 앞면 7칸·옆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이며 앞면과 오른쪽 반 칸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1980년 새로 세운 사당과 그의 저서를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 내·외삼문이 높다란 대지 위에 서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서울 동작구/(주)우리가만드는미래

[화원우배선의병진 관련자료] (보물 제1334호)



구분	내용
종 목	보물 제1334호
명 칭	화원 우배선 의병진 관련자료 (花園 禹拜善 義兵陳 關聯資料)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문서류/ 문서류
수량/면적	일괄(4종 15점)
지정(등록)일	2002. 01. 02
소재지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38, 월곡박물관 외 (상인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단양우씨열락당종중, 우국일
관리자(관리단체)	단양우씨열락당종중, 우국일
소 개	조선 중기의 의병장·문신인 월곡 우배선(1569~1620) 장군의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우배선은 성주 화원현에서 태어나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화원과 대구 일원을 중심으로 왜군과 싸워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조정으로부터 의병활동의 포상으로 합천군수 등 여러 관직을 지냈으며 또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화원 우배선 의병진 군공책〉은 〈의병군공책〉을 비롯하여 첩, 소지, 전령 등 12종 20건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의병군공책〉은 의병 우배선을 비롯하여 그 부하의병 88명의 군공을 적고 있는데, 이들이 올린 전공은 참살 63명·사살 604명·작살 110명으로 작은 의병부대로서의 전과로는 엄청난 수이다. 관련문서는 우배선의 사령교지 10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증교지 각1점, 정인홍의 간찰, 선조말엽 주요 관원들의 성명·관직명·주소 등이 적힌 각택기 등 13점이다. 임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의병군공책〉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공(戰功)보고서로 임진왜란 때 대구 지방의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대전 계족산성] (사적 355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355호
명 칭	대전 계족산성 (大田 鷄足山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51,984㎡
지정(등록)일	1991. 10. 25
소재지	대전 대덕구 장동 산85외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대덕구
소 개	대전시 장동 계족산(해발420m)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이 산성은 백제가 쌓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8~99년 발굴을 통해 신라에서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성의 높이는 약 7~10m 가량 되며, 동·서·남쪽에 문터를 만들었다. 성 안에서 삼국시대에 만든 큰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성내 건물터에서는 고려시대 기와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발견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쌓기 방법은 보은에 있는 신라 삼년산성(사적 제235호)과 같은 방식으로 쌓았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 밝혀졌고, 출토된 토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 6세기 중·후반의 신라토기임이 밝혀졌다. 이후에 나온 토기 형태도 백제계는 소수이며 다수의 신라계 토기가 보여, 한때 백제가 점령하긴 했지만 신라에 의해 만들어진 산성으로 조사되었다. 계족산성은 새로운 발굴 성과에 의해 신라가 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논란이 있으며, 6세기 중·후반 신라나 백제에 의해 만들어진 산성으로, 당시 대전지방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광역시/대전문화연대

[노고산성] (대전시 기념물 제19호)



구분	내용
종 목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9호
명 칭	노고산성 (老姑山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3,869.5㎡
지정(등록)일	1991 .07. 10
소재지	대전 동구 직동 산41, 산43, 산47, 산37-13, 산39-1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산림청 외 4명
관리자(관리단체)	동구
소 개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피골마을의 뒷산인 해발 250m의 산 정상에 자리한 산성으로, 산 꼭대기를 빙둘러 쌓았다. 성의 둘레는 300m 정도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 안의 면적은 좁은 편이다.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그 윤곽선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었다. 남쪽 성벽의 일부분은 거친 성돌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성벽을 쌓았다. 남쪽 성벽 한 곳에서 폭 2.3m의 문터가 발견되었다. 산성에서 남서쪽으로 계족산성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대청호가 내려보인다. 계족산성의 전초기지로 금강의 수로와 옥천-문의간 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성이다.

[택견]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구분	내용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명 칭	택견 (택견)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무예/ 맨손무예
지정(등록)일	1983. 06. 01
소재지	충북 충북전역
소 개	택견은 유연한 동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술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무술로서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무인들 사이에서 무예로 성행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대중화된 경기로서 무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행하게 되었다. 택견의 수련은 ①혼자익히기 : 기본자세(품), 서서익히기(품밟기, 활개짓, 발질과 손질), 나가며 익히기(활개짓, 손질, 발질) ②마주메기기 ③견주기(대걸이, 겨눔수)로 나눌 수 있다. 택견의 특징은 첫째, 손발과 몸 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전통있는 무술이다. 둘째, 음악적이며 무용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어 예술성 짙은 무예이다. 셋째,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고 발을 많이 움직인다. 택견은 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신체단련을 위한 보건체조나 스포츠로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서구/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등록문화재 41호)



구분	내용
종 목	등록문화재 제41호
명 칭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釜山 臨時首都 政府廳舍)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업무시설/
수량/면적	1동(ㅁ자형 중 후면부 제외) 연면적 6,926㎡중 4,504㎡
지정(등록)일	2002. 09. 13
소재지	부산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동아대학교 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 개	이 건물은 도청 소재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경남도청으로, 한국전쟁 당시 임시 정부청사로 사용하였다. 처음 준공할 때는 '一'자 모양의 평면으로 구성하였으나, 1960년대 증·개축으로 'ㅁ'자 모양, '日'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정면 가운데에 현관 포치(porch)가 돌출되어 있고, 가운데와 양쪽 끝 부분을 돌출시키고 그 위쪽을 박공지붕으로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엄 있는 입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간직한 역사적인 건물로 구 경상남도지사 관사(지금의 임시수도기념관)와 더불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공공건축물이다.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부산 전차] (등록문화재 494호)



구분	내용
종 목	등록문화재 제494호
명 칭	부산 전차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동산/
수량/면적	1량
지정(등록)일	2012.04.18
소재지	부산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동아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동아대학교
소 개	동아대학교 소장 「부산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차량회사(Cincinnati Car Company)에서 제작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으로 미국 애틀란타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이며, 1952년 무상원조로 수입되어 부산에서 운행된 전차 20량 중에서 1968년 마지막까지 운행된 전차 중의 1대이다. 이 전차는 동아대학교가 1969년 2월 남선전기(주)로부터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보존처리 및 복원 작업을 실시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 야외에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부산에서 운행했던 전차 중 유일하게 현존하다.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서울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아차산성] (사적 제234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234호
명 칭	아차산성 (阿且山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103,375㎡
지정(등록)일	1973. 05. 25
소재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구의동 산1-2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광진구
소 개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해발 285m)일대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이다. 성 전체 길이는 1,125m이며, 성벽의 높이는 평균 10m 정도이다. 동·서·남쪽에 문이 있던 흔적과 물길이 남아있고, 문 앞을 가려 보호하는 곡성이 남아있다. 그 밖에 여러 건물터가 남아있는데, 많은 토기와 기와조각이 수습되었다. 아차산성에는 2가지 슬픈 역사가 전해온다. 하나는 백제의 수도 한산이 고구려에 함락되었을 때 개로왕이 성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하나는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장군이 죽령 이북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하여 신라군과 싸우다가 이 성 아래에서 죽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 온달샘이 성안에 있다. 1997년 아차산성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점의 토기류와 30여점의 철기류, 100여점의 철제 무기류를 비롯한 수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주로 고구려 계통의 토기들이 보이고 있어 고구려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백제의 옛 도읍지에 있는 아차산성은 누가 쌓았는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지만 삼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으로 그 의의가 있다.

[아차산일대 보루군] (사적 제455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55호
명 칭	아차산 일대 보루군 (阿且山 一帶 堡壘群)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시설
수량/면적	924,599㎡
지정(등록)일	2004. 10. 27
소재지	서울 .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공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서울시,구리시
소 개	아차산일대보루군은 출토유물이나 축성방법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며, 고구려가 5세기 후반에 한강 유역을 진압한 후 551년에 신라와 백제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기까지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유적이다. 아차산일대보루군은 아차산보루,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수락산보루, 망우산보루 등 17여개의 보루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그 중 일부를 제외한 10여개의 보루가 고구려의 보루로 추청된다. 아차산일대보루군은 중랑천과 아차산, 용마산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10여개의 보루는 현재 남한 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고구려 관련유적으로서 발굴 등을 통해 고구려 군사시설의 면모가 규명되고 있으며, 백제나 신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그동안 연구활동이 부진했던 고구려 관련 고고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 국경지대 요새의 구조와 성격, 국경방위체계, 군 편제 등을 밝혀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고구려의 남하과정, 한강유역에서의 대치와 관리방식, 한강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과 발전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이다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도봉서원 생생사업] 서울 도봉구/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

[도봉서원과 각석군] (서울시기념문화재 제28호)



구분	내용
종 목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
명 칭	도봉서원과 각석군 (道峰書院과 刻石群)
분 류	
수량/면적	20,557.4㎡
지정(등록)일	2009. 10. 22
소재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등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공·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서울특별시
소 개	도봉서원은 조선 전·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配享: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냄)한 사액서원(賜額書院: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백사 이항복 등 저명한 시인 묵객들이 시문을 남긴 오늘날 서울 지역 내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다. 비록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어 유적의 대부분이 멸실되었으나 서울 지역 내 다른 서원과 달리 사당의 기단과 옛 사료상의 도봉서원 유적으로 소개된 각석군(刻石群)이 서원 터 앞 계곡에 대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어 유적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유적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각종 문헌이나 시에서 오랫동안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히던 경승지(景勝地)에도 해당하므로 보존가치가 크다.

[서울 청계천 수표] (보물 제838호)



구분	내용
종 목	보물 제838호
명 칭	서울 청계천 수표 (서울 淸溪川 水標)
분 류	유물 / 과학기술/ 계측교역기술용구/ 도량형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85. 08. 09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청량리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 개	조선 세종 때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측우기를 만들고, 이 방법으로 하천의 수위를 측정기 위해 설치한 것이 수표이다. 한강변과 청계천 2곳에 설치하였는데 한강변의 것은 바윗돌에 직접 눈금을 새긴 것이고, 청계천의 것은 낮은 돌기둥 위에 나무기둥을 세운 형태였다. 그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청계천의 수표는 성종(재위 1469~1494) 때 돌기둥으로 개량한 것으로 높이 3m, 폭 20㎝의 화강암 사각기둥으로 만들었다. 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진 삿갓 모양의 머릿돌이 올려져 있고, 밑에는 직육면체의 초석이 땅 속 깊이 박혀있다. 돌기둥 양면에는 1척(21㎝)마다 1척에서 10척까지 눈금을 새기고 3·6·9척에는 O표시를 하여 각각 갈수(渴水)·평수(平水)·대수(大水)라고 표시하였다. 6척 안팎의 물이 흐를 때가 보통수위이고, 9척이 넘으면 위험 수위로 보아 하천의 범람을 미리 예고하였다. 세종 때 나무 수표와 비교하면 촌·푼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가뭄과 홍수를 미리 예견할 수 있어 실생활에 직접 이용된 한층 더 발전된 것이다. 수표는 청계천(淸溪川)의 수위(水位)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천(河川) 수위계(水位計)이다. 조선시대 세종(世宗)(1418~1450, 재위) 때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강우량(降雨量)의 과학적 측정법을 확립하고, 청계천과 한강의 수위도 함께 재도록 한 것이다. 세종 때 수표는 성종(成宗)(1469~1494, 재위) 때 돌기둥에 눈금을 새긴 수표로 개량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수표 근처에 놓은 다리를 수표교(水標橋)라 부르게 되었다. 이 수표는 그 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눈금은 주척(周尺) 1자(尺)로 그 길이는 평균 21.5cm 간격이다. 수표는 세종 때 세계 최초로 하천 수위계 전통을 이은 유일한 유물로서 귀중한 문화재이다. 원래 청계천 수표교 옆에 있던 것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수표교와 함께 장충단(奬忠壇) 공원에 옮겼다가, 다시 현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사적 제361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361호
명 칭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 永徽園과 崇仁園)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왕실무덤/ 조선시대
수량/면적	55,015㎡
지정(등록)일	1991. 10. 25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시 대	일제강점기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의릉관리소
소 개	영휘원은 조선 고종황제의 후궁인 순헌귀비 엄씨의 원(무덤)이고, 숭인원은 조선 마지막 황태자인 의민황태자(영왕, 영친왕이라고도 함)의 큰아들 이진의 원이다. 순헌귀비 엄씨는 엄진삼의 장녀로 8살에 입궐하여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이 되었다가 1897년 아들 은을 낳아 귀인이 된 후 순헌황귀비 칭호를 받고 경선궁에 살았다. 그 후 여성들의 신교육을 위해 1905년 양정의숙과 1906년 진명여학교을 설립하였고, 명신여학교(현 숙명여자대학교)가 재정난을 겪자 200만평 땅을 기증하기도 했다. 엄귀비는 일본이 고종황제를 태왕으로, 순종황제는 조선왕으로, 순종황제의 이복동생인 의민황태자를 영친왕으로 강등시킨 시기를 보냈으며, 의민황태자가 일본에 볼모로 간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모습도 활동사진으로 보게 된다. 1911년 7월 20일, 춘추 58세에 서거하여, 순헌(純獻)의 시호가 내려지고, 8월에 양주 천수산(天秀山)에 무덤을 만들고, 원호를 영휘라 하였다. 신위는 청와대 경내 칠궁에 있는 덕안궁에 모셔져 있다. 숭인원에 안장된 이진은 1921년 8월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의민황태자, 이방자여사)와 일시 귀국하였으나, 이듬해 5월, 생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의 풍습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장례를 치룰 수가 없었으나, 순종황제가 이진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어른의 장례와 같게 치르도록 하고 원호를 숭인(崇仁)으로 내리고, 할머니인 순헌귀비 엄씨의 영휘원 남측에 조영하였다.

[선농단] (사적 제436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36호
명 칭	서울 선농단 (서울 先農壇)
분 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제사유적/ 제사터
수량/면적	3,933㎡
지정(등록)일	2001. 12. 29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동대문구
관리자(관리단체)	동대문구
소 개	선농단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일컬어지는 고대 중국의 제왕인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주신으로 제사지내던 곳이다. 우리나라의 선농제는 삼국 신라시대 때부터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부터 이미 농사의 삼신(三神), 즉 선농과 중농, 후농에 제사를 지내는 등 선농제향을 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려시대에도 선농제는 행해졌는데 중국 의식을 따라 정월 해일에 적전(籍田)에서 신농씨와 후직에게 제사를 지냈다. 성종 2년(983) 정월 신미일에는 환구단에서 기곡제를 지내고 같은 달 을해일에 적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경례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전반적으로 불교나 팔관회와 같은 고유 전통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농제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예법에 의거한 선농제가 국가의 주요 전례(典禮)가 되었고 그 의미도 강화되었다. 태종은 선농제의 제향일을 정월 길(吉) 해일에서 경칩 이후 길한 해일로 바꿔 거행하고 친경의례를 제정하였다. 중농?후농제를 폐지하고 대신 삼신을 대표하는 선농제만 모셨다. 태조 1년(1392)에는 한양 근교에 왕이 친경(親耕)하는 전지(田地)인 동적전을 설치하고 경작하였으며 이를 관장하여 경작과 수확을 살피는 고직인 적정령이 내려지고 승(丞)이 설치되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선농제를 위한 제단의 단과 유의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세종 재위 당시에는 친향선농의와 친경의주를 제정하고 《국조의례의》, 《길례》에 선농단과 경작에 대한 의식을 규정하였다. 성종은 《국조오례의》의 친경의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성종 7년(1476)에는 친경대를 신축하고 처음으로 친경례를 거행하였다. 영조 43년(1767)에는 친경의궤를 편찬하고 권농과 고례를 특히 회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직전인 순종 3년(1909)에는 사직단으로 위패가 옮겨지고 선농단 일원이 국유화되면서 제향이 폐지되었다. 이후 일제는 선농단이 위치한 곳에 청량대(?凉臺) 공원을 조성하고 숭인보통학교(현 서울종암초등학교)를 세워 선농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말살하였다. 폐지된 제향행사는 1979년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선농단친목회에 의해 비로소 재개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동대문구에서 인수받아 매년 선농제를 모시고 있다.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선농단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40호)



구분	내용
종 목	천연기념물 제240호
명 칭	서울 선농단 향나무 (서울 先農壇 향나무)
분 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기념
수량/면적	380㎡(보호구역)
지정(등록)일	1972. 07. 31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동대문구
관리자(관리단체)	서울시 동대문구
소 개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나무·노송나무로도 불린다. 이 나무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도 쓰이며 정원수·공원수로 많이 심는다. 서울 용두동 선농단의 향나무는 나이가 약 5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약 13.1m, 가슴높이의 둘레는 약 2.28m이다. 조선시대에는 선농단(先農壇)을 만들어 중국의 예에 따라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을 모시고 왕이 직접 나와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선농단에서 제사가 끝나면, 사용된 막걸리를 나무에 뿌려주었고, 소를 잡아 큰 가마솥에 넣어 국을 끓이며, 쌀과 기장으로 밥을 지어서 농부들과 구경나온 노인에게 대접하였다고 한다. 설렁탕이라는 이름은 선농단에서 끓인 국이라 하여 선농탕(先農湯)이 되었고 다시 설롱탕이 되었다가 설렁탕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향나무는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몇 개의 초석과 향나무만이 남아 있다. 서울 용두동 선농단의 향나무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관련된 자료로서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5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수령(樹齡)은 500여년이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13.1m, 가슴높이의 둘레가 2.28m, 가지의 길이는 동서 13.4m, 남북 14.2m이다. 선농단(先農壇)은 성종(成宗) 7년(1476년)에 축조(築造)하였다고 한다(한경식략(漢京識略)). 농사와 인연이 깊은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모시고 왕이 친림(親臨)하여 풍년(豊年)이 들기를 기원하던 제단(祭壇)이며 1909년까지 제사를 지내다가 일제(日帝) 때 폐지되었다. 선농단에 적전(籍田)을 마련하고 경칩(驚蟄) 뒤의 첫 번째 해일(亥日)에 제(祭)를 지낸 다음 왕이 친히 밭을 갈아 농사의 중함을 만민에게 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선농단은 사방(四方) 4m의 석축단(石築壇)이며 옆에 늙은 향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초석(礎石)이 몇 개 남아있다. 향나무 뒤에는 청량태(淸凉台)라는 자연석(自然石)의 비석이 있으나 일제(日帝) 때에 세운 것이다. 첫째 가지가 가장 굵고 서북(西北)쪽으로 자랐다. 약간 올라가서 남쪽으로 향한 가지가 가장 길고 다음 가지는 서쪽으로 뻗었다.

[사육신묘] (서울유형문화재 8)



구분	내용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
명 칭	사육신묘 (死六臣墓)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역사사건/ 역사사건
수량/면적	7기
지정(등록)일	1972. 05. 25
소재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85-2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동작구
소 개	조선 세조 2년(1456)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목숨을 바친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6명의 신하 즉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곳이다. 이들은 단종 3년(1455)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뒤의 세조)이 왕위를 빼앗고 단종을 몰아내자 이에 분개하여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기 위해 숙종 7년(1681)에 이곳에 서원을 세우고, 정조 6년(1782)에는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는 비)를 세워 두었다. 1955년에는 사육신비를 세우기도 하였고, 이후 묘역을 확장하여 새롭게 정비하여 충효사상을 기리고자 하였다. 원래의 묘역에는 박팽년·성삼문·유응부·이개의 묘만 있었으나 후에 하위지·유성원·김문기의 묘도 만들어 함께 모시고 있다.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서울 동작구/(주)우리가만드는미래

[용양봉저정] (서울유형문화재 6)



구분	내용
종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호
명 칭	용양봉저정 (龍양鳳저亭)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72. 05. 25
소재지	서울 동작구 본동 10-30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동작구
소 개	정조(재위 1776~1800)가 그의 부친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화산의 현륭원을 찾을 때 잠시 쉬던 정자이다.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현륭원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그 때마다 한강에 배다리를 임시로 만들어 건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잠시 쉴 자리가 필요하여 이 정자를 지었다고 전한다. 조선 정조 13년(1789) 이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주정소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을 당시에는 정문과 누정 등 2~3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앞면 6칸·옆면 2칸 규모의 정자만 남아있다. 용양 봉저정은 가운데에 온돌방을 두고 양쪽으로 퇴칸을 둔 간소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건물이다.

[울기등대 구 등탑] (등록문화재 제106호)



구분	내용
종 목	등록문화재 제106호
명 칭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蔚山 蔚埼燈臺 舊 燈塔)
분 류	등록문화재 / 기타/ 공공용시설/
수량/면적	1동, 3층 연면적 22.4㎡
지정(등록)일	2004. 09. 04
소재지	울산 동구 등대로 155 (일산동)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국토해양부
관리자(관리단체)	울산광역시 해양수산청
소 개	울기등대는 1958년 건립된 벽돌조 건축물로 당시의 등대 건축기술과 기법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등대는 돌출한 볼트형식의 현관과 8각형 평면위에 입면을 3단으로 구성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나주 읍성] (사적 제 337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337호
명 칭	나주읍성(羅州邑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지
수량/면적	14,852㎡
지정(등록)일	1990. 10. 31
소재지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외
시 대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나주시
소 개	고려시대에 쌓은 성으로 조선 세조 3년(1457)에 성을 확장했고, 임진왜란(1592) 후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둘레는 3,126척(약 940m), 높이는 9척(약 2.7m)이며 대포를 쏠 수 있는 성벽에 나온 포루가 3개이고, 우물이 20여 개 있었다고 한다. 성문은 4개로 동·서·남·북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없어지고 북문터에 기초석만 남아있다. 1993년 남문터에 복원한 남고문이 있는데, 2층으로 된 누(樓)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화려하다. 옆에서 보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어 나주읍성의 옛 모습 일부분을 보여준다. 남문터의 석축은 비록 적게 남아있지만 역사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 (사적 제 483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83호
명 칭	나주목 관아와 향교 (羅州牧 官衙와 鄕校)
분 류	유적건조물
수량/면적	64,283㎡
지정(등록)일	2007. 07. 31
소재지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시 대	조선시대
관리자(관리단체)	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소 개	나주는 삼국시대 때부터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전근대 사회 동안 풍요를 누리던 지역이었고, 고려왕조부터 조선왕조까지 약 1,000년 동안 목(牧)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전라도의 대표적 큰 읍치이었으며, 현존하는 관아 건물과 향교 건물들이 그에 상당한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가치가 있다. 나주 관아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성읍지, 여지도, 나주목지도를 비롯한 고지도 등에서 위치와 건물 구성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객사 등의 발굴 성과와 옛 사료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지방통치 중심지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관아 건물이 좌표축의 구실을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주 향교는 평지에 들어선 전묘후학의 배치형태를 띠고 있는 전형적인 예이며, 특히 보물 제39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성전은 그 규모가 대단히 웅장할 뿐 아니라 양식, 격식이 뛰어나 조선후기 향교건축을 대표할 수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크다. 또한 나주향교는 조선시대 교육시설의 규모를 따지면 성균관 다음이라고까지 지칭될 정도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교육과 제사의 고유기능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남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 263호)



구분	내용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명 칭	나주 남파고택 (羅州 南坡古宅)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일곽(건물 7동, 토지 16필지 2,960.93㎡)
지정(등록)일	2009. 12. 17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성길 13, 일원 (남내동)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박경중
관리자(관리단체)	박경중
소 개	나주 남파고택은 조선시대 후기(1884년)에 남파 박재규가 건립하여 후대에 이르면서 1910년대와 1930년대에 개축한 건물로 전라남도에 있는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개인주택이며 관아건물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건물로서 남도 지방 상류주택의 구조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안에 보존하고 있는 각종 민구류, 공예품(특히 각 지방별 종이류) 등이 시대별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호남 나주지방의 생활문화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 따라서 "나주 남파고택(羅州 南坡古宅)"은 호남지방의 대표적 양반집으로서 상당한 규모와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집안의 내력과 함께 시대적 특징이 잘 간직된 19세기 후반의 전남지방 반가로서 민속학적?건축학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당초에는 전남나주 문화재자료 나주 박경중가옥(제153호)로 지정(1987. 6. 1)되었으나 신청(2008. 6.24)을 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63호로 지정(2009.12.17)되었다.

[나주목사내아] (도 문화재자료 제 132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명 칭	나주목사내아 (羅州牧使內衙)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궁궐·관아/ 관아
수량/면적	일곽
지정(등록)일	1986. 09. 29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계동 33-1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나주시
소 개	조선시대 나주목에 파견된 지방관리인 목사(牧使)의 살림집으로, 건물의 이름은 '금학헌'이었다. 목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동헌의 정문이었던 정수루에서 서쪽으로 약 65m 떨어진 곳에 있다. 언제 지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다만 대문 옆에 있는 문간채를 고종 29년(1892)에 만든 것으로 보아 살림집 역시 19세기에 지은 건물로 여긴다. 앞쪽에 퇴칸을 둔 ㄷ자형 집으로 앞면 3칸 규모이며, 현재 본채와 문간채만 남아 있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일제시대 이후 군수의 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원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다. 나주목사 내아는 궐패(闕牌)와 전패(殿牌)를 모셔놓고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던 객사와 아문루가 함께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관아건축의 원래 모습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정수루] (도 문화재자료 제86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6호
명 칭	정수루 (正綏樓)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4. 02. 29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계동 13-18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나주시
소 개	조선 선조 36년(1603)에 나주목사로 부임한 우복용이 지은 것으로, 나주의 관아문 구실을 했던 것이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이며, 1층 양 옆은 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하였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2층에는 한때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매달아 놓았던 북을 다시 복원해 놓았다.

[염색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115호)



구분	내용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명 칭	염색장 (染色匠)
분 류	무형유산 / 공예기술/ 섬유공예/ 염색공예
지정(등록)일	2001. 09. 06
소재지	전남 전남전역
소 개	염색장이란 천연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을 말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염색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장인이 있었을 정도로 염색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옷감을 물들이는데 사용하는 천연염료는 식물, 광물, 동물 등에서 채취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가공을 통해 만든 염료를 사용한다. 염색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쪽염색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가지고 옷감 등을 물들이는 것으로 염색과정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우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나주지역의 쪽염색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팔월 초순경 60~70㎝정도 자란 쪽을 베어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이틀 뒤 쪽물에 굴껍질을 구워 만든 석회를 넣으면 색소 앙금이 가라앉으면서 침전쪽이 생긴다. 침전쪽에 잿물을 넣고 다시 7~10일 동안 발효시키면 색소와 석회가 분리되면서 거품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꽃물 만들기'라고 하고 이것을 염료 물감으로 사용한다. 천연 염색은 근대화 이후 급속한 화학염색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통이 끊겼으나 1970년대 이후 일부 장인들이 노력으로 그 맥을 살릴 수 있었다.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전남 진도군/진도북놀이보존회

[진도북놀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명 칭	진도북놀이 (珍島북놀이)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음악/
지정(등록)일	1987. 08. 25
소재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49-1
소 개	우리 문화의 근원은 무굿과 풍물놀이에서 시작되었다. 풍물놀이에서 유래한 북놀이는 가장 오래된 놀이로 소리와 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북놀이는 지역에 따라 각기 특성을 지니는데 전라도의 경우 외북치기와 양북치기로 나뉜다. 외북치기는 전라도지역의 보편적인 형식이며, 양북치기는 진도에 한하여 전승되고 있다. 진도북놀이는 보통의 외북치기와 달리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구 치듯이 느린 굿거리에서 시작하며 빠른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가락으로 풀어 나간다.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는 북장단과 더불어 진도북놀이는 뛰어난 춤사위를 가지고 있다. 진도북놀이는 북소리의 강열함과 장구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명나는 놀이로, 북놀이의 명인 김행렬을 거쳐 현재는 김길선, 김관우, 양태옥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화순정암조광조선생적려유허비] (전라남도기념물 제41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기념물 제41호
명 칭	화순정암조광조선생적려유허비 (和順靜菴趙光朝先生謫廬遺墟碑)
분 류	기록유산 / 서각류/ 금석각류/ 비
수량/면적	1
지정(등록)일	1979. 08. 03
소재지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4
소유자(소유단체)	한양조씨정암회
관리자(관리단체)	화순군
소 개	적려란 귀양 또는 유배되어 갔던 곳을 이르며, 유허비는 한 인물의 옛 자취를 밝히어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두는 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중종 때 이곳에 유배당한 조광조 선생의 옛 자취를 기록해 두고 있다. 조광조(1482~1519) 선생의 호는 정암으로, 중종 10년(1515)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사헌부감찰, 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14년(1519)에는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기묘사화를 당해 이곳 능주 지방으로 유배되었으며, 그해 12월 20일에 사약을 받았다. 그는 기성세력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 선조 대에 와서야 영의정에 추증되어 문묘에 배향되었다. 훗날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하여 곳곳에 사당이 마련되고 서원도 설립되었다. 비는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은 모습이다. 받침돌은 자연석에 가까운 암석으로 거북의 형태이다. 비몸에는 앞면에 '정암조선생적려유허추모비'라는 글씨를 2줄의 해서체로 새겼으며, 뒷면에는 선생의 유배내력을 적었다. 머릿돌은 반달 모양으로 앞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엉키어 있고 뒷면에는 구름을 타고 오르는 용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비를 제작한 시기는 현종 8년(1667) 4월로, 당시 능주목사를 지내던 민여조가 건립하였으며,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사)문화진흥협회

[죽수서원]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0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0호
명 칭	죽수서원 (竹樹書院)
분 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교육기관/ 서원
수량/면적	1곽
지정(등록)일	1986. 09. 29
소재지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산15-3
소유자(소유단체)	한양조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화순군
소 개	정암 조광조(1482~1519)와 학포 양팽손(1488~1545)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조광조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여씨향약'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현량과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위훈삭제 사건으로 반정공신들의 반발을 사서 죽음을 당했다. 조광조는 선조 1년(1568)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양팽손은 조선 중기 문신이다.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 등을 위해 항소하다 삭직되었다. 회화에도 일가견을 보여 안견의 산수화풍을 계승하였다. 죽수서원은 선조 3년(1570)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가 같은 해에 나라에서 '죽수'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인조 8년(1630) 양팽손을 추가로 모셨는데,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어 단(壇)만을 마련하고 제사지내 왔다. 이후 1971년 능주의 유림과 제주 양씨 후손들이 월곡리에 죽수서원을 복원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다시 조광조 선생 후손들이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지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내 건물로는 3칸 크기의 사우, 내삼문, 외삼문, 3칸 크기의 강당 등이 있다. 배치 형태는 내삼문과 좌우로 둘러진 담장에 의해 제사지내는 곳과 교육하는 곳으로 분리된 전학후묘의 형태이다. 1989년 동재, 1994년에 관리사를 새로 지었다.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 지내고 있다.

[학포당] (전라남도 기념물 제92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기념물 제92호
명 칭	학포당 (學圃堂)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가옥
수량/면적	1
지정(등록)일	1986. 02. 07
소재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411
소유자(소유단체)	제주양씨문중
관리자(관리단체)	제주양씨문중
소 개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 학자이자 서화가인 학포 양팽손의 서재였으나 지금 있는 건물은 당시의 건물이 아니고 1920년대에 후손들이 지은 것이다. 양팽손(1488~1545)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중종 11년(1516) 과거에 급제한 후 정언, 전랑, 수찬, 교리 등의 직을 역임하였다.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로 관직을 잃은 뒤 고향으로 내려와 1521년 학포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시와 그림으로 하루를 보냈다. 글과 그림에 능하였으며 저서로는 『학포유집』 2책이 전하고 있다. 1994년 학포당을 보수하였고, 1995년에 외삼문을 원래대로 지었다. 1996년에 담장을 설치했으며, 1997년에 담장 보수를 했다. 학포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경내에는 늙고 오래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사)문화진흥협회

[영벽정]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67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
명 칭	영벽정 (映碧亭)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조경건축/ 누정
수량/면적	1
지정(등록)일	1984. 02. 29
소재지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산1
소유자(소유단체)	화순군
관리자(관리단체)	화순군
소 개	영벽정을 언제 지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양팽손(1488~1545)과 김종직(1431~1492)의 시로 미루어 조선 전기 관청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 10년(1632)에 능주목사 정연이 아전들의 휴식처로 고쳐 지었다고 전하며, 고종 9년(1872)에 불타 버린 것을 고종 10년(1873)에 새로 고쳐 지었다. 이후에도 보수를 거듭해 오다가 1920년에는 주민들이 모은 비용으로 손질하여 고쳐 지었다.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는데 3겹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둥근기둥(두리기둥)을 세워 마루를 깔았고 마루의 사방에는 조각한 난간을 돌려 장식하였다. 정자 안쪽에는 9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연주산의 경치를 비추는 지석강물을 바라볼 수 있다하여 붙인 이름으로, 지석강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김제 벽골제] (사적 제111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111호
명 칭	김제 벽골제 (金堤 碧骨堤)
분 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농업/ 관개시설
수량/면적	187,473㎡
지정(등록)일	1963. 01. 21
소재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19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김제시
소 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쌓아 만든 최고의 고대 저수지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흘해왕 21년(330)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만들었는데, 둘레가 1천 8백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 지역이 신라 땅이 아닌 백제의 땅이었으므로 나중에 연도를 고쳐서 신라가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실제로 만들어진 때는 백제 11대 비류왕 27년(330)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신라 원성왕 6년(790)과 고려 현종 및 인종 21년(1143)에 고쳐 쌓은 후, 조선 태종 15년(1415)에 다시 쌓았다. 그러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고 하여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유적에는 일직선으로 약 3㎞ 정도의 제방이 남아있는데, 1925년 '동진토지개량조합'에서 이 둑을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는 통로로 고쳐 이용하면서 그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제방의 북쪽에는 조선시대에 벽골제를 다시 쌓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세운 비석이 있는데, 닳아서 글을 알아보기 어렵다. 1975년에는 저수지 물의 양을 조절하던 수문이 있던 자리 2곳을 발굴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대규모의 높은 수준의 측량기술이 이용된 공사였던 것이 밝혀졌다. 벽골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라는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이미 이러한 저수지 축조가 가능할 정도의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서도 획기적인 사실을 제공해 주는 유적이다.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전북 김제시/김제문화원

[쌍룡놀이] (전북민속자료 제10호)



구분	내용
종 목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10호
명 칭	벽골제쌍룡놀이 (碧骨堤雙龍놀이)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놀이/ 대동놀이
수량/면적	1식
지정(등록)일	1976. 04. 02
소재지	전북 김제시 일원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김제시
소 개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백제시대의 저수지)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이다. 전설에 의하면, 벽골제방 근처에 백룡과 청룡의 두 마리의 용이 살았다 한다. 백룡은 성질이 온순하여 제방을 지켰으나, 청룡은 난폭하고 심술이 많아 사람을 해치기 일쑤였다. 끝내는 두용의 싸움으로 이어졌고 백룡이 지는 바람에 둑이 무너졌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벽골제를 지키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제 태수의 딸 단야가 희생되었고 단야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가 지금의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다. 이처럼 이 놀이에는 전설적인 내용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 지역의 논농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논농사에서 물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제방공사와 용의 이야기가 합쳐져 민속놀이로 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놀이로, 지금도 해마다 벽골문화제전의 주요행사로 거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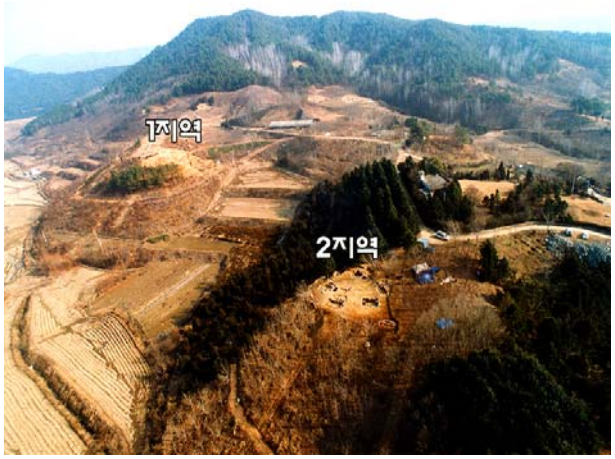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구분	내용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명 칭	제주칠머리당영등굿 (濟州칠머리당영등굿)
분 류	무형유산 / 전통연행/ 의식/ 무속의식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1980. 11. 17
소재지	제주 제주전역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소 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이다. 건입동은 제주도의 작은 어촌으로 주민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수호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굿을 했다. 부부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하여 소중히 위하는 굿을 했는데, 영등신은 외눈백이섬 또는 강남천자국에서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來訪神)이다. 당굿은 매년 음력 2월 1일과 2월 14일 하는데,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 1일에는 영등환영제를, 영등신을 떠나보내기 전날인 2월 14일에는 영등송별제를 지낸다. 주민들은 영등신이 환영제보다 성대한 송별제를 받고 이튿날인 15일에 구좌읍 우도(牛島)에서 다시 송별제를 받은 뒤 떠난다고 믿는다. 따라서 환영제 때는 배의 주인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굿을 하고, 송별제는 어업관계자와 해녀, 그밖의 신앙민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하루 종일 큰굿을 한다. 굿날이 되면 건입동 주민 뿐 아니라 제주시내의 어부와 해녀들도 참가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제사에 쓰일 음식을 차려서 당으로 가져온다. 매인심방이 징과 북, 설쇠 등의 악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굿을 진행한다. 굿의 순서는 모든 신을 불러 굿에 참가한 집안의 행운을 비는 초감제,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요왕해신부인을 불러 마을의 평안을 비는 본향듦, 용왕신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을 닦아 맞이하고 어부와 해녀의 안전을 비는 요왕맞이, 마을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 해녀가 바다에서 잡은 것들의 씨를 다시 바다에 뿌리는 씨드림,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보내는 배방송, 처음 불러들인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끝이 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충남 공주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수촌리고분군] (사적 제460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60호
명 칭	공주 수촌리 고분군 (公州 水村里 古墳群)
분 류	유적건조물 / 무덤/ 무덤/ 고분군
수량/면적	179,402㎡
지정(등록)일	2005. 03. 03
소재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시 대	백제
소유자(소유단체)	국유.공유.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공주시
소 개	공주수촌리고분군은 공주시에서 계획한 의당농공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후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각종유물이 발견되었다. 공주수촌리고분군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백제시대 부묘(대형토광목곽묘, 횡혈식 석실분, 수혈식 석곽묘)등이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검자루끝 장식) 등 다양한 청동제품과 점토대토기(점토띠토기), 흑고장경호 등 토기가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묘제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백제시대 분묘는 공주지역 백제고분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이 백제의 웅진천도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짐작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금동관과 금동신발, 금제이식,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중국제 흑유도기, 흑유 계수호(닭머리모양 주전자)등 위세품으로 판단되는 유물들이 함께 부장되어 있어 피장자의 신분이 당시 공주지역 유력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한성 백제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백제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재 제28호)

구분	내용
종 목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8호
명 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溫陽民俗博物館 所藏 甲冑와 甲冑函)
분 류	유물 / 과학기술/ 무기병기류/ 무기무구류
수량/면적	1조
지정(등록)일	2010.07.30
소재지	충남 아산시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재)구정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재)구정문화재단
소 개	갑주(甲冑)는 옛 무사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호신용과 조선시대 군례(軍禮) 때 의례를 장엄하기 위해 입었던 의식용으로 나뉜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은 겉감은 붉은 색 홍전이고 안감은 파란색 운문단이며 그 위에 못[두정]을 박고 깃과 소매 및 앞뒤 트임에는 털을 달았으며, 여밈으로 목 부분에는 호박단추 3개를 달고 허리에는 푸른색 운문단을 달아 여미게 되어 있다. 어깨 위에는 여의주를 바라보는 4조룡 견룡을, 목 둘레에는 다섯잎 오동잎 장식판을 달았으며, 앞판에는 여의주와 4조룡을, 뒷판에는 일월과 함께 여의주와 호랑이를 배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정전갑의 기본 형태와 용호문양의 배치는 현존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창덕궁 및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의 갑옷과 흡사한 편이다. 견룡이나 용무늬의 경우 온양민속박물관의 4조룡과 같은 것은 창덕궁과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의 것이고, 국립민속박물관의 것은 오조룡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구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감투 부분의 근철, 대철, 차양, 개철과 간주의 삼지창 부분 그리고 목가리개 및 감투끈이나 목가리개끈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투구 중 거의 완형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투구라 할 수 있다. 투구에서 주문양으로 사용된 용문양은 갑옷과 마찬가지로 4조룡이었고 이마가리개를 옥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소장이나 호암미술관 소장 투구와 일치하며 현존하는 '원수'명 투구와 다른 점이다. 상단 간주에 삼지창이 아닌 화염 보주를 비롯한 다양한 문양으로 처리한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국보 제51호 투구가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투구는 모든 부분에서 당대 최고 솜씨를 보여주는 뛰어난 조형성과 완벽한 공예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어 왕실의 최고 계층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갑옷과 투구에는 사조룡이 새겨져 있고, 갑주함에는 흑칠이 칠해져 있어 모두 왕세자의 착용품임을 알 수 있으며 갑주의 전체 구조나 형태가 완전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4조룡을 비롯한 세부 문양이 왕세자의 것을 상징하고, 세련된 기법과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문화기획학교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당형감실]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재 제29호)

구분	내용
종 목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9호
명 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당형감실 (溫陽民俗博物館 所藏 祠堂形龕室)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목공예/ 가구류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2010.07.30
소재지	충남 아산시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재)구정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재)구정문화재단
소 개	감실은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일반 가옥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앞면 4칸은 각 실의 구분 없이 각각 43cm으로서 주칸과 협칸의 구분 없이 동일한 척도로 계획되었다. 각 칸의 앞면으로는 둘레 10.5-11cm의 둥근 목재 기둥을 한칸 앞으로 내어 총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으며, 안쪽 기둥 앞쪽으로 21cm 앞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마감하였다. 전면 4칸에는 모두 이분합 격자교살문(格子交箭門)이 설치되어 있다. 측면의 경우 중앙의 2.8cm 두께의 기둥을 사이에 두고 전면 협칸은 19cm이고, 후면의 어칸 40cm이며, 벽면 위쪽은 삼각형과 벽체는 모두 판자로 막았다. 전면 협칸의 안쪽에는 각각 벽화를 그려 마감하였다. 바닥은 좌우로 긴 판자 2조를 이용하여 마루를 깔고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난간은 총 21개의 연엽조각형(蓮葉彫刻形) 받침이 조성되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당형감실〉 은 형태적 측면에서 4대 봉사를 위한 4칸 감실로 구조적인 면으로는 가옥의 건축 결구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단청을 사용하였다. 감실은 목제구 중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으로, 구조적인 면에서도 목조가옥의 결구수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단청의 솜씨 또한 훌륭하다. 제작 장인은 한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적어도 가옥을 짓는 대목장과 섬세한 가구를 다루는 소목장 및 단청을 그린 단청장 등 여러 장인의 합동 작업의 결과로 여겨진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거북흉배]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재 제30호)

구분	내용
종 목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30호
명 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거북흉배 (溫陽民俗博物館 所藏 龜文胸背)
분 류	유물 / 생활공예/ 복식공예/ 의복
수량/면적	1점
지정(등록)일	2010.07.30
소재지	충남 아산시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재)구정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재)구정문화재단
소 개	흉배는 조선시대에 왕족과 문무백관의 상복(常服)에 부착하여 수놓은 장식천이다. 흉배는 조선시대에 왕복과 관리복에 부착되어 직위를 나타내는 표지로, 직위에 따라 외곽의 형태, 문양의 종류와 수(數)를 달리하였다. 원형의 보는 하늘을 상징하여 왕과 왕비 및 왕세자가, 사각형의 흉배는 땅을 상징하여 문무관이 사용하였다. 문무관에 따라 흉배의 주문양이 달라지며, 그 주변에는 길상과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으로 꾸며 관리들의 가슴과 등에 부착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거북흉배〉는 그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제작시기가 19세기말 고종 연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실로 수를 놓았는데, 금실 흉배의 착용 사례는 18세기 초 연잉군과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초상화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기린 흉배가 있다. 때문에 금실로 짠 흉배는 대군이 아니면서도 후일 왕권에 오른 왕자나 왕의 친부였던 대원군이 착용하도록 국가에서 제작해 내려 보냈다고 여겨진다. 연잉군이나 대원군의 초상화 및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흉배에는 기린이 수놓아져 있으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흉배에는 거북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초상화의 기린 문양은 중국의 예로 보면 문관 1급에 해당되는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그러나 거북 문양은 한국과 중국에서 유일하다. 거북 흉배의 각종 문양을 살펴보면 1869년 대원군의 초상화에 그려진 흉배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기린 흉배와 바탕의 구름이나 여타의 부속 문양이 대체로 일치하여 고종시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초상화의 기린 흉배는 1869년의 것이고, 국립고궁박물관의 것도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당시의 것인데 비해, 이하응은 1873년에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하였기 때문에 거북 흉배는 그 이후에 같은 본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거북 문양은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기린 흉배 대신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흉배로 대체하여, 1820년생인 대원군(1820-1898)이 60세 환갑을 맞이한 1880년이나 70세 고희를 맞이한 1890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문화기획학교

[아산 맹씨 행단] (사적 제109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109호
명 칭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분 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제사유적/ 제사터
수량/면적	7,856㎡
지정(등록)일	1963.01.21
소재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아산시
소 개	조선 전기 청백리로 유명한 고불 맹사성(1360~1438) 가족이 살던 집으로, 원래 고려 후기에 최영 장군이 지은 집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맹사성은 고려말 · 조선초의 문신으로, 최영 장군의 손주사위이다. 고려 우왕 12년(1386)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 전의시승 등을 지내고 조선 태조 때에는 예조의랑, 이조참의, 예문관대제학, 우의정의 벼슬을 했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조용하며,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조정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는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행단(杏壇)'이란 선비가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뜻인데, ㄷ자형 맞배집으로 이곳은 우리나라 일반 백성이 살던 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집의 마당에는 600년이 된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고, 뒷동산에는 느티나무 ·전나무·감나무들이 넓은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집 앞의 개울가에도 느티나무·버드나무 등이 많이 자라고 있으며, 담장 안 마당에는 채소밭도 만들어져 있다. 이 집을 통해 조선 전기 민가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아산외암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구분	내용
종 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명 칭	아산외암마을 (牙山外巖마을)
분 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주거건축/ 마을
수량/면적	157필지/198,194㎡
지정(등록)일	2000.01.07
소재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이성선 외
관리자(관리단체)	아산시
소 개	설화산 기슭 경사지에 위치한 외암마을은 약 500년전에 강씨와 목씨 등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조선 명종 때 장사랑을 지낸 이정이 이주해 오면서 예안 이씨가 대대로 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정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점차 양반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정의 6대손인 이간이 호를 '외암'이라 지은 후 마을 이름도 '외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이 마을에는 영암댁·참판댁·송화댁 등의 양반주택과 50여 가구의 초가 등 크고 작은 옛집들이 상당부분 원래모습을 유지한 채 남아 있다. 양반집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으며, 넓은 마당과 특색있는 정원이 당시 양반의 생활모습과 풍류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초가 역시 예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돌담으로 연결된 골목길과 주변의 울창한 수림이 마을의 경관을 더욱 고풍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한 마을에 전통적인 수법의 상류·중류·서민가옥이 함께 남아있어 마을의 형성이나 전통가옥의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다. 또 설화산에서 시작된 냇물이 마을을 통과하며 이루어낸 정원은 매우 특색있고 운치있어 마을 전체가 귀중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괴산 송시열유적] (사적 제417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17호
명 칭	괴산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烈 遺蹟)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역사사건/ 역사사건
수량/면적	26,815㎡
지정(등록)일	1999. 12. 29
소재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 외 (화양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 공, 사유
관리자(관리단체)	괴산군
소 개	조선시대 성리학 중심지 중 한 곳인 우암 송시열 유적이다. 송시열(1607~1689)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문신으로 조선 효종(재위1649~1659)을 도와 북벌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주적인 정치를 펼쳤으며, 주자학의 대가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이 잠시 머물렀던 장소에 세워진 서원으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이다. 만동묘의 자리는 중국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던 곳이다. 만동묘 주변에는 송시열과 관련된 암서재, 하마비, 읍궁암, 송시열 무덤 및 신도비 외에 암서재 근처의 암벽에 '충효절의'·'비례부동'이란 글을 새긴 곳이 많이 있다. 송시열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정신이 깃든 곳일 뿐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로서, 한때는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던 곳이다. 민족 정기회복을 위한 교육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곳이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223호)



구분	내용
종 목	천연기념물 제223호
명 칭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永同 寧國寺 은행나무)
분 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종교
수량/면적	2,753㎡(보호구역)
지정(등록)일	1970. 04. 24
소재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5-14
시 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사유, 영국사
관리자(관리단체)	충북 영동군
소 개	은행나무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나무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유교와 불교가 전해질 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을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병충해가 없으며 넓고 짙은 그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정자나무 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는다.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는 나이가 약 1,0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31.4m, 가슴높이 둘레 11.54m 정도로 영국사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가지는 사방으로 퍼졌으며, 서쪽으로 뻗은 가지 가운데 한 개는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리고 독립된 나무처럼 자라고 있다. 영동 영국사의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큰 나무로 문화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충북 청주시/(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주 정북동 토성] (사적 제415호)



구분	내용
종 목	사적 제415호
명 칭	청주 정북동 토성 (淸州 井北洞 土城)
분 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성/ 성곽
수량/면적	35483㎡
지정(등록)일	1999. 10. 28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1번지 외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정용귀 외
관리자(관리단체)	청주시
소 개	미호천변 평야의 중심에 있는 평지에 흙으로 쌓은 성이다. 만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 궁예가 상당산성을 쌓아 도읍을 삼았는데, 견훤이 산성을 빼앗아 정북동 토성으로 짐작되는 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후삼국 쟁란기인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출토된 유물과 성의 위치, 주변 여건이 초기 성곽시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의 길이는 675m이고 높이 3.5m, 폭은 8~13m 정도 된다. 성안에서는 주거지, 기둥구멍, 길, 돌무더기 등이 확인되었고, 성 밖에서는 성을 둘러싸 보호하는 물길인 해자를 확인했다. 토성의 구조와 출토 유물들로 우리나라 초기의 토성 축조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토성이다.

제2절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세부 사항[13)]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강원 원주시/치악산고판화박물관

1. 세부 프로그램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학생)

- 기 간 : '12. 4 .1 . ~ 7 . 20 . (학교별 4회씩 4개교 총 16회)
- 장 소 :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 참여대상 : 전국 초등학교대상(홍보-교육청 협조요청)
- 주요내용 : 고인쇄의 이해, 전통판화실기 체험, 전통 책만들기, 수료작품전시회
- 추진일정 : 매주 수요일 13:00-16:00 15회 실시

나.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일반시민, 문화소외계층)

- 기 간 : '12. 9 . 1. ~ 12. 20. (총 15회)
- 장 소 :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 참여대상 : 고판화에 관심있는 시민, 관광객, 문화소외계층(노인,다문화,군장병,새터민등)
- 주요내용 : 고인쇄의 이해, 전통판화실기 체험, 전통 책만들기, 수료작품전시회
- 추진일정 : 매주 수요일 13:00-16:00 15회 실시

다.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전문가 집단)

- 기 간 : '12. 7 . 20 . ~ 8 . 20 . (총3회-2박3일 워크샵으로 3회실시)
- 장 소 :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 참여대상 : 교사, 판화작가,공예작가,디자이너등
- 주요내용 : 고인쇄의 이해, 전통판화실기 체험, 전통 책만들기, 수료작품전시회
- 추진일정 : 7월 24-26, 7월31일-8월2일, 8월7일-9일 3회 실시

라.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

- 기 간 : '12. 8 . 10 . ~ 8 . 12 .
- 장 소 :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 참여대상 : 한중일 목판본 전문학자 및 목판화작가
- 주요내용 : 한 중 일 국가 지정 목판화 현황 및 연구, 한 중 일 전통 인쇄, 인쇄 시현 워크숍
- 추진일정 : 7월-8월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3.15-3.30	교재 원고작성 및 제작	전통판화학교 교재 제작	
4.1-7.20	1차 전통판화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전통판화학교	16회(매주1회 3시간)
7.24-26	2차 전통판화학교	전문가를 위한 전통판화학교	2박 3일 코스

13) 2012년 생생 문화재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7.31-8.2	3차 전통판화학교	전문가를 위한 전통판화학교	2박 3일 코스
8.7-9	4차 전통판화학교	전문가를 위한 전통판화학교	2박 3일 코스
8.10-12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	2박 3일 코스
9.1-12.10	5차 전통판화학교	일반시민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전통판화학교	15회(매주1회3시간)
12.13-20	수료작품전시회	5차에 걸친 전통판화학교 작품 전시회	원주시청 다목적 홀, 고판화박물관 전시실
12.20-30	정산 보고서제출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전통판화학교 및 국제학술대회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전통판화학교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	4명	상근
자원활동	전통판화학교 자원봉사활동지원	3명	비상근
계		**8명**	**상근5명/ 비상근3명**

4. 안전관리 대책

- 지정문화재는 박물관전시 및 보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관리한다.
- 판각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예산지도 관리,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기획 및 추진 시 자문 지원
민간단체	사업 기획 및 실행, 행사진행 및 운영관리, 행사홍보, 사업정산

6. 홍보계획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신문, 방송 등)
- 프로그램 시작, 진행 중간,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프로그램 진행 내내 실시한다.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강원 원주시/원주매지농악보존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생기발랄 쌩쌩 체험 프로그램 (아랫마당 윗마당 정침지 뱃가죽)

- 기　　간 : 2012년 3월~12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총 10회)
- 장　　소 : 매지농악 전수관
- 참여대상 : 단체별, 연령별, 가족별
- 주요내용 : 생기복덕을 대표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매지농악의 핵심가치인 두레와 품앗이의 정신을 농악의 유형인 두레, 연희, 축원, 제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진행 (단체, 연령, 가족)
- 추진일정 : 프로그램 구성 협의 → 사전 홍보와 참여객 모집 → 사전예행 진행연습 → 프로그램 보완 → 진행 도우미 교육 (문화재 쌩쌩 도우미) → 행사 진행

나. 얼라이브 (Alive) 생생생 금요공연

- 기　　간 : 2012년 6월 ~ 7월 / 9월 ~ 10월 격주 금요일 (총 8회)
- 장　　소 : 매지농악 전수관 야외 공연장
- 참여대상 : 일반시민과 가족단위
- 주요내용 : 야외 밤 공연 가능한 시간에 여유롭게 즐기는 국악공연, 매지농악의 현재 장점인 공연력의 활용, 농악에 국한된 공연이 아닌 퓨전적 요소 결합
- 추진일정 : 공연콘텐츠 협의 → 공연자섭외 → 공연구성 및 연습 → 공연

다.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축제

- 기　　간 : 2012년　2 .6 / 6 .24 /7 .28 / 11 .25 (총 4회)
- 장　　소 : 회촌마을 달맞이 광장
- 참여대상 : 전국 대상
- 주요내용 : 봄 – 회촌 단오서낭제, 여름 – 옥수수축제, 가을 – 땅속 김장축제 겨울 –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각 시기마다 농사력에 맞춘 민속형 축제와 마을의 경제소득 창출, 매지농악과 관련된 축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준비
- 추진일정 : 축제위원회 구성 → 프로그램 도출 → 진행 인적 확보(안전관리) → 축제진행

라.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 기　　간 : 2012년　5월, 6월 (총 2회)
- 장　　소 : 원주 전지역
- 참여대상 : 참여자 모객 (원주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공동주관)
- 주요내용 : 강원감영 → 옻칠기공예관 → 한지테마파크 → 원주시립박물관을 경유하는 탐방 프로그램,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과 안내, 원주 생생사업 설명과 홍보, 원주 문화유산 분포지도 배포
- 추진일정 : 원주시청과 협의 → 경유단체 섭외 → 프로그램 공유 → 참여자 모객 → 경유동선과 시간확인 → 프로그램 실시

마. 생생 친구들 만나기 (Hi – Five 생생)

- 기　　간 : 2012년　10월 ~ 11월 (총 2회)
- 장　　소 : 전국
- 참여대상 : 타 지역 생생사업
- 주요내용 : 타 지역 생생 프로그램과 교류하기, 무형문화재 농악의 장점인 공연으로 방문, 타 지역 생생사업 벤치마킹 및 교류와 협력
- 추진일정 : 타 생생업장 공문 발송 → 교류일정 확인 → 프로그램 협의 →　순회 방문 및 교류

바. 문화재 쌩쌩도우미 (문화재 생생사업을 쌩쌩하게 움직이며 도와주는 사람들) 구성

- 기　　간 : 2012년　4월~7월, 9월~12월
- 장　　소 :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 원주 문화 재단
- 참여대상 : 원주지역 시민 및 학생
- 주요내용 : 유형문화재만 있는 문화재 도우미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유산 전반의 도우미로 확대, 원주문화재단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생생 사업의 실질적 진행의 역할, 축제 기획, 진행, 자원봉사의 교육 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 시스템 완비일정 확인 → 프로그램 협의 순회 방문 및 교류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세부추진내용	
1월	– 생생사업 신청	
2월	– 사계절 마을축제 (1회) – 계획서 제출 및 협의 – 최종 행사계획 확정 – 참가자 모집	– 홍보물 제작/배포 – 관련 단체 협의 – 운영매뉴얼 완성 – 시스템 확보 – 보도자료 작성/배포
3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1회)	
4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 (2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1회)
5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3회) – 원주 생생 문화유산탐방(1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2회)
6월	– 사계절 마을축제 (2회) – 생기발랄 쌩쌩 체험(4회) – 얼라이브 생생생 금요공연(2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3회) – 원주 생생 문화유산탐방(2회)
7월	– 사계절 마을축제 (3회) – 생기발랄 쌩쌩 체험(5회)	– 얼라이브 생생생 금요공연(4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4회)
8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6회)	
9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7회) – 얼라이브 생생생 금요공연(6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5회)
10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8회) – 얼라이브 생생생 금요공연(8회)	– 생생 친구들 만나기 (1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6회)
11월	– 사계절 마을축제 (4회) – 생기발랄 쌩쌩 체험(9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7회) – 생생 친구들 만나기 (2회)
12월	– 생기발랄 쌩쌩 체험(10회)	– 문화재 쌩쌩 도우미 (8회)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행사 총괄 진행 및 연출, 기획	1명	상근
지원팀장	각 세부별 행사진행 총괄	1명	상근
홍보마케팅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도자료 작성	1명	비상근
시설지원	각종 시설 및 하드웨어 확충	2명	비상근
안전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5명	비상근
행사지원	행사 필요 소품 및 인력, 외부 협의 지원	5명	비상근
행사진행	행사시 필요한 인력 확보와 운영	7명	비상근
공연	행사시 공연 담당	10명	비상근
자원봉사	행사 규모에 맞추어 인력 투입 및 진행	20명	비상근
계		53명	상근3명/ 비상근50명

4. 안전관리 대책

- 안전보험 가입
  - 전체행사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
  - 진행요원에 대한 안전보험,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재해에 대비함.
- 관리 조직 및 임무
  - 진행스탭별 관리운영 지역을 설정하여 관리운영 책임제를 실시
  - 총괄책임자 : 강성태 (원주매지농악보존회장)
  - 안전관리 책임자 : 강영구 (원주매지농악사무국장)
  - 관리자 임무
- 비상 조치사항 및 책임자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각 상황별 조치임무 책임자를 선정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합동 상황실 운영
  - 축제 운영진, 원주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등과 연합한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돕고,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하드웨어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주관 - 홍보부분 행정 동원 및 협조요청 - 장기플랜 작성 및 예산 투자 계획안 작성	- 유관기관 협조 - 주관단체와의 정기적 회의와 지원 및 점검 - 안전 관리 대책 공유 - 사업 종료후 정산과 평가

민간단체	– 사업의 총괄 기획 – 사업의 총괄 운영과 관리 – 운영매뉴얼 작성 – 안전관리 대책 강구 및 진행	– 사업의 실질적 진행 – 행사 투입 인력의 관리 – 사업의 총 평가 – 사업 정산

6. 홍보계획

□ 홍보 타겟

메인 타겟	· 30~40대의 경제능력이 있는 일반인 · 가족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브타겟을 포함한 모든 대상의 행동결정에 영향력 행사
서브 타겟	·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요소가 필요한 남/여 초,중등 학생 · 민속형 축제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50대 이상의 노년층 · 행동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메인타겟에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자극함.

□ 홍보 전략

매지 농악과 생기복덕 홍보전략	· 가족단위 방문객 위주의 맞춤형 프로그램 홍보
	· 교육적 요소를 강조한 교육기관 중점 홍보
	·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범위 홍보
	· 지역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생산

□ 홍보 방법

– 매체 홍보

-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 지역 방송사에 보도자료 배포 및 방송 보도 요청
- 무료생활정보지, 원주유선방송 등과 협의를 통한 홍보

– 인터넷 홍보

- 원주시청, 원주시내 초/중등학교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행사 홍보
-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등)를 제작하여 온라인 컨텐츠 제공

– 인쇄물 홍보

-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총 1,000부): 2단계에 걸친 배포를 통해 효율성 제고,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지역 내 학교, 관광지 등 배포(홍보요청 공문발송)
- 리플렛 제작 및 배포 (8,000부): 공공기관, 지역내 학교, 행사당일 현장 등 배포

– 옥외 POP홍보

- 현수막 (총 15식): 원주시내 주요 지역 홍보 (사전 승인 요청)
- 행사 종합안내도 (총 1식) : 행사 프로그램 및 배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사장 입구에 대형 안내도 설치
- 유도사인 (총 2식) : 입구에 주차 및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유동 인구에 대한 집객 유도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강원도 횡성군/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 체험

- 기　　간 : '12. 5. ~ 9. (주1회, 총20회)
- 장　　소 : 정금민속관
- 참여대상 : 전국소재 교육기관, 단체 등
- 주요내용 : 회다지소리 체험,
- 추진일정 : 행사 계획 수립 : 2012. 3월, 상설체험 행사 홍보 및 사전 접수 : 2012. 3. ~ 8월, 주1회 문화재 체험 상설행사 추진 : 2012. 5. ~ 9월

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 기　　간 : '12. 8. ~ 12. (주2회, 총40회)
- 장　　소 : 횡성문화관
- 참여대상 : 회다지소리강좌 수강생
- 주요내용 : 회다지소리 강좌 운영
- 추진일정 : 행사 계획 수립 : 2012. 6월,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2012. 7월, 주 2회 문화학교 운영 : 2012. 8. ~ 12월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2월	행사 추진 계획 수립	- 회다지 소리 축제 위원회 개최 - 사전 홍보 계획 수립 - 회다지소리 상설공연장 건립계획 수립	
'12. 3월	행사 홍보 및 접수	- 상설 체험 상시 접수 및 홍보 - 문화재 초청 공연팀 섭외	
'12. 4월	문화재 공개행사 및 초청 공연 추진	- 횡성회다지 소리 축제 추진 - 장례문화 관련 무형문화제 초청 공연 추진 (진도 다시래기, 씻김굿 등)	
'12. 5월	세계 장례문화 축제 추진 및 문화재 상설 공연 추진	- 세계 장례문화 축제 추진 - 주 1회 상설 공연 추진(5. ~ 9월)	
'12. 7월	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홍보 및 수강생모집	- 문화학교 운영 홍보 및 수강생 모집	
'12. 8. ~ 12월	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 주 2회 문화학교 운영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행사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사무국 및 문화예술담당 -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세부 행사 계획 수립	4명	상근
자원활동	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및 우천면 부녀회 - 행사 안내 및 운영 봉사	80명	비상근
계		85명	상근5명/ 비상근80명

4. 안전관리 대책

□ 발행 유형별 조치사항 정리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 행사 전
  - 진행자 화재위험성 및 소방시설 현황숙지, 안전교육 실시
  -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주의사항 교육
- 행사 중
  - 행사(소원지태우기) 참여자 화재예방 주의 후 진행
  - 소원지태우기 5-10m 접근 하지 못하도록
  - 안전관리요원배치하여 안전거리유지
  - 강풍 시 행사중단
- 안전점검
  - 행사장 화재위험 또는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소방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인명대피 유도훈련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행사 홍보 및 상설체험 관광객 모객 - 행사 안전관리
민간단체	- 행사 추진

6. 홍보계획

- 각종 단체 현장학습 등 적극 홍보 : 학술기관, 학교, 상조회 등
- 사진가 협회, 대학교 장례학과 등 홍보,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홍보
-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배포, 횡성군 및 횡성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경기 고양시/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1. 세부 프로그램

가.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 기　　간 : '12. 5.~9. 매달 둘째주 토·일요일 1박2일 형 (총5회)
- 장　　소 :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일대
- 참여대상 : 가족단위, 학교 내 학급단위 1회당 20~30명
- 주요내용 :
- 북한산성 역사해설 – 북한산성의 축조와 역사적인 배경 소개, 성문의 역할, 경관해설 청취, 북한동마을 역사박물관 견학, 북한산성 탁본뜨기 등
- 성곽을 지키던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전통의상체험: 어렵고 딱딱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재연과 체험을 통해 흥미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체험제공
- 성곽 전투체험: 조선시대 성곽 전투 시 무기를 알아보고, 활과 총포류의 이미지 자료를 통한 해설과 전통활쏘기 체험
- 북한동마을에서 전통놀이 즐기기: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팔망(사방치기)'을 체험
- 북한산둘레길 트레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내시묘역이 위치한 구간에서 이야기가 있는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왕의 그림자 내시묘역을 찾아서"
-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국립공원의 가치를 함양하고, 자연을 주제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증진

2.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일 정	장 소
1일차	~10:00	– 만나서 반가워요!! (접수 및 환영인사)	생태체험 거점시설
	10:00~10:30	– 계절인사 및 일정안내 – 관계형성프로그램	생태체험 거점시설
	10:30~12:00	– 북한산성 역사해설 (북한산성의 축조와 역사적인 배경 소개, 북한산성 탁본뜨기 등)	대서문 일대
	12:00~13:30	– 점심	지역식당
	13:30~15:30	– 놀이로 배워보는 역사이야기 (전통의상을 입고 역사속 인물이 되어보기! 전통활쏘기체험을 이용한 성곽전투체험 등)	대서문 일대
	15:30~17:30	– 숲에서 놀자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 자연물을 이용한 숲 속 만들기 교실	자연관찰로
	17:30~19:30	– 석식 및 자유시간	생태체험 거점시설
	19:30~20:30	– 하나뿐인 지구의 눈물 환경다큐멘터리 시청	생태체험 거점시설
	20:30~22:00	– 별이 빛나는 밤에 (야간 별 관찰 및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거점시설
	22:00~	– 국립공원에서의 하룻밤	생태체험 거점시설
2일차	07:00~09:00	– 기상 및 조식, 자유시간	지역식당

	09:00~12:00	– 레인저와 함께하는 북한산둘레길 트레킹 (왕의 그림자 내시묘역 이야기)	북한산둘레길
	12:00~13:00	– 설문조사 및 느낌나누기 – 일정정리 및 기념촬영	북한산성입구
	13:00~	– 해산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탐방시설과장	1명	상근
운영지원	탐방업무담당자	1명	상근
자연환경안내원	자연·역사·경관해설자	36명	상근
자원활동가	자연·역사·경관해설 보조	5명	비상근
계		43명	상근38명/ 비상근5명

4. 안전관리 대책

□ 프로그램 실행 전 교육

– 참가자 응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프로그램진행시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 산악사고 사례 전파

□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 프로그램 진행 전 체조 시행, 응급사항 시 행동요령,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탐방로 상태에 유의하여 보행할 것, 주위의 식물, 야생동물 등을 만지거나 유인하지 말 것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지도·감독
민간단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사업추진

6.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지역언론단체, 신문사 등

– 인터넷 홍보 : 북한산국립공원홈페이지 및 각 환경관련단체 홈페이지 활용, 탐방프로그램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활용한 홍보 추진 (http://bukhan.knps.or.kr)

– 공문발송 : 각 학교 및 지자체 등 참여유도 공문발송

– 기타 : 브로슈어, 사진첩, 안내지도, 달력 등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역사 속 전통농사와 종택의 만남] 경기 군포시/(사)전국귀농운동본부

1. 세부 프로그램

가. 자연유산 위에 써내려가는 생태적인 문화유산 이야기 '임원경제지 속 전통농업 오감 체험'

- 기　　간 : 2012. 4. ~ 2012. 11.
- 장　　소 : 군포시 소재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 정난종선생 묘 및 신도비외 묘역 일원(경기도 기념물 제115호), 종택 주위 논과 밭
- 참여대상 :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인
- 주요내용 :
- 조선판 생활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 농사편 '본리지'의 전통농법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통해 역사적이며 생태적인 조선시대의 일상적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본리지'가 가지고 있는 농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볍씨 담그기, 모내기, 논둑관리, 피뽑기, 벼베기, 가을걷이 농악 한마당 등으로 구성.
- 농사와 함께 절기별 종택이 했던 행사 체험 (화전놀이, 봉숭아 물들이기, 전통술 담그기)
- 본리지의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기구를 복원 제작하여 시연
- 조선후기 지어진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의 역사를 농사와 마을이라는 주제로 풀어가며 소개하고 종택과 함께 실제 농사를 짓는 마을을 돌아봄으로서 문화·자연유산이 농사를 통해 보전되고 생태계와 공존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줌.
- 절기별 벼 농사 일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춘: 농사준비	입하: 잡초 제거	입추: 곡식 이삭	입동: 가을걷이
우수: 씨앗 고르기	소만: 모판, 벼농사 시작	처서: 추수 준비	소설: 월동준비
경칩: 장 담그기	망종: 농번기	백로: 가을걷이 시작	대설: 매주수기
춘분: 농사의 시작	하지: 병충해 방재작업	추분	동지: 겨울나기
청명: 밭갈이	소서: 장마,가뭄 대비	한로	소한: 보리농사
곡우: 볍씨 담그기	대서: 무더위	상강	대한: 농한기

- 추진일정 : 2012. 2. ~ 3.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사전예약 실시, 2012. 4. ~ 11. : 절기별 총 10회, 주말

2.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절 기	행사명	주요내용
4.8	[청명] 봄 농사준비	종택에서 배우는 [본리지]	– 임원경제지 본리지의 역사적 의미 – 종택과 농촌마을 우리농사의 중요성 – 종택과 함께한 농사마을 둘러보기
4.15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 이야기 – 화전놀이	– 농사 시작 전 하루를 즐겁게 노는 행사 – 진달래 꽃으로 화전 만들기 – 종택에서 꽃노래 배우기 – 어린이 꽃노래 동시 대회
4.22	[곡우] 농사비가 내림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 이야기 – 벼 파종하기	– 벼농사 이야기 – 우리 토종 벼 이야기 – 토종 벼 침종, 모판 내기
5.20	[소만] 농사 시작	[본리지] 옛 농기구를 복원하자	– 전통농법과 옛 농기구의 효율성 이해와 복원할 농기구 선별하기
6.3	[망종] 씨 뿌리기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 이야기 – 모내기	– 사물놀이 환영식과 종택 답사 –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모내기 체험
7.1	[소서] 더위의 시작	종택의 여름나기	– 종택 답사 그리고 여름나기 이야기 – 논 둘러보고 논둑 다지기 – 가족들과 함께 봉숭아물 들이기
8.5	[입추]	[정조지] 전통술 담그기	– 종택과 함께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번역

	가을의 시작		된 옛 방식 그대로 전통술 담그기
10.7	[한로] 오곡백과 수확	종택에서 배우는 농사 이야기 – 벼베기	– 사물놀이 환영식과 종택 답사 – 직접 벼를 베고 탈곡하는 전통방식의 가을 곡식 거두기 체험
10.14		가을 걷이 농악 한마당	– 생생 교류 사업으로 원주매지농악과 종택이 함께하는 가을걷이 농악 한마당
11.4	[입동] 겨울의 시작	곡식 나누기 그리고 종택의 겨울나기	– 종택 답사 그리고 겨울나기 이야기 – 일년 농사한 수확물을 나누는 행사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사업팀장	• 사업 기획 및 진행 총괄(관리, 운영) • 사업 모니터링 및 업무보고	1명	상근
운영지원	• 사업 행사 사무 및 진행 보조 • 프로그램 진행	1명	상근
학술지원	• 임원경제지 본리지 전통농업 실습 강의 • 전통음식(전통주 등) 실습 강의	2명	비상근(강사)
자원활동	• 체험 프로그램 전반 진행 보조	2명	비상근
계		6명	상근2명/ 비상근4명

4. 안전관리 대책

–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는 보조 인력이 항시 대기하여 사고를 대비함.

– 인근 경찰서 및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함.

– 문화유산 내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흡연을 금함.

– 문화유산 내 소방계획은 지역 소방서와 협의 후 구축함.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별 자문 지원 •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홍보
민간단체	• 사업 전반 기획 및 총괄 진행

6. 홍보계획

– 지역 연계 기관 및 언론매체, 축제 등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의 구축을 통한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 및 홍보

–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임원경제연구소 회원에 집중 홍보를 통한 유치

–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임원경제연구소 연계사업 및 연계사이트를 통한 홍보

[행행중행복(行幸中行福)한 남한산성] 경기도/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1. 세부 프로그램

가.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 기　　간 : '12. 10.3
- 장　　소 : 남한산성행궁(국가사적 제480호)
- 참여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가족 (총 150명 내외)
- 주요내용 :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출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꿈으로 특히 임금이 능행시 치르는 외방별시는 한 번의 시험을 급제를 주거나 문과 최종시험인 전시에 곧장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시험임. 특히 정조는 남한산성에서 문과 무과 시험을 직접 시행했으며, 문과 3인과 무과에서 15인을 선발한 기록이 있음. 남한산성행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문과시험을 오후에는 무과시험을 시행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선착순으로 50팀 선발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함.
- 추진일정 : 2012.2~3 세부계획 수립 및 강사협의, 2012.4. 홍보 및 참가신청 접수, 2012.10. 프로그램 진행 및 설문조사, 2012.10~11 사후평가

나. 임금님, 납시오! (연극공연+역사인물체험)

- 기　　간 : '12. 5~6, 9~10월(각16회, 총 32회), 매주 토
- 장　　소 : 남한산성행궁(국가사적 제480호)
- 참여대상 : 연극공연-일반인(자유관람), 역사인물체험-어린이(매회 30명)
- 주요내용 :
- 연극공연(제목: 왕들의 수다)은 5~6월, 9~10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상설로 진행됨. 남한산성에 피난 온 인조임금과 행행하였던 5인의 임금들이 행궁에서 만나 당시 방문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됨. 행궁에 방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연극형식으로 구성하고, 남한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진행할 예정임.
- 역사인물체험(임금님, 납시오!)은 5~6월, 9~10월에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씩, 사전 인터넷접수를 통해 어린이 30명씩 모집하여 진행됨. 남한산성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정조의 능행시 백성들에게 조치했던 혜택, 문무과 시험 시행, 군사훈련 등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직접 연극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추진일정 : 2012.2~3 세부계획 수립 및 강사협의, 2012.4 홍보 및 참가신청 접수, 2012.5~6, 9~10월 프로그램 진행 및 설문조사, 2012.11~12 사후평가

다. 행궁에서 만나는 가족 풍류 여행(공연+문학 체험)

- 기간: 2012년 5~10월(총 2회)
- 장소: 남한산성행궁(국가사적 제480호)
- 참여대상: 초등학생 1~6학년 자녀와 부모(최대 4인 1조, 1회 15가족)
- 주요내용
- 남한산성행궁에는 인조 외에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임금이 행차하였고 유수(정2품), 수어사, 부윤, 목사 등 약 400여명의 관리들이 거쳐 갔음.
- 따라서 역대 국왕과 관리들이 직접 지은 시조와 문집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행궁 앞 악공청(樂工廳, 조선시대 관아에서 음악과 연회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음악 강습을 하고 관아의 행사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터가 발견됨으로써 남한산성행궁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음을 확인함.
- '가족 여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명제 아래 조선시대 남한산성행궁에서 있었던 음악과 문학을 소개하고 가족 모두가 체험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국악 체험과 남한산성행궁과 문화재에 얽힌 시조 낭독 체험을 진행함.
- 추진일정: 5~11월(월 2회, 매주 토요일), 13:00~15:00, 총 12회 진행

라. 성곽을 지켜라!(성곽무예체험)

- 기간: 2012년 9~10월(총 8회), 매주 일 12:00~13:00(1시간)
- 장소: 남한산성 서문 위 성곽
- 참여대상: 관람-일반일(탐방객), 체험-선착순 30명
- 주요내용
-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격전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왕이 남한산성에 행차하면 국사훈련을 실시하였음.
- 남한산성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성곽을 배경으로 군사무예 시범을 보이고, 창 및 활쏘기와 복장체험을 통하여 탐방객들이 직접 군사체험에 참여해 봄.
- 전통무예시험: 남한행궁에 행차한 임금님께서 남한산성의 성곽을 지키는 병사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상황극을 펼치며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수어청 교련관들의 무예시범을 볼 수 있게 함.
- 성곽병사체험: 임금님의 명력에 따라 교련관들이 새로 번을 서기 위해 들어온 군사들(체험 참가 등산객)에게 전통군사복을 입히고 활소기와 창법을 훈련시킴.
- 별도의 참가시험을 받지 않고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하고 체험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미. 뚜르 드 산성(tour de sangseong!)-산성연계프로그램

- 기간: 2012년 4~10월(총 4회 진행)
- 장소: 남한산성, 아차산성, 대전산성
- 참여대상: 초등학생을 둔 가족, 일반인
- 주요내용
- 2011년도 문화재 생생(生生)사업에 참여했던 3곳의 산성이 교차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재 연계프로그램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자 함.
-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남한산성, 대전산성, 아차산성과 연계한 산성문화재를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는 교차 체험프로그램임.
- 각 프로그램별 예산은 모집하여 진행하는 산성에서 전액부담하고, 재료비와 행사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별도 수립함.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2월~3월	전체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후 홍보, 강사섭외 등	
'12. 4월~6월	상반기 프로그램 진행(20회)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1회) 임금님, 납시오!(16회) 행궁에서 만나는 가족 풍류여행(1회) 뚜르 드 산성!(2회)	
'12. 7월~8월	프로그램 준비 하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12. 9월~10월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27회)	임금님, 납시오!(16회) 행궁에서 만나는 가족 풍류여행(1회) 성곽을 지켜라!(8회) 뚜르 드 산성!(2회)	
'12. 11월~12월	전체프로그램	정산 및 결과보고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프로그램 전체기획 및 운영관리	2명	상근
운영관리	홍보 및 접수, 운영강사	4명	상근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지원	5명	상군
진행강사	문화재관련 교육 및 진행강사	4명	상근 2명 비상근 2명
전문강사A	문화재 및 문학관련 전문교육 진행	5명	비상근
전문강사B	연극 및 무예, 생태 전문강사	30명	비상금
계		50명	상근 13명/ 비상근 37명

4. 안전관리 대책

- 프로그램 진행 시 비상구급함을 소지하여 운영하도록 함.
- 보조강사 등에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처(안전강사 2인 보유)
-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꽃 알레르기나 뱀, 벌 등의 독충에 대한 예방을 위해 사전에 주의교육과 진행시 수시로 안전지도 실시
-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안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행동요령을 지도
-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통제로 3C-현장조사(Check), 응급의료기관에 연락(Call), 처치와 도움(Care)-의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
- 위험한 곳에 대한 접근과 개별 행동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원에 대비하여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사업기획 지원방안 • 지자체나 교육지원단체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에 담당자들을 적극 참여시킴 • 문화재 및 문화예술교육관련 자문위원 추천 및 섭외 • 사업수행단체인 경기문화재단은 남한산성내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 복원정비 및 문화재활용업무 전담 • 경기문화재단내남한산성전담관리기구인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신설('09.3월) • 매년 인건비(2팀 14명) 및 운영경비를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 • 남한산성내 각종 사업수립 및 추진시 경기도와 상시협의시스템 구축 ○ 사업운영 지원방안 • 프로그램별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팝업 및 게시판 게재 • 보도자료 작성 후 중앙 및 지역 언론사 홍보 • 도비 지원으로 일부 프로그램 행정적 지원 •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도내 31개시 군 및 타 시·도 홍보 등 행사지원 가능 ○ 향후 사업 활용계획 •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재교육 및 체험으로 육성하여 경기도내 다른 문화유산들과 연계사업으로

	진행 • 도내 개 시군에 31 ·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사례전파 및 독려 가능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류작업의 문화재 활용부분으로 기입
민간단체	○ 사업기획 및 업무협의 • 프로그램 기본계획안 작성 및 지자체 관련 회의 주관 • 프로그램 진행관련 단체인 아트브릿지(연극단체), 전통무예18기(무예단체), 문화관광해설사 등 섭외 및 업무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 산성연계프로그램 협력단체인 대전산성, 아차산성과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공동진행 ○ 참가모집 및 사업진행 •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및 책자, 기념품 등 제작 • 보도자료,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홍보활동 진행 • 프로그램별 참가자 모집 및 관리 • 사업진행(과거시험 1회, 연극프로그램 32회, 무예프로그램 32회, 시조 및 공연 12회, 산성연계 5회) ○ 결과보고 및 정산 • 프로그램별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국가보조금과 지자체지원금 정산작업 진행 구분

6. 홍보계획

구분	홍보방법	세부내용	비고
1	공문발송	학교연계프로그램은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발송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	
2	홈페이지 게재	주최/주관 홈페이지 공지 및 관련단체 게시판을 통해 홍보 – 경기도청,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3	SNS 홍보 (트위터, 페이스북 등)	경기도청 @ggholic, 경기문화재단 @ggcf_kr,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namhansanseong	
4	보도자료 배포	정기적인 지역신문 및 방송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 활성화	
5	홍보물 부착	남한산성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진행	
6	참여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교사 및 참여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유지 관리 조성 후 재방문 및 구두 홍보 유도	

[소풍, 열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기도/경기관광공사

1. 세부 프로그램

가. 증기기관차 스토리텔링 개발

- 기　　간 : '12. 3 ~ 5월
- 사업방향 :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스토리 개발, 국내의 유명한 스토리텔링 전문가(교수)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 개발
- 주요내용 : 역사적 배경, 피폭내용, 증기기관차 뿡나무, 마지막 기관사 증언 등, 통일 이후 열차타고 소풍가는 상상세계여행 체험을 주제로 엮은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 향후 홍보 동영상 및 각종 홍보물 제작시 활용
- 추진일정 : 작가 섭외 및 사업 구상 : 2012. 3월, 스토리텔링 개발 : 2012. 4 ~ 5월

나. 증기기관차 홍보

- 기　　간 : '12. 4 ~ 12월
- 사업방향 : 증기기관차 재원, 피폭내용, 보존처리 등 증기기관차 홍보 리플렛 제작
- 홍보물 제작 내용

크　　기	재　질	인쇄도수	제본방식	수　　량	비　고
4*6, 32절	150g, SW	양면 8도	4단 대문접지	12,000부	

- 추진일정 : 자료 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2. 3월,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012. 4 ~ 12월

다. 증기기관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　　간 :'12. 4 ~ 10월 (총 15회 1,500명)
- 장　　소 :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및 체험교육장
- 참여대상 : 유치원, 초·중·고교생, 외국 관광객
- 주요내용 : 증기기관차 관련 전문가 교육(철도박물관장, 대학교수 등), 증기기관차 3D 체험 및 동영상 시청,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관람 및 체험
- 추진일정 :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 기관 파악 : 2012. 3월, 강사 섭외 및 사업계획 수립 : 2012. 3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2. 4 ~ 10월, 참여자 설문조사 및 결과 보고 : 2012. 10 ~ 11월

라.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상상세계 체험 물품 제작

- 기　　간 : '12. 3 ~ 12월
- 장　　소 :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 참여대상 : 증기기관차 관람·방문객
- 주요내용 : 승차권을 구입해서 열차를 승차하고 하차하는 기차역 개찰, 집찰 체험 * 대륙횡단 가능한 행선지(베이징, 울란우데, 모스크바, 파리, 런던, 개성, 평양 등), 어린이가 관심을 갖을 만한 체험 개최(증기기관차 모형 퍼즐놀이)
- 추진일정 : 자료 수집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2. 3월, 체험자료 제작 : 2012. 4월, 체험 물품 비치 및 운영 : 2012. 5 ~ 10월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 5월	증기기관차 스토리텔링 개발	- 작가 섭외 및 사업 구상 - 스토리텔링 개발	
'12. 5 ~ 8월	증기기관차 홍보	- 자료 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12. 4 ~ 10월	증기기관차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 기관 조사, 강사 섭외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설문 조사 및 운영결과 보고	
'12. 3 ~ 12월	상상세계 체험물품 제작	- 자료 수집,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작 및 운영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본부장	전략사업본부 총괄	1명	비상근
팀장	임진각사업운영팀 업무 총괄	1명	상근
업무담당	증기기관차 관리운영, 보존처리 및 입구개선	1명	상근
관련직원	임진각사업운영팀 직원	5명	상근
관리도우미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관리	1명	상근
자원봉사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보조	1명	비상근
계		10명	상근8명/ 비상근2명

4. 안전관리 대책

-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주변에 비상구급함 비치(안내센터 활용)
- 비상연락망 비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경찰서, 소방서 등)
-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안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행동요령을 지도
-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통제로 3C - 현장조사(Check), 응급의료기관에 연락(Call), 처치와 도움(Care) -의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사업정산
민간단체	-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결과 보고, 설문조사 등

6. 홍보계획

- 협조 공문 발송 :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 도내 시군(문화관광과), 대학교 한국어학당, 현충원
- 홈페이지 게재 : 경기도청,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평화누리
- 방송보도 : 공중파 방송 및 지역케이블 보도 협조, 보도자료 제공 : 중앙지 및 지방지
- 포스터 부착 : 도내 지자체, 임진각 평화누리 게시판, 수도권지역 전철역

7. 기타 참고사항

-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의 상징물로 국내외 언론기관 및 관람객의 관심이 많은 문화재임.
  - 방송 : KBS, MBC, SBS 등 국내 공중파 방송, 아리랑TV, 동경TV 다수
  - 제3땅굴, 도라전망대와 더불어 외국인 최고의 방문지(연간 60만명)
-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보존·활용하기 위해 경기도(경기관광공사)가 자체사업비 투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임
  -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조성사업비 투자 : 6억원(경기도 출연금)
  - 증기기관차 관리운영비 지원 : 년 20,000 ~ 50,000천원(경기도 출연금)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경남 남해군/경남발전연구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 기　　간 : '12. 04. 01. ~ 10. 31.(7개월 / 7 회)
- 장　　소 : 남해 지족마을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취학계층, 경남도민
- 주요내용 : 죽방렴체험
- 추진일정 : 2012. 04월부터 월1회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04. 21.	바랫길 걷기 (말발굽길-고사리밭길)	• 어촌탐방(지족마을) • 적량성 - 가인 공룡발자국화석	
'12. 05. 19.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	• 죽방렴체험 • 조개잡이 • 어촌마을 탐방	
'12. 06. 16.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	• 죽방렴체험 • 쏙, 조개잡이체험 • 어촌마을 탐방	
'12. 07. 21. ~ 07. 22.	원시어업 1박2일	• 죽방렴체험 • 쏙, 조개잡이체험 • 홰바리체험 • 선상체험 • 어촌마을 탐방	
'12. 08. 18.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	• 죽방렴체험 • 쏙, 조개잡이 • 어촌마을 탐방	
'12. 09. 15.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	• 죽방렴체험 • 쏙, 조개잡이체험 • 어촌마을 탐방	
'12. 10. 13.	바랫길 걷기 (말발굽길-고사리밭길)	• 어촌탐방(지족마을) • 적량성 - 가인 공룡발자국화석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체험계획, 진행	2명	상 근
운영지원	지족마을 주민체험활동 보조	4명	비상근
자원활동	진행보조	2명	상 근
자원활동	진행보조	2명	비상근
계		10명	상 근 4명 비상근 6명

4. 안전관리 대책

- 구명조끼, 비상약품 비치
- 체험일 지역 해상안전요원 대기(2명)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체험장 마련, 체험홍보, 업무추진, 문화관광해설사지원
민간단체	체험활동진행, 일정계획, 참여자모집 및 인솔, 체험홍보

6. 홍보계획

- 언론기관 홍보(창원 KBS, MBC, 진주MBC)
- 지역신문(경남도보, 남해지역신문사)

7. 기타 참고사항

- 남해 지족마을 죽방렴의 적극적 홍보
- 남해 바랫길 걷기는 지역의 숨겨진 문화재를 알리는데 그 중점을 두어 지족마을에서 출발하여 고려시대 말을 사육하였던 적량과 함께 가인 공룡발자국 화석을 알리는 계기 마련. (바랫길 코스 내 문화재 홍보에 주안점을 둠)

[하동송림 마을 숲 이야기 듣고 읍성발굴 체험하기] 경남 하동군/교육문화공동체 결

1. 세부 프로그램

가. 하동송림이 베푸는 따뜻함(솔가리*[14]) 수집해 나눠주기)

- 기 간: '12. 12월 중
- 주요내용: 송림에서 '소나무와 함께 숨을 쉬다' 프로그램 진행할 시 송림에 떨어진 솔가리 나눠주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겨울에 난방용으로 필요한 분들(노약자 위주)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
- 행사취지: 하동송림 내에 1년간 쌓인 솔가리를 관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도시 지역과는 달리 나무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지역적 특성과 농촌지역 노령화 추세를 볼 때 매우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소나무숲 아래에 쌓인 소나무 잎을 제거하는 일은 하동송림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추진방법: 5월~12월 : 자원봉사자 모집, '한 문화재 한 지킴이의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행사와 병행하여 수시로 솔가리 모아두기, 12월 중 : 행사 진행, 자원봉사자 및 인부가 솔가리를 모아 필요한 분에게 배달

나. 하동송림 옛이야기 모음(하동 4대 소나무)

- 기 간: '12. 3월 중 총5회
- 주요내용: 하동송림과 관련된 옛이야기를 모읍니다. 지금까지 풍수해 방지를 위해 심었다는 기록만 전해질 뿐 그 속에서 함께 살아온 민중들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동송림을 찾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옛이야기를 모읍니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동 4대 소나무인 천연기념물 491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 평사리 부부송, 십일천송도 같이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 추진방법: 하동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송림에 대한 옛 이야기를 모아 향후 생생사업 소재로 활용하거나 자료집 발간 소재로 활용함.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자료로 보존
- 추진일정: 하동송림이 베푸는 따뜻함 : '12. 12월 중(총 1회), 하동송림 옛이야기 모음 : '12. 3월(총 5회)

다. 송림 솔솔 할아버지에게 엽서 보내기

- 기 간: '12. 3 ~ 11. (상시 운영)
- 장 소: 전국 어디서나
- 참여대상: 전국 누구나
- 주요 내용: 하동 소나무를 디자인한 엽서 제작, 제작한 엽서를 송림 소나무에게 보내면 소나무가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 관내 학생 및 주민, 공무원 중 소나무 편지 답변 신청자 모집, 소나무를 의인화 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케 함. 향후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활동가 발굴, 동참케 함.
- 추진일정 : '12. 3 ~ 4. 엽서 제작, 홍보, '12. 5 ~ 이후 상시 . 운영

라. 우리가 만든 하동송림 Play

- 기 간 : '12. 3 ~ 8(15회)
- 장 소: 하동송림, 하동예술문화회관
- 참여대상: 하동지역 소재 중학생
- 주요내용: 섬진강 전설과 하동송림을 지역 청소년들과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창작극및 컨텐츠(하동송림 동화책 & 창작극 DVD) 제작.
- 추진일정: '12. 2. ~ 3. : 대상 학교 섭외, '12. 4. ~ 7. (총 15회): 스토리텔링 수업 진행, 시나리오 작성, 홍보 UCC작업. '12. 8 영상 편집 및 제작

14) 솔가리 : 말라서 땅에 떨어져 쌓인 솔잎, 소나무의 가지를 땔감으로 쓰려고 묶어 놓은 것

마. 하동송림 가족 그림 대회

- 기　　간 : 4월 첫째주 주말
- 장　　소: 하동 송림 일대
- 참여대상: 성인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족 50팀 (4인 가족기준 200명)
- 주요내용: 식목일을 기념하여 세대가 어울려 다양한 송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족 그림 대회를 개최함. 그림대회에 앞서 작가가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깜짝 강좌도 개최, 심사와 게임을 통해 입상자 및 선정자에게 하동송림 아기소나무 묘목 분양
- ※ 행사 진행 도우미로 하동지역 한문화재 한지킴이 회원 참여
- ※ 봉사활동 확인증 발급으로 학생 참여 유도

바. 하동 4대 소나무 우표디자인 공모전 및 우표 제작

- 공모 기간 : 2012. 4. 1 ~ 5. 20
- 공모 대상 : 하동 송림, 문암송, 평사리 부부소나무, 악양 십일천송 중 1점. (1인 다작 가능)
- 심사 및 발표 : 2012. 5월말
- 우표 제작 : 2012. 6월경
- 시상 내역: 대상 총 4점(각 대상별 1점씩, 일금 50만원(※세금포함)), 우수상 총 8점(각 대상별 2점씩, 1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입선 총 10점(대상 관계 없음.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 ※대상작 없을 시 전문가 디자인 의뢰비로 대체

사. 하동읍성 역사탐방, 발굴체험

- 기　　간: 4~6월, 9~10월 토요일
- 장　　소: 하동읍성
- 참여대상: 하동읍성 지역주민 외 방문객
- 주요내용: 총 15회 토요일 실시, 하동읍성 발굴성과 강의 및 하동읍성 탐방로를 돌며 역사 설명, 소규모 발굴 체험밭 조성하여 유물 발굴 및 복원 체험, 하동읍성 지도 만들기 스탬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활용

아. 옹기종기 하동읍성 돌담길

- 기　　간: 6월 , 9월 마지막주 주말
- 장　　소: 하동읍성
- 참여대상: 하동읍성 지역주민 외 방문객
- 주요내용: 연 2회, 매 회 주말 저녁 실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동읍성에 가치 재조명, 퀴즈쇼, 음악회,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5월 ~ 10월	송림과 함께하는 시간	하동송림이 베푸는 따뜻함	• 12월 중 1회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하동송림 비개방구간에 대해 소나무잎 긁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긁어 모은 소나무잎은 차량을 이용하여 미리 선정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하동송림 옛이야기 모음	• 3월 중 5회 • 하동송림을 찾으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동송림과 관련된 민속놀이, 활동 등의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옛풍경이 담긴 사진을 수집합니다. (하동 4대소나무 포함)	
'12. 3~ 11. (상시 운영)	송림 소나무 할아버지에게 엽서보내기		• 하동 소나무를 디자인한 엽서 제작 • 제작한 엽서를 송림 소나무에게 보내면 소나무가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	

		• 참여자들이 송림 방문을 유도 • 엽서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의인화 하여 송림과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가깝고 친근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일정 : '12. 3 ~ 4. 엽서 제작, 홍보 '12. 5 ~ 이후 상시 . 운영	
'12. 3~ 9. (15회)	우리가 만든 하동송림 play	• 연극 전문가와 함께 한 섬진강 전설과 하동송림 스토리텔링으로 지역 청소년 극단이 만드는 창작극 시연과 창작극 컨텐츠화 시도(하동송림 홍보용 창작극 DVD 및 하동 스토리 텔링 동화책으로 구현) • 추진일정: 12. 2.~3. : 대상 학교 섭외 12. 4.~6. (총 15회): 시나리오 협의 및 수업진행, 동화책 제작 12. 7. : 연극 공연, 영상 촬영 및 편집	
4월 첫째주 주말	하동송림 가족 그림대회 (송림 묘목 분양)	• 식목일 기념과 함께 하동송림 가치 알리기 일환으로 하동송림에서 자란 어린 묘목화분을 방문객에게 분양하는 캠페인. • 하동송림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가져오면 하동 송림 묘목화분을 분양받게 되고 그 그림은 현장에 전시되게 된다.	
'12. 4~5.20.	하동 4대 소나무 우표 디자인 공모전 및 우표 제작	• 하동송림의 자연친화적 가치를 활용한 디자인 공모	
4~6. 9~11.	하동읍성 역사탐방, 발굴체험	• 상설 발굴현장 투어 운영, 발굴 체험용 밭 조성, 전시 패널 및 쉼터 마련 • 하동읍성 탐방로 답사 및 읍성 발굴 설명 • 발굴체험 • 주성마을(읍성 주변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하동읍성 학술대회 및 답사, 어울림 마당 ※마을주민과 화합하는 문화행사 개최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생생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총괄	1명	비상근
사업팀장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총 4개)의 업무 총괄	4명	비상근
진행강사	각각의 프로그램 진행 및 개별 홍보 활동	14명	비상근
계	총괄팀장 및 사업팀장은 진행강사로 중복처리	16명	

4. 안전관리 대책

- 화재예방 담당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사전 화제 예방에 힘씀
- 안전사고 담당자 배치 :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요원 배치
- 안전사고 연락망구축 : 하동경찰서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 소방항공대, 하동소방서 출동체계
  - 사전 안전훈련으로
- 탐방객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여행자보험) 일부 가입
-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 위기관리 메뉴얼을 진행요원과 전체와 공유, 별도의 안전교육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관내외 홍보 도움(군청 홈페이지 팝업), 행정적 지원
민간단체	생생사업의 기획, 진행, 재정집행, 홍보 등의 모든 업무

6. 홍보계획

-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공문발송
- 지역 내 많은 단체의 홈페이지, 카페 등에 게시 글
- 작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이메일 등에 홍보 안내문 보내기
- 생생사업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참가객과 소통공간을 마련

7. 기타 참고사항

- 하동군에서 진행하는 사적 453호 하동송림 역사탐방체험 프로그램이 4.~6월, 9.~11월간 진행되므로 하동송림 생생사업 방문객에게 홍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1,600년 전 압독국으로의 여행] 경북 경산시/한빛문화재연구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1600년 전 '압독국'을 찾아서

- 기　　간 : '12. 06. 01. ~ 07. 30. (6주, 일일 4시간, 총6회)
- 장　　소 : 한빛문화재연구원 강당, 경산시립박물관, 임당고분군 공원 및 전시관 일대
- 참여대상 : 경산시민 일반인(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주요내용 : 임당동, 조영동 고분군의 발굴에서 전시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시작으로 '압독국'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강의와 발굴과 유물실측 체험활동, 이와 함께 문화재를 즐기기 위한 고분 사진촬영 강좌를 포함함.
- 추진일정: 2012.2 강의내용 및 강사 확정, 2012.2~3 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수합, 2012. 4 수강생 모집, 2012. 6 강의 시행, 2012. 9 강의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나. 임당고분군과 함께 하는 압독국으로의 여행

- 기　　간 : '12. 10. 20. ~ 10. 21. (2일, 총 1회)
- 장　　소 : 임당고분군 공원 및 전시관 일대
- 참여대상 : 경산시민을 포함한 주변지역민 모두
- 주요내용 : 임당고분군 공원 및 전시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지역 소축제 개최. 임당고분군 공원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압독국에 대한 인식재고를 위하여 지역단위 소축제를 개최함.
- 추진 일정: 2012. 5 축제 프로그램 확정, 2012. 6 정규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섭외, 압량고분군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2012. 7 안내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2012. 7 축제를 위한 사진, 그림 선정, 2012. 8 주변 민원 사전 확인 및 축제 장소 재확인, 축제 개최를 위한 배치도 작성 및 확인, 2012. 9 경산시 소재 학교 및 기관에 안내문 홍보, 체험 프로그램, 골든벨 사전접수, 2012. 9 축제 개최

다. 학교로 찾아 간 압독국 사람들

- 기　　간 : '12. 9. 01. ~ 11. 30. (1일 1시간, 총 6회)
- 장　　소 : 경산시 소재 초•중등학교
- 참여대상 : 경산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 4학년, 중학교 1학년
- 주요내용 : 경산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와 연계한 압독국과 고분군에 대한 수업. 학교 교재로 사용되는 '지역사회와 생활' 내 소개하는 압독국과 지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압독국과 관련된 모의유물과 교재를 통해 체험학습 및 교육을 실시. 관내 초등학생 3~4학년 학생 중 신청 학급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현장을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추진일정: 2012. 5 대상학교 및 학급/학반 선정, 2012. 6 학습지도안 작성 및 활동지 제작, 2012. 7 모의유물 선정 및 제작, 2012. 7 담당 담임선생님과 활동지 및 자료 협의, 2012. 8 활동지와 모의유물 최종 확인, 2012. 9 찾아가는 문화유산 수업 실시, 2012.9 수업 확인 및 문제점 보완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06. 01. ~ 07. 30.	1600년 전 '압독국'을 찾아서	• 압독국 역사와 발굴에 대한 강의 • 고분과 발굴에 대한 이해 및 체험 • 압독국 유물과 전시에 대한 현장학습 • 문화재 즐기기 사진촬영 기술 및 체험	
'12. 10. 21. ~ 10. 22.	임당고분군과 함께 하는 압독국으로의 여행	• 임당고분군과 전시관 주변에서 개최되는 지역 소축제 • 체험학습과 전시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역민들을 비롯한 경산시민들에게 지역문화재를 알림.	

'12. 09. 01. ~ 11. 30.	학교로 찾아 간 압독국 사람들	• 경산시 소재 지역학생들에게 압독국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유산 수업을 진행. • 지리적으로 경산시 외곽 소외된 분교를 중심으로 행해지며, 이를 통해 경산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됨.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책임	1명	상근
운영지원	•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4명	상근
자원활동	• 프로그램 운영지원	6명	비상근
계		11명	상근5명/ 비상근6명

4. 안전관리 대책

- 축제 개최 및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약품 항시 배치.
-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인력통솔자를 충분히 배치.
- 모의유물 제작시 안전을 고려하여 실리콘 및 안전관련 재질을 사용.
- 모든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경산시립박물관	• 박물관 견학 지원 및 강의 지원 • 경산시 관내 학교 홍보 • 사적지 활용에 따른 협조 • 경산시장 수료증 발급 및 관련 공문 협조 • 경산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상시적으로 홍보 • 경산시립박물관 내 관련프로그램과 연계
(재)한빛문화재연구원	•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10,000,000원 지원)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교재개발 및 모의유물 제작 •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적 상황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뒤 결과보고 확인

6. 홍보계획

- 홈페이지 활용
  - 경산시립박물관, 재단 홈페이지내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홍보 팝업창.
  - 경산시청 홈페이지 활용
  - 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 언론매체 및 대외 홍보
  - 프로그램 일주일 전 지역신문(경산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등)에 2회 광고

- 프로그램 이주일 전 플랜카드를 통한 대외광고 시행

– 공문발송을 통한 홍보
  - 경산시교육청과 협조 후 프로그램 참여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경산시내 각 학교에 공문발송 후 참여유도.
  - 경산시내 아파트 단지 내 지역안내 공고판 활용하여 홍보

– 대학•유관기관단체를 통한 홍보
  - 지역내 대학 관련학과(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구한의대학교 관광레져학과, 대구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등) 학생들의 경우 참여 및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학습이 봉사활동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경산문화원, 경산역사모임 동아리 등 단체들에게 적극적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본 기관은 경산시립박물관과 2012년 MOU, 영남대학교 박물관과 2009년 MOU협정을 통해서 인력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조를 맺고 있음. 따라서, 충분한 인력 인프라와 장소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강점을 지닌 기관임.

– 본 기관은 임당유적 발굴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 이에, 경산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본 연구원들은 이미 프로그램 진행에 충분한 소양을 지녔으며, 체험프로그램 및 대외활동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음.

[2012 도담도담 월봉서원] 광주 광산구/교육문화공동체 결

1. 세부 프로그램

가. 고품격 서원 문화 살롱, '살롱 드 월봉'(salon de Wolbong)

- 기 간 : '12. 3. ~ 12. (총 10 회)
- 장 소 : 월봉서원 교육·체험관
- 참여대상 :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회당 50명
- 주요내용 : 매월 1회 총 10회, 매 회 평일 저녁 실시, 과거 호남 계산풍류 정신을 잇는 인문학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인적, 교류 모델 제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 이야기와 공연, 경연이 어우러진 마당, 월봉서원에서 호남의 계산풍류 이야기, 클래식 어울림, 재즈선율 등 테마가 있는 공연, 이야기 손님과 교류한 내용 책자 발간
- 추진일정 : '12. 1 ~ 2. 공연자(팀) 섭외, 홍보, '12. 3 ~ 12. 프로그램 진행

나. 월봉서원 철학 STAY운영

- 기 간 : '12. 6. ~ 9. (총 4 회)
- 장 소 : 월봉서원 일대
- 참여대상 : 전 국민, 회당 30명 이내
- 주요내용 : 철학 만남, 다담, 편지 쓰기, 활인심방, 고봉 유적지 답사 등
- 추진일정 : '12. 4. ~ 5. 철학스테이 홍보 및 제반 준비 사항 체크, 준비, '12. 6. ~ 9. 철학스테이 진행(월 1회)

다. 조선팔도 선비문화교류 프로그램

- 기 간 : '12. 6. / 10. (총 2회)
- 장 소 : 전국
- 참여대상 : 학자,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회당 30명 총 60명
- 주요내용 : 회당 2박 3일 일정으로 서원, 종택, 누정, 박물관 등 선비 문화 공간 답사, 종손과의 면담, 문화해설사 해설 등
- 추진일정 : '12. 5. 참가자 모집 / 제반 준비 사항 체크&마련, '12. 6. 1차 교류 프로그램 진행 / 평가,'12. 8 ~ 9. 참가자 모집 / 제반 준비 사항 체크&마련, '12. 10. 2차 교류 프로그램 진행 / 평가

라. 월봉서원 전국 한시 경연 대회

- 기 간 : '12. 9. (총 1 회)
- 장 소 : 월봉서원 빙월당
- 참여대상 : 전국민 누구나
- 주요내용 : 고봉선생을 배향한 월봉서원을 무대로 고봉 한시 대회 개최, 퇴계선생과 고봉선생의 '사칠논쟁'과 같은 고차원적인 철학적 주제를 재해석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 마련
- 추진일정 : '12. 3. 세부실행계획수립, '12. 4. ~ 8. 프로그램 홍보, 12. 9. 프로그램 진행
- ※ 행사가 진행되는 9월중 한 주를 지정하여 고봉주간으로 선정. 전국한시대회, 아름다운 월봉 엽서 공모전, 어린이 글짓기 대회 고봉학 학술대회를 연계하여 진행

마. 아름다운 월봉 엽서 공모전

- 기　　간 : ‘12. 5 ~ 8.
- 장　　소 : 월봉서원 교육·체험관
- 참여대상 : 전국민 누구나
- 주요내용 : 월봉서원 빙월당 또는 월봉서원 주변 경관 관련하여 엽서 공모전 실행, 선정된 작품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월봉 엽서 제작 및 배포
- 추진일정 : ‘12. 5 ~ 6. 아름다운 월봉 엽서 공모전 홍보 및 접수, ‘12. 7. 공모 심사 및 선정,‘12. 8. 선정 엽서 전시 및 제작

바. 월봉서원 어린이 글짓기 대회

- 기　　간 : ‘12. 9.
- 장　　소 : 월봉서원 일대
- 참여대상 : 전국 초등학생 100명
- 주요내용 : 옛 선현을 모신 월봉서원을 무대로 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백일장) 개최, 각 지역 교육청 및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서원문화재와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인 고봉선생을 접할 수 있는 계기 제공, 퇴계선생과 고봉선생의 ‘사칠논쟁’과 같은 고차원적인 철학적 주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재해석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 마련, 어린이와 학부모의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전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시행, 서원이 가진 교육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서 문화재의 활성화에 기여
- 추진일정 : ‘12. 4. ~ 8. 프로그램 홍보, ‘12. 9. 프로그램 진행

사. 광산 역사 문화 투어

- 기　　간 : ‘12. 4. ~ 8. (총 8 회)
- 장　　소 : 광산구 관내 문화재 7곳 (김봉호 가옥, 이재만 가옥, 용아 박용철 생가, 한말 의병전적비, 양씨삼강문, 윤상원열사 생가, 월봉서원)
- 참여대상 : 광주 시민 누구나 회당 30명 내외
- 주요내용 : 월 2회, 총 10회, 매주 2, 4주 매주 토요일 오후 실시, 광산구 문화재 투어 및 문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의 결합, 각 문화재 관련 체험 미션 수행, 진행코스 : 광산구청(현대)→김봉호 가옥(해방직후)→이재만가옥 (20세기초) →용아생가(20세기초)→한말 의병 전적비(19세기말~20세기초) →양씨삼강문(16~17세기)→ 봉서원(16~17세기)
- 추진일정 : ‘12. 3. 세부실행계획수립, ‘12. 4. ~ 8. 프로그램 진행

아. 고봉학 학술대회

- 기　　간 : ‘12. 9. (총 1회)
- 장　　소 : 광산구청 대강당
- 참여대상 : 학자, 문화예술인, 광주 시민 등 200명
- 주요내용 : 호남 정신 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는 고봉 선생의 학문을 논하고 교류하는 장, 전국적 참여를 유도하여 고봉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 타 지역의 학술대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형성
- 추진일정 : ‘12. 4. 세부실행계획수립, ‘12. 5. ~ 8. 프로그램 준비 및 홍보‘12. 9.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자. 월봉서원 가이드북 제작

- 기　　간 : ‘12. 3 ~ 8.
- 주요내용 : 월봉서원과 고봉 선생 유적 일대를 방문객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책자 형태의 안내물 제작, 배포
- 추진일정 : ‘3. 업체 선정 및 기획 회의, ‘12. 4 ~ 7. 디자인 및 편집 작업, ‘12. 8. 가이드북 인쇄 및 제작 완료

차. 월봉서원 홈페이지 유지 · 관리

- 기　　간 : ‘12. 3. ~ 11.
- 주요내용 : 월봉서원 대표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접수 및 콘텐츠 관리 및 유지

2. 세부 추진일정

프로그램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품격문화살롱 살롱 드 월봉	공연자섭외, 홍보		프로그램 진행									
철학스테이				홍보 및 제반 준비 사항 체크, 준비		프로그램 진행						
조선팔도 선비문화교류					참가자 모집, 제반사항준비	1차 프로그램 진행		참가자 모집, 제반사항준비		2차 프로그램 진행		
월봉서원 전국 한시 경연 대회			세부실행계획 수립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진행			
아름다운 월봉 엽서 공모전					공모전 홍보 및 접수		공모 심사 및 선정	선정 엽서 전시 및 제작				
월봉서원 어린이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진행			
광산 역사 문화 투어			세부실행계획 수립	프로그램 진행								
고봉학 학술대회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진행			
월봉서원 가이드북 제작			업체 선정 및 기획회의	디자인 및 편집 작업				가이드북 인쇄 및 제작 완료				
월봉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운영 총괄, 관리 감독	1명	상근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실무, 홍보(예약접수), 안내	4명	상근4
자원활동	행사지원, 참가자 안전 및 문화재 화재 방재 관리	5명	비상근
계		10명	상근5명/ 비상근5명

4. 안전관리 대책

- 화재예방 담당 : 광주 광산소방서
- 광산소방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요청 : 소방검사 실시
- 광산소방서 안전점검 특별 경계근무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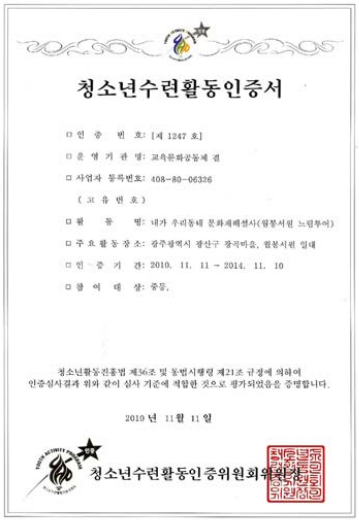
- 화재취약시설 1일 1회 이상 소방 순찰 실시 요청
- 안전사고 담당자 배치 : 고봉학술원 상근,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요원 배치
- 안전사고 연락망구축 : 광산경찰서
-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 소방항공대, 광산소방서 출동체계
- 탐방객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여행자보험) 일부 가입

5. 홍보계획

-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추진
  - 관 공 서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 문화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시민문화회의, 대동문화 등
  - 청소년단체·기관 : 광주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YMCA, YWCA, 흥사단,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서구문화센터, 광주청소년수련관 등
  - 시민단체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실련, 참여자치21, 환경운동 연합, 녹색연합 등
-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 프로그램 홍보, 예약접수 등 관리
- 인쇄물 홍보 : 홍보물 3,000부 제작 배포
- 보도자료 배포 : 각종 문화체험행사 때 보도자료 배포

7. 기타 참고사항

- '내가 우리동네 문화재해설사'(월봉서원 느림투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선정 (2010. 11. 11 ~ 2014. 11. 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 인 증 번 호: [제 1247 호]
□ 운 영 기 관 명: 교육문화공동체 결
□ 사업자 등록번호: 408-80-06326
(고 유 번 호)
□ 활 동 명: 내가 우리동네 문화재해설사(월봉서원 느림투어)
□ 주 요 활 동 장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마을, 월봉서원 일대
□ 인 증 기 간: 2010. 11. 11 ~ 2014. 11. 10
□ 참 여 대 상: 중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결과 위와 같이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0 년 11월 11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1. 세부 프로그램

가. 임진왜란 스토리텔링 문예한마당

- 기　　간 : 2012년 4월 ~ 11월(총 8회)
- 장　　소 : 낙동서원
- 참여대상 : 지역 초·중·고 학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 주요내용 : ▶ 내가 우배선 장군이었다면 임진왜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스토리텔링 창착 한마당
  ▶ 임진왜란에 비하인드 스토리텔링 창작 한마당
  ▶ 보물 1334호 '화원 우배선 의병진 군공책'들 통해본 당시의 상황극　　스토리텔링 창작 한마당
  ▶ 내가 만약 우배선 장군의 후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 대한 토론회
- 추진일정 : 매월 2째 또는 4째주 토요일 실시(월 1회, 총8회 실시), 2012.3.2. ~15: 교육청 공문발송참가학교 및 학생 모집, 2012.3.15.~31: 참가 확정된 학교와 학생들에게 낙동서원과 월곡 우배선 장군에 대한 기초 자료 배포, 2012.3~11: 학교와 학생들의 월별 참가시기 확정하고 5~10명 중심으로 소모임 결성하게 하여 매월 참가하는 학생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시절로 돌아가게 하여 의병장 우배선 군 또는 의병, 의병의 아내, 자식 등으로 삶을 자신의 현재의 삶과 연관시켜 스토리텔링 작업 후 토론 및 발표대회를 준비하게하고 낙동서원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울러 보물 1334호 '화원 우배선 의병진 군공책'을 통해 본 당시 전투상황을 스토리텔링 작업 통해 즉석 문예창작(시, 산문등 형식에 제약없이 작성)대회 실시

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

- 기　　간 : 2012년 5월, 10월(총 2회)
- 장　　소 : 낙동서원
- 참여대상 : 공원내 지역주민과 스토리텔링 한마당 참가학생 및 일반학생
- 주요내용 : ▶ 임진왜란 승전을 알리는 음악놀이 한마당(사물놀이, 국악놀이)
  ▶ 의병으로 활동한 평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한지공예체험
  ▶ 의병활동 중심의 우리 민화그리기 한마당
- 추진일정 : ~2012.4.10. 프로그램 구체화 및 추가 개발, ~2012.4.20. 음악회 및 체험마당 출연진 섭외, ~2012.4.30. 홍보용 팜플렛 및 리플릿 제작, ~2012.5.10. 언론사 홍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 개시, 교육청 협조 공문 발송 요청, ~2012.5.19. 온고이지신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 실시(1차), ~2012.1027 온고이지신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 실시(2차)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조직 체계 확정	
'12. 4.	사전준비	연관 기관 협조체제 구축 세부일정 확정	
'12. 4.	프로그램 개발 및 섭외 확정	프로그램 구체화 및 추가 개발	
'12. 4 .		교재 개발 및 팜플렛 제작	
'12. 4.	홍보활동개시	지역 언론사 및 신문사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12. 4.		인근 학교 공문 홍보 공문 발송	
'12. 4.	현장리허설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확정 현장설치 및 보수 현장 리허설	
'12. 4.~ 11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개시	
'12.11	최종 평가회	평가회 및 평가보고서 작성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운영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사업계획 운영지원, 홍보및 예약접수 안전관리 및 체험단 안내 교재기획 및 개발 강사진 및 출연진 섭외	1명	상근
자원활동	체험행사 지원 안전요원 활동	3명	비상근
강사	체험프로그램 진행 스토리텔링 진행 음악놀이 한마당 진행	10명	비상근
계		15명	상근 2명 비상근 13명

4. 안전관리 대책

- 자연환경 재난요소 대비 – 사전 모니터링 및 우천 시 행사 연기
- 안전사고 담당자 배치 – 낙동서원 주변 위험요소에 자원봉사자 배치
- 안전사고 비상 연락망 구축 (상인동 근처 119와 경찰서 연계 대기요청 공문 발송)
- 안전사고 대비 배상 책임 보험 가입
-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안전팻말 설치
- 체험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실시(오리엔테이션)
- 문화재 관리 철저, 훼손방지교육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 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민간단체	사업계획, 운영지원, 홍보 및 예약접수 체험생의 이동, 관리 프로그램 진행 및 지도 등 총괄운영 문화유산 해설 및 안내(전문강사) 소방 및 안전관리 등 위해요소 제거 관련 문화사업 기획/진행 교육장 뒷정리 및 주변유적 청소 및 관리

6. 홍보계획

- 종합 안내책자(홍보물)을 통한 인근 학교 대상 홍보
  - 주변 15개교를 중심으로 사전 홍보 팜플렛 배포 및 공문 발송
- 문화유산 지킴이단체 홍보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일신문, 영남일보 신문에 게재, 불교방송 프로그램 광고 홍보 실시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본협회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기타 개인 블로그 및 카페에 프로그램 홍보

-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공문 발송
  - 놀토운영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교육청 창의적체험활동전담팀 방문하여 일선학교에 적극 홍보 실시
- 대구시관광홍보센터 시티투어팀에게 홍보요청 공문 발송
  - 지역 관광상품으로 특화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 실시

7. 기타 참고사항

- 새로운 접근방식(서원 역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서원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지역 서원과 박물관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전통문화 국악공연과 문화체험행사(한지, 민화)을 개최하여 동서양의 어울림을 느껴보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즐거움과 체험행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 낙동서원 및 월곡역사박물관은 스토리텔링 작업 및 발표·토론대회는 물론 체험 및 음악놀이 한마당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본협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낙동서원 단양우씨 종친회와 2010년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가락' 공연을 낙동서원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낙동서원 및 월곡역사박물관은 인근 30만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촌과 반경 2km안에 학교가 15여개가 있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며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체험활동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월촌공원이 있어서 평일 물론 주말에는 200여명의 인파들이 자연스레 모여 담소를 나누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재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성주다. 산성톡, talk] 대전광역시/대전문화연대

1. 세부 프로그램

가.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

- 기　　간 : 2012년 5월 – 11월 (총 6회) 매월 1회
- 장　　소 : 대전 지역 산성
- 참여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24가족
- 주요내용 : – 신청 :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가족으로 신청
  – 나는 성주다 성주(城主) 임명식 : 성주 모집 시 신청서, 신청동기, 전화 면접, 기본교육 이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대전 산성 24곳에 대한 성주를 대전시장명으로 정식 임명하며 활동 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성주 기록 활동 : 성주는 매월 1회 이상 산성을 방문하고, 산성탐험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글로 기록한 성주 활동 보고서를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산성탐험대 : 성주는 매월 1회 정해진 강의와 산성탐험대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봉화를 올려라 : 성주 활동 중 2회에 걸친 봉화를 올려라! 이벤트에 꼭 참여하여야 한다.
  – 산성 활동 보고회 : 11월 산성 주간에 산성 활동 보고회를 진행하며 최우수 성주 가족 5팀에게는 문화재청장상, 대전시장상, 대전문화연대대표상 등을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 추진일정 : 2월 : 세부일정 확정, 3월 : 프로그램 홍보 및 성주 모집, 5월~12월 : 성주활동 진행, 10월 : 산성 주간 성주 활동 발표회

나. 1박 2일 가족 산성캠프

- 기　　간 : 2012년 4월 7-8일 (1회)
- 장　　소 : 동구 직동 찬샘마을과 노고산성, 계족산성, 논산의 백제군사박물관과 계백장군 묘
- 참여대상 : 초 4학년 이상 1인 및 부모 중 1인, 총 45명
- 주요내용 : – 산성캠프가 2009년부터 6회 진행되면서 산성캠프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작년의 경우 충북, 경기도, 서울 등지에서도 참여가 있을 정도로 참가자의 지역 분포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에 어린이 청소년 대상에서 부모 중 1인이 꼭 참여하는 가족 대상 형태로 바뀐 이후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소위 입소문이 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연초에 문화재청의 전국적인 생생사업 홍보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진다. 가족대상 산성캠프가 좀 더 효과적인 지역 산성 알리기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봄, 가을로 시행한다.
  – 주요 프로그램은 대전 산성이야기, 부모와 함께 계족산성 트레킹, 야간백제군사미션훈련, 성벽쌓기, 봉수체험, 백제군사박물관 탐험 및 말타기, 활쏘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 추진일정 : 2월 말 : 사전 답사 및 프로그램 세부 기획, 3월 초 : 1차 캠프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4월 7-8일 : 1차 산성캠프

다. 뚜르 드 산성(Tour de Sanseong)

- 기　　간 : 2012년 4월 – 10월 (총 3회), 1차 : 남한산성 – 대전 / 4월 14-15일, 2차 : 아차산성 – 대전 / 9월 8-9일, 3차 : 대전 – 남한산성, 아차산성 / 10월 20-21일
- 장　　소 : 사적 355호 계족산성, 노고산성, 남한산성, 아차산성
- 참여대상 : 대전시민, 서울시민, 경기도민
- 주요내용 : – 대전의 산성의도시대전, 경기도 남한산성,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 등이 모여 '뚜르 드 산성' 이란 주제로 산성 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한산성과 아차산성에서 각각 1회씩 대전의 산성캠프에 참여하고, 대전은 1박2일 일정으로 상, 하반기에 남한산성과 아차산성을 방문하여 각 산성의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산성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산성을 축조한 시대에 대한 역사 이해 및 각 산성이 갖고 있는 특징과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차산성의 발굴체험 홍련봉 보루와 아차산성 투어, 남한산성에서는 남한산성 고지도 그리기, 행궁 연극체험, 성곽 야간 트레킹 등이며, 대전의 산성에서는 산성성벽쌓기, 야간백제군사미션훈련, 봉수체험, 노고산성결사대, 떡메치기 등의 체험을 상호 교류하면서 진행한다.
- 추진일정 : 1월 대전, 남한산성, 아차산성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3월 초 :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4~10월 : 3회 뚜르 드 산성 진행, 11월 초 : 3개 단체 사업 평가회

라. 산성 톡, talk

- 기　　간 : 2012년 11월 9일-17일(산성 주간으로 설정)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5층 대회의실 및 1층 로비
- 참여대상 : 산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주요내용 : - 11월 9일-17일까지 산성 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성 보존과 활용을 위한 토론회, 산성 사진전, 나는 성주다 활동 발표회 등을 집중하여 진행한다.
  - 대전 산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토론회
  - 대전 산성 사진 공모전
  - 나는 성주(城主)다 활동 발표회
  - 책자 발간: 토론회, 사진전, 발표회 등의 내용을 함께 묶은 책자 발간
- 추진일정 : 2월 : 세부 계획 수립, 3월 초 :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4~9월 : 사진전 공모, 9월 : 토론회 홍보 및 보도자료, 10월 하순 : 토론회, 사진전, 책자발간, 발표회 등 진행

2. 세부 추진일정

No	사업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나는 성주다										
2	1박2일 산성캠프										
3	뚜르 드 산성 (Tour de Sanseong)										
4	산성 톡, talk.										
5	정산 및 보고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대전문화연대 문화재 생생사업 총괄 1인	1명	비상근
운영지원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2인 대전문화연대 사무국장 1인 대전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 4인 산성 강사 4인 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5인	16명	상근1명 비상근15명
자원활동	보조 진행 20인	20명	비상근
협력활동	협력기관 (사)대전충남문화유산연구회, (사)대전충남민예총, 대덕문화원, (사)아자학교 월간토마토, (주)공감만세	5명	상근1명
계		42명	상근2명 비상근 40명

4. 안전관리 대책

- 진행요원은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 유의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철저히 사전 교육 하고, 이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보완.
- 나는성주다, 산성캠프, 뚜르 드 산성 등 야외 활동 참가자 여행자 보험 가입
- 안전로프, 무릎, 발목, 팔꿈치 보호대, 비상약품 등 구비
- 사고 발생시 응급 조치와 소방서 등 관련 기관 연락망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

- 안전관리 책임자 : 나는성주다, 산성캠프, 뚜르 드 산성 등 : 보조진행자가 안전요원으로서 역할 겸임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보도자료 등에 공지 - 주관 단체의 회계 및 사무 처리에 대한 관리 -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하반기 정례 간담회 주관
민간단체	- 사업 진행 사항 등 상, 하반기 정례보고 4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참가자 모집, 진행, 사업기록, 정산 등

6. 홍보계획

- 산성 사업 확정시 3월 초에 언론사 상대 사업 간담회 개최
-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의 적극적 협조 체계구축 / 보도자료, 칼럼, 방송 출연 등
- 대전문화연대 홈페이지 및 트위터, 페이스북 홍보 : www.djca.or.kr
- 산성의 도시 대전 홍보 다음카페 활용 : http://cafe.daum.net/sansungtrekking
- 대전시 월간 잡지 '이츠대전'과 지역 문화잡지 '월간 토마토' 협조 광고 및 행사 후기 기재
- 관련 프로그램 리플릿 제작, 사업결과 책자 발간, 동영상 제작 등 기관, 단체, 일반 시민 배포

7. 기타 참고사항

- 2011년 4월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의 대표 자원이 산성이라는 주간 브리핑을 하면서 산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전시가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 대전시는 2012년 대전문화연대가 주관하는 산성사업이 문화재청의 생생 문화재 사업으로 다시 선정된다면 대전시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산성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1년-2012년 두 가지 산성관련 용역을 실시 중이다. 계족산성 종합정비계획과 대전시산성분포조사 학술용역 등이며 추후 비지정 산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대전시 문화재 지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임.
- 2011년 대전시청 인터넷방송에서 10월 12일-11월 7일까지 산성 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하여 총 8편에 대해 시상하였음.
-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시 중장기 문화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간담회를 가졌고 대전시의 산성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2011년 문화관광발전계획 용역 발표에 반영되었음.
- 2012년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보고에서 대전의 산성자원을 대전둘레산길의 홍보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지역의 산성에 관심 갖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함.
- 2010년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에 선정, '산성의 도시 대전을 걷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지난 2010년 12월 5일 오후 3시부터 50분간 대전MBC에 방영된 이후 관련 자료가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방송사에 방영됨.
- 대전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대전문화연대로부터 독립하여 2012년 3월 중 가칭 (사)대전충남문화유산연구회를 발족하여 대전문화연대 사무국과 함께 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임.

["야" 신난다 택견과 놀고나니 몸짱되었네] 대전광역시/(사)한국택견협회대전지부

1. 세부 프로그램

가. 온가족 다함께 생생 문화재 택견(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포함)

- 기　　간 : 2012.04.07.~2012.11.24.(주1회, 총 24회)
- 장　　소 : 택견전수관, 송촌중학교 강당,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참여대상 : 모든 지역주민
- 주요내용 : 2012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과 병행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택견 생생교실 운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택견의 정신인 참을 이루며, 가족이 함께하는 게임과 대결이를 통하여 부모와 많은 스킨십을 통한 교감 형성으로 가족간 소통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육체에 맑은 정신으로 무장한 미래인재 육성
- 추진일정 : 2월중순 : 세부일정 확정, 3월초순 : 프로그램 홍보, 4월첫주 : 프로그램 시작,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4월7일~6월2일(8회), 택견전수관 : 6월,7월 (8회), 송촌중학교 강당 : 9월,10월(8회)

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택견 생생 문화재

- 기　　간 : 2012.06.~2012.09.(주2회, 총32회)
- 장　　소 : 둔산동 샘머리공원
- 참여대상 : 지역주민
- 주요내용 :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 기술화, 정보화로 인하여 인간의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있으나 생활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문화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이 생활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택견을 광장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생교실이 필요하고 전통무예 『택견』이 중국의 광장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은 태극권처럼 활성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도 알리고 더불어 국민의 건강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인 택견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면서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무예로 인식시키고 택견의 근본원리인 유연성이 음악적 리듬과 어우러져 부드러운 관절과 탄력적인 근육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어 항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심성이 맑아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
- 추진일정 : 4월중순 : 세부일정 확정, 5월초순 : 프로그램 홍보, 6월첫주 : 프로그램 시작

다.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캠프

- 기　　간 : 2012.08.25.~2012.08.26.(총1회, 1박2일)
- 장　　소 : 충주 호암동 택견원
- 참여대상 : 지역주민가족누구나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택견』의 본 산지인 충주 택견원을 탐방하여 예능보유자인 정경화 선생으로부터 택견의 역사, 택견의 정신과 특징, 택견 시범, 택견을 수련하고 가족간 화합의 한마당 축제
- 추진일정 : 6월 초순 세부일정 확정, 6월 중순 프로그램 홍보, 6월 중순 여름방학 택견 가족캠프 홍보자료 배포, 7월 20일가지 신청 접수, 8월 25일~26일 가족캠프 실시 예정

라. 현대음악·춤과 어우러지는 무형문화재

- 기　　간 : 2012. 9월
- 장　　소 : 둔산동 샘머리공원
- 참여대상 : 택견 생생교실 참여자, 택견인, 음악연주자, 현대무용
- 주요내용 : 문화재 택견 생생교실 참여자들과 택견 작품을 구성 하여 그동안 닦은 실력을 발표, 택견과 현대음악 및 현대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 추진일정 : 4월 중순 세부일정 및 참여자 확정, 7월 세부일정 일차계획, 8월 홍보, 9월말 공연실시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2012.4.7~11.24	온가족 다함께 생생 문화재 택견(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포함)	대동종합사회복지관(4~6월) 택견전수관(6월,7월) 송촌중학교강당(9월10월)	
2012.6.~09.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택견 생생 문화재	둔산동 샘머리공원 (6월~9월)	
2012. 08.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한마당 캠프	2012년8월25일~26일	
2012. 09.	현대음악·춤과 어우러지는 무형문화재	2012. 9월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지부장	실기강의 및 업무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실기강의 보조 및 안전관리, 캠프안내	4명	상근
자원활동	가족캠프 행사지원	6명	비상근
계		11명	상근 5명/ 비상근 6명

4. 안전관리 대책

- 운영지원 요원은 실기강의 안전교육
- 체험참가자의 안전사고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 소식지 등에 행사내용 홍보 ·택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민간단체	·무형문화재 택견을 대중에게 직접교육 ·택견을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보급 확대 방안 연구

6. 홍보계획

- 대전광역시홈페이지 및 주민소식지 등에 행사내용 게재
- 관내학교에 참여 홍보
- 지역공부방 및 방과후학교로 홍보
- 현수막 광고 및 근교 아파트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무형문화재 택견을 일반 대중이 손쉽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로 택견의 우수성과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에도 투자가 필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 서구/동아대학교 박물관

1. 세부 프로그램

가.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상시프로그램)

- 기　　간 : '12. 03 ~ 12. 12
- 장　　소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41호), 임시수도기념관(부산　　시지정기념물53호), 근대전차(등록문화재지정예정)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및 개인
- 주요내용 : ▶ 등록문화재란 무엇인가?
  – 등록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 41호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와 지역의 역사를 이해 함.
  –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 및 활용의 예를 설명함으로써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함.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건축물과 박물관의 문화재의 가치와 우수성을 설명.
  ▶ 부산임시수도 정부청사 건축물 및 박물관 문화재 관람(등록문화재 41호)
  – 건축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건축물을 관람하고 그 속에 자리한 우리 문화재를 관람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근대전차 관람 (등록문화재 신청완료)
  – 2011년 동아대학교에 이전 복원 설치 한 근대 전차를 타보고 근대 전차에 대한 스토리 텔링.
  –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승객, 기장이 되어 전차탑승 및 기념 사진 촬영하기
  ▶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시 지정 기념물)
  – 임시수도 기념관까지 연결된 임시수도기념거리를 걸으며 지역의 역사를 되새김.
  – 임시수도기념관을 견학하여 임시수도정부청사로 사용되었을 당시 대통령 관저의 모습 견학 및 당시 문화 이해하기.
- 추진일정 : '12. 03 ~ '12. 11(월~금), 4월 매주 토요일(상반기) / 8월 매주 토요일(하반기) / 시간 : 10시~12시

나. 탁본 체험하기(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03.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탁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탁본 순서를 시험보여 순서를 익혀 직접 탁본해본다 – 스스로 탁본한 것을 우드락에 붙여서 액자로 꾸며 멋진 탁본을 완성한다.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 시간 : 10시~12시

다. 발굴 체험(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05 ~ 06.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임시수도정부청사의 새 옷인 박물관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함. – 박물관 수집의 한 방법인 발굴 체험을 통해 문화재를 수집.복원.조사.연구.전시의 과정을 이해하게 함.
- 추진일정 : 1,3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라. 도자기 만들기(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05 ~ 06.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학생 및 일반인
- 주요내용 : 코올링 기법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이 도자기 만들었던 모습을 이해하고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성형이 완료되면 칠하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도자기를 만들어 토기를 이해하고 추억을 선물한다.
- 추진일정 : 2,4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마. 민화부채 만들기(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07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분채와 안료를 섞어 물감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다 – 만들어진 물감으로 부채에 칠해서 부채를 완성시킨다.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바. 탈 만들기 체험(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09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부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된 수영야류가 있다. 탈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탈 만들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사. 퍼즐만들기 체험(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10.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임시수도정부청사와 근대전차 대형 퍼즐을 통해 경쟁심과 목표의식을 달성하며, 결과물 속에 드러난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와 근대전차 미니어처 만들기를 통해 등록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새롭게 한다.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아. 연만들기 체험(토요프로그램)

- 기　　간 : '12. 11.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 주요내용 : 전통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전과 지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전통의 방식대로 연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전통놀이를 이해하고 연을 날려봄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킨다.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 시간 : 10시 ~ 12시

마. 어린이 박물관 학교

- 기　　간 : '12. 01월(겨울방학), '12. 08월(여름방학)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등학생(1기에 30명씩 총 4기 운영)
- 주요내용 : 박물관의 문화재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방학을 이용한 박물관학교 운영. 다양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재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를 전달함. 1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무결석자에게 수료증을 줌으로써 참석 동기를 높임.
- 추진일정 : 1기/주3회(1주 단위로 기수별 30명씩 선발 운영)

바. 대안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 기　　간 : '12. 03. ~ 06.
- 장　　소 : 대안학교(참빛학교, 우다다학교, 사과나무학교)
- 참여대상 : 대안학교 학생
- 주요내용 : 입시교육 위주가 아닌 체험위주의 대안학교를 통한 체험교육을 실시. 강의 위주보다는 영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흥미위주의 수업으로 진행. 다양한 체험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영상을 제작하여 자연스레 박물관과 임시수도정부청사 건물에 대해서 알게 함. 창의적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탁본하기, 발굴하기, 퍼즐 맞추기 등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에 중점에 둔다.
- 추진일정 : 매주 목요일 – 학교마다 한달에 한번 수업(총 4회 수업)

사. 병원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 기　　간 : '12. 03. ~ 06.
- 장　　소 : 동아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 참여대상 : 병원내 치료 중인 어린이
- 주요내용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병원내 치료 중인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교육기회 균등 제공에 목적이 있다. 흥미위주의 체험학습– 흥미위주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져 편안하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한다. – 병원의 특성상 흙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체험인 도자체험을 제외하고 퀴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하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퀴즈는 1인당 1문제씩 모두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모두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성취감을 높여주는데 목적을 둔다.
- 추진일정 : 매주 화요일 – 병원마다 한달에 한번 수업(총 4회 수업)

아.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 교원 직무연수

- 기　　간 : '12. 01.(겨울방학) ~ '12. 08.(여름방학) / 총 2 회
- 장　　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참여대상 : 초·중등학교 교사
- 주요내용 :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 문화유산 이해 교육 실시– 교사들의 전문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교사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재교육하게 함. 창의적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교과과정에 맞는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직접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함.
- 추진일정 : 주5일 수업(강의3일, 답사 2일)

자. 구덕골 문화예술제

- 기　　간 : '12. 05월 20일
- 장　　소 : 구덕운동장 야외마당
- 참여대상 : 지역 주민 및 관광객
- 주요내용 : 부산의 근대 문화유산 알리기–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근대전차, 임시수도 기념관을 통한 부산에 근대 문화유산을 알린다. 미니어처 만들기– 미니어처 만들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흥미유발과 함께 결과물을 통해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의 모습을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 추진일정 : 당일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01. 02. ~ 01. 27.	생생박물관 학교(겨울방학)	-어린이 박물관 학교 기수별 운영	겨울방학 프로그램
‘12. 01. 09 ~ 01. 13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 직무연수	-강의 3일, 답사 2일	겨울방학
‘12. 02.	겨울방학 프로그램 정리 및 결산	-설문 분석 및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	
	총괄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체결 -대안학교 및 병원과 수업 체결 및 수업일정 조정	
	홍보물 제작	-리플릿, 교재 제작 -안내판, 현수막, 포스터, 배너 제작 부착 - 홍보내용 관련 기관에 배포	
‘12. 03. 02. ~ 11.30.	상설 프로그램 운영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월~금)	
‘12. 03. ~ 06.	대안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매주 금요일마다 기관을 선정하여 1일수업 2시간, 총 4주 수료로 한다.	
‘12. 03. ~ 06.	병원 찾아가는 박물관	-매주 화요일마다 기관을 선정하여 1일수업 2시간, 총 4주 수료로 한다.	
‘12. 03.	토요 프로그램	-탁본체험하기	
‘12. 04.		-스토리텔링(상반기)	
‘12. 05	구덕골 축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부산의근대역사를 알림.	
‘12. 05.	토요 프로그램	-1,3주 토요일 : 발굴체험 -2,4주 토요일 : 도자기 체험	
‘12. 06.			
‘12. 07.		-부채만들기	
‘12. 08.	여름 어린이 박물관 학교	-어린이 박물관 학교 기수별 운영	여름방학 프로그램
‘12. 08.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직무연수	-강의 3일, 답사 2일	여름방학
‘12. 08	토요 프로그램	-스토리텔링(하반기)	
‘12. 09		-탈 만들기 체험	
‘12. 10		-미니어처 만들기 체험	
‘12. 11		-연 만들기	
‘12. 12.30.	프로그램 종료	-생생프로그램 종료	
‘12. 12.	결과 보고 및 정산	-예산집행 정산 보고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프로그램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행정 및 프로그램 운영	2명	상근
국가근로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보조	8명	비상근
체험강사	도자기, 민화 체험강사	2명	비상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보조	5명	비상근
계		15명	상근3명/ 비상근12명

4. 안전관리 대책

- 운영원은 참여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함.
- 자원봉사자 및 국가근로 장학생의 전시장 안전 관리 및 안내.
- 화재예방 : 중부소방서(051-664-0324)
- 응급화자 발생시 : 서구보건소(051-240-4791), 동아대학교 보건진료소(051-200-8465)
- 안전사고 : 서부경찰서 (051-245-0112)
- 체험학습 참여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 보험 가입.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추가 사업 적극 발굴 지상파 방송 및 언론사, 서구신문 등 사업추진별 주기적 홍보
민간단체	대상을 다양화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6. 홍보계획

- 초·중·고 창의적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 현장 학습 및 계발활동 활용 홍보 : 부산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협조 공문 발송
-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박물관, 서구청, 부산시청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제작 홍보
- 지역 일간지 및 방송을 통한 홍보
- 카페, 블로그를 통한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2011년에 서구청에서 실시한 임시수도거리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임시수도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를 활용한 근대문화 네트워크 구성.
- 1950~1960년대 운행하던 전차를 복원하여 2011년 4월에 공개 전시함으로 써 교육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근대 문화유산 관광 자원 마련하였고 2011년 11월 현재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신청 중임.
- 2012년은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를 진행시켜 생생(生生)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수혜자를 대폭 늘리고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 지속된 인프라 구성과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문화재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서울 광진구/한강문화재연구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아차산역사문화투어

- 기　　간 : '12. 1. 1. ~ 11. 30. (총 150회)
- 장　　소 : 아차산향토자료실-아차산 일대 유적지
- 참여대상 : 일반인, 학생(초등학생 이상), 매회 20명
- 주요내용 : 아차산 산성 트레킹-스토리텔링식 투어 프로그램(상시), 주제별(성곽, 불교유적) 투어 프로그램 진행(주중)
- 추진일정 : 주말 및 공휴일 – 매일 2회 투어 진행(10:00, 14:00), 평일 – 사전예약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어 진행

나. 아차산역사문화교실

- 기　　간 : '12. 1. 1. ~ 11. 30. (총 50회)
- 장　　소 :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 참여대상 : 성인, 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동 20~30명
- 주요내용 : 아차산 일대 유적 유물 관련 도슨트(성인), 삼국시대 문화체험 학습 진행, 유물을 찾아라! 프로그램 (아차산 지표조사 체험학습) 진행, 아차산 생태학습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 추진일정 : 도슨트-상시 운영(월요일 휴관), 체험학습-주말 사전 예약팀 대상 진행

다. 뚜르 드 산성(Tour de Sanseong)

1) 아차산-남한산성-대전산성 연계 프로그램(남한산성에서 대전까지)
- 기　　간 : '12. 5.19~5.20 / 6.2~6.3 / 10.6~10.7 (총 3회)
- 장　　소 : 아차산 유적지-남한산성-대전지역 산성 유적지
- 참여대상 : 가족팀(학생 보호자 동반) 30명
- 주요내용 : 아차산-남한산성[행행중행복(幸幸中行福)한 남한산성], -대전산성[나는 성주(城主)다. 산성 톡, Talk]연계 프로그램(1박2일)
- 추진일정 : 2012.4~10월 중 (1박 2일 프로그램)

2) 아차산-남한산성 연계프로그램(아차산에서 남한산성으로)
- 기　　간 : '12.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 장　　소 : 아차산 유적지-남한산성 일대 유적지
- 참여대상 : 상반기-일반인 40명, 하반기-가족팀 40명
- 주요내용 : 삼국시대 아차산성부터 남한산성(장한성)을 연계하여 산성 문화재를 통해 각 지역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는 산성마을 프로그램
- 추진일정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운영(주중) <상반기> 아차산성→남한산성 (09:30~17:00), <하반기> 남한산성→아차산성 (09:00~17:00)

3) 서울 주변 지역 연계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진행(3회 진행)
- [1차] 고구려 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
- [2차] 한강을 따라 삼국시대 산성 여행
- [3차] 삼국시대 서울 지역의 성곽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나. 발굴조사 체험교실 –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 기　　간 : '11. 3월~5월, 9월~ 11월 (총 30회)
- 장　　소 : 홍보관, 발굴조사 체험학습장, 한강문화재연구원 강의실
- 참여대상 : 일반인(학부모) 및 학생(초등학생) 20명
- 주요내용 : [1단계] 발굴체험 학습→[2단계] 발굴현장 체험→[3단계] 유물복원 체험→ [4단계] 유물실측 체험→[5단계] 고고학 이론학습 발굴조사와 유물정리 체험을 단계를 나누어 진행, 참여자 재참가 유도
- 추진일정 : [1단계] 발굴체험 학습 : 주중 수요일, 토요일 10:00~12:00(2시간), [2단계] 주중 수요일 14:00~17:00(3시간), [3단계] 주중 수요일 14:00~16:00(2시간), [4단계] 주중 토요일 14:00~16:00(2시간), [5단계] 5월과 11월 중 토요일 14:00~16:00(2시간)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2. 1. ~ 11. 30.	아차산역사문화투어	- 역사문화투어프로그램 진행	
‘12. 2. 2. ~ 11. 30.	아차산역사문화교실	- 역사문화교실프로그램 진행	
‘12. 2. 1. ~ 3. 31.	발굴조사 체험교실	- 참여자 모집 홍보 - 체험장 리모델링	
‘12. 5월. ~ 10월.	뚜르 드 산성	- 참여자 모집 홍보 및 프로그램 진행 1) 아차-남한-대전: ‘12. 5.19~5.20 대전-남한-아차 ‘12.6.2~6.3 대전-남한-아차 ‘12.10.6~10.7 2) 아차-남한 ‘12. 상반기 남한-아차 ‘12. 하반기 3) 임진강 고구려성 투어‘12.4월 중 한강유역 산성 투어 ‘12.5월 중 아차-이성투어 ‘12.10월 중	
‘11. 4. 1. ~ 5.31.	발굴조사 체험교실	- 체험교실 프로그램 진행	‘02.6~8월 장마철 혹서기 미진행
‘11. 9. 1. ~ 11. 30.	발굴조사 체험교실	- 체험교실 프로그램 진행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 괄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장, 고구려팀장 - 한강문화재연구원 교육연구실장	3명	상근
담 당	-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2인, 행정직공무원 1인 - 광진구청 아차산관리사무소장 1인 - 한강문화재연구원 사회교육 담당 연구원 2인	6명	상근
운 영	- 역사문화투어 담당 강사 1인(향토사연구자) - 역사문화교실 담당 강사 2인(문화유산해설사) - 발굴체험교실 담당 강사 10인(연구원)	13명	비상근
계		22명	상근 9명/ 비상근 13명

4. 안전관리 대책

- 체험학습프로그램의 경우 강사 2인의 철저한 참여자 사전교육 및 안전관리
- 아차산관리사무소 관리인력(상근1인, 시설관리원 3인, 일용직 등 18명, 공익요원 12명) 및 비치된 응급구조 장비·용품 활용
- 성동소방서(응급출동시 5분소요)와 유기적인 응급구조체계 확립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아차산역사문화교실, 아차산역사문화투어 운영 – 예산 편성 및 관리
민간단체	– 뚜르 드 산성, 발굴조사 체험교실 운영 – 전체 프로그램 자문

6. 홍보계획

- 관내 및 인근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 살아있는 야외학습 공간의 제공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2012. 2~3월 중 관내 교육기관에 공문 발송 및 관계자 대상으로 홍보
- 광진구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 중앙일간지 보도자료 배포(동아일보 등)
- 발굴조사기관 협회를 통한 기관지 및 인터넷매체 홍보
- 성인을 대상으로 관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을 위한 홍보
- 아차산아카데미, 광진문화원 프로그램 및 건국대학교 박물관대학 등과 연계

7. 기타 참고사항 – 아차산 유적지 활용을 위한 광진구 인프라 구축 현황

□ 아차산향토자료실

- 개관 : 2003. 1. 1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17(아차산생태공원 내)
- 시설 : 아차산유적지 및 고구려 문화관련 이미지 자료, 문화유산투어를 위한 각종 장비 및 도서 비치
- 실적 : 2011년도 258회 프로그램 진행, 총 4,955명 참여

□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 개관 : 2009. 5.18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17(아차산생태공원 내)
- 시설 : 아차산유적지 및 고구려 문화관련 대형 패널
- 교육용 LCD TV(광진구 자체 제작 DVD 콘텐츠 상영), 진열대 2개(아차산 유적지 출토유물 및 홍련봉 보루 정밀축소 모형), 중원고구려비 탁본, 고구려복식 재현품 등
- 실적 : 2011년도 94회 프로그램 진행, 총 8,965명 참여

□ 아차산생태공원

- 준공 : 2001.12.31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0번지 일대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남쪽하단, 사적 455호 아차산일대 보루군 동편)
- 규모 : 23,450㎡

- 시설 : 아차산향토자료실과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이 위치, 생태학습장의 여유 공간에서 관련 체험교실 운영

□ 발굴조사체험학습장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09(중곡동 236-8번지)
- 시설 : 홍련봉 보루 유적지 재현 체험학습장 1동, 자재보관동 1동, 아차산생태공원 및 홍련봉 보루 유적지 진입로에 위치 관련, 편의시설 활용가능(주차장, 화장실 등)
- 실적 : 2011년 16회 프로그램 진행, 총 298명 참가

□ 한강문화재연구원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09(중곡동 236-8번지)
- 인원 : 50여명의 발굴 전문 조사연구원
- 규모 : 4층 건물 2동
- 시설 : 유물정리실, 보존과학실, 수장고, 강의실, 강당, 주차장, 각종 유물체험을 위한 공간 확보, 체험학습 진행

□ 아차산 일대 보루군(사적 제455호-홍련봉 1·2보루 유적지)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장동 381-65 외
- 규모 : 1보루-면적 950㎡, 성벽 117m, 2보루-면적 1,506㎡, 성벽-179m
- 시설 : 발굴조사 체험장 도보 3분 거리 위치. 아차산생태공원,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등 현의시설 및 교육시설 활용가능, 2012년도 추가발굴조사 진행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예산 8억 원 교부)

[도심 속 살아있는 유교문화-도봉서원 생생사업] 서울 도봉구/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우인

1. 세부 프로그램

가. '도봉서원 선비문화 환경캠프'진행

- 기　　간 : 2012. 5 ~ 11월 (7개월 중, 총 10회)
- 장　　소 : 도봉서원과 각석군 일원 및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도봉산 둘레길 탐방 및 자연보호활동 포함)
- 참여대상 : 도봉구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 단체,다문화, 외국인, 결식아동 등 지역 수혜대상인원 우선 선발
  (1회 100명 내외 / 1회 대상 기준× 10회 = 대상인원 약 1,000명)
- 주요내용 : ● 목적
  - 선비문화 체험 및 유교철학 향유의 기회 제공
  - 도봉서원의 역사적 의의 및 가치 홍보
  - 도봉산 둘레길 및 환경의 보존과 가치전달을 위한 생태탐방
  - 주말형 지역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상설화 및 전문화 모색
  - 선진적, 친환경적 선비문화 환경캠프의 진행 사례 제시
  - 선비문화 프로그램의 상설화 및 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

  ● 내용
  - 2011년 '도봉문화해설강사' 인원 및 성균관, 서원학회, 예실본 등 전문강사 활용
  - 당일형 수련 활동을 통한 힐링캠프(Healing Camp) 진행
  - 2011년 '도봉서원 생생사업' 개발 교재 및 보교재 활용
  - 민간차원 도봉서원 문화재 정비 및 환경운동 전개
  - 프로그램 별 전문성 및 유기적 연결성 강조
  - 선비다례, 전통예절 및 공연 등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고급화 추진
- 추진일정 : ● 행사 홍보 및 신청 접수 (2012. 3 ~ 5월)
  - 행사 홍보 : 도봉구청, 도봉문화원 H.P 활용 홍보
  - 신청 접수 : 도봉문화원, 생태수련원 H.P 및 주관단체 '우인' 유선 접수 상담
  - 30명 이상, 100명 이하 단체 신청 (전체 인원 약 1,000명 이하)
  - 지역 수혜 대상인원 우선 접수

  ● 행사 진행 (2012. 5 - 11월)
  - 전체 10회, 대상 인원 선발 및 추천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 및 단체 적극 협의
  - 대상 프로그램 별 진행강사 1인, 행사 팀장(1인), 보조강사(1인) 구성
  - 2011년 '도봉문화해설강사' 선발 인원(22명 내외) 진행 활용
  - 행사평가서 작성

  ● 교육내용
  - 역사, 철학, 전통건축,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활용
  - 2011년도 '도봉문화해설강사' 선발 인원 활용 (총 인원 22명)
  - 현장학습(참여 대상자 제공) 교재 및 교구 활용

  ● 프로그램
  - 대상 단체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권 제시
  - 프로그램 (예시) 생활예절 - 대화법, 인사법, 음식예절, 올바른 복식, 세시풍속 - 월별 전통생활체험, 전통태교, 작명례, 한국전통음식, 한국전통놀이 - 고두, 소누, 산가니, 비석치기 등 옛 놀이 체험, 역사교육, 철학강의, 한시체험, 한문기초, 전통차, 선비다례, 선비문화강좌, 유교환경운동, 생태탐방교육

  ● 행사 교재 및 보교재 활용
  - 2011년 '도봉서원생생사업' 개발 교재 및 보교재 활용
  - 교재 : 추가인쇄 및 생태탐방 간련 보충교재 제작
  - 부교재 : 학교 강연용 동영상 및 ppt, 탁본용 목판 활용

  ● 행사 참여자 공모전 실시 (2012. 5~11월 접수 / 12월 선발 및 연수)
  - 행사 참여 학생의 감상문, 그림&관련도서 독후감 등 탐방 공모전 실시
  - 선발인원 대상 시상 및 연수 프로그램 진행
  - 성균관, 종묘, (서울) 국학진흥원, 유교박물관 (안동) 등 선진유교문화 탐방
  - '청소년 도봉문화지킴이' 선발 및 장기적 육성 방안 제시

나. 자연 속 도봉서원 강좌 '도봉만인소(道峯萬人疏)'진행

- ○ 기　간 : 2012. 5~11월 (강좌 및 토론회, 총 10회 진행)
- ○ 장　소 : 도봉문화원 및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 ○ 참여대상 : 도봉구 지역 주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구 탐방 일반인
- ○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 목적
- – 대중 강좌를 통한 도봉서원 문화 홍보
- – 지역문화 역사의식의 고취와 대중성 함양
- – 대중 문화 강좌의 상설화
- ● 내용
- – 대중 교양 문화 강좌 진행 (총 10회,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강당 및 도봉문화원)
- – 강사 구성 (역사, 철학, 생태, 환경, 전통건축 등 각 분야 전공자 구성)
- – 토론회 개최 및 의견서 제작 ('도봉만인소(道峯萬人疏)'제작)
- – 현대 사회적 문제점의 유교 사상적 해석과 대처법의 도출
- – 토론내용의 문서화, 만인소 제작으로 공론화 및 언론홍보

다. 도봉서원 환경 정비'철학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 ○ 기　간 : 2012. 4 – 11월 (매월 1~2회, 혹서기 제외 총 8회 진행)
- ○ 장　소 : 도봉서원 중심 도봉산 둘레길 트레킹 코스 (약 5km)
- ○ 참여대상 : 도봉서원 및 도봉문화원 관계자 및 도봉구 지역 주민
- ○ 주요내용 :
- ● 서원 주변 기초 정비 및 문화탐방 (유교환경운동)
- – 도봉서원 중심 도봉산 트레킹 및 서원 기본정비 활동
- – 도봉서원 및 각석군 홍보 리플릿 제공 (1회 400부× 8회 = 약 3,200부)
- – 도봉서원 및 유교문화 관련 설문 조사 (1회 100명 × 8회 = 800부)

라. '유교문화 즐겨찾기'

- 1) 문화유산탐방
- ○ 기　간 : 2012. 4~12월 (총 7회)
- ○ 장　소 : 전국 서원 및 향교 등 유교문화 관련 지역
- ○ 참여대상 : '도봉유교문화해설사' 및 신청 일반인 (30명 단위, 7회)
- ○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 탐방지역 선정(2012. 3.)및 방문. 행사참관과 토론
- 2) 함께하는 유교문화, 해설이 있는 '춘추향제(春秋享祭)'
- – 유림(儒林)들만의 행사에서 일반대중 참여행사로 발전
- – 춘추향제(春秋享祭)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및 제고
- – 제관(祭官)지도 일반인 전통향사 체험
- – 유교 선현의 업적 안내
- – (사)도봉서원 홍보
- 3) 교재, 홍보물, 사업평가서 등 활동내용의 D-base
- – '도봉문화탐방' 교재 제작 (3,000부)
- – '도봉문화해설강사' 학습자료 제작 (50부)
- – 生生사업 평가서 제작 (100부, 80p 내외, 관련기관 제출)
- – 홍보물 제작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 4.	'도봉문화해설강사' 양성 교육	– 유교문화 및 역사 해설 안내 교육 – 탐방행사 진행인력으로의 활용	도봉문화원 및 도봉구민회관

‘12. 5. ~ 11.	‘도봉서원선비문화캠프’ 행사진행	– 도봉구 청소년 및 일반인 힐링캠프 행사 – 선비문화의 현대적 체험	총 10회 약 1,000명
‘12. 5. ~ 11.	도봉서원 강좌 ‘도봉만인소’	– 도봉서원 인문학 강좌 – 지역 주민 대상 상설 행사	총 10회
‘12. 4. ~ 11.	도봉산행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 서원기초정비 및 문화탐방 –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 연계	총 8회
‘12. 3. ~ 12.	기타 행사	– 문화탐방 – 춘추향제 대중행사 – 유교문화 활용단체 교류	지자체 및 자부담 진행사업
‘12. 4. ~ 12.	모니터링 및 평가	– 월별 행사 평가 및 진행상활 모니터링 – 자료집 및 보고서 발간	장기 활용 및 관련기관 제출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문화재 生生사업 업무 총괄/현장 지도	2인	도봉문화원1인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1인
운영지원	문화재 生生사업 사업별 업무 담당/ 교육	6인	도봉문화원3인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3인
자원활동	도봉서원&각석군 보존 관리 / 행사 감독	3인	도봉문화원 3인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 1인
자문위원	행사 프로그램 및 교재 자문 / 강연 진행	7인	역사 및 철학 해당분야 연구자
행사강의	문화 탐방행사 진행 / 문화재 기본 관리	22명	유교문화유산해설가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계		40명	상근 12인 / 비상근 28인

4. 안전관리 대책

– 전기 및 화기시설의 관리

– 행사참여자 안전 및 관리교육

– 관리주체 안전시설 확보 및 시설 설치

5. 지자체의 사업 지원

□ 사업기획 지원방안

– 사업기획

- 서울시내 유일의 사액서원으로 도봉산 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도봉서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도봉문화원, 한국문화유산정책활용연구소(우인) 등 민간단체의 행사진행에 관할관청 및 해당부서의 적극적 진행 협조 및 홍보방안 모색
- 문화유산의 홍보 및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반하여 보존과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의 올바른 실천 구현

□ 사업운영 지원방안

- 사업관리
  - 진행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행사 추진 관리
  - 지원금 등 예산의 합리적 지출 및 공명성 확보
  - 행사참여자의 안전 관리 및 참여만족도 측정
  -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관리 확인

□ 향후 사업 활용계획

- 도봉서원의 복원과 각석군 지역의 정비 계획
  - 복원사업 후 향후 확대 발전 계획

6. 홍보계획

- 중앙 및 지역 언론기사 제공
  - 서울신문 등 중앙신문 및 지역 언론 홍보 기사 제공
  - 도봉뉴스지 (연 12회 발간) 및 도봉문화원 소식지 적극 활용
  - 자체 홍보물 (리플릿) 제작 및 활용

7. 기타 참고사항

- 도봉서원 (서울시 기념물 제28호)의 복원 용역 , 발굴조사 중 (2010. 8.~2012. 8.)
  - 도봉서원 정비사업 (각석군 지역 정비 추진 포함)
  - 도봉서원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명소 및 청소년 예절교육 활용 예정
- 북한산 도봉지구 둘레길 완공
  - 2011년 상반기 북한산 둘레길 도봉구간 조성완료
- 도봉산생태탐방연수원 완공 (2011. 8.)
  - 도봉서원 및 각석군 인접 지역 위치
  - 청소년 수련(숙박 및 교육), 문화공연, 쉼터 및 산림테라피 신설
  - 수련원 내 '각석군 탐방로' 조성
  - 도봉서원과 연계 개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가능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문화 오감체험] 서울 동대문구/(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1. 세부 프로그램

가. 선농단 야외박물관 체험 (향나무 음악회)

- 기　　간 : '12. 4월 ~ 5월 (총　2 회)
- 장　　소 : 선농단 및 선농단 향나무 일대
- 참여대상 : 동대문구민, 일반인[다문화가정포함] (1회당 50명, 총 100명 내외)
- 주요내용 : 2013년 건립예정인 선농단 박물관 조성에 앞서 의의와 기능을 홍보하고 조선의 중요 국가제례였던 선농단제가 행해졌던 선농단의 문화재 가치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선농단과 선농단 향나무 주변을 중심으로 선농단 향나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과 문화향유를 위한 음악회를 진행한다.
- 추진일정

단 계	추진일자	내 용
준비단계	12.2.1 ~ 3.31	선농단 야외박물관 문화체험 준비 생태 체험프로그램의 준비 국악음악회 대상단체의 선정 문화재 훼손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행단계	12.4.1 ~ 5.31	선농단 야외박물관 문화체험의 진행 선농단 향나무 생태 체험프로그램 선농단 향나무 국악음악회
평가단계	12.12.1 ~ 12.31	평가단계

- 세부사항
- ① 추진방침
- – 선농단의 가치인식제고를 위하여 선농단과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동대문구 구립 박물관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역사적 의의를 전달한다.
- – 선농단 향나무의 체험프로그램은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콘텐츠인 '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 체험을 통하여 전통사회에서 잃어가는'향'이 가지는 의미와 향나무의 문화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 선농단 음악회의 진행은 국립국악원, 동대문구 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 연계를 통하여 진행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교육 프로그램 안

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	40분	선농단 이야기, 선농단 박물관의 의의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2	40분	선농단 향나무 이야기, 선농단 향나무 생태체험	선농단 향나무	
3	40분	선농단 향나무 국악음악회	선농단	

- 선농단에 대한 역사와 선농단 박물관의 건립 의의를 지역문화재 역사적 의미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다.
- 선농단 향나무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인식을 위해 선농단 향나무를 활용한 '향나무 향 맡아보기' 및 '향 주머니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향나무'에 대한 보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선농단 향나무 국악음악회를 진행하며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참가자 모집 및 운영방법
- – 참여대상: 동대문구민 및 일반인 [다문화가정 포함]
- – 모집규모: 1회당 50명 총 100명 내외
- – 모집방법: 동대문구내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발송 및 지역 언론 홍보 후 단체 접수

나. 영휘원 왕실예절 인문치유

- 기　　간 : '12. 7월 ~ 8월 (총 6 회)
- 장　　소 : 영휘원 재실
- 참여대상 : 동대문구 지역주민 가족단위(1회당 20명 총 120명 내외)
- 주요내용 : 왕실무덤인 '원'에 대한 문화재 가치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에 들어가기 '왕실제례'의 준비 및 점검과 심신의　경건함을 준비하였던 '재실'에서 '왕실예절교육'을 접목한　　가족단위 인문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추진일정

단　계	추진일자	내　용
준비단계	12.2.1 ~ 6.30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의 준비 및 참여자의 모집
실행단계	12.7.1 ~ 8.31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평가단계	12.9.1 ~ 12.31	평가단계

- 세부사항

① 추진방침

–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은 영휘원에 담겨져 있는 정신의 소산인 왕실예절을 통해서 현대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병리를 해결하고자 문화재 공간을 활용하여 현대에 재조명 한다.

–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의 진행은 인문치유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진행되며 가족 간의 소통과 문제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② 프로그램 안

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	30분	왕실무덤 '원'의 가치와 '왕실(제례)예절'의 기본	영휘원 재실	
2	30분	왕실예절을 통한 우리가족 소통하기	영휘원 재실	
3	30분	영휘원 원침에서 가족의 다짐 말하기	영휘원 원침	

– 왕의 무덤인 '능'에 비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왕실무덤인 '원'의 가치를 영휘원 재실에서 진행하여 '원'에 담겨져 있는 '자연의식'과 '가족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왕실예절의 기본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현대사회에서 예절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전통예절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인문치유 전문강사의 진행 아래 가족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다.

– 문화재청 영휘원 출장소의 안내 아래 영휘원의 원침에서 지속적인 가족의 소통을 다짐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③ 참가자 모집 및 운영방법

– 참여대상: 서울 동대문구 지역주민 가족단위

– 모집규모: 1회당 20명 총 120명 내외

– 모집방법: 동대문구내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발송 및 지역언론 홍보 후 가족 접수

다.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 기　　간 : '12. 5월 ~ 11월 (총 4 회)
- 장　　소 : 세종대왕기념관
- 참여대상 : 초등학생 1~3학년 (1회당 30명씩 총 120명 내외)
- 주요내용 : 수표가 가지는 과학적 성과와 물의 깊이를 재는 척도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실제 용도를 알려내기 위하여 '수표' 모형을　제작해 보고 실제 사용해보도록 진행함. 이외에 과학적 성과를　가지는 여타의 문화재도 포함하여 체험을 진행한다.
- 추진일정

단　계	추진일자	내　용
준비단계	12.2.1 ~ 4.30	참여학교 학생 모집
실행단계	12.5.1 ~ 11.31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평가단계	12.12.1 ~ 12.31	평가단계

- 세부사항

① 추진방침

– 보물 수표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알려내기 위하여 역사적 기록에서 나오는 수표의 사례와 '척'과 '갈수, 평수, 대수' 등이 원리를 정리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 수표 및 수표와 관련한 과학유산 모형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만들어보는 체험에는 육각형 기둥을 만들고 기둥에 단위를 새기도록 하고 직접 용도를 체험해보는 실험을 총 40분 동안 진행한다.

② 프로그램 안

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	10분	수표 이야기와 수표의 사용원리	야외전시실	이야기형태
2	20분	과학유산 만들기	야외전시실	체험물활용
3	10분	과학유산 체험하기	야외전시실	체험

– 수표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수표의 사용원리를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과학유산의 현황과 과학유산으로써의 의미도 함께 설명한다.

– 과학유산 만들기와 체험 등은 해시계, 자격루, 측우기 등의 여러 과학유산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인다.

③ 참가자 모집 및 운영방법

– 참여대상: 서울 동대문구 소재 초등학교 1~3학년

– 모집규모: 총 4회 (회당 30명씩 총 120명 내외)

– 모집방법: 동대문구 지역 학교 공문발송 및 지역언론 홍보 후 단체 접수

라.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알리는 길잡이' 양성교육

- 기　　간 : 12. 3월 ~ 4월 (총8회)
- 장　　소 :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 참여대상 : 동대문구 지역주민 (약 30명 내외)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알리는 길잡이'를 양성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의 안내 해설 및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등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영휘원, 선농단, 수표 외 동대문구 내 문화유산의 안내와 '국가제례', '조선왕실무덤'의 의의, 조성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 추진일정

단　계	추진일자	내　용
준비단계	12.2.1 ~ 2.29	참여자 모집 (지역주민 대상)
실행단계	12.3.1 ~ 4.30	지역주민 대상 총 8회 교육 진행 ① 동대문구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이해 ②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안내 진행법 ③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강의 ④ 선농단의 이해(선농대제 포함) ⑤ 영휘원'원'으로써의 의미 (영휘원 제례 포함) ⑥ 현장실습 및 평가
지원단계	12.5.1 ~ 12.31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 ① 지역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지속진행)
평가단계	12.12.1 ~ 12.31	평가단계

- 세부사항

① 추진방침

– 동대문구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길잡이' 들을 양성한다.
– 동대문구청과의 협조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진행한다.
– 1회 3시간, 총 8회 동안 진행, 필요시 상시 강좌 개설하여 운영한다.
– 총 8회의 강좌에서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이해에 대하여 1회,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현황과 의미를 주제로 4회, 현장강좌 2회,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1회 진행한다.
– 강좌 종료 후 '길잡이'들의 지원으로 지자체 방송 DBS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② 프로그램 안

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	30분	오리엔테이션(첫 번째 강좌) 및 지난 강좌에 대한 복습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2	120분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이해 및 문화유산 현황과 의미(선농단, 영휘원 포함)		
3	30분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소통법		

– 첫 번째 강좌에서 30분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의 강좌에서 30분은 지난 강좌에 대한 복습을 시작한다.
– 120분은 문화유산의 이해나 문화유산 현황과 의미를 1회씩 나누어 진행하고 국가제례나 왕실예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나머지 30분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모니터링한다.
3월 4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4시 진행

③ 참가자 모집 및 운영방법

– 참여대상: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성인
– 모집규모: 총 30명 내외
– 모집방법: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발송 및 지역언론 홍보 후 단체 접수

마. 답십리도당 생생극장

- 기　　간 : '12. 9월 ~ 10월 (총2회)
- 장　　소 : 답십리 도당 및 답십리 일대
- 참여대상 : 동대문구 지역주민 (1회당 50명씩 총 100명 내외)
- 주요내용 : 동대문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방치된 문화유산인 답십리 도당의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근대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추진일정

단 계	추진일자	내 용
준비단계	12.7.1 ~ 8.31	참여자 모집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준비 및 기관협조 근대영화상영의 선정 및 준비 답십리 도당 일대 세부 프로그램 진행 준비
활용단계	12.9.1 ~ 10.31	'답십리도당생생극장' 프로그램 진행 – 답십리 도당 근대영화상영제 답십리 고미술상가 연계 진행
홍보단계	12.7.1 ~ 11.30	'답십리도당생생극장' 프로그램 진행 영상을 동대문구 지역내에 지속 방영 웹, 모바일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 진행
평가단계	12.12.1 ~ 12.31	평가단계

- 세부사항

① 추진방침

– 본 프로그램은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방치된 문화유산 향유명소인 답십리 도당을 알리고 주변공사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의 참여아래 진행된다.

– 활용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고미술품이 있는 답십리 고미술상가의 상인회와 답십리 지역의 옛 모습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근대영화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향유명소로서 답십리 도당과 일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홍보를 위하여 웹, 모바일과 동대문구 자체 스마트폰 서비스인 '스마트레터'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 디지털을 기반 한 문화재 활용서비스를 강화한다.

② 프로그램 안

순서	소요시간	주요내용	장 소	비 고
1	40분	답십리 고미술상가에서 상인들의 고미술품 이야기 진행	답십리 고미술상가	
2	80분	답십리 도당(근대영화)에서 보는 옛 사람들의 생활이야기	답십리도당	근대영화영상

– 답십리 고미술상가에서 옛 사람들의 생활물품을 관람 후 답십리 도당생생극장으로 이동하여 생생한 옛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나눈다.

– 프로그램의 진행은 야외에서 근대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므로 해가 지는 시간대에 진행한다. (생생극장 표지판 설치)

③ 참가자 모집 및 운영방법

– 참여대상: 동대문구민 및 일반인 [노인 및 청장년 층 포함]

– 모집규모: 1회당 50명씩 총 100명 내외

– 모집방법: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발송 및 지역언론 홍보 후 단체 접수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2.1. ~3.31.	선농단 야외박물관 문화체험 (향나무 음악회)	선농단 야외박물관 문화체험 준비 생태 체험프로그램의 준비 국악음악회 대상단체의 선정 문화재 훼손예방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12.4.1. ~5.31.		선농단 야외박물관 문화체험의 진행 선농단 향나무 생태 체험프로그램 선농단 향나무 국악음악회 진행	2회 진행 4월·5월
'12.12.1. ~12.31.		평가단계	
'12.2.1. ~6.30.	영휘원 왕실예절 인문치유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의 준비 및 참여자의 모집	
'12.7.1.		왕실예절 인문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6회 진행

~8.31.			7월·8월
‘12.9.1. ~12.31.		평가단계	
‘12.2.1. ~4.30.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참여자 모집	
‘12.5.1. ~11.31.		‘수표를 통해 체험하는 과학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4회 진행 5·6·10·11월
‘12.12.1. ~12.31.		평가단계	
‘12.2.1. ~2.29.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알리는 길잡이’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지역주민 대상)	
‘12.3.1. ~4.30.		지역주민 대상 총 8회 교육 진행 ① 동대문구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이해 ②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안내 진행법 ③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강의 ④ 선농단의 이해(선농단제 포함) ⑤ 영휘원‘원’으로써의 의미 (영휘원제례포함) ⑥ 현장실습 및 평가	8회 진행 3·4월
‘12.5.1. ~10.31.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 지역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지속진행)	생생스탬프 코스진행
‘12.12.1. ~12.31.		평가단계	
‘12.7.1. ~8.31.	답십리 도당 생생극장	참여자 모집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준비 및 기관협조 근대영화상영의 선정 및 준비 답십리 도당 일대 세부 프로그램 진행 준비	
‘12.9.1. ~10.31.		‘답십리도당생생극장’ 프로그램 진행 – 답십리 도당 근대영화상영제 답십리 고미술상가 연계 진행	2회 진행 9·10월
‘12.7.1. ~11.30.		‘답십리도당생생극장’ 프로그램 진행 영상방영 웹, 모바일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 진행	
‘12.12.1. ~12.31.		평가단계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전체 사업기획 및 진행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자원연계 및 홍보 등 운영지원 및 진행	2명	상근
지원활동	문화재 해설사 및 문화유산교육강사 인력 (영휘원, 수표, 도당)	3명	비상근3명
	체험 진행인력	1명	상근
자원봉사	진행보조 자원봉사 인력	3명	자원봉사
계		10명	상근 4명/ 비상근6명

4. 안전관리 대책

– 행사진행시 운영요원 상근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보험가입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 비상약품 상시 비치 및 안전 관리 등 위해요소 제거
- 사고 예방 : 119 이동 구조대(현장 파견근무)
- 응급환자 발생시 : 119 구급대 활용
- 안전사고 예방 : 이동 파출소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ㅇ 지역 문화 보존 및 활용 가능 대상 문화유산 검토 제안 ㅇ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문화재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수립 ㅇ 지자체 문화재 활용사업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ㅇ 2012년 사업 진행을 위한 지자체 예산편성 및 교부 연간사업 준비 및 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교부 전 사업초기 지자체 예산 교부 계획 수립 ㅇ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문화재(선농단, 한의약박물관, 보제원, 전농동향나무, 부군당, 도당, 답십리고미술상가) 현장 방문 및 현황조사 ㅇ 선농단 역사박물관 조성, 건립 계획과 관련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감도 및 건물조형 내용' 자료 송부 등 선농단 박물관 조성 관련 계획공유를 통한 향후 사업계획(안) 마련 협조 ㅇ 동대문구 문화유산의 방지를 하기 위한 비지정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답십리 도당과 같이 미래문화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현대의 문화 조사관리, 보존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계획 ㅇ 동대문구 답십리 도당 일대 문화 향유 명소화 활성화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브랜드화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답십리도당 근대영화상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 연계 및 프로젝트 시설(빔,스크린,음향)등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ㅇ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진행 협조 및 자원연계(동대문구 지역문화연구 및 해설강사 연계 등) ㅇ 생생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구정신문, 구청홈페이지, 지역방송, 언론보도, 포스터부착, 안내게시판, 현수막 설치등) 지원 및 구청 홍보팀 행사동영상 촬영 협조 등 ㅇ 동부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사업진행시 참여 모객유치를 위한 협조 공문발송 등 ㅇ 구청 회의실 및 정보화도서관(청량리동) 교육장으로 무상사용 등 제반 행정적 지원 ㅇ 사업 현장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ㅇ 사업 평가를 통한 결과보고
민간단체	ㅇ 동대문구 생생사업 연간사업 계획수립 ㅇ 동대문구 지역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가능 문화유산 현황파악 및 사전 조사 ㅇ 동대문구 문화재 연구 및 컨텐츠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ㅇ 지자체 문화재 활용사업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회의를 통한 계획수립 ㅇ 2012년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 ㅇ 생생사업 진행을 위한 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 준비 및 진행 ㅇ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체험, 향유프로그램 세부계획수립 및 진행을 위한 자원연계 ㅇ 선농단 역사박물관 조성, 건립 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안) 수립 지자체 조성계획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진행 계획수립 ㅇ 영휘원 연계, 협의를 통하여 재실사용 및 능선 개방 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의 ㅇ 동대문구 답십리 도당일대 문화향유명소화와 연계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기획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및 진행 ㅇ 세종대왕기념관 야외 공간 사용 및 진행 협조 체계 마련 ㅇ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진행 협조 체계 구축 ㅇ 동대문구 생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계획 수립 ㅇ 지역 문화재 길잡이 양성 교육생 모집을 위해 동대문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ㅇ 서울 시청 문화재과와 연계를 통한 생생사업의 대외 홍보 확대 ㅇ 일반인 및 문화소외계층, 학교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의 모객유치를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계획 수립 ㅇ 참여자 설문 등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결과 검토 ㅇ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보고

6. 홍보계획

- 생생문화재 사업의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의 홍보물의 제작
  - 공공디자인 안내게시판 설치 등의 시설물 설치
  -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최/주관 단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고 타 지역의 방문을 높이기 위한 배지 등의 판촉물제작
  - 대사관을 통한 홍보물 배포 외국인 관심 증대(외국인 체험안내)
  - 여행, 교육, 문화를 주체로 하는 시민단체 홍보 및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서울시, 지자체 적극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 문화재의 보호와 동대문구 생생문화재 활동의 홍보를 높이기 위한 진행 영상물 제작과 동대문구방송(DBS), 웹, 홈페이지, UCC, 트위터, 스마트레터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 미디어 활용
  - '지역 문화재 관광서비스 제공' 을 담은 영상물 제작
  - '지역주민 및 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재 관광상품 소개' 언론홍보
  - 사업 자체 온라인 커뮤니티 운용 포함
  - 다양한 참여자 모객을 위한 학부모신문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운영을 통한 사업 안내

7. 기타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 세부 활용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부가
- 공익적인 사회서비스 단체(서울시 사회적기업)로서의 지역 공공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문화향유권 제공' 을 목적으로 운영
- 고택문화재 활용사업 진행 노하우와 역량,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함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진취적인 사업추진
- Social media 홍보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복지 자원연계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간 역할분담내용	정부, 지자체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 지자체 문화체육과 사업 지원 및 협력
	대학, 연구소등	문화재활용연구소 '2011년 생생사업 컨설팅'
	동대문구 문화재 민간협력 단체	문화재청 영휘원 출장소 세종대왕기념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서울시립대 박물관 협력
	컨소시엄단체	서울시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사업연계

[왕의 길, 신하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길] 서울 동작구/(주)우리가만드는미래

1. 세부 프로그램

가. '사육신의 다섯 가지 소원'

- 기　　간 : 2012. 3. 1. ~ 10. 31. (총 20회)
- 장　　소 : 동작구 사육신묘
- 참여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학교 현장학습) 총 600명 참여 (회당 30명, 총 20회차)
- 주요내용

① 목적:

▶ 문화재로써 무덤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 – 현재 일부 왕릉만이 문화유산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은 후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만 되고 있는 실정 – 무덤에 묻힌 인물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과 인물에 대한 사색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

▶휴식을 주고 사색의 기회를 주는 공간 – '묘'의 여러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이 친근하게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육신묘를 '역사와 만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재규정 –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활용함으로써 사육신묘를 충,효,예,의를 중시하는 동작구의 실질적인 대표문화재로, '역사와 만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재규정한다.

② 현황

– 매년 10월 8일~9일 2일간의 추모제향과 문화제가 열림.

–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 운동의 공간이 되고 있음

③ 활용 계획

▶사육신에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전문가의 해설과 연극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보고 풀어주는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무덤의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함으로써 '관리' 중심의 묘를 '체험'이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사육신의 다섯 가지 소원'이라는 테마로 어린이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사육신묘를 '닫혀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산책과 운동을 위한 동네 공원으로 인식되어온 사육신묘를 역사와 문화, 휴식의 복합적 공간으로 이미지 전환

- 추진일정

일정	내용	비고
~ 2012.03.10	현수막 등 제작 완료, 부착	동작구 일대
~ 2012.03.20	학교 대상 체험활동 제안 및 확정	진행 일정 협의
~ 2012.03.20	진행, 강사 담당 강사 교육 완료	
~ 2012.03.25	자료집, 홍보물 제작 완료	
2012.04.01~06.30	역사체험 활동 진행 (약 12회)	일정 협의 확정
2012.07.01~08.31	중간 점검, 하반기 진행 준비	
2012.09.01~10.31	역사체험 활동 진행 (약 8회)	일정 협의 확정
2012.11.01~11.30	진행 평가, 보고서 작성, 향후 계획 수립	

나.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 기　　간 : 2012. 3. 1. ~ 11. 30. (총 20회)
- 장　　소 : 동작구 용양봉저정
- 참여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학교 현장학습), 총 600명 참여 (회당 30명, 총 20회차)
- 주요내용

① 목적

▶지역의 문화재 '용양봉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주민들에게 생소한 '용양봉저정'에 대해 알리고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임을 인식하게 한다.

– 무관심 속에 닫혀있던 공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활용함으로써 열린 공간,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왕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조선시대의 왕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 배우고 오늘날 정부와 국민의 역할과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로 활용한다.

② 활용계획

□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 정조의 개혁정치와 효심에 대해 알아보고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반차도를 이용하여 단체 퍼즐게임을 진행

- 추진일정 :

일정	내용	비고
~ 2012.03.10	현수막 제작 완료, 부착	동작구 일대
~ 2012.03.20	학교 대상 체험활동 제안 및 확정	진행 일정 협의
~ 2012.03.20	진행, 강사 담당 강사 교육 완료	
~ 2012.03.25	자료집, 홍보물 제작 완료	
2012.04.01~06.30	역사체험 활동 진행 (약 12회)	일정 협의 확정
2012.07.01~08.31	중간 점검, 하반기 진행 준비	
2012.09.01~10.31	역사체험 활동 진행 (약 8회)	일정 협의 확정
2012.11.01~11.30	진행 평가, 보고서 작성, 향후 계획 수립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1. ~ 3.31.	세부 계획 확정, 사업 추진	세부 계획 확정, 사업 추진, 교재 및 교구 제작	준비 단계
'12. 4. 1. ~ 4.30.	프로그램 진행 ① 사육신의 다섯 가지 소원 ②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① 사육신의 다섯 가지 소원 1.내얼굴을 찾아주소– 사육신 초상화 그리기와 전시 2.단종을 위해 바치는 일월오악도 –일월오악도 액자 만들기 3.지지 않는 꽃을 만들어줘 – 꽃바구니 바치기 4. 우리를 잊지 말기를! – 퀴즈대결 5. 어린이들의 다짐을 듣고 싶어 – 각자의 다짐으로 완성 하는 설치 미술	월4회 프로그램 진행 (①②프로그램 연속/ 종일 진행, 일정은 학교와 협의)
'12. 5. 1. ~ 5.31.			
'12. 6. 1. ~ 6.30.			
'12. 9. 1. ~ 9.30.			
'12.10. 1. ~10.31.		② 숨겨진 용양봉저정을 찾아라! – 을묘원행정리의궤의 반차도 퍼즐을 맞춰 '주교도' 완성하기 – 그림에서 용양봉저정 찾기	
'12.11. 1. ~ 11.30.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사업평가, 보고서 작성, 향후 계획 논의	평가단계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생생사업 기획,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책임	1명	상근
강의진행	각 프로그램의 강의 및 운영 보조	10명	비상근
계		12명	상근 2명/ 비상근 10명

4. 안전관리 대책

- 참가 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 사전 답사를 통해 숙박시설 및 기타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 비상약품을 구비하여 간단한 응급상황 대비
- 관내 경찰과 소방시설의 비상연락망 구축
- 행사 진행요원의 안전교육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구 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적 지원 ▫사업 기획에 참여 (공동 사업기획) ▫동작교육청, 학교 등에 협조 요청 ▫관내 홍보 – 구정신문, 홈페이지, 관내 홍보물 부착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 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에 참여
민간단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교재 제작 및 교구 개발 ▫생생사업 온라인 카페 운영,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 및 소통 ▫사업 성과물의 정리 및 보고 ▫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수립

6. 홍보계획

- 구청, 민간단체의 홈페이지에 광고페이지 제작, 관계기관 또는 협력단체 홈페이지와 회원 뉴스레터에 광고 배너 게재 요청
-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생생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동작구 소식지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생생사업 홍보
- 행사 진행 전 전국 및 지방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발송
- 방송국 섭외를 통해 기획방송 추진
- 온라인 카페,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와 의견 교환

7. 기타 참고사항

-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음. 2012년 사업을 안착화하여 일상적인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삼고 향후 전체 주민과 타 지역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자

함.

- 실행단체인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사회적기업 1세대로서 역사문화 교육과 활용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직접 교재와 교구를 연구, 개발하여 출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사업 선정 시 실행단체에서 별도의 인력편성으로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 담보

[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울산 동구/울산 동구청

1. 세부 프로그램

가. 등대체험 – 100년의 빛을 찾아서...

- 기　　간 : '12. 3월 ~ 11월 (월 1회, 총 8 회) – 매월 2주 토요일 14:00 ~ 일요일 14:00(1박 2일)
- 장　　소 : 울산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 참여대상 : 울산지역 초·중학생 160명(초등학생 4회 80명, 중학생 4회 80명)
- 주요내용 : 등대체험 및 문화체험 등(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등대체험) 4D 입체영상체험, 선박가상 시뮬레이션, 등대 탐방 등, (문화공연) 문화공연, 이야기가 있는 해안 둘레길 산책 등, (해돋이체험) 전국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대왕암 해맞이 체험
- 추진일정 : 업무협약 및 프로그램 구성: '12. 2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2. 2월(공개모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12. 3월~ 11월(8월 제외), 운영평가 및 피드백: '12. 12월

나. 문화어울림 한마당 – 백년의 빛과 천년 소리의 만남

- 기　　간 : '12. 5월 ~ 10월 (5월, 8월, 10월, 총 3 회) – 5월, 8월, 10월중 보름날 전후 14:00 ~ 22:00
- 장　　소 : 울산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및 대왕암공원 일원
- 참여대상 : 울산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 등 1,200명(매회 400명)
- 주요내용 : 걷기체험 및 문화공연 등, (걷기행사) 울기등대 ~ 대왕암 ~ 슬도 일원 달빛 걷기(2.1km), (체험행사) 등대와 대왕암 탁본체험, 솟대미니어처 체험, 만들기 등, (문화공연)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공연행사 등
- 추진일정 : 업무협약 및 프로그램 구성: '12. 2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12. 4월~10월(매회, 공개모집), 체험프로그램 운영: '12. 5월~ 10월(3회), 운영평가 및 피드백: '12. 12월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2. 1.~ 2. 28.	업무협약 및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 유관기관·단체간 업무지원 협의 및 협약체결 ■ 사전 점검 회의	
'12. 2. 20. ~ 3. 10.	등대체험참가자 모집	■ 등대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8회 160명(회별 20명)	
'12. 3월 ~ 11월.	등대체험 프로그램	■ 등대체험 프로그램 운영 – 월 1회 총 8회(1박 2일)	
'12. 4월 ~ 10월	문화어울림 한마당	■ 참가자 모집 – 3회 1,200명(회별 400명) ■ 문화체험공연 운영 – 5월, 8월, 10월(총 3회)	
'12. 12월	사업평가	■ 사업평가보고회 개최 – 사업별 운영평가 및 피드백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 행사 기획 및 관리 총괄	1명	상근 (문화체육과장)
운영지원	· 종합 상황관리 · 등대체험 및 문화재 교육 · 응급환자 이송 및 관리	9명	상근 (동구청 5명 해운항만청 4)
자원활동	· 생태 숲 해설 및 체험 활동 지원 · 체험행사장 안전관리	10명	비상근
홍보활동	· 프로그램 홍보 지원	5명	비상근
계		25명	상근 10명/ 비상근 15명

4. 안전관리 대책

-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안전관리 대책 추진

구 분	내 용	주 관	비 고
체험행사전	·행사 적합성 평가 및 행사장 주변 정비	동구청	
응급구호	· 응급의료부스 운영 – 응급의료진 배치(간호사 1명) – 응급환자 이송 및 관리체계	동구보건소 동부소방서	
행사장 관리	· 300m 구간별 자원봉사 또는 행사관계자 1명 배치(총 7명) · 행사장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질서 유지 · 해상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	동구청 동구청소년 기관연합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해양경찰서
상해보험	· 등대체험 참가자 전원 일일 상해보험 가입	동구청	160명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행사주관)	■ 사업기획, 행정지원, 예산의 확보, 사업효과 모니터링 ■ 관련기관·단체간 업무협의 등 수행
민간단체, 언론 (행사지원)	■ 사업의 제안, 문제점, 개선방안 등 사업효과 모니터링 지속 ■ 프로그램 개발, 계획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동구청소년 기관연합, 울산 생명의 숲 등) ■ 문화기획 등 전문분야의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참여 (동구문화원 등) ■ 사업 추진과 관련 내용의 언론 기획 연재, 주민참여 홍보 (지역 언론)

6. 홍보계획

- (언론홍보)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 및 중앙·지방 기자단 정례브리핑
- (방송홍보) 적극적인 행사 홍보를 위하여 지역방송을 통해 사전 홍보방송과 운영기간 중 체험프로그램 방송
- (온라인홍보) SNS, 포털사이트, 온라인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사전 정보제공 및 홍보
- (홍보물제작) 육교 및 현수막 게시대 플래카드 제작 게시, 아파트단지 내 게시대 및 엘리베이터 등에 리후렛 등 홍보물 게첨
- (학교 등 홍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및 경로 확대

7. 기타 참고사항

□ 울기등대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5번지(대왕암공원 내)
- 최초점등일 : 1906년 3월 24일
- 건립배경
  - 일본이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독점하기 위해 러일전쟁(1904~1905)을 일으키면서 일본해군이

동해와 대한해협의 해상 장악을 목적으로 1905년 2월 등간을 설치하여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침하는데 이용

- 이후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6m 돔형의 등대를 설치하였고(고종 광무 10년 3월 추정) 1972년 11월 기존의 등탑에 3m 수직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울기등대 구등탑으로 불림
- 주변 해송들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해상에서 구등탑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높이 24m의 신등탑을 새로이 건립

– 등탑의 구조와 특징

- 구 조 : 백색 하부원형 상부 팔각형구조로 9.2m(신등탑: 팔각형구조 24m)
- 특 징 : 구등탑은 구한말 시대의 건축양식을 내포하고 있어 근대문화재로 가치가 높아 2004년 9월 4일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

–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이자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울기등대는 역사성과 아름다움으로 2007년 국토해양부의 아름다운 등대 16선 및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해무가 짙게 깔린 날 대왕암 송림에 둘러싸인 울기등대의 모습은 신비롭기까지하며 깊은 정적을 헤치고 들려오는 등대소리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인 듯 깊은 여운을 남긴다.

□ 숙박 및 체험시설

- 숙박시설 : 2개동(20명 수용)
- 교육·체험시설 : 교육장 1, 영상체험관 1, 선박 조종실 1, 다목적공연장

□ 대왕암공원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 일원

– 공원결정 : ‘62. 5. 14 ※ 2010년 명승지정 예고(문화재청)

– 면 적 : 942,000㎡

– 대왕암공원

-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에 있는 공원으로 옛 선비들이 해금강이라 일컬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며, 조선 시대에는 목장으로 쓰임.
- 1906년 동해안에서 처음 설치된 울기등대가 있어 울기공원으로 불리다가, 2004년 2월 대왕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 울기등대와 대왕암, 용굴 등의 기암괴석과 수령이 100년이 넘은 1만5천여 그루의 해송과 곰솔군락이 해송의 진한 향기와 바다의 운치까지 겹쳐져 해안 경관이 더욱 돋보임.

– 대왕암의 유래

- 삼국통일을 이룩했던 신라30대 문무왕이 재위 21년만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구(東海口)의 대왕석(大王石)에 장사를 지내니 용으로 승화하여 동해를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장사 지낸 문무왕의 해중릉을 대왕암이라 하며 경주시 양북면에 있음
- 문무대왕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호국룡이 되어 하늘을 날아 울산을 향하여 동해의 한 대암 밑으로 잠겨 용신이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

- 대왕암은 주변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일출명소로 유명함. 일년 중 10개월 정도가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나 아쉽게도 1월 1일을 후한 기간 중에는 울주군 간절곳보다 늦게 해가 뜨게 됨

- 체험 및 기반시설
  - 현재 대왕암공원정비계획 시행중(1단계완료 2단계 시행중)
  - 주차장 및 산책로 정비 완료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전남 나주시/나주문화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 기 간 : '12. 3. 1. ~ 10. 31. (총 4회) ※ 배꽃 피는 4월, 7월~8월 여름, 금성관 은행나무 물드는 10월
- 장 소 : 나주읍성권 일원, 문평면 북동리 명하쪽빛마을
- 참가대상 : 참가 희망자 (회당 30명)
- 주요내용 : 나주읍성권 답사 및 염색 체험 (1박 2일)

■조선시대 호남최대 나주읍성 공간 이해하기 : 나주읍성, 관아, 향교, 옛 길, 터 답사 – 코스 : 나주읍성 동점문 → 남산성벽터 → 최고정 → 옛 망화루 → 나주읍성 남 고문 → 남파고택 → 학교(나주천 다리) → 금성관(지방 궁궐, 학봉 김성일 목사와 상소문 짓기) → 정수루(관아 정문) → 사매기(고려 현종의 몽진길) → 서문길 → 나주읍성 서성문 → 나주향교(나주역사 골든벨) → 나주목사 내아(예술 공연, 숙박) → 쪽염색

■공간별 체험

호남의 최대 읍성(나주읍성 동점문) : 나주읍성 최대 성문이며 관문인 동 점문에 올라 읍성 기능과 읍성 흥망의 역사 배우기 → 삼봉 정도전이 동문에 올라 나주를 평가한 '論父老書' 역할극 체험 – 지방 궁궐(금성관) : 조선시대 지방행정 편제인 牧을 이해하고 지방관인 牧使의 역할 이해하기 → 선정을 베푼 나주목사로 유명한 학봉 김성일 목사가 주관하는 상소문 짓기 체험 – 지방 학교(나주향교) : 나주목의 학교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나주향교에서 지방 학교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 나주 역사 골든벨 진행, 금성별곡 감상, – 지방관의 숙소(나주목사내아) : 나주읍성 고지도 배우기로 조선시대 도시 공간구조 이해, 나주 삼형육각 공연으로 문화재에서의 행복한 하룻밤 지내기

○ 조선시대 도시의 예술 이해 : 최고의 염색기술, 쪽염색 체험

- – 쪽염색 역사와 쓰임새 배우기, 쪽 재배 농사 이해, 쪽으로 스카프 염색, 에코 뮤지엄에서 농기구 체험, 제철 시골 밥상으로 점심 먹기
- 추진일정 : 3월 ~ 4월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1차 시행, 6월 ~ 8월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2~3차 시행, 9월 ~ 10월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4차 시행

※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시행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10. ~ 3. 20.	1차 참가자 모집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 참가자 확정 공고 (시 홈페이지)	
'12. 4. 14. ~ 4. 15.	1차 시행		30명
'12. 6. 10. ~ 6. 20.	2차~3차 참가자 모집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 참가자 확정 공고 (시 홈페이지)	
'12. 7. 28. ~ 7. 29.	2차 시행		30명
'12. 8. 4. ~ 8. 5.	3차 시행		30명
'12. 9. 10. ~ 9. 20.	4차 참가자 모집	– 참가자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 참가자 확정 공고 (시 홈페이지)	
'12. 10. 27. ~ 10. 28.	4차 시행		30명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생생 프로그램 기획, 운영	1명	상근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기행 해설 : 나주시 학예연구사 2인 – 기획단 : 10인 – 기행 진행 보조 : 4인 – 예술 공연 : 나주시립국악단원 6인 – 쪽염색 체험 : 4인 전수교육조교 1, 염색 보조 3	28명	비상근
자원활동	달빛기행에 조선시대 호위병 역할	8명	비상근
계		37명	상근 1명/ 비상근 36명

4. 안전관리 대책

–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참여자 상해 보험 가입

– 각 팀별 안전관리 요원 2명 배치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프로그램 공동기획, 예산 지원 – 생생 프로그램 홍보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 시스템 조치
민간단체	– 프로그램 공동기획 – 프로그램 시행

6. 홍보계획

– 언론 보도자료 배포, 나주시와 나주시 관련 홈페이지 게재

– 홍보 현수막 게첨

– 전국 문화원과 관광테마마을 연계 홍보

7. 기타 참고사항

– 나주읍성 천년 달빛 기행 시 사업비 기 확보

– 나주목사내아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연계 구축

–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 구축 (전시, 체험)

– 명하쪽빛마을(2011 나주시 지정 관광테마마을) 체험관 구축.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전남 진도군/진도북놀이보존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지는 해 ! 노을 ! 생생 북놀이 !

- 기　　간 : '12. 3 . 24 . ~ 11 . 17 . (총 35 회)
- 장　　소 : 세방낙조 (지산면 세방리 소재)
- 참여대상 : 관광객 및 지역주민(예약)
- 주요내용 : 진도북놀이 시연(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등), 북놀이 가락과 춤사위 체험, 북놀이체험과 어울림 마당
- 추진일정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7시

나. 토요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

- 기　　간 : '12. 6 . 9 . ~ 8 . 25 . (총 6 회)
- 장　　소 : 향토문화회관 (진도읍 동외리 소재)
- 참여대상 : 관광객 및 지역주민
- 주요내용 : 토요민속여행 공연 관람(북놀이), 북놀이 가락과 춤사위 체험, 북놀이체험과 어울림 마당
- 추진일정 : 6월 ~ 8월(2·4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다. 진도 북 페스티벌 !!

- 기　　간 : '12. 11 . 4 (총 1 회)
- 장　　소 :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 세방낙조
- 참여대상 :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진도북과 친해지기 (진도북 이야기, 진도 양북 체험), 문화재와 놀아보기 (체험+놀아보기+진도북과 어울마당), 진도북놀이(3가지류) 공연, 다른북과 놀아보기(밀양5북, 대구 등 외부 북놀이+진도관내 유·초·중·고교 북놀이), 원주 매지농악 생생체험 교류, 진도 북놀이 대회,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 등
- 추진일정 : '12. 11 . 4 . 오전 10시 ~ 오후 6시

라.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

- 기　　간 : '12. 3 . 10 . ~ 12 . 29 . (총 43 회)
- 장　　소 : 의신민속전수관, 빗기내민속전수관, 임회민속전수관
- 참여대상 : 세방낙조 관광객, 전국 중·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
- 주요내용 : 진도 북과 어울리기(진도 북의 역사, 구조, 북놀이 시연), 진도북놀이 배우기(장단 익히기, 북춤 등), 진도민요 배우기(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민요 등), 체험과 어울림 마당
- 추진일정 : 1일차 오후 7시 ~ 2일차 오전 12시.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3. 24. ~ 11. 17.	지는 해 ! 노을 ! 생생 북놀이 !	– 진도북놀이 시연(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등) – 북놀이 가락과 춤사위 체험 – 북놀이체험과 어울림 마당 – 찾아가는 북놀이 체험	– 체험예약제 운영 (회당 10~15명) – 찾아가는 북놀이 체험(8회) (회당 40명)
'12. 6. 9. ~ 8. 25.	토요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	– 토요민속여행 공연 관람(북놀이) – 북놀이 가락과 춤사위 체험 – 북놀이체험과 어울림 마당	– 토요민속여행 관람 후 생생체험
'12. 11. 4.	진도 북 페스티벌 !!	– 진도북과 친해지기 (진도북 이야기, 진도 양북	

		체험) – 문화재와 놀아보기 (체험+놀아보기+진도북과 어울마당) – 진도북놀이(3가지류) 공연 – 다른북과 놀아보기 (밀양5북, 대구 등 외부 북놀이+진도관내 유·초·중·고교 북놀이) – 원주 매지농악 생생체험 교류 – 진도 북놀이 대회,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 등	
'12. 3. 10. ~ 12. 29.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	– 진도 북과 어울리기 (진도 북의 역사, 구조, 북놀이 시연) – 진도북놀이 배우기 (장단 익히기, 북춤 등) – 진도민요배우기(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민요 등) – 체험과 어울림 마당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북 페스티벌 총괄 및 체험교육	1명	비상근
운영지원	진도북놀이, 춤사위 및 어울림마당 등 체험 운영	3명	비상근
	토요민속여행 공연 및 북놀이 체험 운영	3명	비상근
	진도북 페스티벌 및 북놀이 체험 운영	3명	비상근
자원활동	주말 1박2일 북놀이 민속전수관 체험 운영	4명	상근
계		14명	상근 4명/ 비상근 10명

4. 안전관리 대책

– 관람객 관람 및 체험시 안내문 배포 및 안전사고 주의사항 공지

– 관람 및 체험안내 입간판 설치 및 구급약품 등 준비

– 행사 전 관내 경찰서, 방범대 교통정리 및 소방서 방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사전협조체계 구축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운영계획수립 및 협의 등 지원 ·설문지조사, 카메라촬영, 관광객 체험 유도 등 행사 운영지원
민간단체	·체험운영, 북페스티벌 운영, 민속전수관 체험 운영

6. 홍보계획

– 방송: 남도국악방송, MBC, KBS, KBC 스팟방송

– 관광 여행사: 관광여행사 홍보, 관광버스 및 철도청 연계코스 마련

– 문화관광해설사: 진도관광코스연계 및 안내

– 거 리 홍 보: 플래카드, 배너 등

– 인쇄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등

- 외부초청행사시 북놀이 생생체험 및 공연을 통한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군 홈페이지) 및 북놀이 카페 등

7. 기타 참고사항

- 진도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준공(2012. 2)
-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활용 프로그램 마련
- 생생체험 전용 체험장 (세방낙조) 조성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 전남 화순군/(사)문화진흥협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지란지교 Talk Concert

- 기　　간 : '12. 04. ~ '12 . 10. (총 4 회)
- 장　　소 : 적려유허비, 죽수서원, 학포부조묘 일원
- 참여대상 : 지역 청소년, 지역민, 타지역 주민
- 주요내용 :
  - '정암·학포와 같은' 지란지교 Talk Concert
    ·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이 나누었던 참된 우정에 대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 조선의 역사 속에 회자되었던 올바른 인간관계의 정형들에 대해 알아본다.
    ·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정암과 학포가 꿈꾸던 세상
    · 기묘사화는 조선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일까
    · 현재의 모습에서 바라보는 개혁 사상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 개혁사상가 조광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조광조가 바라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 힘든 유배 생활에서 그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 과거로부터 지금에 부치는 편지
  - 남종화의 시조, 학포 양팽손의 작품에 대하여
    · 양팽손은 누구인가?
    · 그가 남긴 작품들
    · 양팽손의 문화사적 의미
- 추진일정 : '12. 04. ~ '12 . 10. (총 4 회), '12. 04.~05. : '정암·학포와 같은' 지란지교 Talk Concert 행사 기획 및 운영, '12. 07.~08. : '정암과 학포가 꿈꾸던 세상' 행사 기획 및 운영'12. 09.~10. : '개혁사상가 조광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행사기획 및 운영 '남종화의 시조, 학포 양팽손의 작품에 대하여' 행사 기획 및 운영'12. 11. : 종합평가

나. 호연지기(浩然之氣)!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크고 넓은 마음

- 기　　간 : '12. 07. ~ '12. 09. (총 2 회)
- 장　　소 : 화순 능주면, 도곡면 일원
- 참여대상 : 화순지역 및 광주지역의 초·중학생
- 주요내용 :
  - 청백리의 산실, 화순에서 선비정신을 배우다!
  - 學行一致, 선비의 삶과 정신
  · 옛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체험
  · 전통한옥과 선비문화가 살아있는 화순지역 일원에서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경험
  -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짜 나를 찾는 여행(몰랐던 나를 알아가기)
  ·나의 삶, 나의 비전
  ·레크레이션
  ·진로탐색(미래설계, 올바른 인격형성계기 마련)
- 추진일정 : 여름방학 캠프(1박2일), '12. 01. ~ 12. 03. : 자료조사 및 일정파악,'12. 04. ~ 12. 06. : 강사섭외 및 일정점검,'12. 07. ~ 12. 09. : 여름방학 기간

다. 지란지교의 향기

- 기　　간 : ‘12. 04.　~ ’12. 10. (총 4 회)
- 장　　소 : 적려유허비, 죽수서원, 학포당, 영벽정 일원
- 참여대상 : 광주·전남 지역의 청소년, 일반인
- 주요내용 :
  - 조광조와 양팽손의 지란지교 해설
  - ‘나도 읊어보는 시 한수’ 정암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 시(詩) 아는 만큼 보인다. 정암이 들려주는 시이야기
  · 조광조는 당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그와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한 점’ 학포와 함께하는 그림 이야기
  ·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학포가 들려주는 그림이야기
  · 조선 양팽손의 맥을 500년 후 허백련과 오지호가 있다.
  · 솜씨 마당 : ‘학포당에도 봄은 오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만남
  - 조광조과 양팽손을 기리며
  · ‘주초위왕’ 나뭇잎 한 장으로 인해 개혁정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정암 조광조를 위해, 그 정암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남종화의 시조 학포 양 팽손을 위해 우린 엽서와 편지를 통해 그를 다시 기억하고자 함
  · 조광조와 양팽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함
  · 편지, 엽서, 스토리텔링 등으로 표출하여 보고자 함, 이를 계기로 또다른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음.
  ·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함.
  ·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현장에 전시
- 추진일정 : ‘12. 04. ~ ’12. 10. (4회, 격월), ‘12. 04. ~ ’12. 10. : 행사 기획 및 운영, ‘12. 11. : 종합평가

라. 우리지역 문화유산 콘테스트

- 기　　간 : ‘12. 06. ~ ’12. 10. (총 1회)
- 장　　소 : 화순 전지역
- 참여대상 : 화순을 사랑하는 모든 이
- 주요내용 : 화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 창작물 콘테스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개발, 전문가의 심사를 토대로 작품선정, 접수된 창작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
- 추진일정 : ‘12. 06. 홍보 및 공모사업 시작, ‘12. 09. 공모마감 및 심사, ‘12. 10. 시상식 및 순회 전시회, ‘12. 11. 종합평가

마. 문화트래킹 :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 기　　간 : ‘12. 04. ~ ’12. 10. (총 4 회)
- 장　　소 : 화순군 일원
- 참여대상 : 지역의 청소년, 걷기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주요내용 : 옛 선비들의 정자문화를 체험함,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옛길을 걸어보며, 조광조와 양팽손을 기억함, 조광조와 관련된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 개발 (조광조의 길 코스 제안), 쉼의 의미 재정립
- 추진일정 : ‘12. 03. ~ 04. : 정자를 통한 문화트래킹 코스 사전 점검 및 개발, ‘12. 04. ~ 10. : 문화트래킹 기획 및 진행, ‘12. 11말 : 최종평가 및 사업 제안(화순군 문화트래킹 제안)

바. 지란지교 음악회

- 기　　간 : ‘12. 05. ~ ’12. 09. (총 2 회)
- 장　　소 : 학포부조묘, 영벽정
- 참여대상 : 지역의 청소년 및 지역민, 타 지역민
- 주요내용 : 2012년 문화재생생사업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의 중간 점검 및 총화의 의미, 화순군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기점
- 추진일정 : ‘12. 05. ~ ‘12. 09. (2회), ‘12. 05. 26. : 1회 행사 기획 및 운영, ‘12. 09. 15. : 2회 행사 기획 및 운영, ‘12. 11. : 종합평가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03. ~'12. 11.	지란지교 Talk Concert	- '정암과 학포와 같은' 지란지교 Talk Concert - 정암과 학포가 꿈꾸던 세상 - 개혁사상가 조광조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 남종화의 시조, 학포 양팽손의 작품에 대하여	
'12. 07. ~ '12. 09.	호연지기(浩然之氣)!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크고 넓은 마음	- 청백리의 산실, 화순에서 선비정신을 배우다! - 學行一致, 선비의 삶과 정신 -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2. 04. ~ '12. 10.	지란지교의 향기	- 조광조와 양팽손의 지란지교 해설 - '나도 읊어보는 시 한수' 정암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한 점' 학포와 함께하는 그림 이야기 - 조광조과 양팽손을 그리며	
'12. 07. ~ '12. 10.	우리지역 문화유산 콘테스트	- 화순지역 문화유산을 주제로 창작물 콘테스트 및 스토리텔링 대회 개최 - 이에 따른 자원 아카이빙 및 추후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	*지속적인 전시회추진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보존
'12. 04. ~ '12. 10.	문화트래킹 :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 화순지역 문화유산 중 정자들을 둘러보며 옛 선비들의 참된 정신을 배운다. - 선비들의 풍류를 경험하며 쉬어가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겨 봄	
'12. 05. ~ '12. 09.	지란지교 음악회	- 2012년 문화재생생사업 '지란지교의 숨결, 학포 정암을 기억하다'의 중간 점검 및 총화의 의미 - 화순군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중간 기점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생생사업 전반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지원	4명	상근(2명)/비상근(2명)
자원활동	각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활동	8명	비상근
계		13명	상근3명/ 비상근10명

4. 안전관리 대책

- 5인 아동 대 1인 스텝으로 프로그램 활동과 안전관리- 사전교육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행사 진행사항을 실시간 보고 참가 아동여행자보험 가입,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전답사 2회로 참가아동 숙박시설 및 기타시설 안전상태 체크
- 비상약품 구비로 간단한 응급상황 대비
- 군 관내 경찰과 소방시설의 비상연락망 구축
- 화재예방 : 화순 119안전센터 능주지구대 10분 거리 (061-372-0119), 소화기 40개 비치

- 응급환자 발생시 : 도곡면 보건소 출장대기(061-379-5237)
- 안전사고 : 인근 파출소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 등 활용)
- 행사진행요원 등의 안전교육 실시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사업기획 지원 - 민간단체에 사업 취지 설명 및 사업계획서 검토 - 민간단체와 함께 문화재 탐방하여 사업기획에 협조 - 주기적인 민간단체와의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의견교환 ○ 사업운영 지원 -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및 '문화재자원봉사자'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협조 - 홍보 등은 군 홈페이지 지역 방송매체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 - 관내 유치원 및 학교와 교육청에서 협조하여 산교육 장소로 활용 토록 권장
민간단체	○ 사업기획 -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서 기획 및 작성 - 문화재 탐방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발굴 - 지역내 공공기관 및 일반단체와의 네크워크를 형성 ○ 사업운영 - 자체 인력과 전문 인력이 함께 프로그램 진행 -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더불어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 지역내 청소년 및 일반인과 인근 시·군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6. 홍보계획

- 기관의 홈페이지에 팝업광고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의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다.
- 매 행사 추진 5일 전 전국 및 지방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지역 방송국 섭외를 통한 기획 방영 추진
- 특정 언론사 지정 기획보도 섭외

7. 기타 참고사항

- 2011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
- 2011 광주광역시 주관 사회적일자리사업 선정으로 일자리창출 기여
- 2011 문화재 생생사업 진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 담보
- 사업 선정 시 별도의 편성으로 사업의 독립성 담보
- 협력기관 및 후원기관을 물색하여 본 행사에 참여시키고자 함

[임진년의 용, 벽골제 쌍룡으로 부활하다!] 전북 김제시/김제문화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해설사와 함께하는 벽골제 역사탐방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벽골제 일원 및 제방 3km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해설사와 함께 벽골제 제방을 걸으면서 벽골제에 대한 숨은 이야기 해설, 이야기와 함께 현존하는 두 개의 수문을 포함하여 벽골제의 흔적을 찾아보고 대한민국 최고, 최대 수리시설로서의 가치 재조명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나. 장생거 수문모형 만들기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현존하는 벽골제 수문인 장생거를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실시
- 체험방식 : 사전 체험용 미니어처를 제작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수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실시, 유토 등 소품을 활용하여 물길 및 가옥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 실시, 완성 후 물을 직접 떠서 흘려보내는 체험 실시, 체험을 통해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토목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다. 벽골제 쌍룡, 단야낭자를 구하라!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벽골제 쌍용조형물 앞 잔디광장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참여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용탈을 쓰고 청룡과 백룡이 되어 단야낭자를 구하는 체험 프로그램 구성
- 체험방식 : 체험장내에 미로형태의 구역을 조성하고 용탈을 쓴 체험객들이 출구에 위치한 단야낭자를 미로를 찾아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 (단야낭자의 경우에도 체험객 중 한명을 선발하여 단야낭자 복장 착용 후 진행)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라.벽골제 축조설화 애니메이션 관람(단야낭자와 쌍룡 이야기)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1층 체험학습실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벽골제 축조설화 단야낭자와 쌍룡 이야기 애니메이션 관람(15분),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마.설화속 쌍룡 만들기 체험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1층 체험학습실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원목 퍼즐을 활용하여 용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진행요원의 설명에 따라 만들어 보는 체험방식으로 진행, 제작과정을 동영상 혹은 PPT로 제작하여 체험객들의 쉬운 이해 도모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바. 문화트래킹 : 벽골제 제방 연 날리기, 날아라 용!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벽골제 제방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용의 머리를 형상화한 연을 날리는 프로그램, 연 배포시 얼레도 함께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날릴 수 있도록 진행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사. 방문객과 함께하는 쌍용놀이 공연

- 기　　간 : 2012. 10. 10 ~ 10. 14 (5일간)
- 장　　소 : 벽골제 광장
- 참여대상 : 관광객
- 주요내용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쌍룡놀이를 시연하여 방문객들에게 벽골제 축조설화를 직,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쌍용놀이 시연 후 방문객들이 직접 쌍룡 모형속으로 들어가 쌍용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방식 병행
- 추진일정 : 2012. 10. 10 ~ 10. 14 (총 3회)

아. 박물관 속 벽골제 보기

- 기　　간 : 2012. 4월 ~ 9월
- 장　　소 :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및 농경사주제관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회당 50명 내외)
- 주요내용 : 해설사와 함께 벽골제에 조성되어 있는 농경사주제관과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구성, 농경문화속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벽골제의 중요성 재 인식
- 추진일정 :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주말 중심으로 구성)

자. 지평선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재 생생체험

- 기　　간 : 2012. 10. 10 ~ 10. 14 (5일간)
- 장　　소 : 벽골제
- 참여대상 : 성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
- 주요내용 : 벽골제 장생거 수문모형 만들기 및 설화 속 쌍룡 만들기, 벽골제 제방 연 날리기 프로그램 진행, 쌍룡 만들기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방문객으로 인하여 체험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이컵 및 모루 등을 활용한 쌍룡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진행, 축제에서 진행되는 쌍룡놀이,· 단야낭자 인형극, 입석 줄다리기 등 벽골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
- 추진일정 : 2012. 10. 10 ~ 10. 14 (5일간)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4월 ~ 9월	벽골제 관련 프로그램	• 주말중심 실시 • 회당 50명 내외 방문객 유치 • 총 6회 프로그램 운영 • 전체 300명 유치	
4월 ~ 9월	쌍용놀이 관련 프로그램	• 주말중심 실시 • 회당 50명 내외 방문객 유치 • 총 6회 프로그램 운영 • 전체 300명 유치	
4월 ~ 9월	박물관 속 벽골제 보기	• 주말중심 실시 • 회당 50명 내외 방문객 유치 • 총 6회 프로그램 운영	

		• 전체 300명 유치	
10.10~10.14 (5일간)	지평선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재 생생체험	• 축제기간동안 실시 • 총 6개 프로그램 운영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생생사업 운영 및 관리총괄	1명	비상근
체험팀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총괄	1명	비상근
운영지원	사업기획, 운영, 섭외 및 홍보	2명	비상근
자원활동	공연참여 및 해설요원	72명	비상근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체험안내 보조	4명	비상근
계		80명	

4.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요원은 체험객 방문시 사전교육 실시
- 화재예방 : 김제소방서 대응구조과(063-540-4230) / 행사장내 소화기 비치
- 응급환자발생시 : 김제시 보건소(063-540-1307)
- 안전사고 :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063-540-1499)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홍보(언론, 홈페이지, 교육청 및 학교), 쌍용놀이 공연지원, 시설 지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한옥숙박체험 관리 및 지원
민간단체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소품 및 진행, 행사운영 등

6. 홍보계획

- 전국 및 전북 지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언론 홍보 및 팸투어 실시
- 국내 체험여행 전문 여행사와의 협조를 통한 투어상품 개발
- 김제시 홈페이지(http://culture.gimje.go.kr)를 통한 홍보
- 김제지평선축제 연계를 통한 광역 홍보

[2012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에서 놀아보기>

- 기　　간 : 2012년 4월 – 12월 (총 6회)
- 장　　소 : 제주도내 초등학교 중 신청학교(8군데)
- 참여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및 교사
- 주요내용 : 본향당이야기 / 신화(당본풀이, 영등할망본풀이, 영감본풀이 등)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 기메전지를 이용하여 신화 속 인물을 형상화하고 역할극을 진행함 / 연물장단 익히기
- 추진일정 : 월 1 회

가. 제주전통문화강좌 <궤~낭들~랑 열~두당~번 연물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

- 기　　간 : 2012년 5월 –10월 (총 15회)
- 장　　소 :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전수관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각 읍면동 민속보존회 신청단체
- 주요내용 : 연물장단 익히기 – 삼석연물, 새ᄃᆞ림연물, 푸다시연물 등 / 굿춤 익히기 – 기본춤, 수룩춤 등 / 굿소리 익히기 – 새ᄃᆞ림, 푸다시, 서우젯소리 등
- 추진일정 : 주 1회 총30회

가.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 기행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

- 기　　간 : 2012년 5월 ~ 9월 (총 5회)
- 장　　소 : 한림읍 귀덕리, 조천읍 북촌리, 구좌읍 김녕리, 성산읍 신양리, 우도면 하우목동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도내 거주 외국인, 관광객 등
- 주요내용 : 음력 2월1일 제주에 들어와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땅의 곡식과 바다의 곡식을 뿌려주고 음력 2월15일 우도를 통해 섬을 떠나는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따라 현재 영등굿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신당을 예능보유자 선생님과 함께 걸어보는 프로그램
- 추진일정 : 월 1회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2012년3월	사업기획 및 홍보, 섭외	세부사업 일정 프로그램 확정 강사 섭외 및 운영팀 구성 홍보 및 참가자모집	
2012년4월 ~ 11월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에서 놀아보기>– 본향당이야기, 신화 스토리텔링, 기메전지를 이용한 역할극	
2012년5월 ~ 9월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 기행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도내 영등굿이 진행되는 5곳 해신당 기행	
2012년5월 ~ 10월	제주전통문화강좌	<궤~낭 들~랑 열~두당~번 연물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연물, 굿춤, 굿소리 강좌	
2012년6월	중간 평가	전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평가	
2012년9월	중간 평가 정기 협의회	후반기 추진상황 점검 개선을 위한 협의회	
2012년 11월	최종 평가 및 정산	후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와 정산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운영(참가자 모집, 행사진행)	1명	상근
운영지원	행정 실무담당 (행정, 섭외, 현장실무)	5명	비상근
자원활동	현장 보조업무	5명	비상근
계		11명	상근1명/ 비상근 10명

4. 안전관리 대책

- 참가자 전원 보험 가입
- 지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각 읍,면,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체제 마련)
- 자체안전요원 상시배치
- 유의사항 사전교육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 시설물 사용협조 ○ 행사 홍보·유관단체 연계 등 각종 행정적 지원 제공
민간단체	○ 행사기획 ○ 실무 진행

6. 홍보계획

- 정기적인 홍보계획수립 –도내 언론사와 업무협약
- 제주도내 자치단체에 프로그램 운영상황 홍보 등

[1,500년 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 충남 공주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 세부 프로그램

가. '1,500년전 백제 블랙박스를 열다'-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체험

- 기　　간 : '12. 04. 01. ~ 10. 31. 매주 토요일 3회 운영(총84회)
- 장　　소 :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1-3번지 일원(수촌리고분군 내)
- 참여대상 : 개인 및 단체
- 주요내용

– 발굴교육 : 수촌리고분군을 통해 백제의 역사, 고분의 형성 및 변화과정, 부장품이 갖는 상징적 의미 등을 교육하고, 역사유물을 대하는 태도, 발굴 및 보존 방법 등을 통해 매장 문화재가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교육 실시
– 현장답사 : 실재 발굴이 이루어지는 발굴 현장을 답사하여 발굴조사의 전 과정을 살펴 봄
– 발굴체험 : 직접 발굴조사에 참여 또는 발굴유적의 성격 및 가치에 따라 유적 복토 후 실재와 같이 복원하여 모형유물을 직접 발굴하는 체험 등 다양하게 구성함
– 체험프로그램 운영
· 부장품 제작 : 수촌리고분군 출토 금동관모, 금동식리, 토기, 철기 등의 제작, 벽제문양 체험 등을 통해 백제시대 유물의 형태적 특성과 부장품이 갖는 의미 백제 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함
· 목관 제작 : 수촌리고분군의 토광목관묘 형태를 기반으로 목관모형을 제작, 직접 만든 부장품을 그 안에 넣는 등을 체험하여 백제시대 매장 풍습을 체험함
· 무덤 축조 : 수촌리고분군에서 나타난 다양한 묘제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 재질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무덤을 제작하여 고분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 : 직접 만든 부장품이나 목관을 무덤에 넣어 백제의 장례문화에 대한 직접 체험함. 또한 관에 직접 들어가보는 체험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제공함
※ 체험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표조사 체험, 유물 복원 체험, 발굴유물 촬영 체험, 발굴 도면 그리기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함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02.01. ~ 03.31.	체험장 준비 및 세부계획 확정	– 교육관, 체험장 조성 – 체험프로그램 조정 및 확정	
'12.04.01. ~ 10.31.	수촌리고분군 조사 및 발굴체험 운영	– 매주 토요일 3회 운영 – 1회 2시간 일정으로 운영 – 1회당 약 20~30명 정도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로 운영 – 교육 → 답사 → 체험 순으로 프로그램 운영 – 행사 후 진행자 워크샵 진행 (행사의 장단점 분석)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프로그램 총괄	1명	상근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3명	상근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보조	5명	상근
계		8명	상근 8명

4. 안전관리 대책

- 체험장 도착시 교육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체험장 전 지역에 대한 안전 울타리 설치
- 참가자 4~5명당 안전요원 1인 배치로 사고 예방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프로그램 총괄 관리, 행정 및 홍보
민간단체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6. 홍보계획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 프로그램 홍보 공문 발송
- 초·중학교 대상 주 5일 수업과 연계 방안 모색(충청남도 교육청과 협력관계 체결(MOU) 적극 모색)
- 각종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공주시 및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홈페이지, SNS 등)

7. 기타 참고사항

- * 본 사업은 수촌리고분군 발굴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우리시에서는 수촌리고분군 정비기본계획(2009년 수립)에 의거 체험시설들을 점진적으로 영구시설로 설치할 예정임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충남 아산시/문화기획학교

1. 세부 프로그램

가. 젊은 예술가 한국의 미에 빠지다!

- 기　　간 : '12. 03. 01. ~ 12. 31. (총2기 강좌/1회공모전/1회전시)
- 장　　소 : 충남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아산외암마을 등
- 참여대상 : 젊은 예술가(미술, 회화, 건축, 공예, 조각, 음악 등),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현업종사자 등
- 주요내용 :

– 온양민속박물관 보유 유물을 활용하여 젊은 예술가들에게 한국의 미와 전통생활사 강좌와 실습
– 다양한 예술 활동의 근간에 한국적인 정서와 모티브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젊은 예술가들의 한국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시상하고 온양민속박물관에 전시 홍보
– 온양민속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모든 강좌의 교재로 활용하고 참여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스케치 기회를 제공

- 추진일정 : 2012년 3월~12월(총10개월/2회강좌/1회공모전/1회전시), 3월 : 기획, 섭외, 홍보, 수강생모집, 강의자료준비, 4월 : 1기 강좌 진행, 5월 : 2기 기획, 섭외, 홍보, 수강생모집, 강의자료준비, 6월 : 제2기 강좌 진행, 7월 : 공모전 준비, 8월 : 공모전 준비, 9월 : 공모전 진행 및 전시회 진행, 10월~11월 : 평가 및 정산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03. 01. ~ 03. 30.	사업준비과정	기획, 섭외, 홍보, 수강생모집, 강의자료준비 등	
'12. 04. 01. ~ 04. 30.	1기 강좌진행	2박3일(15강좌, 33시간) 1기 강좌진행	
'12. 05. 01. ~ 05. 30.	2기 준비과정	기획, 섭외, 홍보, 수강생모집, 강의자료준비 등	
'12. 06. 01. ~ 06. 30.	2기 강좌진행	2박3일(15강좌, 33시간) 1기 강좌진행	
'12. 07. 01. ~ 08. 30.	공모전 준비	한국인의 미학 디자인 아카데미 공모전 준비	
'12. 09. 01. ~ 09. 30.	공모전 진행 기획전시 진행	한국인의 미학 디자인 아카데미 공모전 진행 기획전시 진행	
'12. 10. 01. ~ 11. 30.	결과보고 정산	결과보고 정산진행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사업단장	총괄	1명	상근
책임강사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1명	상근
학예실장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1명	상근
실무간사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1명	상근
계		4명	상근 4명

4. 안전관리 대책

-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보험가입
-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가. 사업기획 지원방안 ㅇ 아산시 관내 온양민속박물관과 아산외암마을 등 활용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행정적 지원제공 ㅇ 공모전 수상에 자치단체장 상 지원 ㅇ 담당공무원과 사업기획 공동진행 지원 나. 사업운영 지원방안 ㅇ 아산시 운영 홍보매체 활용지원 다. 향후 사업 활용계획 ㅇ 온양민속박물관을 거점으로 한국생활사와 한국의 미의 중심으로 아산시 브랜드 이미지 업
민간단체	가. 사업총괄 기획 진행 ㅇ 문화재생사업 총괄 기획 진행 ㅇ 전국 홍보 및 수강생 모집 관리 ㅇ 강사 섭외 및 강의 준비 진행 ㅇ 온양민속박물관과 협업체계 진행 나. 공모전 준비 진행 ㅇ 한국인의 미학 디자인 아카데미 공모전 준비 진행 ㅇ 공모전 전국 홍보 및 심사, 수상 진행 ㅇ 문화재청, 아산시청, 온양민속박물관 협업 다. 전시회 준비 진행 ㅇ 한국인의 미학 디자인 아카데미 전시 진행 ㅇ 도록 제작 및 공모전 전시 대외 홍보 진행

6. 홍보계획

- 전국 예술대학 중심으로 타깃을 설정하고 홍보매체 전달 및 공문발송
- 한국디자인협회 등 기관, 단체 대상 홍보진행
- 온양민속박물관 전시 참가자격 부여 등 공모대상자 베너핏 제공
- 아산시 예술가, 대학생 집중 홍보 및 전국단위 홍보 병행

7. 기타 참고사항

- 에스모드 서울 위탁교육 협약 진행
- 문화기획학교와 온양민속박물관 MOU체결

[문화가 흐르는 화양서원, 가고싶은 그곳 생생체험] 충북 괴산군/화양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1. 세부 프로그램

가. 화양서원 생생 문화체험

- 기　　간 : '12. 5. 11 ~ 10. 26(격주 토요일-12회)
- 장　　소 : 화양서원
- 참여대상 : 학교단체체험, 사회단체체험, 화양동 관광객 일반
- 주요내용 : 화양구곡 선비길 걷기, 화양서원 선비학교, 화양서원 자료 및 사진 전시, <비례부동> 탁본 체험, 화양구곡도와 우암 송시열 글씨 판화 찍기, 선비 경행(敬行) 체험, 경서 성독, 화양동 보드게임 등
- 추진일정 : '12. 5. 11 ~ 10. 26(격주 토요일-12회)

나. 화양동 선비풍류축제

- 기　　간 : '12. 10. 27 일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총 1회)
- 장　　소 : 화양서원과 그 일대주변
- 참여대상 : 지역주민, 화양동 관광객, 학교단체, 화사모회원
- 주요내용 : 일반 체험행사, 화양구곡별 퍼포먼스, 화양서원 음악회, 함께하는 화양동락 등
- 추진일정 : 화양동 생생체험 마지막날 10월 27일 선비풍류문화제 개최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1. 5. 12 ~ 10. 27 (매주 토요일)	화양서원 생생문화체험	○비례부동 탁본 체험 ○선비 경행 체험 ○경서 성독 ○화양동 보드게임 ○판화찍기	
'12. 5. 12 '12. 6. 9 '12. 7. 14 '12. 8. 11 '12. 9. 15 '12.10. 13 (매월 둘째주 토요일)	화양구곡 선비길 걷기 (6회)	○화양구곡 트레킹 ○서낭당 소원 소지 ○암서재 시조짓기 ○생태 체험 ○파천 3차 철학	
'12. 5. 26/27 '12. 6. 23/24 '12. 7. 21/22 '12. 8. 25/26 '12. 9. 22/23 (매월 마지막주 토/일요일)	화양서원 선비학교 1박2일(5회)	○성학십도 강독 ○시조창 배우기 ○추구 교실 ○뉴-활인심방 및 요가체험 ○구곡선비길 달빛걷기	
'12. 10. 27	화양동 선비 풍류문화 축제 (1회)	○일반 화양서원 체험행사 ○특별 체험행사 ○특별 문화행사(풍물공연,시조창,대금,음악회공연등)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운영위원장	체험 프로그램 총괄	1	화사모 운영위원장
전문강사	문화재 해설 및 특강, 학술지원, 현장요원 교육지원	1	화사모 회원
현장운영팀	각 체험프로그램 현장 운영(강사), 문화해설 강의, 현장운영지원, 안전관리 및 체험단 안내	3	화사모 회원
프로그램 개발팀	교재기획 및 개발, 외부강의 기획, 외부강사 섭외 (레크레이션, 성리학, 등)	3	화사모 회원 외부전문가
홍보마케팅팀	홈페이지 운영, 학교기관 홍보, 대외 홍보 전반 기획 및 섭외	3	화사모 회원 외부전문가
계		11	

4. 안전관리 대책

- 소방 및 안전관리 등 위해요소 제거
- 교육장 뒷정리 및 주변 유적 청소 및 관리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사업 프로그램 자문 전문가 검토 지원, 괴산문화원 등 문화관련 단체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민간단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해설(단체동행 등) 및 안내, 관련 문화사업 기획/진행

6. 홍보계획

- 종합 안내책자(홍보물)를 통한 학교 대상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방안 강구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충북 영동군/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1. 세부 프로그램

가. 영동 은행나무 및 문화재(망탑봉삼층석탑, 보물 제535호) 등 일원 환경정비

- 기 간 : '12. 3 ~ '12. 11 (총9회)
- 장 소 : 천태산 영국사 은행나무, 망탑봉삼층석탑 등
- 참여대상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 회원, 마을주민
- 주요내용 : 천태산 은행나무 주변 환경정비 및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
- 추진일정 : '12. 3 ~ '12. 11

나. 천년 은행나무 생명 스테이

- 기 간 : '12. 4 ~ '12 . 10(1박2일, 총7회)
- 장 소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 사무실
- 참여대상 : 학생, 지역주민, 일반인, 전국 문화예술인 및 애호가(20명 내외)
- 주요내용 : 천년 은행나무 생명 스테이, 천년 은행나무 자연, 생명, 평화 문화강좌, 영동 영국사 은행과 은행잎을 활용한 공작활동, 가마솥 영양은행밥상 차려 먹기, 망탑봉삼층석탑 해맞이 및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나누기 명상체험,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판화 찍기 체험
- 추진일정 : '12. 4 ~ '12 . 10

다.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공모

- 기 간 : '12. 6 ~ '12. 7 (총1회)
- 장 소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 사무실
- 참여대상 : 전국 문인 및 문학애호가
- 주요내용 : 천태산 및 은행나무 관련 작품(시) 공모, 천태산 및 은행나무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순수 창작물 (미발표작), 기타 본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품, 훈격 : 대상 1편—문화재청장상, 상금 2,000,000원, 훈격 : 최우수작 1편—천은사대표상, 상금 1,000,000원, 방법 : 문학작품(시) 공모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매체 활용홍보
- 추진일정 : 공모 : '12. 6~'12. 7, 발표 : '12. 8. 15, 시상 : '12. 10월 중

라.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시화(샌드브르스트) 설치

- 기 간 : '12. 10(총1회)
- 장 소 : 천태산 은행나무 일원
- 참여대상 :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공모 당선작 2편
- 주요내용 :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시화(샌드 브러스트) 설치
- 추진일정 : '12, 10월 중

마. 천태산 및 은행나무 사화집

- 기 간 : '12. 9(총1회)
- 장 소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
- 참여대상 : 전국 문인 및 문학애호가
- 주요내용 : 천태산 및 은행나무 관련 사화집 발간, 천태산 및 은행나무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순수 창작물,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공모 당선작 2편
- 추진일정 : 원고모집 공고 : '12. 6. 1, 원고마감 : '12. 7. 30, 발간 : '12. 9월 중

바. 천태산 일원 걸개 시화전

- 기　　간 : '12. 9 ~ '12. 11(총3회/90일)
- 장　　소 : 천태산 일원
- 참여대상 : 전국 문인 및 문학애호가
- 주요내용 : 천태산 및 은행나무 걸개 시화전, 천태산 및 은행나무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순수 창작물,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당선작 2편, 방법 : 실사 현수막 제작 전시, 매달 작품 교체 3회 전시
- 추진일정 : '12. 9~'12. 11(9, 10, 11(작품 교체)

사.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詩祭)

- 기　　간 : 2012년 10월 27일(총1회)
- 장　　소 : 천태산 영국사 은행나무 앞
- 참여대상 : 영동군민, 천태산 등산객, 영국사 내방객, 전국 문화예술인
- 주요내용 :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

-제1부 : 고유제 축문 낭독, 판굿(비나리), 사화집 출판기념회,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문화재청장상 등) 시상,
-제2부 : 천태산 은행나무 퍼포먼스/은행나무 시노래, 은행나무 시낭송, 천태산 은행나무 생명의 춤 공연, 국악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
-기타 : 가마솥 영양은행밥상 차려 먹기, 영국사 은행나무 판화 찍기 체험, 은행나무 소재 부채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등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1	추진위원회 조직	추진조직 체제 확정	추진기관내 조직
'12. 2	행사 프로그램 준비	추진위원 운영, 관계기관 섭외	회원 연수 일정 확정
'12. 2	세부 프로그램 확정	천은사 회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위 역할 분담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 위원 구성	세부 프로그램 확정 및 진행
'12. 2 ~'12. 11	홍보 및 마케팅	홍보책자 발간 배포 및 인터넷 카페 운영, 언론 매체 보도자료 배포 지속 운영	추진위원내 홍보 운영팀
'12. 3 ~'12. 12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및 문화재(망탑봉삼층석탑, 보물 제535호) 등 일원 환경정비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및 망탑봉삼층석탑 등 일원 환경정비,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	총10회 마을 주민 및 회원
'12. 4 ~'12. 10	천년 은행나무 생명 스테이	천년 은행나무 자연, 생명, 평화 문화강좌, 영국사 은행나무 은행과 은행잎을 활용한 공작활동, 망탑봉삼층석탑 해맞이 및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나누기 명상체험, 가마솥 영양은행밥상 차려 먹기,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판화 찍기 체험	총7회 1박2일(세부프로그램 일정표 참조)
'12. 6 ~'12. 10	천태산은행나무문학상 공모 및 시화(샌드브러스트)설치	천태산 및 은행나무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순수 창작물, 기타 본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품. 천태산 은행나무문학상 대상 및 최우수작품상(문화재청장상,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대표상) 수상작품 2편 시화(샌드브러스트) 설치	총1회 전국 문인 및 문학애호가
'12. 9 ~'12. 11	천태산 및 은행나무 사화집 발간 및 걸개 시화전	천태산 및 은행나무 특색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순수 창작물, 천태산 및 은행나무 관련 작품(시) 공모 수상작, 자연, 생명, 평화 관련 작품(시)	총1회 천국 문인 및 문학애호가 작품 (시) 모음집 총3회 실사 현수막 제작 걸개 시화

			전시(9, 10, 11)
‘12. 10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詩祭)	제1부: 시제/고유제 축문 낭독 및 판굿(비나리), 사화집 출판기념회, 시낭송, 시노래,천 태산은행나무 공모 최우수작 문화재청장상 시상식. 제2부 : 천태산 은행나무 퍼포먼스/은행나무 생명의 춤, 은행나무 시노래, 은행나무 시낭송, 국악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 기타 : 가마솥 영양은행밥상 차려 먹기, 천태산 은행나무 판화 찍기, 천태산 은행나무 소재 부채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총1회 *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세부프로그램 일정표 참조)
‘12. 12	사업집행 성과 보고서 작성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사업 종합 성과 보고서 작성	총1회
‘12. 1	사업집행 성과 보고서 제출	‘천년 은행나무 생명의 숨결 따라 생생(生生)’ 사업 종합 성과 보고서 제출	총1회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프로그램 진행 총괄	3명	천은사 대표 천은사 사무국장
추진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	15명	추진위원
프로그램 개발팀	프로그램 기획, 외부강사 섭외, 홍보	7명	추진위원
자원활동	세부 프로그램 운영 보조	40명	천은사 회원
계		64명	상근1명/ 비상근63명

4. 안전관리 대책

- 자연환경의 재난요소 존재
  - 일기예보에 대한 모니터 철저
  - 우천 시 일정 변경
  - 영동군 119와 연계 인근 대기 요청
  - 추진위원 및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 시행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활용에 대한 관리 대책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의 관리 철저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훼손 방지 교육
  - 화재관리, 소화기 등 안전 장비 비축
  -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 및 안전 팻말 등 설치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 문화재 주변 잡목, 잡초 제거
  - 문화재 주변 금연 팻말 등 설치
  - 문화재 주변 오수 방출 금지
- 세부 행사장의 협소한 장소
  - 안전 범위 확보
  - 천은사 회원 조직을 통한 전방위 안전대책 홍보

– 관내기관의 협조 지원 유도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생생 문화재 프로그램 홍보(영동군 홈페이지 게시) 영국사은행나무(천연기념물) 주변 정비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민간단체	2012년 문화재 생생사업 추진위 구성, 제반 문화재 생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6. 홍보계획

– 홍보 마케팅팀 구성
  • 프로그램 개발팀 내 홍보 마케팅팀을 구성한다.
  • 세부 프로그램 홍보 책자(리플릿) 및 홍보 기획안, 홍보 전략 등을 마련한다.
– 홍보 전략
  • 영동군 홈페이지 및 자매 도시 홍보물 게시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 인터넷 카페 운영
  • 리플릿 제작 배포(천은사 회원, 전국 문화예술단체, 전국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생태, 농수산림관련 학과, 시민사회단체 등)
  • 주요 문화 예술 기관, 단체 직접 방문 참가 유도
  • 방송 및 언론 매체 보도자료 배포 기사화
  • 영국사 문화관광해설사 및 천태산 숲 해설사를 통한 홍보(리플릿 배포 등)

7. 기타 참고사항

– 천태산은행나무를사랑하는사람들사무실 개소
  • 기간 : 2009년 2월 1일
  • 소재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36번지
  • 등록 : 2010년 12월 24일 비영리민간단체(제2010-1-충북-16호) 인가
– 천태산 은행나무 홍보 전시관 개소 예정
  • 일시 : 2012년 3월 1일
  • 전시물 :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관련 자료 일체
– 전국 문화예술 단체 네트워크 구성
  • 기간 : 2012년 2월~ 11월
  • 방법 : 천은사 전국 회원을 통해 2012년 문화재 생생사업 홍보, 각 지역 지역주민 등 문화단체 자발적 참여 유도
  • 추진 일정 : '12, 3~'12, 11

[토성은 살아있다. 정북동 토성 생생체험] 충북 청주시/(사)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1. 세부 프로그램

가. 선사시대 토성 캠프 1박 2일(토~일)

- 기　　간 : '12. 5.　30. ~　10.　31. (총 2회)
- 장　　소 : 청주시 정북동 토성
- 참여대상 : 토성 탐방객. 문화재 지킴이 가족. 청소년.
- 주요내용 :

– 정북동 토성에서 선사시대 1박 2일 체험 캠프를 통하여 과거의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 정북동 토성의 유, 무형 생생체험을 통하여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일깨우고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이 되게한다.
–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되게 한다.

- 주요 프로그램

– 움집 만들기. 발굴체험하기. 솟대 만들기. 연날리기
– 신나는 군사 놀이(목책 만들기. 활쏘기. 바구니 터트리기)
– 음식체험(토기에 밥하기. 돌 구이, 감자. 고구마)

- 추진일정 : 5월 : 세부 프로그램 작성. 진행자, 자원봉사자 선정, 6월 : 청주시민신문. 일간지 기사. 참가자 모집(1개월전), 7월. 9월 : 프로그램 진행

나. 정북동 토성 연 날리기 한마당

- 기　　간 : '12.　10.　13 (토요일) – (총 1회)
-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정복동 토성
- 참여대상 : 전국 연 동우회. 토성 탐방객. 문화재 지킴이 가족. 청소년.
- 주요내용 : 사적 412호인 정북동 토성에서 연 날리기 한마당을 개최하고 삼국시대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연 및 전통 놀이를 실시한다.
- 주요 프로그램 : 전문가 연 시현 연 날리기 대회 (오후 2시 ~ 4시), 정북동 토성 연 날리기 한마당 (오후 3시 ~ 5시), 창작 연 만들기 (오후 2시 ~ 3시), 예술연 전시 및 묘기연 시현 (오후 1시 ~ 5시), 전통놀이 및 바구니 터트리기 (오후 2시 ~ 4시), 전통 공연 및 국화차 시현(오후 5시), 시상식 (오후 5시 20분), 연 날리기 한마당 시상
- 추진일정 : 9월 : 세부 프로그램 작성, 10월 : 진행자, 자원봉사자 선정, 11월 : 프로그램 진행, 평가 활동

가. 정북동에서의 신나는 생생 역사교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 기　　간 : '12.　4.　1. ~　11 . 30. 격주 토요일. 평일 (총 14회)
- 시　　간 : 격주 토요일. 평일 각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진행
-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정복동 토성
- 참여대상 : 초, 중, 고 청소년
- 주요내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초, 중, 고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적 412호인 정북동 토성에서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 장소로 진행한다.
- 주요 프로그램 : 목판 인쇄 창의적 체험 활동, 연 날리기 창의적 체험 활동, 발굴 체험을 통한 진로 창의적 체험 활동, 토성 스토리텔링 적성하기 창의적 체험 활동, 전통 체험(불 피우기. 탈 만들기) 창의적 체험 활동, 전통 음식 창의적 체험 활동, 즐거운 병영놀이, 목책 만들기와 활쏘기, 즐거운 전통 놀이
- 추진일정 : 2월 : 세부 프로그램 작성. 3월 : 진행자, 자원봉사자 선정, 4월 ~ 11월 : 프로그램 진행, 11월 : 평가 활동

2.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2. 2 . 1. ~ 2. 30.	계획서 수립	•세부계획서 수립 •진행요원 선발	

		•자원봉사자 구성	
'12. 3. 1. ~ 3. 30.	프로그램 준비	전체 프로그램의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진행및 봉사활동 인원과 홍보물, 진행물품의 확인 •프로그램 진행요원 확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확정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진행 물품 제작	
'12. 6. 1. ~ 9. 30.	선사시대 토성 캠프 1박 2일	선사시대 토성 캠프는 토,일 양일에 걸쳐 50 이내의 참여인원이 내실있게 진행될수있도록 준비. •4월 : 토성캠프 홍보 •5월 : 참가자 접수 •6월 : 토성 캠프 진행 •9월 : 토성 캠프 진행	
'12. 9. 1. ~ 10. 13.	정북동 토성 연 날리기 한마당	정북동 토성에서 생생체험으로 연날기대회 한마당을 개최한다. •9월 : 기본계획서 수립 홍보 참가자 접수 •10월 : 프로그램 진행. 평가	
'12. 4. 1. ~ 11. 20.	생생 역사교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되도록 준비한다. 학교 단체 탐방객이 중심이 되게 계획 •3월 : 창의적 체험 활동 홍보 •4월 ~10월 : 프로그램 진행 •11월 : 평가	

3. 운영 인원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사업계획. 총괄 진행 (연복흠 국장)	1명	상근
운영지원	프로그램 기획. 진행 (엄기원 팀장)	1명	상근
자원활동	프로그램 기획 (최희열 팀장외 2인)	3명	상근
체험활동 보조	체험 프로그램, 교육 활동 보조(유대열외9인)	10명	비상근
계		15명	상근5명/ 비상근10명

4. 안전관리 대책

- 참가자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 프로그램 진행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안전관리
- 자체적인 약품 구비. 안전요원 담당자 확정

5. 지자체/민간단체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정북동 토성 사용 시설 제공. 재정지원. 홍보 협조. 평가활동
민간단체	프로그램 진행. 진행요원 교육. 홍보활동.

6. 홍보계획

- 초, 중, 고 창의적 체험 학습 홍보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http://cbjikimi.org/)

- 충북지역 생생체험 단체들과 연계한 홍보활동
-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2,500여명)
- 블로그, 카페를 활용한 홍보(청소년 학습 체험 활동)
- 각종 언론 보도자료 배포(지역 일간지. 방송)
- 청주 시민신문. 충청북도 도정 소식지 홍보